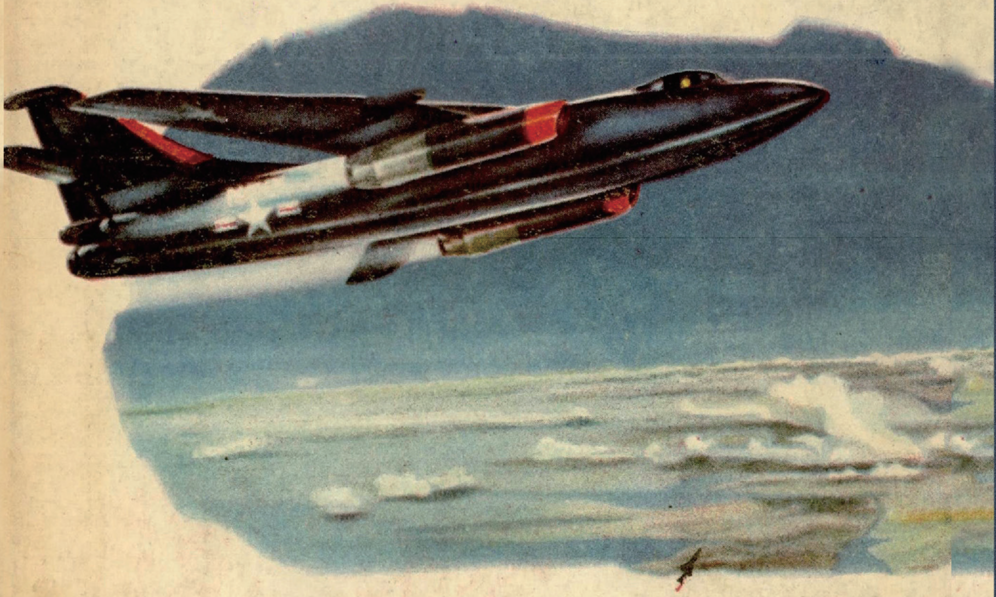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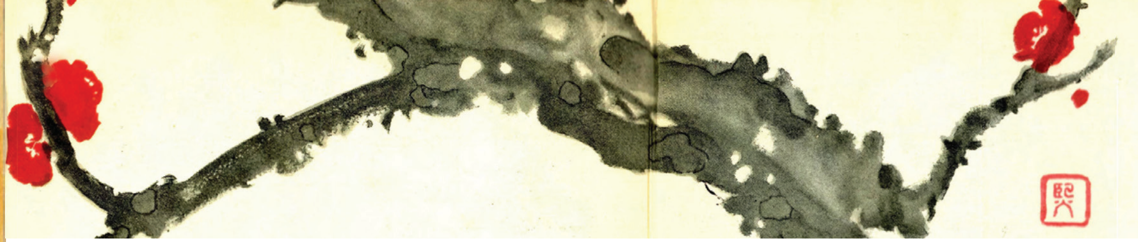
THE COMET

코메트



第19號



일러두기

1. 한자로 된 지명과 인명은 한자 병기를 원칙으로 함(한국, 중국, 일본).

◆ 한국 지명과 인명은 한문 직역으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한자 병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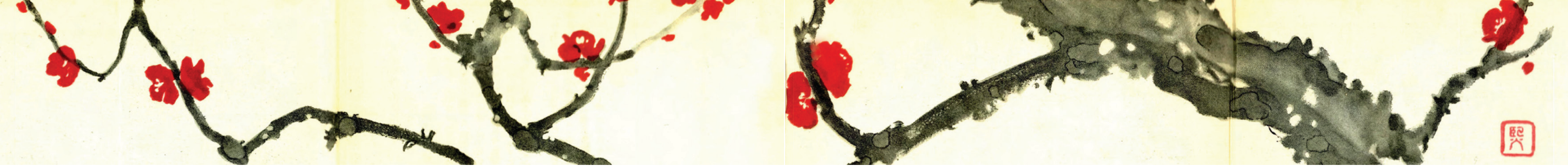
大邱 → 대구(大邱)
安東 → 안동(安東)
李承晩 → 이승만(李承晩)
金貞烈 → 김정렬(金貞烈)
崔用德 → 최용덕(崔用德)
金日成 → 김일성(金日成)
등등

◆ 중국 지명과 인명은 중국 발음에 따른 현재 표기법으로 함.

臺灣 → 대만(臺灣)[타이완] 또는 타이완
北京 → 북경(北京)[베이징] 이하 같음.
上海 → 상해(上海)[상하이]
香港 → 향항(香港)[홍콩]
金門島 → 진먼다오(金門島)
安東 → 안둥(安東)
瀋陽 → 선양(瀋陽)
延安 → 옌안(延安)
蔣介石 → 장제스(蔣介石)
毛澤東 → 마오쩌둥(毛澤東)
등등

◆ 일본 인명과 지명은 일본어로 표기

羽田 → 하네다(羽田)
東京 → 도쿄(東京)



茨城 → 이바라키(茨城)
橫須賀 → 요코스카(橫須賀)
久里濱 → 구리하마(久里濱)
立川 → 다치카와(立川)
土浦 → 쓰치우라(土浦)
相模原 → 사가미하라(相模原)
目黑 → 메구로(目黑)
昭和 → 소와(昭和)
등등

2. 한자로 된 나라이름과 지명은 옛 이름을 현재 명칭으로 수정 처리함(한국, 중국, 일본 제외).

◆ 나라이름
丁抹 → 정말(丁抹)[덴마크] 또는 덴마크
瑞西 → 서서(瑞西)[스위스] 이하 같음.
越南 → 월남(越南)[베트남]
和蘭 → 화란(和蘭)[네덜란드]
瑞典 → 서전(瑞典)[스웨덴]
波蘭 → 파란(波蘭)[폴란드]
등등

◆ 지명
華府 → 워싱턴
壽府 → 제네바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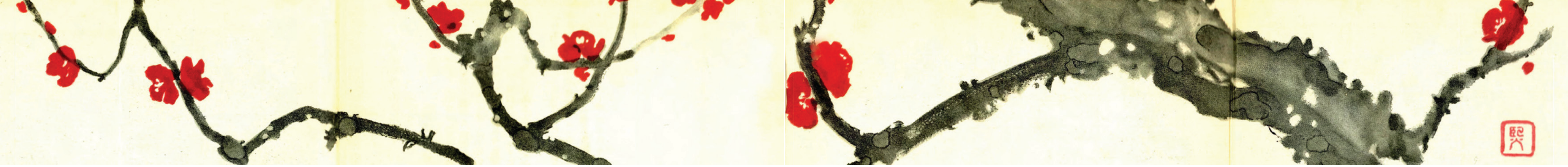
3. 자주 나오는 한자는 이해하기 쉽게 의역하여 사용하였음.
其(後, 一) → 그 (후, 1)
然이나 → 그러나
此(에) → 이(에)
등등

4. 숫자 표기는 천 단위로 나눠 표기함
3000명 → 3,000명
등등

5. 한글 표기법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수정 처리함.
◆ 인명, 나라이름, 지명은 현재 사용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나포레옹 → 나폴레옹
나폴레온 → 나폴레옹
에밀·솔라 → 에밀·졸라
트루만 → 트루먼
스타—린 → 스탈린
처어칠 → 처칠
꾀에테 → 괴테

펜실바니아 → 펜실베이니아
모스코building → 모스크바
베르링 → 베를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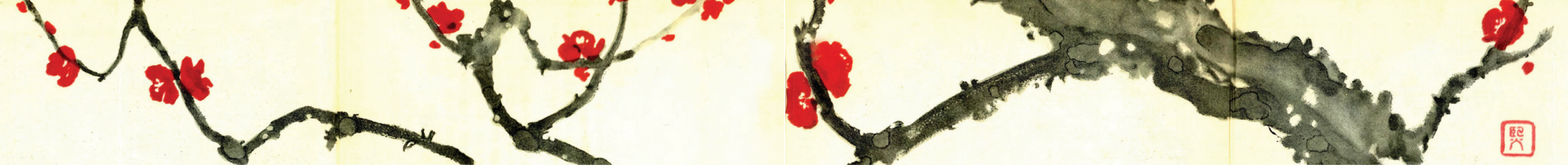
치리 → 칠레
로오마 → 로마
로시아 → 러시아
란든 → 런던
루우마니아 → 루마니아



필랜드 → 핀란드
헝가리이 → 헝가리
불가리야 → 불가리아
토이기 → 터키
포올랜드 → 폴란드
등등

◆ 한글 맞춤법 표기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받았)읍니다. → (받았)습니다. (왔)읍니다 → (왔)습니다
이루워질 → 이루어질
(없었)드(라면) → (없었)더(라면)
할려면 → 하려면
키로 → 킬로
메터어 → 미터
가(요) → 까(요)
문직이 → 문지기
부쨉힌다 → 붙잡힌다
(사나이)었어 → (사나이)였어
알다싶이 → 알다시피
더부러 → 더불어
날으는 → 나는
(남)어, 었 → (남)아, 았
반짝어리는 → 반짝거리는
죄그만 → 조그만
벌서 → 벌써
올 꺼야 → 올 거야
씨운 → 씌운
오랭캐 → 오랑캐
왔오 → 왔소
마조 → 마주
발르고 → 바르고
무우 → 무
나헌테 → 나한테
여니때 → 여느 때
미룰려 → 미루려
하루밤 → 하룻밤
서둘를 → 서두를
즐거히 → 즐거이
고(코)저 → 고자
등등

◆ 정확한 외래어 사용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젯트 → 제트
파이로트 → 파일럿
파이롯트 → 파일럿
레셉숀 → 리셉션
포오카아 → 포카
부릿지 → 브리지
캬바레 → 카바레
샴펜 → 샴페인
인터어뷰 → 인터뷰
땐스파아티이 → 댄스파티
코—쓰 → 코스
스케쥴 → 스케줄
퍼어센트 → 퍼센트



테이불 → 테이블
쏘피아 → 소파
데리케이트 → 델리케이트
쿠우·데타아 → 쿠데타
써어클 → 써클
에피쏘오트 → 에피소드
뉴앙쓰 → 뉘앙스
등등

6. 본문에서 사용한 부호는 현재 사용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원문에서 대화일 경우「대화 내용」,— 대화내용」인 경우 → “ 내용 ”로 표시함.
   원문에서 사용한「 」,『 』가 책, 논문일 경우 →「 」로 표시함.
   원문에서 지명이나 인명에「」로 표기한 경우 →「 」삭제함.
   원문에서 … 혹은 ……… 로 점의 숫자가 다른 경우 → ……로 통일함.

7. 본문에서 대화내용은 그 맛을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표시법과 상이할 수 있음.

8. 본문에서 안보이거나 누락된 글자가 있을 경우에는 □로 표시함.

9. 이해되기 어려운 단어 등에 대해서는 그 바로 옆에 [ ]을 넣어 용어에 대한 영어 표현이나 아주 간단한 설명 또는 완벽한 용어로 이해에 도움을 주기위해 첨가하였음

10. 원문에 오류 등에 대해서는 주석이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달았음. 아울러 본문에서 어려운 한자의 의미가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달았음.

코메트 제19호 목차(目次)

〈목차(目次) 컷, 비(扉) 컷〉 우경희(禹慶熙)

☆ 뎃상 〈취미(趣味)의 미술감상(美術鑑賞) ⑲〉 앙리 마팃쓰

코메트 화보(畵報)
◇ 커드 미 5공군 부사령관 공본(空本) 방문
◇ 미 군의관 회의에 박천규(朴天圭) 대령 참석
◇ 김(金) 참모총장 일행 공군 각 기지를 시찰
◇ 숙명여대(淑明女大) 가정과(家政科) 김(金) 교수에 감사장 수여
◇ 제20전대(戰隊) 개편식(改編式)
◇ 빙구(氷球)대회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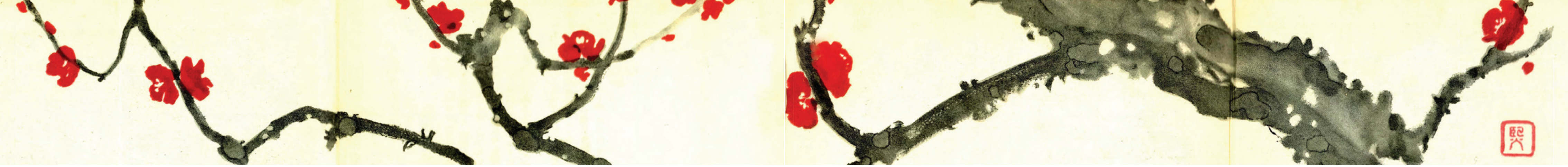
〈권두언(卷頭言)〉공산독재(共産獨裁)와 언론(言論)의 자유(自由) 이종승(李鍾勝) 2

한국(韓國)의 시련(試鍊)과 그 상징(象徵) 임병직(林炳稷) 4
1956년도(年度) 미국경제(美國經濟)의 전망(展望) 고승제(高承濟) 12
철(鐵)의 장막(帳幕)에 숨은 수수께끼의 소련공군(蘇聯空軍) 인테러비아 지(誌) 16
터키국(國)의 편모(片貌) 정태시(鄭泰時) 26
독(獨), 불(佛), 이(伊) 1일1야기(一日一夜記) 송정훈(宋政勳) 136

인생(人生)과 예술(藝術) - 예술(藝術)은 생활(生活)에 필요(必要)한 것인가 -
이상조(李相助) 60

수필신춘(隨筆新春)
신춘유감(新春有感) 안호삼(安鎬三) 69
실향사민(失鄕私民) 이하윤(異河潤) 73
왜색영어일소(倭色英語一笑) 김명수(金明水) 72
나이 한철영(韓徹永) 75

원자전(原子戰)과 그 방어책(防禦策) 조규상(曺圭常) 114



리더십 문제(問題) 데비드 에프 맥키, 이태현(李泰鉉) 역(譯) 149
군인(軍人)을 위한 윤리(倫理) 김기석(金基錫) 132

☆ 해외만화선(海外漫畵選) 97
☆ 가위와 풀 이곳저곳
☆ 인류사회(人類社會)에 공헌(貢獻)한 사람들(베토벤) 11

특집(特集)
전망(展望)의 과학(科學)
제트 스트림 이원철(李源喆) 34
원자력시대(原子力時代)에 있어서의 나의 꿈 윤세원(尹世元) 51
원수폭(原水爆)과 기상(氣象) 38
화성탐험(火星探險)을 싸고도는 문제(問題) 리촤드슨 43

제2회 아세아야구대회참가기(亞細亞野球大會參加記) 김영조(金永祚) 98
꿈은 어떻게 해석(解釋)되는가 외지(外誌)에서 138
전도요원(前途遼遠)한 서독(西獨)의 재무장(再武裝) 외지(外誌)에서 144

골프와 건강(健康) 김동준(金東濬) 55

맥아더 장군(將軍) 약전(略傳) 158
—노병(老兵)은 죽지 않았다. 단지 사라져 갈 뿐이다—

새로운 항공시대(航空時代)를 가져올 제트여객기(旅客機) 외지(外誌)에서 109
히틀러는 제2차(第二次) 대전(大戰)에서왜 패망(敗亡)하였는가? 외지(外誌)에서 86

☆ 해외만화선(海外漫畵選) 여기저기
☆ 인류사회(人類社會)에 공헌(貢獻)한 사람들(링컨) 156

이조오백년(李朝五百年) 기담(奇譚) 서성배(徐成培) 180

현대미술(現代美術)의 이해(理解)를 위(爲)하여 정규(鄭圭) 175

명곡감상(名曲鑑賞)
베토벤의 전원교향곡(田園交響曲) 104
차이콥스키의 교향곡(交響曲) 비창(悲愴) 106

나폴레옹과 데지래(명화(名畵)스토리〉 석순(石旬) 124

시(詩)
백의(白蟻) 김수영(金洙暎) 78
동양(東洋)의 산맥(山脈) 김관식(金冠植) 82
잎 허만하(許萬夏)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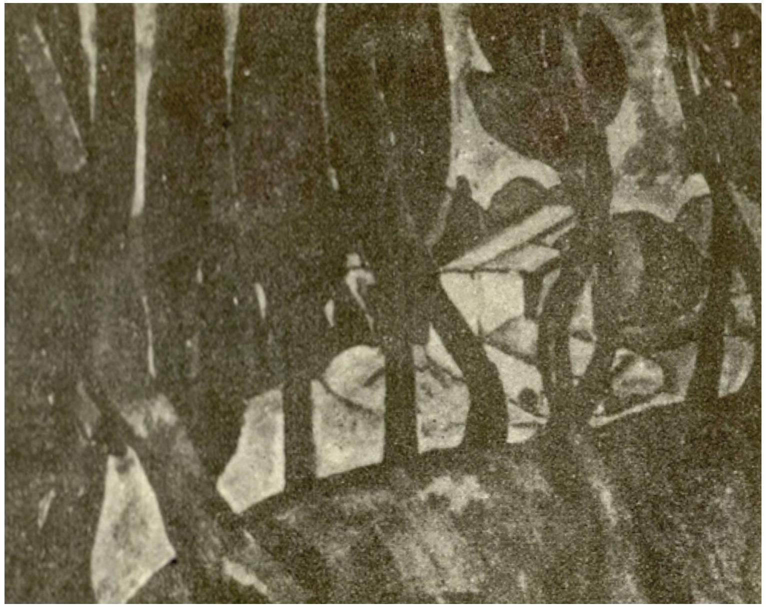
별이 총총한 밤에 라울 브란다아오, 김병룡(金炳龍) 역(譯) 188
하이얀 마음(창작(創作)) 김형덕(金炯德) 194

중간화보(中間畵報)
해방(解放) 후(後) 10년간(年間)의 명화(名畫)들

본문 178쪽 참조

“RUEIL”

모리스 드 브라망크(Mourice De Vlaminck)



본문 179쪽 참조

“Martigues의 숲”

앙드레 도랑(Andre Derain)

<취미(趣味)의 미술감상(美術鑑賞)>

야수파 회화(繪畫)(Fauvism)

야수파 운동의 주창자는 앙리 마티스[1]였습니다만 반세기가 지난 현대미술을 통해 볼 때 진실한 후오비스드로서의 회화적인 족적을 현대 미술사상에 남긴 화가들은 다음 몇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모리스 부타망크[2], 앙드레 드렝[3], 모리스 유또리로, 앙리 룻쏘[4] 등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있어서는 젊은 화가라면 거의 다 야수파 운동에 참가하였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현대미술에 근저(根底)하는 호오부적인 의식은 현대 미술의 논리라기보다는 세대적인 미술의 기운(起運)으로서 보다 더 광범위한 현대적인 의의를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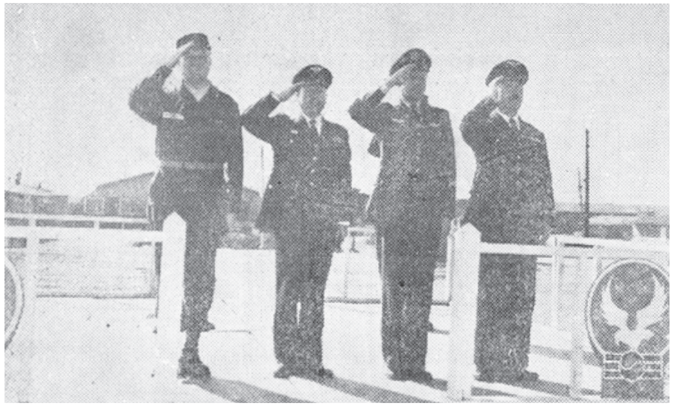
야수파 화가들 중에서도 파리(巴里)화파라고 불렀던 데카단한 경향에 속하는 화가는 따로 이야기하는 쪽이 좋을 듯하여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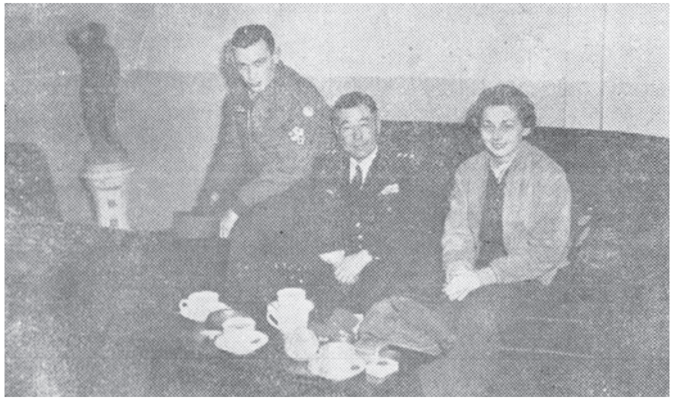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야수파 화가로서 소개하는 범위가 좁아 졌습니다.

그림과 함께 본문 중의 개설(槪說)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상에 도움이 될 줄 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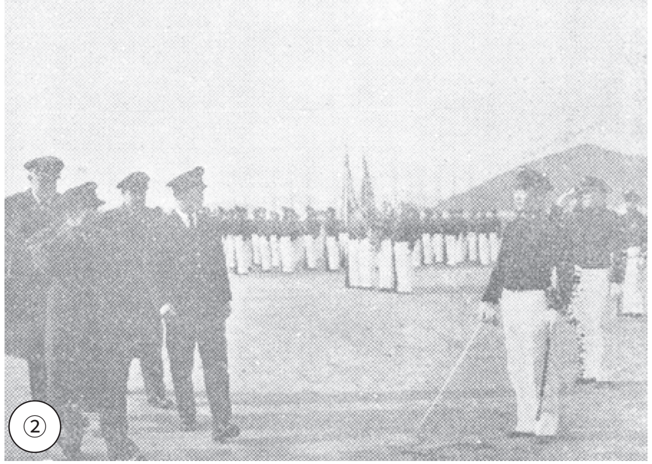
정규(鄭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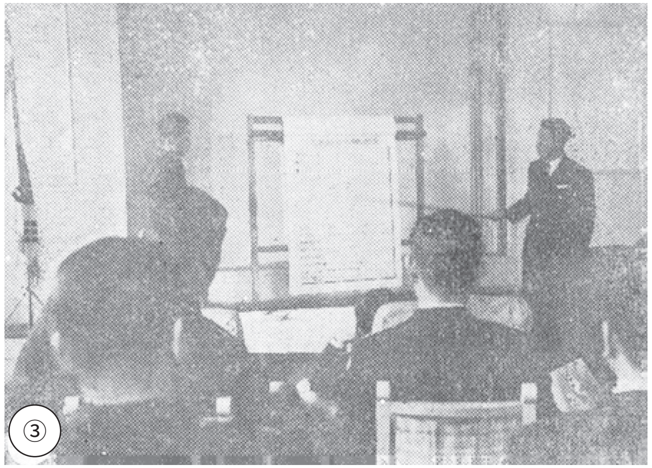
1) 원문의 알리 마팃쓰는 앙리 마티스 Henri Matisse
2) Maurice de Vlaminck
3) André Derain
4) Henri Rousse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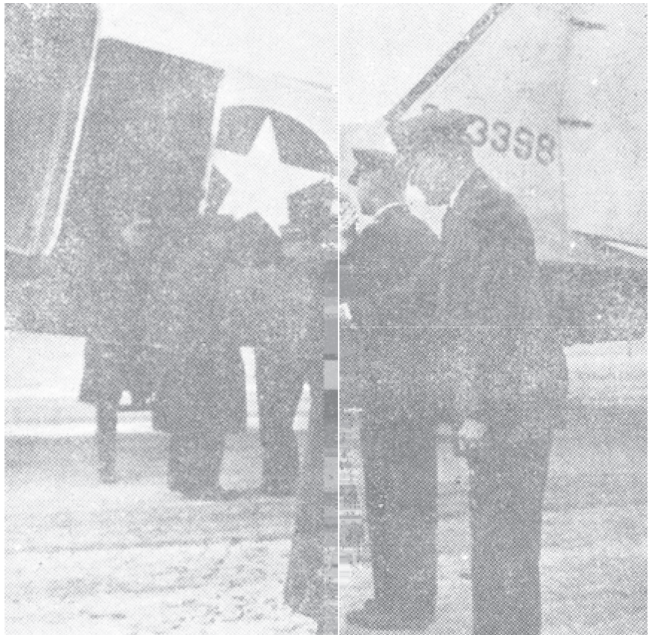

지난 2월 12일 공군본부로 김(金) 참모총장을 예방(禮訪)한 미 5공군 부사령관 터드 소장이 사열 받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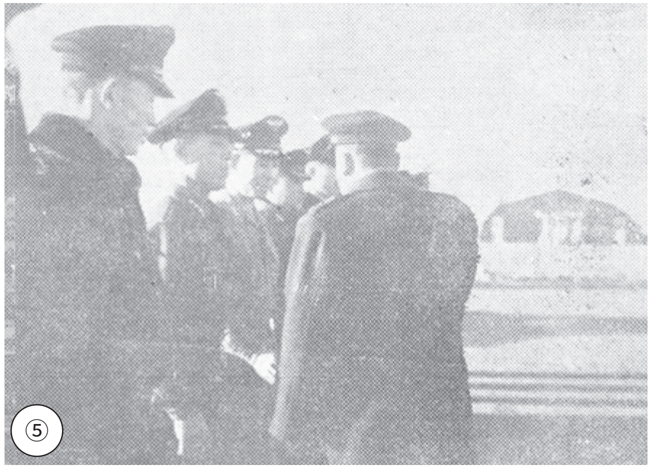

지난 5월 8일 김 참모총장을 예방한 미 성조지(星條紙) 여 기자 폴라 버언스틴 여사가 참모총장과 회견하는 장면

작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국 군의관회의에 참가한 각국 대표 군의관의 기념촬영 장면
(사진 2열 우편이 공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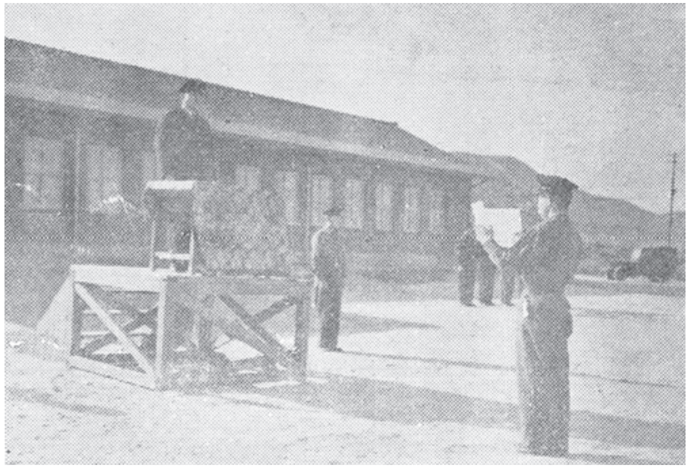




① 제5비행단에서 브리핑을 청취하는 장면

④ 제10비행단장 김성룡(金成龍) 대령의 영접을 받는 장면
⑤ 제10비행단 참모들의 영접을 받는 장면
⑥ 기술학교에서 실무교육을 시찰하는 장면

조종사의 부식개선의 연구실습을 담당한 숙명여대(淑明女大) 가정과(家政科) 주임 김병설(金秉卨) 교수에게 장성환(張盛煥) 준장이 감사장을 수여하는 장면



지난 1월 15일에 거행된 20전대 개편식 장면

지난 1월 30일 개최된 빙구(氷球) 대회에서 국방부팀과 일반팀의 주장이 악수하는 장면

코메트

THE COMET

제19호

공산독재(共産獨裁)와 언론(言論)의 자유(自由)

정훈감(政訓監) 이종승(李鍾勝)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임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나는 이 글 가운데에 내가 요즘 어느 외국잡지에서 읽은 한 가지의 화병(話柄)을 피로(披露)하면서 공산독재사회의 언론의 자유를 소개하기로 한다.

후스(胡適) 박사는 중국에서도 유수(有數)한 학자이며 정계에서의 명성도 혁혁한 분이다. 그런데 이 분에게는 중공치하의 대륙으로부터 미처 탈출하지 못한 자제(子弟) 하나가 있어 요사이 그 자제의 이름으로 담화가 발표되어 외신망(外信網)을 타고 세계 각국에 전파되었다.

이성을 잃지나 않았나 의심되리만치 격월(激越)한 어조로 그는 자유세계를 비난(批難)하고 조국을 폄(貶)하고 부친을 욕했다. 물론 그는 이 담화가운데에서 공산치하의 중국을 최대급의 찬사를 나열하며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글과 그 내용인 즉 우리가 흔히 볼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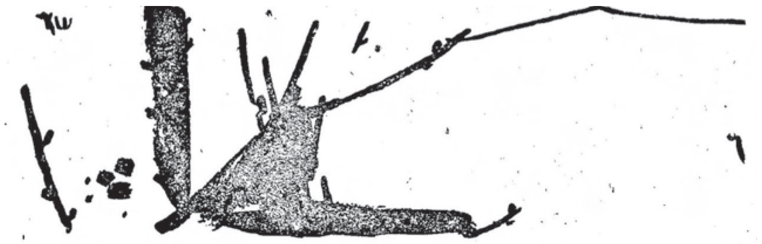
는 공산주의자 일류의 선전 문구에 불과했으나 그 담화를 발표한 인물이 인물이었기 때문에 도처에서 커다란 물의를 자아냈다. 그 애비에 그런 자식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다. 현재 체미(滯美)중인 후스 박사에게 어느 미국 친구 한 사람이 아들에게 배반당한 부친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냐고 위안을 겸해서 그의 심경을 물었다. 후스 박사는 무연(憮然)한 표정으로 대답 대신 단 한 마디의 반문을 했다.

"당신은 내 자식 놈이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마오쩌둥(毛澤東)의 나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자기가 말하고 싶지 않은 말은 말하지 않는 자유조차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스스로의 불명(不明)을 부끄럽게 여기며 그 자리를 물러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언론의 자유란 하고 싶은 말을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없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함이다. 너무나 알기 쉬운 논리를 되풀이하는 것 같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만 참으면 된다. 그러나 후스 박사의 말을 믿지 않아도 마오쩌둥의 나라에서는 아니 공산독재의 나라에서는 이 최소한도의 자유조차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 즉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자유는 물론이지만 말하고 싶지 않은 말조차 강제당해서 말하게 되는 것이 예사인 것이다.



한국(韓國)의 시련(試鍊)과 그 상징(象徵)

임병직(林炳稷)

한국 국민이 자유로이 선택한 정부 하에 한국을 통일체로 재건함은 세계평화와 국제적 안전보장을 지향하는 필수적 조치이다. 분할된 한국은 분할된 세계의 상징이다. 한국이 그 자체의 민주적 정부 하에서 신속히 재통일되느냐의 여부는 전 세계적 원자전쟁에 의존함이 없이 여러 가지 난(難)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대국들의 능력의 불가피한 시련인 것이다.

한국문제가 마치 2차적 중요성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이 이를 밀어 제쳐놓으려 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다. 그러나 불길한 추억으로 가득차고 적대적 군비로서 험악해지고 피로 물들어있는 위험한 38도선 문제는 이것을 장차 해결할 것으로 보류해 버릴 수는 없다.

세계의 제국(諸國)은 이미 그들의 편을 결정하였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언사(言辭)로, 공식 결의로, 전쟁으로, 판문점의 임시 휴전조건 등으로 명확히 되었다. 한국에서 총포는 현재로서는 잠잠하나 탄환은 채워져 있어 방아쇠만 당기면

터지게 되어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이 총포는 딴 곳으로 치워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 문제가 없었더라면 한다든지 또는 이런 문제가 존재치 않는 것 같이 가장한다는 것으로서는 충분치 않다. 분할되어 있는 한국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 이 문제(問題)의 성질(性質)

압도적으로 뚜렷한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단일민족이라는 것이다. 자연의 신(新) 그 자체도 3면을 대양이 둘러싸고 위를 언제나 눈으로 가린 고산(高山)으로 뒤덮은 한 개의 통일체로서 한반도를 만들어 놓았다. 4천년 이상이나 한국의 이와 같은 본질적 통일은 준수되고 존중되어 왔다.

저 큰 자유중국은 결코 한국의 자유를 저해하려 하지 않았고 중국인들은 그들 자체의 통치자로서 머물러 있었다. 한국과 자유중국은 우호적 국가군(國家群) 안에 형제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중국의 옛적 통치자들은 그들의 국민들이 한국의 국경을 침범하거나 또 이에 접술(接述)치 못하도록 압록강 및 두만강 북방 기슭에 연(沿)하여 중립지대를 만들어 놓았었다. 그들은 그들이 한국의 자유를 존중하였고 또 일본의 중국본토 침략에 대항하는 필수적인 보루로서 한국의 독립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였던 것이다.

1943년 11월 미국, 영국 및 중국의 수반(首班)들이 카이로에서 회합(會合)하였을 때 그들은 "전기(前記)한바 3대국은 일본에 의한 35년간의 부당한 점령 기간 중 한국 국민이 노예화되었음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 독립국가로 만들기로 결정한다."고 결의하였다.

1945년 7월 포츠담에서 소련도 이 카이로 공약에 참가하였다. 완전독립과 자치에 대한 한국의 권리는 그 후 소련의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 안에 다시금 확인되었다.

38도선에 의한 한국의 부당한 분할을 미국과 소련은 한국 내에 있던 일본군의 항복을 받고 그들을 무장해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순전히 임시적인 방편이라고 단언하였다. 이와 같은 일이 끝나는 대로 양국은 한국을 재통일하며 급속히 민주주의적 자유한국 정부를 수립할 것을 맹세하였던 것이다.

양(兩) 점령군 간에 아무런 성과 없는 3년 이상의 교섭 끝에 38선이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한국의 목을 졸라매고 있는 한국의 중간부로 가로막은 경계선으로 부당하게 변형되었다는 것이 명백히 되자 유엔은 1947년 11월 한국은 유엔 감시 하에 한국 국민들에 의하여 자유로이 선출된 정부 하에서 재통일되어야 한다고 표결하였다. 이와 같은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유엔이 한국에 파견한 위원단은 소련에 의하여 북한 출입을 거부당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은 동(同) 유엔 위원이 "왕래할 수 있는 한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 선거를 실시키로 가결하였다.

1948년 5월 10일 38선 이남 전역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는 유엔의 공식 감시단에 의하여 이 선거에 참가할 수 있었던 모든 한국인들의 의사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표시인 것으로 증명되었다. 1948년 12월 12일 대한민국은 유엔에 의하여 한국에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되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남으로는 한국해협에서 북으로는 압록강, 두만강에 이르기까지 한국반도의 전(全) 역사상의 지역에 대한 그 권한을 선포하고 있다. 국회의 의석 3분지(分之) 1은 비례대표제 원칙위에 언제라도 가능한 시기에 북한에 선거를 실시함으로 채우기 위하여 공석

으로 남겨 두었다. 이와 같은 기반위에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과 세계의 33개의 독립 국가들에 의하여 한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되었다.

1950년 6월 27일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는 한국 지역에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회복하기 위하여" 군사지원을 할 것을 가결하였다. 1950년 10월 7일 유엔 총회는 "한국의 통일이 아직 성취되어 있지 않고 있음에" 유의하면서 또 "총회의 결의의 주요목표가 한국의 통일된 민주, 독립정부의 수립이었음을 상기(想起)하면서" "한국 전역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결의하고 "한국의 주권국 내에 통일된 독립,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유엔 주최 하에 선거 실시를 포함한 모든 헌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유엔의 인가에 의거하여 유엔군과 대한민국군은 이미 공약된 한국의 재통일을 무력으로써 실시하기 위하여 38선 넘어 북방으로 진군하였다.

유엔과 한국인들의 이와 같은 목적이 중공침략군이 한국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방해되자 총회는 1951년 2월 1일 중공은 한국 땅에 중공군이 출현하고 있으므로 침략을 감행한 죄가 있다는 것을 가결하였다.

만 1년간의 교섭 끝에 한국 휴전의 성립은 명백히 한국인들에 의하여 선출된 자유, 민주정부 하에 한국통일의 달성을 그 필수적 목표로 하는 정치회담의 신속한 개최에 따르는 부수적 조치이었던 것이다.

여하한 국가이든지 한국 전역에서 그들이 직접 선출한 자유정부에 대한 한국인의 권리를 부인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것만이 한국을 위하여 제안된 단 한 가지 해결책이다. 한국문제에는 이것 이외에 다른 해결책은 없다.

☆ 국제적(國際的) 고려(考慮)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의 견지에서 볼 때 자체의 정부 하에서의 한국의 통일과 독립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이는 동북아세아의 중앙에 있는 한국의 전략적 위치로 보아도 정당한 것이다. 역사는 한국 내에 군사력으로서 부당하게 숨어드는 외부세력이 인접국가에 대해 위협이 됨을 명백히 하였다.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자유한국은 세계의 이 부분에 평화의 방패임이 입증되었다.

독립한국은 인접국에 대한 침략적 흉계를 저지할 뿐 아니라 한국과 접경하고 있는 지역에 안전을 또한 보장한다. 4천년 역사상 한국은 한국의 국경 너머로 여하한 국가도 공격해 본 일이 없다. 여하한 국가도 독립한국으로부터 침략공격을 받을까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분할된 채로 있는 한국은 세계평화에 대하여 긴박하고 폭발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이는 한국인들이 언제까지나 분할된 채로 있는데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으로 보아도 그러한 것이다. 일본에 의하여 완전히 점령되고 탄압되고 무장해제당한 그때에 있어서까지 한국인들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전적(全的)인 탄압 하에서도 애국자들은 일본에 항거하고 그들의 물려받은 자치권을 주장할 방도를 강구하였다. 한국인들의 이 정신은 그들이 정부와 그들 자체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지금에 있어 조금도 약화되지 않고 있다. 애국적 한국인에 대해서는 한국의 통일은 그들의 자체의 안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들은 이와 같은 정의에 배치되는 비참한 상태를 계속시키느니 보다는 오히려 그들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킬 것이다.

유엔은 한국을 자유민주국가로 통일시킬 것을 깊게 그리고 확고하게 확약하고 있다. 이는 유엔의 여러 결의를 통해서 행하여진 공약의 신성(神聖)을 그 이유로 해서뿐만 아니라 경험상으로 보아 그의 기능을 완수치 못하는 여하한 국제기구도 위축되어 사멸한다는 점으로 보아도 정당한 것이다. 유엔은 한국에서 초기 공격에 대처하는데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유엔은 현재까지 초기의 침략을 지원하고자 쳐들어온 큰 침략자를 물리치는 데는 이와 유사한 효과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노골적인 사실은 유엔의 이와 같은 태만은 은폐할 수도 없으며 용이하게 무시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이 큰 평화보장기관의 심장에 오염된 암과 같이 되어 있어 이것이 제거되지 않는 한 그 자체는 파괴될 것이다. 1950년 10월 7일 및 1951년 2월 1일의 결의는 이행되지 않은 채 있다. 한국의 통일은 피할 수 없는 근 책임으로써 남아 있다. 법의 존엄성의 확립에 의한 세계분쟁의 회피는 법이 강력히 이행되지 않는 한 실현될 수 없다.

분할된 한국은 현재까지 유엔이 그 헌장의 요건과 인류의 희망을 실천하는데 실패하였다는 슬픈 상징이다. 한국은 대량 자살을 감행함이 없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국가의 능력의 시금석이다.

☆ 한국인(韓國人)들의 의사(意思)

한국인들의 의사가 그들 자체의 자유민주정부하에 그들의 국가를 통일하는 것임은 의심할 바 없다.

잔인한 전체주의적 경찰괴뢰정권에 의하여 탄압받고 의사 표시를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의 국민들도 대한민국 정부 내에서 그들의 적절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그들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약 4백만의 북한인들이 38선 이남에 피난하기

위하여 북한에서 도피하였다. 유엔군과 대한민국 군이 북한에 진격하였을 때 북한의 전(全) 주민들은 그들을 해방군으로써 환영하였고 그들의 외국인 지배자들의 잔인한 통치로부터 해방된데 대하여 열광적으로 그들의 기쁨을 표시하였다.

인종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한국인은 한 개의 밀접히 엉켜진 단일통일체로서 결합되어 왔다. 외국의 제국주의 세력을 제외하고는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와 같은 기본적 사실에는 조금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우리 한국인은 남북을 막론하고 자신만만히 즉시로 이것이 시험되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엄격한 유엔 감시 하에 실시되는 선거로 한국인의 자유로운 의사가 표시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더 요구치 않는다. 물론 한국인은 그 결과에 기꺼이 순종할 것이다. 여하한 위선도 이와 같이 뚜렷한 사실을 왜곡 또는 은폐할 수 없다. 한국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결정케 한다면 통일이 달성되리라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 대한 회답은 실로 간단하다. 즉 이를 시험해 보자는 것이다.

통일 없이 한국은 살 수 없다. 경제적 자급자족이 통일을 요구한다. 군사적 안전보장이 통일을 요구한다. 통일된 한국의 자유는 4천년 유여(有餘)의 역사로써 신성화된 우리의 천성적(天性的) 권리이다. 한국인들의 민족주의의 의심할 바 없는 이와 같은 정신은 3년간의 가공(可恐)할만한 파괴전쟁을 통해서 역연(歷然)히 표시되었다. 이 정신은 결코 사멸하지 않을 것이다.

☆ 공산침략(共産侵略)

소련은 포츠담에서 그리고 대일(對日) 전쟁포고 가운데서 한국독립을 공약하였다. 그들은 38선은 곧 없어질 순전히 군사적인 잠정적 방편에 불과하다고 단언하였다. 이와 같은 공약은 아직 실천되지 않은 채 있다.

북한의 공산괴뢰정권은 과거나 현재를 막론하고 결코 한국인의 정부가 아니다. 이는 강제적인 단일 입후보의 기만적인 선거의 미명하에 군사력을 통하여 설립되었다. 이는 처음부터 소련의 시민이 그 상위에 앉아 있었다. 이는 처음부터 외국의 군사력으로 유지되고 외국인 지배들의 지시를 받았다. 이는 결코 한국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려 하지 않았으며 국제공산주의 침략만을 위하여 봉사하였다.

1950년 6월 25일, 그 공산제국주의자들은 민주 제국(諸國)이 개입치 않을 것이라고 믿고 또 대한민국이 그 자체의 방위력 육성이 저해되어 왔다는 것을 지실(知悉)함으로써 힘을 얻어 그들이 믿는바 도저히 대항할 수 없으리라는 맹렬한 공격을 38선 너머로 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정복 기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공산주의자들은 더욱 큰 군대를 소위 '공산지원(共産志願兵)'의 형태로 한국에 파견하여 그들의 전체 정복의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그들의 책동도 효과가 없음이 명백히 되자 그들은 협상과 냉전으로써 그들의 목표를 달성코자 하는 상투적인 수단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군대의 북한 점령은 계속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한국에서 침략의 열매를 통합시키고 있는 한편 평화적 협상이라고 불리는 조작을 통해서 남한도 탈취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한국문제에 관한 공산주의자와의 협상의 기록은 길고 또 뚜렷하다. 미소공동위원회(美蘇共同委員會)는 한국에서 1946년에서 1947년까지 여러 달 동안 계속해서 수많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소련이 그의 공약을 실천하거나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단연 거부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한 이외에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하였다. 유엔이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에서의 합의를 통하여 한국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였을 때 소련은 이곳에서 이루어진 결정에 따르기를 거부하였다. 1950년과 1951년에 다시 공산군이 한국에서 패배한 후 소련은 솔선하여 휴전회담을 개최하도록 하였다. 소련이 무성의하다는 것은 그 회담이 만 2년간이나 계속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아무런 합의에도 도달치 못했고 이 문제를 연기시켰다는 사실이 명백히 들어났다.

휴정협정이 조인된 직후부터 공산주의자들은 즉시 이를 위반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엄연한 약속을 직접 위반하여 그들은 북한에 군사공항을 구축하였고 그 위에 비행기를 반입하였다. 그들은 또다시 그들의 공약을 위반하여 한국 내의 그들의 병력을 증가시키고 다량의 탄약, 군수품, 탱크, 총포를 반입하였다. 휴전을 지지하였던 일부 인사들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야욕을 표시하여 인지(印支)에 대한 무장침략을 조금도 완화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휴전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국제제국주의세력에 대한 직접원조를 증가시켰던 것이다.

베를린에서 열린 4대국 외상회의도 다른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단 한 가지 합의를 본 이외에는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위협과 공갈에 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회의탁상에 현재의 냉전에서의 계속적 패배에 기여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협상은 어떤 성과가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그 정당성 여부가 결정된다. 여하한 건설적 협정도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조치로서 환영될 것이다. 한국인은 그들 자

체의 것 이상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 이하를 수락할 수도 없다. 만약 공산주의자들이 이와 동일한 정신을 행한다면 한국의 통일은 신속히 달성될 것이다.

☆ 한국문제해결(韓國問題解決)의 기반(基盤)

한국문제의 해결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의 대변인은 계속해서 그들이 침략적 흉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세계평화를 유추(維推)하고자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들의 정치관이 각 국민의 자치권을 인정한다고 주장한다.

유엔과 미국은 그들의 목표가 한국자체의 자유, 민주정부 하에 한국의 통일이라는데 변함이 없다고 무조건 주장하여왔다.

한국인과 대한민국정부는 그들의 자결권 이상의 것을 요구한바 없다.

이 3개 당사(當事) 측이 이 문제에 대해 단언한 목표는 동일하다. 이것을 공동으로 실시하면 된다. 따라서 우리의 요구는 한국인의 압도적 다수의 대표를 마련해 놓은 유엔 감시 하에 또 유엔이 승인하는 선거가 북한에서도 실시되며 이 선거를 통하여 북한에 한국 시민으로서 잔류해 있는 사람들의 대표자가 적절히 선출되어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들의 정당한 지위를 차지하며 한반도를 종으로 횡으로 완전히 대표하는 확장된 대한민국이 이후부터는 외국의 아무런 방해 없이 그의 역사적 영토 전역에 대해서 완전한 주권국의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만이 한국문제를 해결하는 단 한 가지 방도이다. 이것만이 한국인들이 수락할 수 있는 방도이다. 이것만이 한국의 사태가 위협적 존재로부터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존재로 변형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도이다. 이것 이하에 이보다 못한 여하한 추치(推置)도 휴전의 위반이며 정의에 대한 배반이고 인류의 정당한 열의를 거부하는 것이 될 것이다. (끝)

베토벤

천재음악가(天才音樂家)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인 1770년 12월 17일 독일 본에서 탄생한 베토벤의 이름은 오늘날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치 유명한 음악가인데 그가 작곡한 수많은 음악 작품은 시대나 장소를 가림이 없이 무한한 찬사와 동경과 감명을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 위대한 음악가는 참으로 빈곤한 음악가의 가정에 태어났다. 그가 고고의 성을 울린 방은 천정이 얕고 어둠침침한 문자 그대로 다락방이었다.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그의 소년시절은 퍽 어둡고 쓸쓸한 것이었으나 신앙심이 두터운 모친의 애정에 감화를 받는 한편 그의 뛰어난 재능을 잘 이해한 몇몇 사람의 격려에 힘을 얻어 그와 같은 빈곤한 생활과 싸워가면서 가정을 돌보는 한편 자기의 음악적 재능을 부단히 연마하였다 이러던 중 자애에 넘치던 그의 모친은 그가 16세 되던 해 두 어린이들과 주광(酒狂)이 된 그의 부친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그때부터 연소한 베토벤은 경제적으로 일가의 지주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불행한 소년시대를 보낸 베토벤은 26세경 해서 음악가로서 가장 중요한 귀가 질환에 걸려 절망적인 비운에 처하게 되자 그의 고민은 상상을 절(絶)한 것이었으며 한두 번 자살을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번민기(期)에 저 유명한 하이리겐스탓드의 유서까지 서술(敍述)하였으나 그의 강렬한 음악에의 애착과 의지는 그를 죽음에서 구출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일생동안에 갖은 고통에 봉착하였으나 그러한 고통을 항상 자기의 천직으로 알고 있는 음악에 몰두함으로서 타개 극복하여 그런 위대한 음악을 낳게 된 것이다. 그의 음악이 모든 사람에게 격려와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은 그의 이 같은 강렬한 인간성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는 죽을 때까지 빈에서 작곡가 연주가로서 군림하였는데 그의 활동을 대략 3기(期)로 나눌 수가 있다.

제1기는 (1770년~1802년) 전통답습시대

제2기는 (1803년~1815년) 음악이 그 이상적 추구와 통하는 것 같은 명료한 외관을 가지는 시대

제3기(1816년~1827년)는 초주관적시대

이런 것을 엄격히 규정할만한 척도는 없으나 시대적으로 곡은 그 성격에 명료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의 조형성, 예컨대 동기, 전개수법, 형식적 균형 등은 평생을 통한 기조(基調)라 할 것이다. 주관적인 환상 등 낭만파에 전승(傳承)된 요소를 지니며 고전적 형식에 주체성을 부여한 점 같은 것은 음악사상 희유(稀有)의 천재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의 주요한 작품은 피아노 쏘나타 32, 실내악 다□ 교향곡 9, 협주곡, 서곡(序曲), 오페라 「휘데리오」, 미사곡 「미사 소렘니스」, 가곡 등 굉장히 많다.

1956년도(年度)
미국경제(美國經濟)의 전망(展望)

고승제(高承濟)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지난해의 9월 24일에 심장병으로 병석에 누운 후 처음으로 지난 8일에 신문기자들을 회견하셨다. 이 회견석상에서 아이크 대통령은 차기의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것을 선언하는지 안 하는지 온 세계의 사람들은 이 점에 적지 않는 관심을 품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다른 감상을 느낀다. 그가 대통령선거전에 출마하게끔 그의 의사를 결정하든 안하든 무엇 보다고 기쁘게 생각하고자 하는 점은 위험한 병을 완전히 물리치고 대통령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내 개인이 겪은 지난날의 심경을 말하기로 하겠다. 그다지 큰 병은 아니지만 지난해의 8, 9월의 두 달 동안에 걸쳐서 매일같이 자리에 누워 있었다. 다만 한 가지 이로운 점은 신문을 샅샅이 읽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다름 아니라 아이크 대통령이 병석에 누워서부터 여러 신문들은 그의 병세의 진전과정을 날마다 보도하였다.

그때로부터 나는 아이크 대통령의 병세에 관한 신문기사를 특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읽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그의 병세가 날로 호전되어 가는 경과를 특별히 흥미 있게 읽었다. 때마침 가을 이라 국화꽃도 피었다. 내가 아이크 병세에 관한 신문기사를 읽는 심경은 국화꽃을 바라다보는 심경과 꼭 마찬가지로 즐거운 것이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그가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이끌어나가는 대통령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은 적어도 전부의 이유는 아니다. 다시금 생각할 때에 사람의 직분 여하를 막론하고 위험한 병에 사로 잡혔다가 다시금 소생의 길을 도로 찾는다는 사실은 인간일 진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즐거운 마음이 아닐 수 없다.

아이크 대통령은 지난 1월 5일에 미국국회에 대하여 연두교서(年頭教書)를 보냈다. 그곳에서 아이크 대통령은 우리의 경제는 연 4조 불대에 달하여 미증유(未曾有)의 번영을 이루고 있다. 국민소득은 어느 때보다도 공정 광범히 분포되고 취업인원수는 최고기록에 달하고 있다. 1단위 국민으로서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높은 가동(稼動), 생산, 소비를 누려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생활수준을 이룩하였다라고 선언하였다.

이것은 미국경제의 최근동향을 말하는 가장 정확하고도 정직한 선언이다. 누구나 아는바와 같이 미국 대통령은 해마다 관례적으로 국회에 연두교서를 보내고 그 교서 안에서 미국경제의 현상을 보고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는 적어도 1차 대전 이후 어떠한 대통령도 아이크 대통령처럼 행복한 상태에 있는 미국경제를 보고할 수 없었다. 미국경제의 현상에 관하여 이처럼 자신 있는 보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모름지기 아이크 대통령의 영예와 행복이 아닐 수 없다.

확실히 미국경제는 1954년 후반에 들어서부터 호황을 이루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의 미국경제는 '사상(史上) 공전(空前)의 호경기'를 나타냈다. 이것은 때마다 미국경제의 동향을 살피는 사람들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두말 할 것도 없이 2차 대전 후의 미국경제는 한 가지의 고뇌가 있었다.

그러면 그 고뇌가 무엇인가 이 점에 관하여 붓을 들기로 하겠다.

2차 대전 동안에 미국의 생산력은 전쟁 전에 비하여 3배 이상이나 증대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의 생산력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군수품의 생산을 위함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났다 하여서 전시 중에 증대된 생산력을 갑자기 줄일 수는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생산력이란 마치 겨울날의 눈사람처럼 커질 수는 있으나 사정과 형편이 다르다 하여 갑자기 줄일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에 무리하게 그것을 줄인다면 전체 경제의 운행이 순조롭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름 아니라 2차 대전 후의 미국경제의 내포된 한 가지 고뇌란 전시 중에 증대된 거대한 생산력을 전쟁이 끝난 평시에 있어서 어떻게 그냥 그대로 유지하느냐의 문제이다.

이 고뇌로 말미암아 1948년에 미국경제는 약간 곤란한 상태에 빠진 일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지난해의 미국경제는 이와 같은 경제적 고

뇌의 씨앗을 근절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적어도 경제정책의 시점에서 본다면 아이크 대통령의 업적은 결코 과소한 것은 아니다. 그가 연두교서에서 미국경제의 현상에 대하여 자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태도는 결코 정치가로서의 허세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랑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 자랑이 없는 사실에 의거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자랑을 미워 할 수밖에는 없다. 그러나 그 자랑이 있는 사실에 의거한 것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관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정직한 자랑은 기른 마음으로 허용해주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 심정으로 우리는 아이크 대통령의 연두교서 더구나 그 교서 속에서 보고된 미국경제의 현황에 관한 선언을 받아 드리고자 한다.

그러면 새해의 미국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진전될 것인가? 미국경제는 지난해의 번영을 다시금 계속할 것인가? 또는 경제원론에서 경기변동을 설명하듯이 호경기 뒤에는 불경기가 온다는 말과 같이 미국경제는 새로이 불경기가 나타날 것인가? 도대체 새해의 미국경제는 이와 같은 두 가지 방향 중 어느 방향을 달릴 것인가? 먼저 결론부터 말한다면 새해의 미국경제는 계속하여 번영하는 상태에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나 새해의 미국경제가 계속하여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붙는다.

다시 말하면 이 한 가지 조건을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미국경제는 계속하여 번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한 가지 조건이란 무엇인가? 아이크 대통령이 지난 1월 9일에 미국의 농업과 농민생활에 안정을 부여하기 위하여 금후 3년간에 1억 불을 지출할 것을 요청하는 농업계획안을 발표한바 있다.

그런데 이 계획안 속에 아이고 대통령은 미국의 농업과 농민생활이 처해 있는 현 상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농민들의 궁경(窮境)보다 더 국회의 긴급 관심을 요구하는 문제는 없다. 국가가 대번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가격과 농민들의 수입은 저하되고 있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미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한 가지 문제란 미국의 농업생산량이 과다하여 농산물가격이 저하되고 그로 말미암아 농민생활이 궁경에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비단 미국의 농업부문에 관한 국부적인 것이 아니다. 미국경제가 전체적으로 안정 상태에 있고 번영을 누릴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전체적인 중요성을 가진 문제이다.

미국 정부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10억 불이란 거액의 국가자본을 방출할 것을 결정하였다는 한 가지 사실로 미루어 보드래도 이 문제가 가진 중요성이 그 얼마나 심대한가를 넉넉히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미국 정부로서는 어떻게 노력하고자 하는가? 아이크 대통령이 선언하듯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실천할 것이라고 한다. 첫째는 식료품을 재배하는 농토(農土)의 면적을 20%까지 감소시킨다.

둘째는 이처럼 감소시킨 20%의 농토를 그냥 유휴(遊休) 상태에 둘 것이 아니라 그곳에다 마량(馬糧)을 재배하거나 또는 과수를 재배케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농업계획을 직시(直時)로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새해에는 약 3억 5천만 불의 국가자금을 방출할 것이라고 한다. 만약에 새해에 있어서 미국의 농민생활이 더욱 안정한 조건 밑에서 있게 된다면 미국경제는 지난해 이상으로 번영을 이룩할는지 모른다. 왜 그런가 하면 미국과 같이 고도로 발달한 나라의 경제에 있어서는 구매력이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생산 활동이 활발하냐 부진하냐가 결정되고 또한 생산 활동 여하에 따라서 경제적 번영이 높으냐 낮으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러하지만 미국에 있어서도 그 나라의 구매력이 크냐 적으냐는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들의 구매력이 크냐 적으냐로서 대체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농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 점차로 효험을 나타내게 됨에 따라서 미국 농민들의 구매력이 커지고 또한 그들의 구매력이 커짐에 따라서 드디어 미국경제는 더욱 활발히 운행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1956년의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하여 분망한 해일는지 모르나 그와 아울러 경제적으로도 보다 더 큰 희망을 느낄 수 있는 해라고 생각한다.

(필자(筆者) 상대교수(商大敎授))

철(鐵)의 장막(帳幕)에 숨은
수수께끼의 소련공군(蘇聯空軍)

INTERAVIA 지(誌)에서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이라고 하면 매년 메이데이에 지상을 행진하는 적군의 대부대와 이를 따르는 굉장한 기갑부대, 이 지상의 대행진에 호응하여 크렘린 궁전의 첨탑 위를 나는 소련공군의 대 편대, 열병대 위에서 이 대 분열식을 만족한 듯이 바라보는 소련 간부들의 얼굴이 상기될 것이다.

이 메이데이의 공중분열식은 소련공군의 위력을 내외에 과시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말거나 간에 철의 장막 안에 숨은 소련공군, 나아가서는 그 기반이 되어 있는 소련항공공업의 발달과 동향을 알 수 있는 귀중한 관건으로 보아도 좋으며 소련당국이 매년 그 실시에 얼마나 많이 두뇌를 쓰고 있는가는 상상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오직 이 공중 퍼레이드를 통하여 소련공군과 항공공업의 실태를 파악하려 한다는 것은 어려우며 과오를 범하기 쉽다.

이 메이데이에 행하는 공중분열 이외에 일반적으로 소련공군에 관하여 얻을 수 있는 지식과 정보는 마침 눈에 띈 원거리의 기체에서 여러 가지의 억측을 하는 것이 전부인 형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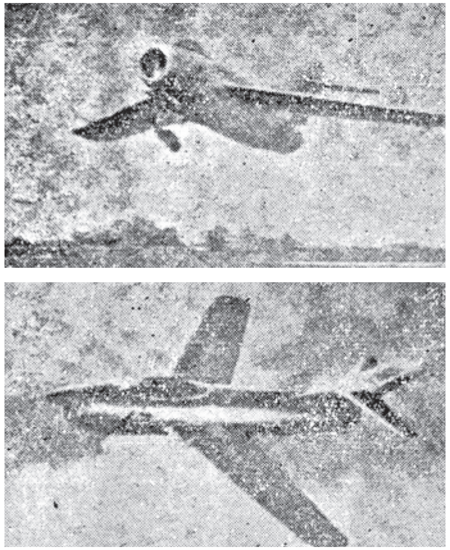
소련공공은 이를 이용하여 거의 비행하는 일이 없는 괴상한 비행기를 때때로 생각난 듯이 공중분열에 참가시킴으로서 테마를 더욱 크게 퍼트리고 동독에서 있던 것처럼 비행장에 일부터 모크업(실물대모형)을 늘어놓고 서구 측의 정보관계자들의 눈을 속이곤 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이와 같은 엉터리 비행기가 날고 있는 사진을 만들어 그 사진을 소위 '믿을만한 소식통'으로부터의 사진으로 발표되게 함으로서 속아 넘어가게 하고 있다.

이제 전후 10년 동안에 소련공군이 걸어 온 발자취를 더듬어 본다면 다음의 3개 단계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

(1) 먼저 종전직후의 시기로서 이 시기에는 La-11, Yak-11, Tu-2, Tu-4 등까지 제1선기로서 사용하고 신뢰성 있는 기종을 개량 발달시킨 시기.

(2) 강력한 제트엔진을 장비한 본격적인 비행기가 출현할 때까지의 과도기로서 Yak-15, MIG-9 등을 사용한 시기,

(3)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장기계획에 의거하여. 소련공군을 서구 측 공군의 수준으로 향상 시키려는 현 단계. 이 단계의 초기의 비행기에 포함되는 것을 MIG-15, La-17, Tu-12, Li-28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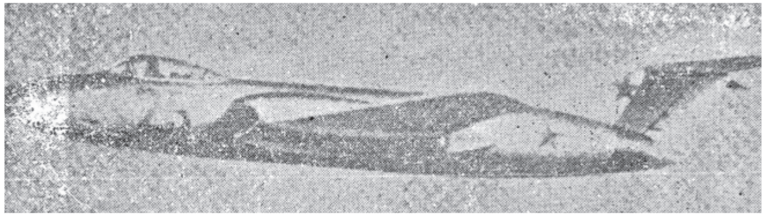


<상 MIG-15 전투기>, <하 MIG-15 복좌 야간전투기>

제2차 대전 종료 후 소련은 독일이 행한 연구 보고에 관하여 조직적인 조사를 서작하였는데 이때 소련계획위원회는 소련의 항공공업이 미국과 영국의 항공공업에 비하여 훨씬 뒤떨어져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소련계획위원회는 이 이외의 사실에 경악하고 즉시 장기에 걸친 소련공군 근대화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 장기에 걸친 공군 근대화의 첫 단계로서 독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는 것은 물론이지만 항공공업의 현대화를 촉진시킴에 있어서 소련은 종래의 상투수단이었던 비밀방식을 일축하고 동독에 기술연구기관을 설치하고 독일인 기술자를 동원하여 생산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계획을 가능한 한 조속히 완성하도록 돕게 하였다. 1946년부터 1947년의 겨울에 걸쳐 이와 같은 시설의 대부분의 직원은 소련본국으로 이송 되었는데 그동안 소련이 행한 연구 발달의 정도에 관하여 서독의 정보 당국에 의하여 수집되어 있고 또한 후일에 소련으로부터 돌아온 과학자나 포로들의 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한국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소련항공공업은 거의 서구측의 기술적 수준에 달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1949년 및 1950년에 행해진 공중 분열과 그 후 한국전쟁에 많은 MIG-15가 배제되었다는 사실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

☆ 소련의 제트에 관한 연구

1942년 초두(初頭)에 소련국방성이 모스크바의 근교에 제트연구기관을 설치한 것은 별로 세인(世人)의 주의를 끌지 않고 있지만 이 연구소의 목적은 스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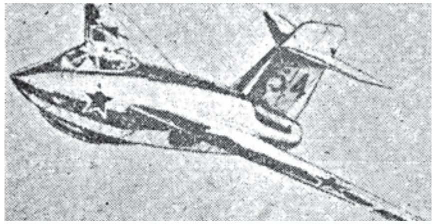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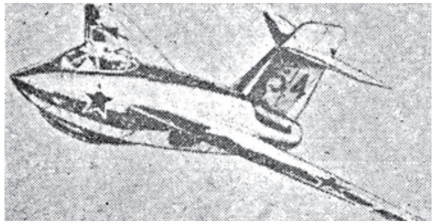
<A. I 미코얀 설계의 전천후 전투기 슈퍼미그>

킨 교수의 제트에 관한 추진 이론을 주로 연구하기 위한 것이며 그밖에 모스크바의 중앙동력연구소(ZIAM)는 주임기사(主任技師) 티코프의 지도하에 횟틀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가스터빈의 작용에 관하여 흥미 있는 실험을 하고 있다. 이어서 1943년에 스테크킨 교수는 중앙동력연구소와 협력하여 최초의 실용적 터보 제트를 완성하였다. 이것은 동년 말에 걸쳐 실험되고 대량생산이 계획되었으나 생산이 곤란하여 전쟁 중에는 생산되지 못하였다. 이 엔진에 관하여는 그 이듬해인 1944년 가을에 비행한 야콜레프 설계의 전투기의 동력으로서 사용되었으며 이것이 Yak-15의 전형(前型)이었다고 생각된다.

제2차 대전이 종식된 직후에 소련은 많은 융카스 및 B. M. W격의 제트엔진을 노획하여 이를 개량 발달시키는 기회를 얻었으나 고속공기역학 및 열역학의 지식에 결핍되었던 소련 기술자들은 독일인, 기술자의 원조를 얻어서도 1947년 초두에는 추력 3,000kg의 13단 축류압축기부(軸流壓縮器附) 엔진을 제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전후 완성품 혹은 부분품으로 입수한 수 천대의 유모004 및 BMW003은 모두 앞에 말한 과도기부터 장기근대화에 이행하는 기간에 도움이 되어 이들 엔진은 당시 급히 설계된 MIG-9 및 Yak-15의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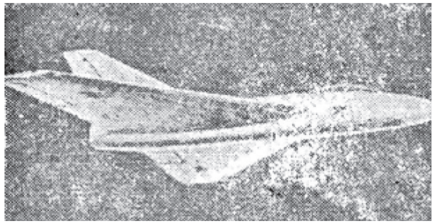
그러나 대체로 1946년부터 1948년 말까지의 소위 과도기에는 각 기종을 대량생산할 수 있도록 개량 발달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았다. 이것은 과도기 전의 기종의 생산을 감소한다는 것은 과도기의 대량생산에 유리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항공공업 전체의 생산을 적어도 18개월 동안 극히 위험한 상태에 빠트리기 때문이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영국으로부터 입수한 롤스로이스 다웬트 및 니인 제트 엔진도 소수이어서 장기계획에 도움이 안 되었고 니인의 복제생산도 아직 행해지지 않았다. 오늘날 판명된 것이지만 소련은 이와 같은 영국제 가스 터빈을 몇 종류의 시작기(試作機)에 동력으로서 사용하고 겸하여 니인 엔진을 복제, 개량하여 국내에서 생산할 목적으로 구입하였던 것이다.





상 <야코블레프의 전투비행기>
하 <Yak-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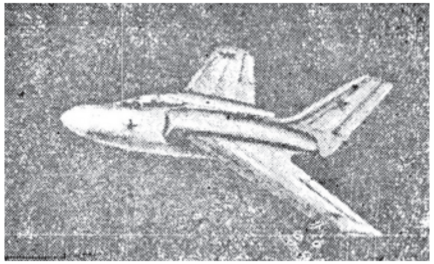
소련의 가스 터빈 설계자 B. 첼로메이 또한 정지추력(靜止推力) 약 3,000kg의 축류식압축기부 엔진을 설계 하였는데 이것을 1947년부터 1948년 겨울에 걸쳐 생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연소실벽의 냉각문제와 미부(尾部) 파이프의 설계에 난점이 있어서 준비가 지연되어 생산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것은 소련에게 있어서 처음의 일이 아니며 BWM018(12단 축류식 엔진)의 개량 발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곤란에 봉착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첼라노프스키, 델타의 전투기>

항공공업의 근대화에 수반하며 소련 국방성 항공당국의 인사이동이 있었고 이어서 전술공군의 재편성이 행해졌고 1917년 말에 보즈네센스키, 와시닌(당시 소련공군사령관), 크로니체프 등이 중심이 되어 소련 항공공업의 개혁을 추진 시켰는데 그 목적한 바는 무엇보다도 당시 국내에 널리 분산되어 있던 기체 및 엔진 공장을 밀접히 연결시키는 일이었다. 이와 동시에 제트 엔진 생산을 위하여 계획 당초에는 자동차 공장을 증설하고 항공공업의 근대화에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하여 MIG-15 전투기, Tu-12, Il-28 전술폭격기 등의 신예 중소형 제트기가 출현하여 서구 측에 그 존재를 알리게 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동력으로서 RD-45(니인) 엔진을 장비하고 있고 소련을 둘러싼 국경지대에 배치되었다. 이와 같은 각 기종이 완성 하였으므로 소련 공군은 다른 열강에 비하여 중소형 제트기의 분야에서는 손색이 없게 되어 각 항공기 공장은 제트중폭격기의 생산에 전력을 기우릴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 장거리 전략 공군이 설립되려



<쌍발 제트 전천후 전투기>

는 기운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를 암시하는 듯 구식의 Tu-4(소련제 B-29)를 대치하는 것으로서 디젤 엔진 4기 혹은 프로펠러 터빈 4기를 장비한 것이 2년 전에 출현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정보를 종합해보면 소련 항공기 생상성의 관리 하에 있는 공장은 현재 350개소에 달하며 그중 기체공장은 80개, 엔진 공장은 약 30개소이고 나머지 공장은 장비 및 부속품 공장으로 보인다. 레닌그라드, 골키, 카잔, 사라로프, 로스토프 등지에는 서구 측의 항공기 공장에 필적하는 근대 설비를 가진 새로운 공장이 있다는 사실은 소련으로부터 돌아온 포로들의 말로 미루어 보아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 소련의 항공기연구기관

소련의 항공기연구기관 가운데 중앙공기역학 유체역학연구소(ZAGI), 발동기 관계의 ZIAM 생산 및 자재관계의 VIAM과 그 밖의 수개소의 연구소는 국방성 직속으로 되어 있고 다른 중요한 공기역학 구조는 모두 항공기생산성의 예하에 있으며 설계부문의 대부분은 모스크바의 ZAGI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데 이들 연구소의 지도자로서 특히 저명한 것은 S. A. 일류신, A. N. 두포레프, S. A. 라브츠킨, A. S. 야콜레프, A. I. 미코얀 등이다. 소련의 유명한 기체에 이들 일류의 설계자들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밖에 유명한 설계자로서는 페트리아코프, 브라츄킨, 시첼바코프, 슥코이, 체라노프스키, 안토노프 등일 것이다.

소련은 본국 내에 기체설계용으로서 많은 실험용 풍동(風洞)을 가지고 있는데 항공 연구실험의 중추부모스크바— 쓰시노 지구에는 풍동이 셋, 라멘스코이에는 고속풍동이 둘, 쓰아기에는 초음속 풍동이 존재하며 그밖에 모스크바— 라멘스코이에, 레닌그라드, 카리닌 교외 벨리코이에 등 도처에 순학술적 연구용의 풍동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쓰아기의 특별부문에서는 신 기종용의 기체 장비품 관계의 연구를 당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기관 가운데 정부직속의 연구기관은 광범한 실험 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모스크바의 중앙공기역학·유체역학연구소와 같은 것은 충분히 새로운 시작기(試作機)를 설계하고 제작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즉 1940년에는 쓰아기는 약 12,000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10년 후인 1950년에는 약 20,000명으로 증가되었다. 그밖에 동지구의 골키 연구소의 종업원도 전후 상당히 증가되었으며 이 두 연구소의 규모에 비추어 보아 작년 메이데이에 붉은 광장 상공에 출현한 4발 제트 초중폭격기는 이 두 연구소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설계, 건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Il-28>

☆ 현재의 소련 공군 제1선기

현재 소련에서 재1선기로서 실용 혹은 실용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별표와 같거니와 MIG-15 이외의 각 기종에 관해서는 기술적 내용은 아직 판명되어 있지 않다.

MIG-15는 주지되고 있는 전투기로서 여러 가지 형(型)이 있는데 현재는 그에서 발달한 MIG-17은 이미 제1선기로서 활약 중에 있다. 이 M1G-17은 순전한 방공전투기인데 이 사실은 소련이 다용도전투기의 방식을 단념한 것과 같은 감(感)을 주었으나 이것은 아마 한국전쟁에서의 참패가 그 원인이 된 것 같다. MIG-17과 15를 비교할 때 특히 현저한 점은 주익의 애스팩트 비(比)가 증가하고 수직미부의 면적도.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예의 최근의 것으로서는 노오스 아메리칸 F-100 슈퍼 세이버의 개수(改修)가 생각나는데 이것은 아음속(亜音速)으로 비행하는 동안에 생기는 기체의 회전, 편요(片搖)의 경향을 감소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행해진 것이다.

다음에 체라노프스키 설계의 델타 익(翼) 전투기에 관해서는 최근 확실치 않은 데이터가 입수 되었다. 이 비행기의 형태는 콘베어 F-102, 그로스터 자베린 등 미영(美英)의 전천후전투기와 흡사 하지만 이들 각형(各型)과의 현저한 차이점은 전연(前緣)에 큰 흘랩을 가지고 델타 익의 결점인 최대양력의 부족을 보충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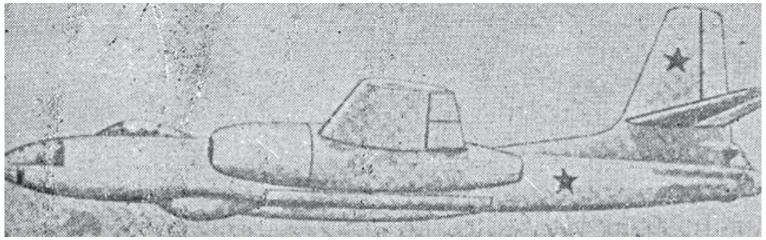
있는 점이다.

그리고 A. S. 야코블레프 설계의 제트 전투정(戰鬪艇)은 몇 달 전에 판명된 것인데 P.57이라고 부르고 1953년 3월부터 1954년 2월에 이르는 동안에 비행시험이 행해진 것이다. 이 비행기의 구조와 외관은 종래의 비행기와는 매우 다르며 야코블레프의 초기의 설계와도 크게 다르다. 2기(基)의 축류식(軸流式) 엔진은 주익근부(主翼根部)위에 장치되어 있고 주익은 40도의 후퇴각(後退角)을 가지고 있으며 좌우 두 날개 위에는 경계층판(境界層板)이 각각 두 개 달려 있고 레이더 장치는 동체 위에 들어 있다. 그리고 이 수상기(水上機)에는 지상용의 강착장치(降着裝置)가 달려 있다고 한다.

최근 소련으로부터 돌아온 포로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로켓 엔진을 장비한 Yak-21 로켓전투기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형식의 전투기가 군사적으로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구구하며 그 후 개량 발달이 계속되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이상으로서 전투기를 마치고 다음에 폭격기에 대해서 논하자면, Tu-12는 1947년에 설계되어 출현한 것으로서 소련 공군에 전술폭격기로서 다량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다. 외형에서 판단하면 미국의 콘베어 XB-46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비행기의 원형이 처음으로 출현한 것은 1948년의 항공일이었으며, 본래 해상의 목표를 공격할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다. 그 후 한동안 소련극동공군에도 배속되어 있었다. 엔진은 제트 2기(基)이고 동체는 날씬하고 긴 폭탄창을 가지고 있어 어뢰 둘을 탑재할 수 있다. 화기의 위치는 각형에 따라서 다르지만 원칙적으로는 2문의 기총(機銃)이 달린 포탑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며 각형마다 동체양측에 각각 고정 캐논을 장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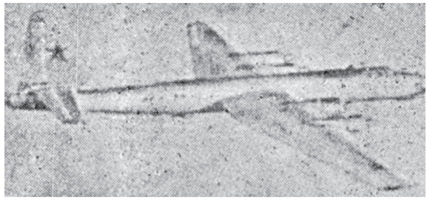
다음에 Il-28 폭격기는 Tu-12에 이어서 실전부대에 배치된 것으로서 Tu-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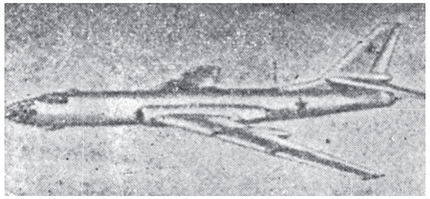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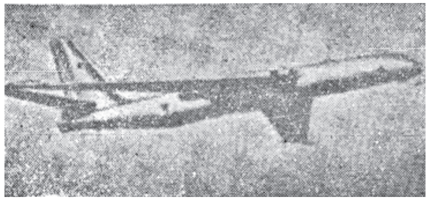
<투톨레스 Tu-12>

와 거의 같은 설계도에 따라서 설계되어 1949년에 출현하고 소련 전술공군 부대에서 사용되었다. 그 후 여러 가지가 개조되어 각종의 형식이 있는데 미익(尾翼)과 함께 주익에도 후퇴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과거 3년 동안에 걸쳐 동독 상공을 비행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Il-28-2라고 하는 것은 그 야간형(夜間型)이다.

EF-150은 융카스의 기사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데 이것은 마마 대량 생산될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 이 비행기는 1951년까지에 원형 두 대가 제작되어 각종 테스트 비행을 하였음에 불과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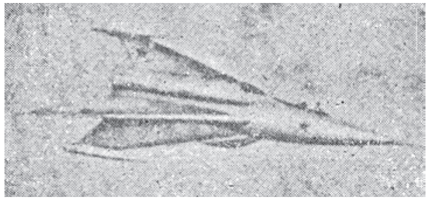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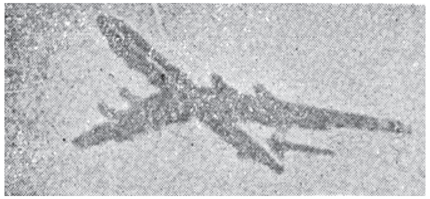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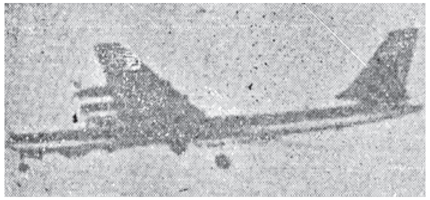


상 TuG-75 폭격기
중 ZAGI-228 밧쟈
하 바이손 초중(初重)폭격기

1954년 메이데이에 모스크바 상공에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은 ZAGI-228 밧쟈, ZAGI-428 바이손의 두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의 출현은 한때 서구 측에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이다. 중형의 밧쟈는 그날 9대가 계속하여 상공을 고속도로 날아갔으며 참관자로 하여금 이 비행기가 이미 대량생산되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게 하였다. 밧쟈는 2기의 제트를 장비하고 주익은 얇고 35도의 후퇴각을 가지고 있다. 동체 양측에는 각각 엔진 나셀이 달려 있고 동체 뒤에는 총석(銃席)을 장비하고 있다 이 동체양측에 매우 접근하여 엔진을 장비하고 있는 것은 날개 위를 흐르는 기류의 방해를 없애는데 도움이 되고 있고 그 결과 항력을 감소할 수 있어서 항속력의 증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밧쟈가 미 공군의 보일 B-47 스트렛트 제트 급(級)이라고 한다면 4발의 바이손은 B-52 스트랫트 포오트레스 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밧쟈와 마찬가지로 바이손도 역시 35도의 후퇴각을 이루고 있고 에스팩트 비(比)가 크며 엔진은 동체에 접근하여 중앙익(翼)에 달려 있다. 밧쟈와 마찬가지로 그 엔진 카우링이 긴 것은 놀라운 일이다, 밧쟈와 바이손의 두 장거리 폭격기는 아직 소련공군의 실전부대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소련이 이와 같은 장거리 폭격기를 가지게







상 전 폴란드 제 VTO 전투기
중 Il-38 폭격기
하 Tu-200 폭격기

된 이면에는 고출력의 신뢰성 있는 제트 엔진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미클린 및 루루코프의 두 가스 터빈은 미국 최대의 제트 엔진보다도 강력한 것이라고 한다.

이상이 소련공군에 실재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밖에 아직 그 존재가 확실치 않은 것이 4종 있는데 종래의 비행기에 비해서 색다른 것은 폴란드 제(製)의 VTO 즉 수직상승전투기이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델타익을 가지고 있다. 다음 Il-38은 장거리 폭격기로서 날카로운 후퇴각을 가지고 있는 비행기이고 Tu-200은 프로펠러 터빈 6기를 장비한 것으로서 미국의 B-36에 해당하는 것인데 둘 다 실재하는 것으로 믿어도 좋을 것이다. 타잎 400은 제트 엔진 8기를 장비하고 있으며 스팬이 50개 이상인 장거리 폭격기이다. 이 비행기의 흥미 있는 점은 미국의 B-52 폭격기와 마찬가지로 엔진 폿드를 날개 밑에 매달은 것이다.

X X X

☆ 소련 공군 제1선기 일람

MIG-15: 적색 공군 전투기의 표준형

MIG-15 비스: MIG-15의 엔진 출력을 강화하고 무장을 개량한 것. 레이더를 장비한 복좌(複座) 전천후(全天候)형. MIG-17 MIG-15의 개량 발달형.

슈퍼 MIG: 쌍발(雙發) 제트의 전천후전투기. 1952년 모스크바 상공에 편대로 출현한 것.

체라노스카 3각 익(翼)기 MIG-15F: 단좌 혹은 복좌의 레이더를 장비한 전천후 전투기.

쌍발 제트 전처후 전투기: 전익식(全翼式) 전투기로서 공기역학적으로 흥미 있는 형태를 하고 있지만 소수기가 취역하고 있을 뿐이다.

야콜레프 전투정(戰鬪艇): 원형은 P.57이라고 불렀으며 테스트를 완료하고 대량생산될 모양이다.

La-17: 호위 및 지상공격기. MIG-15와 거의 동시에 완성하였으나 소수기만이 취역하고 있는 모양이다.

Yak-21: 로켓엔진을 장비한 Me-163에서 발달한 것이다

Il-10: Il-2에서 발달한 것으로서 복좌지상공격 및 근거리 정찰기로서 사용되며 현재 소련 공군 및 위성국 공군에서 취역 중에 있다.

Il-28: 소련공군의 표준전술폭격기로서 과거 수년 동안에 걸쳐 사용되어 왔다.

Il-28-2: 28형의 주익에 후퇴각을 붙인 것으로 무장과 레이더에 개

Tu-12: 해상목표의 방어와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전술폭격기.

EF-12: 융카스의 기사가 설계한 것으로서 8톤의 폭탄을 적재한다.

ZAGI-228 밧자: 1945년의 메이데이에 처음으로 9대가 출현 하였다.

ZAGI-428 바이손: 228과 함께 작년의 메이데이에 출현한 초중폭격기로서 유명하다.

Cz-2B: 델타 익의 폴란드제 수직상승 전투기로서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다.

Tu-4: 소련제 B-29

TuG-75: 터보 프롶 혹은 디젤의 4발. 장거리 폭격기인데 제작된 것은 적은 모양이다.

Il-38: 실재가 확실치 않은 것이지만 터보 프롶으로서는 이상한 후퇴익을 가지고 있다.

Tu-200: 1950-1951년에 실현된 것으로 소문이 있었으나 실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B-36에 흡사하다.

타입-480: B-52에 흡사한 장거리 중폭격기로서 8기의 제트를 좌우의 날개 밑에 두 개씩 달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 잎

옛날이야기다. 아주 가난한 영감과 마누라가 살고 있었다. 나뭇잎이 우수수 휘몰아치는 바람에 떨어지는 늦가을이었다. 원래 위인이 못난 영감이라 동네 노인들이 놀려줄 겸 그 보고 이렇게 말하여 주었다.

"저 자네 감나무에 달린 마지막 잎이 떨어지는 것을 주어서 코에다 대면 사람의 모양이 보이지 않는걸 아나?"했다.

영감은 집에 돌아와서 감나무 밑에 종일 지키고 있었다. 땅바닥에 낙엽이 깔리었고 이제 마지막 서너 잎이 남아있을 따름이었다. 기다려도 도시 남은 잎이 떨어지지 않는다.

공교롭게도 그때였다. 그놈의 뒤라는 놈이 나올 것만 같아 잠간 뒷간에 갔다 왔다. 아차, 잎이 한 잎도 없이 그사이 다 떨어져 버렸다. 이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땅에 깔린 낙엽을 모조리 긁어모았더니 한 두어 가마는 되었다. 자 이놈의 잎을 방한가운데 들여다 놓고는 한 잎 한 잎 코에다 대고 마누라에게 향해……

"여보. 내가 보이지 않소?"했다.

"허! 제일 마지막 떨어지는 잎을 코에 대면 분명 몸이 보이지 않는다는데"했다.

두어 가마를 밤새도록 코에 대어보고 마누라에게 물으니 견딜 리 없어 어느 한 잎을 코에 댔을 때 마누라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주었다. 영감은 회색이 만면하여 밖으로 나갔다. 얼마 있다가 얼굴이 말이 안 되게 매를 맞고 돌아왔다.

돌아와서 하는 말이 걸작이었다. 그 놈의 부잣집에 도적질을 갔었는데 그만 붙잡혀 매를 맞았지 하지만 코에다 잎을 대고 매를 맞았으니까 난 줄은 몰랐을 거야.……허허……하더라는 것이다.

터키국(國)의 편모(片貌)

정태시(鄭泰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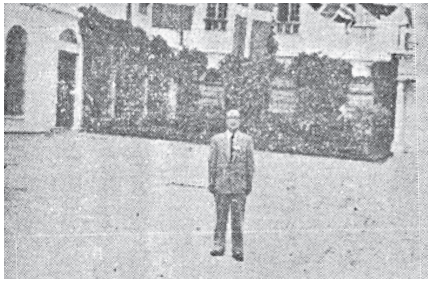
1. 베일과 두건(頭巾) — 터키의 여성(女性) —

길을 떠나려 할 때 어느 분이 포천(抱川)에 있는 터키부대에 가서 들은 말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일러준 말은 이러하였다.

"터키에서는 남녀 간의 내외가 심하고 질투심이 많으므로 같은 여자를 두 번만 쳐다보아도 봉변을 당하는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읽은 회교도란 책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나의 선임자이었던 U 씨는 이 회교도 여성들의 습관을 모르고 산책의 도상(途上) 사간을 묻는 어떤 터키 부인에게 걸음을 멈추고 시계를 보면서 서서히 시간을 가리켜 주고 있다가 먼데서 보고 있던 터키 남자의 호통을 만나 놀라서 도망쳐 왔다. 전에는 이란 같은 데서도 그 지방 여자의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맞아 죽은 미국사람도 있었다."

이러한 지식은 처음으로 만리이역(萬里異域)의 길을 떠나는 나에게 불안감을 더하게 하였다. 그러나 막상 이스탄불 거리에 서서 보니 길을 오고 가는 여성들은 유럽 어느 도시 못지않게 근대적이었다. 그림엽서를 사려고 들어간 어느 상점에서는 중년의 터키 마담이 나에게 다가오더니 내 넥타이를 만져 보면서 서투른 영어로 "어디서 왔느냐. 넥타이가 참 보기 좋다. 어디서 사 맸느냐."고 하면서 상냥한 미소를 띠는 것이었다. 한국에 와있는 터키 군인들의 얼굴이 까만데 눈 익은 나에게는 터키 여성의 살결은 눈처럼 희여 보였다. 키는 그리 날씬하지 않아도 살결이 곱고 부글부글한 품이 몹시 매력적이었다. 남녀가 팔짱을 끼고 다니는 것을 보나 댄스홀, 나이트클럽이 간간이 눈에 띄는 것을 보나 어느 구석에도 내외가 심하다는 회교도의 나라 여성의 습관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다.


<세계교육자 총회 회의장 앞에 선 필자>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나는 중에 쌀에 뉘 섞이듯 8월 초순 찌는 듯한 이스탄불시 보도 위를 검정 두건 에 검정 코트를 겨울인 양 길게 들이우고 무슬림 교당(教堂)으로 총총 걸음을 하는 부인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아타튀르크의 개혁은 오토만제국 시민권의 심볼인 터키 모자의 일소(一掃)에는 성공했지마는 여인의 두건은 완전히 벗기지 못한 듯하다. 하기야 수천년래 교조(教祖) 마호메트의 성훈(聖訓)을 좇아 여인은 전혀 하렘 주택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남자부(男子部) 세라무룩, 부녀부를 하레무릭이라고 불렀다. 그리하여 외인에 대해서는 항상 베일을 써야 했다. 베일을 벗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는 남성은 오직 아버지와 형제와 남편과 아들에 지나지 못했다. 마호메트가 동시에 똑같이 잘 대우할 수 있다면 남자는 아내를 네 사람까지 둘 수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1926년 민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축첩(蓄妾)은 사회적으로 공인되었던 것이다. 케말의 대혁명은 여성의 지위를 법률적으로 완전히 확보해 놓았다. 그러나 여인들의 가슴에 사무쳤던 신앙의 전통은 그대로 살아있다. 현 정부가 선거 당시의 공약에 따라 신앙에 관한 자유가 보장되자 경건한 노년의 여성 사이에는 다시금 두건과 베일의 부활을 보게 된 것이다.

<이스탄불 지사와 한국 대표와의 면회 광경>

2. 마호메트의 후예(後裔) — 터키의 종교(宗教) —

여성문제뿐 아니라 터키의 모든 문제는 그들의 종교 즉 다소 미신적인 회교(回教)와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회교력의 제9월은 라마단이라 부르는데 이달 한 달 동안은 해 돋기부터 해 지기까지 물 한 목음도 마시지 않는 단식이 고열 속에서 계속된다. 장례의 풍습도 재미가 있다. 그 들은 무덤에 가서 간단한 기도를 올리고는 죽은 사람의 귀에 대고 교의 문답을 속삭여 준다.

"너의 하나님은 누구냐?"

"이슬람."

"너의 예언자는 누구냐?"

"마호메트."

이것은 무덤에서 천사로부터 심문을 당했을 때 바른 대답을 하도록 일깨워 주기 위해서인데 만일 망인이 실수해서 대답을 잘못하면 심판 날까지 단련을 받게 된다. 시체는 메카 쪽으로 얼굴을 두게 하고 무덤 속에 넣는다. 원칙적으로 관은 벗겨 놓는데 그것은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일어나 앉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다. 이러한 회교신앙에 붙어있는 미신적인 요소는 한두 가지가 아닌데 더구나 상업 천시(賤視)의 교훈조차 겹쳐서 회교신앙은 터키 발전에 대한 제동기(制動機)의 구실을 다해 왔다. 세계교육자 총회에 모였던 각국 대표들은 터키 교육회의 안내로 이스탄불시 내외의 명소 고적을 혹은 배를 타고 혹은 버스에 분승(分乘)하여 두루 구경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끌려 다닌 데는 거의 다 회교 교당이었다. 사실 이스탄불거리에 나서보면 교당의 뾰족한 탑이 마치 수풀과 같이 수 없이 하늘을 향해 기도의 팔을 들고 있었다. 정치와 종교가 일체이던 이 나라에서는 제왕의 위엄을 보이기 위하여서이기도 하였겠지만 하여간 어느 교당이고 서울 명동성당의 사오 배 혹은 십여 배 되는 거창한 것들이었다. 시내의 유적을 구경 다니다가 20년대에 터키에 와서 미션 스쿨에 교편을 잡고 있는 어느 미국 부인을 만났다. 그는 나에게 자기 학교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직접 바이블을 가르치지 못하고 다만 그리스도의 정신에 서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다만 몇 10년 혹은 몇 백 년에는 이 나라에서도 '주님의 교회'가 설치될 날이 있을 것을 꿈꾸며 일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어서 연전(年前)에 한 청년이 스스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였다고 공언하였으나 사회에서 완전히 따돌리어 드디어는 변절하고 말았는데 이후로도 한두 사람의 개종자가 나오는 것은 선교회로서는 오히려 두통거리밖에 안 된다고 부언(附言)하고 있었다.

3. 터키의 아버지 — 터키의 혁명(革命) —

내가 참석했던 세계교육자총회는 깔라타사라이 리세라는 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렸는데 나는 회장에 들어서자마자 강당 정전(正前)에 걸려 있는 큼직한 초상화에 주목이 되었었다.

알고 보니 그가 바로 근대 터키의 아버지 케말 아타튀르크[5] 그 사람이었다. 어느 나라든 제 나라 건국의 영웅이나 원수의 사진을 즐겨 걸어 놓는 법이자만 터키야 말로 가는 곳마다 아타튀르크 초상화의 범람이었다. 과연 케말은 몸은 평범한 재목상의 가정에서 세워 일개 육군 대령의 자리에서 일약 신흥 터키공화국의 전 국민의 존경을 받게 된 것이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이었다. 특히 회교야말로 민중을 꼭두각시로 국가를 반신불수로 화(化)하게 하는 마약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리하여 1918년 10월 터키 정부가 연합군에게 항복하여 터키의 국토가 숙적 희랍(希臘)군에게 점령당하자 그는 청년동지들과 함께 동부 산악지대에서 외적 격퇴의 십자군을 일으켰던 것이다. 한때 케말의 군세(軍勢)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직면한 때도 있었으나 삭카리아[6]의 일전(一戰)을 계기로 처처(處處)에서 희랍[그리스]군을 격파하여 1923년 연합국과 대 등한 입장에서 로쟌느조약[7]을 체결하고 발칸반도에 걸친 아나톨리아의 영로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스탄불에 있는 현대식 고층건물>

언젠가 최대의 성자가 나와서 회교의 일대 정혁(政革)을 이루고 세계 통일의 구세주가 되리라는 것은 오래 전부터 온 세계 회교도가 꿈꾸어 오던 환상이었다. 그러므로 이교도 희랍군대의 침략을 격퇴하는 케말의 모습을 우러러 국내외의 회교도들은 이제야 구세주가 임했다고 작약(雀躍)했으며 '가즈이 회교 박멸(撲滅)'(가즈이는 상승장군(常勝將軍)이란 뜻)이라고 환호하였다. 그러나 그는 일단 국민의 환호 속에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가즈이 회교 박멸로 표변(豹變)하였다. 1923년 그들은 헌법을 바꿨을 뿐 아니라 그 이듬해 아직 날개도 채 다 돋지 않은 터키공화국은 회교신앙의 옹호자 술탄(회교국 군주)을 추방하고 회교교회에의 헌금을 중지시켰으며 승원(僧院)을 해산시켰다. 부인의 얼굴에서 베일을 벗기고, 남자의 머리에 넓은 테두리의 모자를 씌움으로써 회교에 대한 뜨거운 신앙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 모자 없이는 교당의 예배도 마호메트의 성훈도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스위스의 민법을 축어적(逐語的)으로 터키어로 옮기고 이태리 형법에 다소의 수정을 더하여 이를 국회의

5) 원문은 아타뤁크. Mustafa Kemal Atatürk

6) 원문은 삭카리아. Battle of Sakarya

7) Treaty of Lausanne

<갈라타사라이 리세 고등학교 건물로서 우리나라의 경기 혹은 서울 고등학교에 해당함.>

투표로써 이들 두 법전(法典)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회교의 볍률을 일소하고 더욱이 아라비아문자를 폐지하고 라틴 문자를 채용하였다. 이 문자의 개혁은 회교승려 호자 측의 코란은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하여 엄중한 프로테스트에 직면했던 것으로 고래(古來)의 오토만 터키의 신앙적 문학적 유산의 대부분을 일거에 포기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모든 변화 중에서도 가장 대담하고 놀라운 것은 사회적 이념의 혁명이다. 그들은 국민에게 옛날과 같이 농부나 무사나 정치가가 되려는 염원을 포기케 하고 상공업에 종사할 것을 권고하여 선조(先祖) 대대(代代) 경쟁하는 것조차 수치로 여겨오던 모든 활동에서 서양인 자신에 대해서조차 훌륭히 대항할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이라고 권고하였다.

이리하여 터키인은 거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하여 회교적 감정을 무멸하는데 힘써 봤는데 이 대담무쌍한 행동에 적어도 오늘날까지는 수반되어 온 성공 그 자체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공공연하게 비난하고 있던 회교도 사이에서까지 신망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터키의 국가주의가 '범회교주의'에 치명상을 가한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내가 터키에 갔을 때 이스탄불공항으로부터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는 터키 육군공병대가 도로확장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유럽대륙과 아나톨리아 아시아대륙에 걸쳐 놓은 코프로 대교(大橋) 위아래는 몰려드는 차량과 선박으로 일대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보스포루스 해협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진 도심지대는 고층 석조 빌딩이 좁은 보도를 끼고 임립(林立)하고 있었고 처처에서 신축 중인 유선형(流線型)의 거창한 건물들은 다 민간재벌에서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보도 위의 인파가 차도까지 넘쳐흘러서 차량은 부득이 속도제한을 하거나, 일방통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도가 앙카라로 옮겨진 오늘에도 이스탄불은 여전히 흥왕할 뿐 아니라 제2차 대전에 졸부가 된 신흥터키의 면목은 이 도시 구석구석에 넘쳐흐르고 있었다.

4. 40세(歲) 이상이냐? 이하냐? — 터키의 농촌(農村) —

이스탄불 도심지대서서 본 터키는 조금도 파리나 런던 못지않았다.

그러나 파리에 가서 생각해보니 쇼윈도고 레스토랑이고 학교고 어떻게 그렇게 아스탄불의 차림차림은 파리 그대로일까 하고 탄복 할 지경이었다. 역사가 토인비는 아타튀르크가 헤롯주의자의 거두로서 집권 15년에 천년 묵은 회교의 나라를 하루아침에 부수어 서구 문명의 복제품을 만들어 놓았다고 한 것이 과연 지당한 말인 듯하였다.

토인비의 말하는 헤롯주의란 원래 모방적이어서 인간의 혼(魂)속에 새로운 창조적인 에너지를 해방시키지 못한다는 점과 이러한 현세에서의 단순한 구제도 극히 소수인에게만 가져다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과연 유선형(流線型) 리무진이 제비처럼 달리는 거리에 산 염소를 메고 가는 사람이 눈에 뜨이는가 하면 양고기 냄새가 코를 찌르는 뒷골목에는 누덕누덕 깁고 때 묻은 양복을 걸친 날품팔이 노동자가 우글우글 끓고 있었다. 이런 터키의 어두운 면은 농촌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심각해진다고 한다. 거기서는 이스탄불과 전연 동떨어진 낡은 세계가 그대로 남아 있다. 농민들은 병이 들어도 '알라 하나님'의 섭리라 해서 약을 잘 쓰려고도 하지 않지만 어쩌다가 병원을 찾아오는 농민들은 거의 다 제 나이도 똑똑히 모른다. 의사는 부득이 환자에게 제1차 대전을 기억하느냐 물어서 안다면 40세 이상, 모른다면 40세 이하라고 진찰카드에 기록한다고 한다. 문자개혁에 성공했다고 해도 문맹자는 아직도 전 국민의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등교육은 의무제이지마는 여자아이는 열 살만 되어도 집에서 부려먹을 수 있다고 퇴학시켜 버리는 것이 보통이다. 도시에 엄청난 자본가가 집중되었는가 하면 농촌지대의 빈곤상은 말이 아니다. 농촌에서도 원만한 부자가 아니면 변소를 따고 만들지 않으며 추운 겨울에도 방을 덥히지 못해 가족 틈에 들어 누워서 방한(防寒)을 한다고 한다. 미신적인 종교가 끼치는 해독도 무섭거니와 허덕대고 내 것을 버리고 흉내를 내는 헤롯주의 모방주의도 두렵지 않은가.

5. 형제(兄弟)의 나라 터키 — 터키와 한국(韓國) —

우리는 다른 나라 대표와 달라 터키 문교부장관 동(同) 교육회장 이스탄불 지사에게 각각 선물도 가져 간 까닭도 있었겠지만 우리 대표가 터키를 방문한 기사는 사진과 함께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다. 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를 보

고 친구가 아니라 형제라고 하였으며 자기들은 역사시간에 터키 사람은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는 함께 한 조상의 자손이라고 배웠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다. 그들의 키는 우리와 비슷하게 몽탁한 편이었으며 얼굴빛도 비슷하였다. 음식은 양(羊)고기를 중심으로 양념을 비교적 많이 하는 편이어서 우리 비위에는 맞지 않았다. 양념을 많이 하는 것은 열대지방에 가까운 까닭도 있다. 하지마는 동양인적인 습성에서 오는 것인 지도 모른다. 박물관에는 갑옷과 투구의 진열뿐이었으며 터키 국민들의 운동경기를 좋아하는 표정은 무인(武人) 터키의 모습을 엿보게 하는 듯하였다.

예술적면뿐 아니라 문화전체에 걸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뒤떨어지지 않았는가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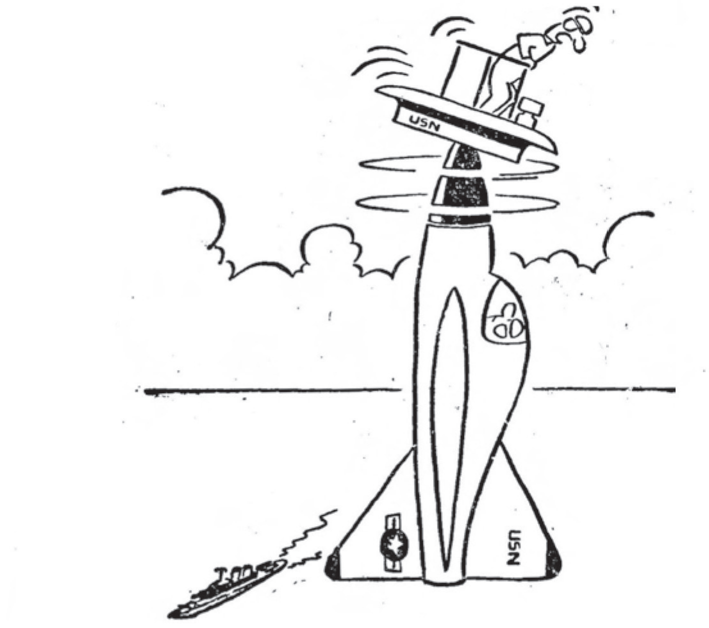
하루 저녁은 이스탄불시 공설체육관에서 터키민족무용회의 초대가 있었다. 민족무용이 시작되기 전에 우선 그 나라 해군사관학교, 사범대학체육과 및 여자고등학교의 3개 단체의 체조경기가 있었다. 그 수준은 우리 국군이나 학생체조 수준에 비하여 훨씬 못한 것이었지마는 터키 관중들은 열광적인 박수를 끊임 없이 보내고 있었다. 맨 끝에 가서 민속무용이라고 하면서 춤을 추는 광경은 마치 타이완(臺灣) 토인(土人)들의 무용을 연상케 하리만큼 단순하고 유치한 것이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그들은 손을 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터키 사람이 얼마나 자 존심이 강한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미국의 원조를 받으나 저들에게 아부함이 없는 듯 하였으며 소련을 조석으로 마주 보고 있으나 목하에도 보이지 않는 듯하였다.

회의의 전후를 통하여 시찰여행이나 파티나 할 것 없이 우리의 뒤를 보아주며 은근한 우정을 베풀어 주던 터키 여 교원 대표 두 분은 작별에 임하여 자기네 용돈으로 선물까지 사주면서 우리와의 이별을 아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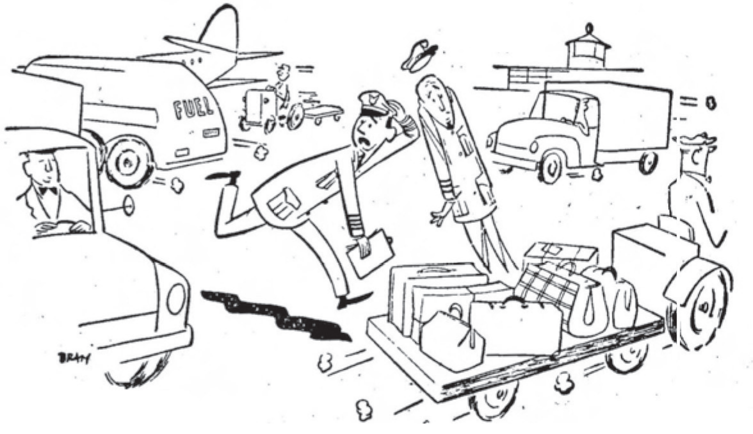
어두워가는 창밖을 내어다 보며 파리로 떠나가는 비행기 시간을 기다리고 있노라니 라디오에서 터키음악이 흘러나온다. 구슬픈 곡조가 우리나라의 고전 민요와 너무나 비슷하여 이역(異域)의 애수(哀愁)를 더하여 주었다.

(필자(筆者) 대한교련문화부장(大韓敎聯文化部長))



수직상승기(垂直上昇機)의 변이(變異)

“헤이! 이 친구, 코앞이나 좀 똑똑히 보고 조종을 해!”



“비행기를 조종하고 다니자면 이런 곳이 무서워서……”

고공(高空)의 경이(驚異)

제트 스트림(Jet stream)

이원철(李源喆)

차 례

1. 고공(高空)의 비밀(秘密)은 개척(開拓)되어 간다.
2. 제트 스트림의 발견(發見) 및 그 형태(形態)
3. 제트 스트림 형성(形成)의 원인(原因)
4. 제트 스트림의 이용가치(利用價值)

1. 고공(高空)의 비밀(秘密)은 개척(開拓)되어 간다.

지구표면에서 생을 영위하는 인류는 옛날부터 무한히 높고 넓은 하늘을 동경하며 여러 가지의 신비스러운 상상을 하였고 많은 과학자들은 고공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연을 띄우고 기구를 올리고 혹은 항공기를 이용하여 상공의 대기를 관측하며 연구하여 온 것은 고공의 실상을 밝히기 위한 대자연에의 도전이었던 것이다.

과학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적게는 원자의 하부로 파고 들어가서 핵을 구성하고 있는 소입자(素粒子)를 추구하게 되었고 크게는 지구 밖의 다른 세계로 연구의 메스는 뻗쳐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V-2호 로켓(제2차 대전 중 독일이 사용한 것)을 발사하여 초고층 대기의 연구를 하였고 그 후에 에어로비(Aerobee) 바이킹(Viking)이라고 부르는 로켓도 이용하게 되었다. 바이킹은 1단식 로켓으로서의 최고 도달기록(215km, 1951년 8월 7일)을 세웠다. 이러한 로켓으로써 초고층대기에서의 공기밀도, 압력, 기온, 공기의 조성, 태양복사, 전리층의 전자밀도, 지자기(地磁氣), 우주선 등의 연구를 하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 계획되고 있는 인공위성이 실현되면 이와 같은 연구는 더욱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게 되겠고 고공의 실태를 보다 더 명확하게 파악하게 될 날이 멀지 않을 것 같다.

밤낮 할 것 없이 항상 지구로 입사(入射)되어 오는 거대한 에너지를 가진 우주선은 그 대부분이 양자(陽子)이며 양자는 양전기를 가지고 있다. 전리층은 전파를 반사하는 층으로써 공기의 분자나 원자가 대전(帶電)한 상태로 되어 있다. 또한 극(極)지방의 상공에 나타나는 오로라(Aurora)는 태양 면으로부터 발사된 대전한 수소와 칼슘의 입자가 상층공기에 부딪쳐서 생기는 현상이다. 자석의 양쪽 극에 철분이 달라붙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구의 남극과 북극도 전기를 가지고 있는 입자를 끌어당기므로 곧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즉 우주선이나 전리층이나 오로라나 죄다 대전한 입자에 관계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극 양 지방의 상공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어떤 특수한 현상을 일으키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되는 것이다. 인공위성의 궤도를 남북극 상공을 통과하게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을 연구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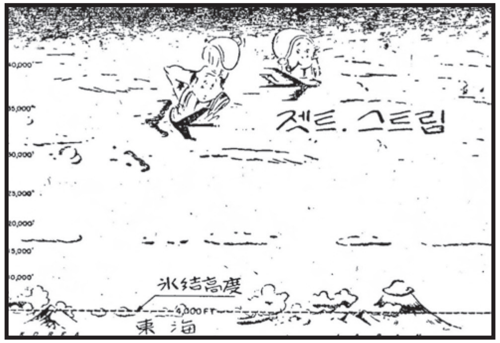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의 연구는 일익 활발하여져 가고 있으며 보다 더 고공으로 고공으로 확대되어 간다. 고공에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현상이 있을 것이나 과학자들은 그 비밀을 하나하나 개척해가고 있다. 그리고 장차 초고공의 연구가 진척되면 기상(氣象)과의 관계도 밝혀질 것이겠고 인류생활에 공헌하는바가 크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제2차 대전 중에 발견된 제트 스트림(Jet stream)에 관하여 말하기로 한다. 제트 스트림은 권계면(圈界面)(대류권(對流圈)과 성층권(成層圈)과의 계면(界面))에 가까운 대류권상공에 있는 특이한 현상의 하나이며 벌써 일부 항공기의 항행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2. 제트 스트림의 발견(發見) 및 그 형태(形態)

지상에서 시속 60마일(초속 27m)되는 바람이 분다면 수목은 뿌리 채 넘어지고 인가에 큰 피해를 주게 되며 해상의 물결은 무섭게 높아져서 보통의 선박은 항행을 못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지상풍이 약할 때라도 높은 상공에는 상당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10,000피트 정도의 상공에는 50~60마일의 바람이 흔히 불고 있다.

제2차 대전 당시 30,000피트의 고도로써 미국으로부터 일본으로 비행한 W-29의 조종사가 드롯틀(throttles)을 전개(全開)하여 발동기는 전 속력으로 회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비행기가 공중에서 전진을 못하고 정지 상태에 빠진 일이 있었다. 이 보고에 접한 미국의 기상학자들은 기이한 이 현상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활발히 전개하고 우리의 상공 30,000피트 내외 되는 높은 곳의 어떤 부분에서는 시속 200~300마일이나 되는 놀라운 풍속의 기류가 질주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공기의 급류를 제트 스트림이라고 부른다. 최근 제트기 비행에서 가끔 경험하는바 클리어 에어 터뷰렌스(Clear air turbulence)는 제트 스트림 부근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 간의 동서(東西) 단면도(斷面圖)

1947년에 시카고대학의 기상반(氣象班)에서는 세계각지의 조종사보고를 종합 연구한 결과 제트 스트림은 적도의 북쪽 약 2,000마일 되는 지역의 상공에서 지구의 둘레를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끝없이 감돌고 있는 일대 기류임을 알았고 후에 적도의 남쪽 호주(濠洲), 뉴질랜드 등 상공에도 이에 대응하는 제트 스트림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북반구의 제트 스트림은 몇 줄기의 평장한 풍속의 기류의 분류로서 구성되어 있다. 강대한 풍속을 가진 바람이 히말라야산맥에 부딪칠 때 손가락 모양으로 갈라져서 지류가 형성된다. 산맥 북쪽에 생긴 지류는 중국 상공을 휩쓸며 횡단하는데 여기에서 시베리아로부터 내려오는 한랭한 기단(氣團)의 작용을 받아서 놀라운 풍속으로 가속이 되고 우리나라 남단부나 제주도 상공 35,000피트 부근에서 시속 400마일 가량이나 될 때가 있다. 이것은 일본 상공에서 가장 그 세력이 강대하여지는바 38,000피트에서 간혹 시속 450마일이나 될 때가 있다. 일본을 지나서 풍세가 약하게 되지마는 계속 태평양을 횡단하고 캘리포니아 오리건(California Oregon) 해안의 상공에 이르러서 다시 풍속이 증대한다. 록키산맥 위에서는 와동(渦動)을 만들며 미주 동해안과 대서양과 구라파를 횡단하고 다시 히말라야산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트 스트림은 극의 둘레를 사행(蛇行)하며 때로는 파동운동을 하기도 한다.

제트 스트림의 수평방향의 넓이와 수직방향의 깊이는 그 중심의 강도에 따라서 좌우되고 있는데 6마일(10km)의 깊이와 300마일(58km)이상의 넓이를 가지고 있음이 보통이다. 풍속의 수직방향의 변화는 측정결과에 의하면 고도 1마일의 변화에 대하여 시속 72마일이나 되고 수평방향의 풍속변화는 중앙으로부터 북쪽에서 1마일마다 1노트이었다.

제트 스트림의 높이는 계절에 따라서 상당히 크게 변동을 하고 있는데 15,000피트로부터 50,000피트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대체로 겨울에 낮고 여름에 높아진다. 즉 북반구에서는 3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고 10월 중순까지는 낮은 고도로 다시 내려오는 일이 없다. 이것은 제트 스트림의 높이가 그것을 아래로부터 밀어주는 난기단(暖氣團)의 기압에 의존함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북반구의 제트 스트림이 여름에 높이 올라갈 때 남반구에 있는 것은 아래로 내려오고 겨울에는 이 역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 제트 스트림의 지리적 분포를 조사해보면 그 평균 위치는 겨울에 북위 25도, 여름에는 42도로 되어 있다. 그리고 겨울에 강대하며 여름에는 약하다.

이 고공의 강력한 바람은 높은 권운의 한 종류인 말꼬리구름(Mares tail)을 형성하게 되어서 간혹 우 리의 육안으로 찾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3. 제트 스트림 형성(形成)의 원인(原因)

그러나 이 제트 스트림이 굴곡하고 선회하는 정확한 이유와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충분한 구명(究明)은 아직 되어있지 않다. 중공, 시베리아 및 티베트 지역의 관측치가 많이 있어야 하겠는데 자유진영 항공기의 이 지역 비행이 금지되어 있고 그들은 관측치를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연구 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로써 기상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

적도 부근의 온난한 기단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힘으로 극(極)지역으로부터 내려오는 한랭 전선(前線)의 기층(氣層)의 일부를 서서히 되밀어 올린다. 이 기층은 두 기단의 강력한 압력 때문에 더 상승할 수도 없고 더 하강할 수도 없게 되어서 마침내는 마치 치약이 튜브에서 밀려 나오듯이 그 두 기단사이를 옆으로 분출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제트 스트림은 형성된다. 지구 회전의 영향 역시 제트 스트림의 풍속 증대를 촉진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4. 제트 스트림의 이용가치(利用價值)

비행기가 제트 스트림을 타고 서울로부터 미국으로 와 비행한다면 한 여정(旅程)에 약 2,300갤런의 휘발유, 약 7시간의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제트 스트림을 잘 연구하고 유효하게 이용한다면 비행에 큰 이득을 가져 올수 있는 것이다. 묘한 것은 서(西)로부터 동쪽으로 흘러가는 제트 스트림의 바로 밑 약 10,000피트 되는 곳에서 시속 30마일의 바람이 언제나 동으로부터 서쪽으로 불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방향이 상반되는 이 두 기류를 타고 같은 날에 서울로부터 미국으로, 미국으로부터 서울로 비행하는 조종사들이 다 같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소련에서는 이 강력한 바람을 그들의 비밀무기처럼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들의 폭격기가 대양을 건너 갈 때 이 기류를 이용하면 큰 효과를 올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태평양전쟁 때에 일본에서는 미국 서해안 측 산림에 산화(山火)를 일으키게 할 목

적으로 소이탄(燒夷彈)을 매어단 기구 수백 개를 날려 보내는 데에 이 기류를 이용한 일이 있었고 그 중의 몇 개는 실제로 미주(美洲) 내에 도달한 것이 있었다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황해 남부의 적당한 고공에서 제트 스트림을 가령 잘 이용하면 작은 물체를 일본대륙에 낙하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군부에서는 이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고 제트 스트림에 관한 연구를 충분히 하여 둘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 특이한 기상현상은 머지않아 중요한 군사용무기로 이용될지도 모르는 것이며 장거리 민간항행에 경제적인 이익을 제래(齊來)하게 될 것이다.

구름의 생성, 비, 눈 및 그 밖의 강수의 양, 그리고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의 이동은 상층기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제트 스트림 내에서의 상이한 점들의 온도의 차, 동요(動搖)(Turbulence)의 정도, 빙정(氷晶)(Ice crystal)의 형성 등과 예보 시각의 지상상태와를 비교 조사한다면 기상예보를 위한 새로운 중요한 도구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강도와 위치의 변동, 즉 고도의 변화와 북상 혹은 남하의 경향 등에 주목하면 서방 관측치가 없기 때문에 예보상 다대한 곤란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예보자로서는 기압계의 변동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유력한 자료로 삼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제트 스트림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앞으로 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여 점차 그 정체가 밝혀질 것인바 미국에서는 1957년경까지에는 해결이 되리라고 추측하고 있다.

원수폭(原水爆)과 기상(氣象)

우리들의 총애를 받고 있는 「코메트」의 어느 호(號)인지 「과학(科學)하는 군인」이라는 것을 읽은 일이 있다. 늘 과학하는 마음을 갖고서 현대전에 임한 군인으로서의 상식을 갖추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돋워 주는 좋은 글인 것 같게 기억된다.

그 후 나는 이따금 출근차 내 또는 근무장(勤務場) 내에서 최근 몇 년의 동계기온이 온난화하고 있음을 원수폭에 인한 것인 듯이 질문하는 여러 전우를 보았다.

그러던 중 1954년 봄 RIKINI 환초(環礁)에서의 수폭실험이 동(同) 환초 부근의 선박 및 어류에 방사능 상자를 입혔고 지난 11월 하순에는 소련에서 수소탄폭발실험이 있었다는 보도와 함께 일본 각지에서는 비교적 강한 방사능우(雨)를 관측하였다고 들었다

나는 이러한 방사능우니 무어니 하는 보도를 들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마치 수소탄이 폭발하였기 때문에 생성된 방사능 진애(塵埃)가 대기 상층의 기류를 타서 비래(飛來)하여 구름의 생성을 가속시켜 마침내는 방사능우라는 것을 뿌리게 한 것 같은 감을 갖기 쉬워 이제 방사능진애를 위주로 하여 원수폭과 기상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 중 오늘까지 알려져 있는 것을 추려서 소개하려고 한다.

1. 상층기류(上層氣流)와의 관계

우선 원수폭 폭발에 수반하는 방사능진애는 인축(人畜)에 대단히 유해하기 때문에 실험에 앞서 끼리 기상상태에 세심(細心)[8]한 주의를 하여 인축에 해를 끼치지 않게끔 노력하고 있으며 기상조건이 나쁘면 조건이 좋아질 때까지 정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원수폭과 기상과의 관계 중 선행되는 점이다.

그것을 말할 나위도 없이 원수폭에 의한 버섯형의 원자운(방사능회(灰)의 덩어리)이 폭발에서 생긴 고열(폭발 직후 1만 분지(分之) 1초에 섭씨 약 30만도) 때문에 공기가 급격히 가열되어 맹렬한 승등(升騰)기류가 생김으로서 일거(一擧) 24km(80,000척(呎))까지 올라가며 그 일부는 권계면(圈界面)을 뚫고 최대 40km(120,000척)까지 달하며 주요부는 2만~3만 m 상층의 기상학적 유적선(流跡線)(어떤 기괴(氣塊)가 지나온 유적)을 타서 확산 비거(飛去)하는 때문에 폭발지 상층의 기류에 대한 사전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즉 상층 기류가 흐르는 데로 방사능진애도 흐를 것이라는 것이 추리되기 때문에 방사능진애의 낙하속도와 상척(上尺)풍의 풍향 풍속을 잘 분석하여 가능한 한 방사능진애의 직접적 해를 받지 않게끔 하는 것이다.

2. 기온(氣溫)과의 관계(關係)

몇몇 기상학자 특히 일본의 기상학자는 이 방사능진애가 상층에서 확산하여 대기 상척에 미세한 진층(塵層)이 부유(浮遊)하게 되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복사량을 감소시켜 지상의 평균기온을 저하케 함으로서 농작물 발육상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지 나타난 결과는 원수폭실험이 있은 후 미국은 계속해서 평균기온이 이전보다 높아지는 경향을 가졌으며, 지중해 서구 등은 저온화 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평년보다 낮아진다고 하지만 세계가 일양(一樣)하게 저온화 하는 것이 아니고 국소적으로는 고온역(高溫域)으로 나타나고

8) 원문의 세인(細人)은 세심(細心)으로 봄.

있다는 것이다. 참고적으로 적어 놓지만 고온역은 스칸디나비아반도에서부터 소련서부, 미합중국 북서부, 시베리아 동부, 인도 등지에 있고, 저온역은 지중해로부터 서구, 시베리아 중앙부, 합중국 남부에 있다고 한다.

3. 구름 및 비와의 관계(關係)

원수폭과 기상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가설 중 흔히 인용되는 것이 곧 이 방사능진애와 구름 및 비의 생성과의 관계인데 이것은 방사능진이 공중에 있어 응결핵의 역할을 하여 구름 및 비의 생성에 무슨 촉매적작용을 하는가? 부터 시작된다. 미 공군캠브리지중앙연구소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방사능진애의 시료(試料)에 대한 핵화성(核化性)을 실험한 결과, 빙핵(氷核)(승화핵(昇華核)과 응결핵)으로서는 부적당하다는 것이 알려졌으며, 이것은 또 대기 중의 빙핵 수와 방사능 낙하량 간의 규측적 사실(원수폭에서 분열한 세진(細塵)이 좋은 빙핵을 공급한다면 방사능 낙하량이 클 때엔 의례히 빙핵 수도 늘어야 하는데 규측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을 보아서도 방사능진애가 빙핵으로서의 적성은 없다는 것이 나타난다.

전자(前者)의 실험은 원자복사 실험용 선원(線源)을 사용해서 연구된 것으로 거듭 적지만 방사능입자가 빙핵 형성을 조장하는데 효과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방사능우 중에 방사능진이 함께 들어있는가? 그것은 강수현상이라는 것이 공중에 부유하고 있는 보통먼지를 포착 세척하는 단순한 작용과 똑같아 방사능진애도 우적(雨滴)의 세척(洗滌)작용을 받아 우적과 함께 낙하하는 것으로 결코 방사능진애가 빙핵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합브드크 해양기상대의 로데바르트 박사는 1954년의 전 세계의 우량(雨量)이 이상할 만큼 (전 세계에서 평균 5mm 많다) 많았던 것을 수폭에 인하여 생긴 방사능진애에 의한 것이 아닌가 했고, 일본에서도 근년에 들어서 하천의 유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는데 역시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추측에 지나지 않으며 이론적 이유는 설명 못하고 있다.

4. 폭발(爆發) 그 자체(自體)의 영향(影響)

첫 번 원자탄실험이 있은 후 미국의 기상국과 원자력위원회는 불쾌한 천기(天氣)가 수폭폭발에 인한 것이라는 등, 원수폭을 시풍(施風)이나 TORNADO를 소산(消散)시키는데 사용하면 어떠냐 등, 여러 가지의 웃지 못 할 불평을 듣고 왔는데 이에 대한 대답을 여러 과학자로부터 받은바, 원수폭이 천기에 무슨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과학자는 극히 적었다.

그것은 1-NOMINAL의 원수폭의 ENERGY는 2만 톤의 T.N.T.에 해당하는 ENERGY를(열량으로 환산하면 약 20×cal) 갖고 있는데 이것은 인공적 폭발에 비해서는 거대한 ENERGY이나 자연환경의 ENERGY와 비교하면 아주 적은 것이다.

가령 전형적 뇌우(雷雨)에서 수적(水滴)이 응축함으로서 방출되는 ENERGY는 13NOMINAL의 원수폭이 발생하는 열량에 비등(比等)하며 춘계 1일간에 받는 일사량은 1평방리당 평균 열 ENERGY가 2NOMINAL, 원수폭이 폭발할 때 발생하는 열량과 같다는 등이다.

따라서 원수폭에 의한 천기현상의 변화가 있다 해도 그것이 국지적 현상만이 발생하며, 원자운 추적비행기 탑승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실험구역 외곽 및 리(哩) 밖에서는 별다른 큰 변화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지적 현상의 예로서는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탄에 의해서 잠깐 계속된 섬광에서 발생한 열은 히로시마 상공을 부유하고 있던 습윤한 공기 속에 강한 소낙비를 내리게 하였고, BIKINI에서의 수중폭발 때 나타난 저랑(底浪)(BASE SURGE)도 또한 20~30분 동안의 소낙비를 조성시켰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영향이 있다 해도 국부적이며 그 강도가 경미하다는 통계적 사실만 갖고 있는 것이다.

5. TORNADO와의 관계(關係)

미국에서는 NEVADA에서의 원수폭실험과 가장 합리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듯한 기후학적 인자(因子)로 TORNADO의 빈도를 많이 인용하였는데 이것도 별로 신통한 결론을 얻지 못하게 하고 있다.

즉 1953년에 보고된 TORNADO의 수는 기왕의 최대 연평균 수보다 200회나 더 많아 532회나 되며 1954년 1월부터 동 10월까지 10개월 동안에는 686회나 보고되고 있어, 그 이유를 살펴 내기 위하여 천기 모양을 분석하였는데 원수폭실험이 있은 후부터는 이례적으로 강선풍(强旋風)적 활성을 띤 것이 알려졌으며 관측된 TORNADO의 중요한 특징은 쇠약해서 땅과 접하지 않은 공중 누두형(漏斗型) TORNADO가 그전에 보고된 수의 약 십 배나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원자운이 있었던 공간 또는 방사능진애가 다량 낙하한 지대에서 보다는 방사능진애가 비교적 소량 낙하한 지대에서 이와 같은 TORNADO가 더 많이 관측[9]되었으며 어떤 것은 최종 원자폭발이 있은 6개월 후에 발생한 것도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수폭과 관계가 있으리라고

9) 원문의 규측(規測)은 알기 쉽게 관측(觀測)으로 함.

추리하여 진행한 TORNADO의 증가에 대한 이유를 어떤 사람을 최근에 발달한 보고계통에 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설(說)도 나갔다.

즉 1953년에 놀랄 만큼 장족의 발전을 본 TORNADO 규측 및 보고망이 확장됨으로서 TORNADO의 보고수가 증가한 것일 거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추리도 있을 수는 있으나 좌우간 현재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원수폭의 폭발에 의해서 생성된 방사능진애가 TORNADO의 발생을 방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나 또한 그 빈도를 증가시키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며 역시 미해결 중에 있는 문제이다.

6. 기압파동(氣壓波動)과의 관계(關係)

원수폭의 폭발에 의해서 발생한 기압파동(PRESSURE WAVE 충격파동이라고도 함)은 상당히 먼 곳에서도 감지할 수 있을 만큼의 기압도화(氣壓度化)를 일으킨다. 폭발 후 초음속으로 사방에 전파하는 이 기압파동은 얼마 후 거의 음속과 근저한 속도로 전파케 된다.

지난 11월 하순 소련에서 실시한 수소탄에 의해서 전파하여 온 기압파동은 우리나라 근처에서 수은주 약 0.1mm(0.1mb 강(强))의 변화를 주었는데 1954년 3월 BIKINI 환초 실험 시의 3분지 1 내지 4분지 1정도의 값이었다. 이 기압파동의 통과는 미압계(微壓計)에 의해서 기록되는데 만일 많은 관측소에서 기록한 쇽크 후론트(SHOCK FRONT, 기압파동의 전면(前面))나의 통과 시간으로 등시선(等時線)을 그리면 그 곡률(曲率)과 곡률반경의 크기 및 방향이 대략 결정[10]되어 폭발지점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금번(今番) 소련에서 실시한 수폭실험과 그 당시의 우리나라 부근의 기상 간의 관계를 몇 가지 들겠다.

상층기류의 유적선(流跡線)을 그려 추리 추적을 한 결과는 타쿠라마칸 사막 서방의 한랭 건조 기후 구(區)인 Lepsinsk 남방의 황무지에서 실험한 것 같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원수폭 폭발에 인한 인공 방사능진애의 이동이 방사능진애를 점하고 있는 공간고도에서의 주(主)기류의 이동과 병진한다는 가정 하에서 얻은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정밀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또 하나는 22일 화중(華中)에 있던 고기압이 27일 아침 일본열도 동북방에 그 중심을 두었는데 이 고기압은 그간 여러 해상을 횡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강한 안주도(安住度)를 계속 유지하였었고 아마 이 고기압을 구성하는 기단에 실려 온 것 같기도 하다.

즉 이 고기압의 중심권 내에서 방사능진애를 측정하였고 그 후면에서는 상당히 강한 방사능우(雨)를 계측(計測)한 때문이다. 즉 상층기류를 따라 비래한 방사능진애가 남동진하면서 서서히 낙하하여 이 고기압을 구성한 기단에 포함되어 온 것 같게 생각되는 것이다.

이럭저럭 몇 가지 적어 봤는데 미국원자력위원회에서 발표한 「원자무기폭발의 기상의 대한 영향」을 읽어 보아도 그렇지만 원수폭의 ENERGY가 기상에 대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친것은 거의 없고 있다 해도 그것이 국부적이거나 또는 아주 미약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또 그 자체마저 충행(充行)한 연구 개념과 다른 규측 결과의 통계적 사실이므로 앞으로는 어느 명확한 이론이 체계화될 것이라고 믿어진다.

(필자(筆者) R 중위(中尉))

---

10) 원문은 決走로 되어 있으나 결정(決定)으로 함.

화성탐험(火星探險)을 싸고도는 문제(問題)

로버어트 S. 리촤아드슨

필자 소개

RSI 리촤아드슨 박사는 미국 월슨 및 팔로말 양(兩) 천문대에서 화성(火星)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의 권위자로서 국제화성위원회의 위원으로서도 활약하고 있는 세계화성학계의 태두(泰斗)이다. 최근의 저서로는 「화성탐험」이 있다.

꿈의 현실

화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제외하고 인간의 능력으로써 생물의 존재를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유성(遊星)이다. 태양 이외에도 생물이 번성하는 유성을 주위에 거느리고 있는 큰 별들이 이 우주에는 무수히 존재할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 길이 없다. 현재로 보아서는 앞으로도 알 길이 있으리라고는 거의 믿어지지를 않는다. 결국 우리가 우주에 있어서의 생명체를 논하는 한 지구인의 논의의 대상으로서는 화성이 있을 뿐이다.

극히 최근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지구학으로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직 한 가지의 허황한 꿈으로 밖에는 여겨지지를 못해 왔다. 그러나 현금에

이르러 아연 로켓과 전자과학의 눈부신 발달은 우주여행의 가능성을 우리 당대(어떤 종류의 과학적 기준으로 본다면 앞으로 10년 내)에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우리 안전(眼前)에는 문자 그대로 눈부신 미래가 전개되고 있다. 한없이 많은 발견의 기회가 가로 놓여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인류가 지니고 있는 우주탐험의 정열도 역시 제한을 모를 정도로 커가고 있다.

우리는 종래에 이루고자 애쓰던 꿈의 실현을 앞두고 추구(追求)에 흥분한 나머지 오히려 우리가 쫓고 있는 대상에 대한 인식을 소홀히 해온 감이 있다. 우리는 풋내기 사냥꾼처럼 추구의 결과가 노고의 대가나 될지 어떨지를 별로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것이다. 또한 타 유성의 정복이 오히려 어떤 혼란의 화근을 초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고려에 넣어본 일이 거의 없었다. 설사 우리가 화성여행에 성공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무려 수십억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의 소비를 본 연후의 일이 된다. 이것은 단일 목적을 위한 장비의 건조비로는 사상최대의 비용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막대한 금액을 낭비하고 우리는 어떠한 소득을 기대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우선 화성이 어떠한 종류의 세계인가를 알아야만 할 것이다.

영하(零下) 150도(度)의 기온(氣溫)

외형상으로 보아 화성은 대체로 지구에 비하여 별다른 차이가 없다.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아서 화성의 표면은 지구와 너무나 흡사한 곳이 많은 까닭에 사진을 통해 볼 때는 그 판별이 곤란할 정도다. 천문서가로서 이름이 높은 어떤 미술가의 한 사람은 말하기를 자기가 그려본 유성 중에서 가장 그리기에 힘든 것이 화성이었다고 한다. 잡지의 편집자들은 독자들이 종종 화성의 사진을 레노나 또는 라스베이거스 근처의 산골로 잘못 보는 사실을 들면서 독자가 별로 신기하게 보지도 않는 화성사진에 비싼 제공ㄹㅅ(提供料)를 내야한다는 불평을 농으로 늘여놓을 때도 있었다. 화성의 지형을 말한다면 실질상 전(全) 표면은 건조한 육지로 이루어져있으며 그 육지의 대부분은 사막으로 되어 있다.

화성은 흔히 작은 유성으로 간주되기 쉬운데 과연 그 반경은 지구의 약 반분(半分)밖에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지구 표면의 4분의 3은 주로 바다와 생물이 번식치 못하는 불모의 땅으로 덮여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하튼 이 두 개의 유성을 육지의 표면적만으로 비교한다면 화성은 지구와 그 크기가 신통하리만큼 같다고 볼 수 있다

지구상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사막'이라고 하면 필경은 '뜨거운 곳'을 연상되는 것아 상례지만 화성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되어있다. 대체로 유성의 기후는 티베트의 고원지대처럼 표고도가 높고 한랭한 사막의 기후를 가지고 있다. 화성은 지구보다 태양에서 평균 5천만 리나 더 먼 거리에 놓여 있는 까닭에 응당 지구보다 훨씬 더 추운 곳으로 생각되는데 사실 정밀한 온도탐지기로 재어본 결과로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화성 적도 지방의 주간 평균기온은 약 화씨 40도인데 워낙 대기가 희박할 뿐더러 건조한 까닭에 온도의 승강은 거의 없이 일정하다. 따라서 지구상에서는 하루의 최고온을 대략 오후 세시 경에 잴 수 있는데 비하여 화성에서는 정오 무렵에 가장 높은 기온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기온은 해가 지게 되면 급격히 강하하여 화씨 10도까지 떨어지게 된다.

화성의 태양광선을 받지 않게 되는 부분은 언제나 지구가 있는 방향과 등을 지게 되므로 심야의 기온을 직접 측정할 수는 없지만 화씨 영하 20도로 추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대체로 극히 온도가 낮은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양극 지방에 있어 측정된 기온은 화씨 영하 90도로서 이로 미루어 볼 때 시간적으로 낮에 비하여 밤이 몹시 긴 극지와 야간 온도는 화씨 영하 150도까지도 하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와 반대로 화성이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놓여 있을 때는 적도 근처의 검은 지점에서는 화씨 80도라는 상당히 높은 온도가 측정된 일도 있다. 이에 비하여 지구상에서 기록된 기온을 본다면 트리포리 지방의 화성 136도가 최고온이며 시베리아 지역의 화씨 영하 10도가 최저온으로 되어있다.

산소(酸素)가 없는 공기(空氣)

관측에 의하면 평상시 둥근 화성표면에 특징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곳이 가끔 안개와 구름에 의하여 덮여져 있을 때가 많은 것으로 미루어본다면 화성의 대기가 어느 정도로 희박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다행일지 불행일지는 모르지만 화성의 대기상태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부정론적인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예를 들면 화성에는 산소가 전연 결핍되어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있다고 치더라도 최대한 지구의 1%도 안 되는 분량밖에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상론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일체의 생물체는 최하등의 조직을 가진 미물(微物)을 제외하고는 산소가 그 생존의 절대조건으로 되어있다는 점으로 보아 인류가 화성에서 건너오는 침략자로 인하여 파멸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억설에 불과한 것이다.

현재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바에 의하면 화성의 대기는 지구의 공기와 같이 화학적 변화가 없는 가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소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지구와 다를 뿐이라고 생각된다.

수분도 또한 화성에 있어서는 구하기 힘든 물질의 한 가지다. 화성표면에서 수분이 많은 곳으로 가장 분별키 쉬운 곳은 양극 지방의 흰 색깔로 보이는 곳인데 이 백색부분의 면적은 겨울에는 커지고 봄이 가까워지면 줄어든다. 따라서 이 흰 부분이 엷은 서리와 눈의 축적으로써 형성되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은 조금도 무리가 없는 것이다. 한때는 이것이 냉동된 이산화탄소나 또는 드라이아이스(고체 무수탄산이 주성분임의 축적된)것이라고 생각된 일도 있지만 결국 이와 같은 해석은 포기되고 말았다(화성의 양극표면의 온도는 이러한 물질이 형성되기에는 너무나 따뜻한 것이다).

화성에 있어서는 이 양극 지방에 쌓여있는 눈이 곧 수분의 유일한 원천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상태는 우리 지구인의 눈으로 볼 때는 괴이하리만치 기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언젠가 오래전의 일이지만 프린스톤대학의 H N 럿셀 교수가 전(全) 화성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심한 수분의 계속적인 고갈상태를 설명함에 있어 화성에 있는 모든 수분을 다 긁어모으더라도 미국에 있는 휴론 호(湖)의 면적을 채울 정도도 안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극히 주목할 만한 비유라고 할 것이다.

화성상에 있어서 동물이 존식(存植)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보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식물이 자라날 수 있는 증거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아직도 이러한 설에 대하여서는 이론을 가지고 있는 학자도 있기는 하지만 현대 천문학자의 대부분은 화성에 식물이 존재한다는 가설에 대하여 별로 이의를 품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화성(火星)의 식물(植物)

화성 식별(識別)의 특징으로 되어있는 붉은 색깔은 북반구에 있는 불모의 사막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편인 위도상으로 보아 40도까지에 이르는 남반구는 암록색(暗綠色)의 지대로 둘러싸여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마라아 지대라고 부른다. 그 명칭이 표사하는 바와 같이 이 지대는 사실상 과거에 바다로 되어있던 일이 있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화성의 지식이 너무나 그릇된 것이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믿기에도 힘든 일로 생각된다. 마리아 지대는 계절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화성에서 식물이 성장과 고식(枯息)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좋은 증거가 되는 것이다. 겨울에 있어 이 지대의 색조는 암회색 내지 갈색을 이루고 있으나 봄철이 다가오고 양극 지방의 눈이 차츰 녹기 시작하면 '촉진(促進)'의 물결은 점차로 적도를 향하여 밀려나오며 마리아 지대는 차츰 짙은 색깔로 변하다가 마침내는 녹색으로 화(化)하게 된다. 이것은 마리아 지대에서 매년 식물의 생멸(生滅)이 틀림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식물의 생멸현상이 없다면 이 지대는 사막의 먼지로 말미암아 색채의 계절적 변화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식물존재의 가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산소의 결핍과 수분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지만 그밖에 영도 이하의 한랭한 기온도 또한 대부분 종류의 식물을 화성상에 존식(存殖)치 못하게 하는 큰 원인이 된다. 그러나 이끼(태(苔))와 같은 식물은 아무리 불리한 조건 아래서도 제한을 안 받고 자라날 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충분히 화성에서도 파식(播植)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식물자체의 특징만으로써 곧 화성에서는 이끼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또한 녹색의 마리아 지대에 식물이 번무(繁茂)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화성의 식물은 대체로 지구상의 식물과는 종류를 달리할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인간활동(人間活動)의 가능성(可能性)

만일 인류의 우주여행이 실현케 된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인가? 우주여행의 가능을 전제로 다시 화성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화성여행에는 아직도 허다한 곤란과 불안성이 수반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금(現今)에 이르러서는 원칙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상금(尙今) 얼마만한 여행을 통하면 화성에 도달케 될는지 그 시간을 단정키는 힘든 일이며 이 밖에도 수많은 사실이 확정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다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 세부적으로 검토된 계획에 의하면 왕복에는 약 3년의 세월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것은 여정 가운데에 449일간의 화성 체류기간을 포함한 계산이다. 앞으로 발전될 기술적인 여지를 충분히 고려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왕복에는 언제나 막대한 시간이 소비될 것으로 상정된다(물론 원자연료가 사용될 수 있게 된다면 다소의 사정이 달라질 것도 생각되지만). 경이적인 노력의 결과로서 수백명에 달하는 미혼청년의 일단(一團)이 마침내 화성에 도착하여 인간 활동의 근거지를 설치했다고 가상을 하자. 여기에 선발된 사람들은 최대한으로 신체적인 조건을 구비하는 동시에 성격상으로 보아서도 조금도 불비(不備)한 점이 없다고 인정된 자들이라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일이다. 지구에서 화성에 이르는 왕거리의 인원 수송에는 막대한 비용과 곤란이 수반될 것이다. 따라서 자연 인원을 자주 교대한다는 것은 바라기 어려운 사실이 된다. 화성여행을 자원하는 사람은

최소한 이 낯선 유성에 가서 5년쯤은 머물러 있을 것을 미리부터 생각해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항구적인 용수(用水)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서 근거지는 양극 중의 어느 한 곳에 위치해야만 한다. 종래의 관측에 의하면 북극은 하절(夏節)에도 그 관찰이 가능했던 까닭에 우리는 우선 안심을 할 수 있는 곳으로서 북극을 택하게 될 것이다. 수분의 분해로써 산소는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까닭에 화성에서도 계속적으로 물의 공급만 할 수 있다면 산소의 문제는 따라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극지에 근거지를 설정하게 된다면 기온이 극도로 한랭한 밤의 시간이 길다는 불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화성에서는 어떤 곳에 근거를 잡든 지간에 추위를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적도 근처에 자리를 잡는다고 해서 화성에 상륙한 인원이 특별한 혜택만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의심되는 점이 많다.

화성상륙(火星上陸)의 전제조건(前提條件)

인간이 화성에 상륙케 된다면 우선 인간의 육체적인 조건을 고려하는 한 필요한 정도로 건강을 유지키 위하여 들어가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야된다. 거처는 필연적으로 잠수함의 경우와 같이 극히 제한된 부자연스러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한발자국이라도 밖으로 나가려면 적당한 산소장구를 휴대치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대기의 압력은 대략 지구의 표면기압의 10 내지 20%로 추정되는 까닭에 특별히 기밀(氣密)장치가 되어있는 우주복을 입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산소장구에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라든가 추위를 막을 수 있는 특별한 방한의 준비가 없이 야간 밖으로 나갔다가 일어날 수 있는 곤란한 경우를 생각한다면 아무리 거리가 가까운 외출이라도 위험이 따르지 않을 때는 없게 될 것이다.

공기의 밀도는 희박하지만 그 대신에 중력은 불과 지구의 37%밖에 안 되므로 멀리 탐험을 나가는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육상의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며 대부분의 인원은 시간을 국한된 근거지의 거처 속에서 보내야 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맡아보게 될 일로서는 외부 탐험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 분류 보고서의 작성 및 지구에 대하여 상황을 연락키 위한 제반 업무 등 대체로 변화가 없는 고정적인 사무가 태반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독단적인 행동이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시간은 기준에 따라 엄밀히 규정되어 있어야하며 조그마한 방심이 큰 사고의 원인이 될지도 모르는 까닭에 기율의 해이는 절대 금물이다. 이러한 가운데서 사람이 불안정한 생활을 보내야 할 것은 정해진 일이지만 계속되는 불안 속에서 자극 없는 지루한 시간만을 보내야 한다는 것은 더욱 참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오직 휴전도 승리도 아무런 종말도 있을 수 없는 단조(單調)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다.

왜 우주여행(宇宙旅行)은 해야만 하는가?

우리는 왜 아직도 우리 주변에 공지나 다름없이 넓은 땅을 두고서 하필 수십억불의 재산 낭비와 귀중한 인명까지의 희생을 각오하면서 이와 같이 원거리의 딴 세계의 정복을 꿈꾸어야만 되는가? 새로운 원소나 고가의 지하자원을 찾아볼 목적에서일가? 이것은 가당치도 않은 이유가 된다.

만일 화성을 점령함으로써 군사적으로 어떤 유용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이것도 역시 이유에 닫지 않는 말이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일층의 훌륭한 지식을 얻기 위한 까닭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에도 수많은 의문이 개재(介在)된다.

여하간 목하의 상태로 인간이 미구(未久)에 화성에 갈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만 가지게 된다면 인간은 당장이라도 이를 실천에 옮길 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만일 우리가 미리 가보기 전에 화성의 상태에 대하여 알고 싶은 사실을 모조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우리는 가보고야 말게 될 것이다.

그러면 대체 어떠한 이유로 사람은 이와 같이 악착스럽게도 우주여행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유는 심히 간단하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수평선 너머에 무엇이 존재하는가를 꼭 실제 눈으로 보아야만 마음이 시원해지는 사람의 끊을 수 없는 호기심 때문이라는 이유 외에는 우선 더 큰 이유를 알아낼 길이 없다. 지구와 화성 사이에 놓여있는 미지의 골짜기에 건널 수 있는 인지(人智)의 다리를 걸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결코 안온한 평화의 상태가 깃들 수 없는 까닭인 것이다. 우리는 구차히 우주여행의 합합동(合合同) 목적이며 논리에 타당한 이유를 캐내려고 할 필요는 없다. 대체로 그러한 논리적인 이유는 존재하지를 않는다. 만일 인류가 화성에 도달했다면 그것은 오직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시도에 시도를 거듭하여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치 않고서는 못 배기게 하는 욕구와 꼭 같은 인간자체의 탐구욕이 인류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었던 까닭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우리 눈앞에 존재했다는 사실자체가 바로 지적 추구의 이유로 통하는 것이다.

필자 자신의 의견에 의한다면 인간이 화성여행을 하고자하는 오직 한 가지의

솔직한 이유는 순전한 과학적인 조사욕에 있다고 본다. 화성에 갈수만 있다면 그 곳에 자리 잡는 근거지에서의 활동이 인간의기본적인 과학지식에 반드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문제로 삼을 필요도 없는 일이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화성의 자력(磁力)상태에 관해서 무척 알고자 갈원(渴願)해 왔다. 이것은 비단 화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모든 유성의 자력상태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자 원한 것은 작금에 시작된 사실이 아니다. 자장(磁場)의 길이는 어떠한 것인가? 또한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과학적 지식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연구의 대상은 너무나 많다.

화성여행(火星旅行)의 열쇠

이와 같은 우주여행을 통하여 누구보다도 큰 소득을 얻게 될 것은 생물학자들로 생각된다. 과연 화성의 마리아 지대에 식물이 번식하고 있다면 갈릴레오가 최초로 망원경을 발견해 가지고 천체를 관측하기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 곳이고 눈길을 돌리는 곳이면 그곳에는 반드시 놀라운 발견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생물체가 지구와 판이한 조건 아래에서도 생성을 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연구하게 될 수 있는 생물학자들의 환희의 모습을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가 있다. 생물학자들의 연래(年來)의 숙원은 식물의 계열을 비롯하여 일광에 의한 합성현상 및 생명의 기본원리가 되는 자연도태 등을 좀 더 정확히 연구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학자의 연구는 오직 지구상에서만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조건하에서 추진되어 왔으며 그들의 보편성이라는 것도 단지 추리에 의한 추상적인 가설에 지나지를 않고 있다.

이러한 외에도 연구의 당면과제로서 기대되는 문제는 너무나 많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떠한 것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선택적인 판단에 있다. 호주머니를 졸라매어 가면서 납세를 하고 있는 일반국민들이 화성의

자축(磁軸)은 공전축(公轉軸)에 대하여 7도가 기우러져 있다는 등의 순 과학적 사실의 탐구를 위하여 백억 단위를 오르내리는 막대한 금액을 군말 없이 제공해 줄 것인지 어떨지가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에 있어 다행이라고 할까 일반 국민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서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인간이 화성으로 간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신기하고 흥미를 돋우는 일일뿐더러 누구나가 다 한결같이 기대하는 사실이다. 이제 가일층의 연구의 축적과 재력의 소비만 있으면 우리는 이 인간적인 요구를 미구에 풀 수 있는 열쇠를 잡게 될 것이다.

(외지(外誌)에서)

원자력시대(原子力時代)에 있어서의

나의 꿈

윤세원(尹世元)

이 사람에게 마음에 간직한 꿈을 말하라는 말씀입니까? 과학자는 꿈보다도 현실이 더 중요하답니다. 그렇다고 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꿈은 내일을 상념(想念)하는 것이며 또 합리성 있는 꿈은 이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원자력시대를 상념하는 별한(別限)된 꿈을 말하라는 말씀입니까? 꿈보다도 하여야할 일 그리고 책임이 더 생생하게 마음에 떠오릅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것이 더 중요하고 절실하니까 그렇지요.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냐 말씀입니까? 하나하나 말씀 드리기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 몇 가지만을 말씀드려 볼까요.

첫째, 과학자들이 협동적 정신을 갖기에 노력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결코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어떠한 분파를 이뤄서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부르면서 민주주의의 진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얼마 안 되고 민주주의 사상과 이념을 국민 전체가 다루는데 미숙한 까닭이랍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학의 협동적 정신과 공동의 연구를 누구나 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서구(西歐)과학의 도입이 일천(日淺)하여 과학적인 공동연구를 하여 보지 못하였고 또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느꼈을 지라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모르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마음 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랍니다.

역시 실제로 어느 문제에 부딪혀 그 문제를 처리하여 나가는 가운데 차차로 알아지고 마음과 행동에 체득되는 것이랍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원자력의 도입이란 긴급한 문제가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자율적 연구에서가 아니라 세계적인 인류의 원자력 공동소유라는 고상한 이념 아래서 타율(他律)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원자력은 누구나 아시다 시피 물리학자만의 일도 아니고 화학자나 전기공학자만의 일도 아닙니다.

이 원자력의 인류복지를 위한 사용은 모든 분야의 과학자 즉 물리, 수학, 화학, 생물, 지질, 채광, 금속, 전기, 기계, 생리, 의학, 농학, 축산 등 여러 가지 분야의 과학자들이 서로 협동하여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랍니다. 어디 우리나

라 과학자들이 이와 같은 협동적인 공동연구 공동사업을 하여본 일이 있습니까? 이러한 일은 이제부터 긴급하고도 조속히 하여야 할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도입에 있어서 아직 경험하여보지 못하였던 공동연구를 능숙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며 이러한 것을 상념하고 있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첫째 꿈이랍니다.

둘째 꿈은 우리나라의 정부 당사자들이 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돈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친구 한 사람은 나에게 말하기를 “너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안빈낙도(安貧樂道)하라.”고 말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은 청빈하여야 하는 줄만 아는 모양입니다. 그들은 현대과학의 성격은 비록 개인의 생활은 안빈낙도할 수 있어도 과학적안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실로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는 사실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 모양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미국에서 원자력을 추출하는 열쇠를 알고 원자폭탄을 만들기까지 20억 불이라는 돈이 들었으며 현재도 매년 10억 불 이상의 연구비가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돈을 쓸 줄 아는 솜씨 좀 보여야 할 때가 아닐까요? 그 뿐만이 아니랍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국가 총생산액 4천억 불의 2퍼센트 내지 3퍼센트 약 1백억 불 정도라는 막대한 돈이 제품개량 및 생산증가의 연구비로 지불된다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러한 돈이 각 연구소, 각 대학으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번영하는 나라, 번영을 유지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는 원자력 도입을 위하여 약 2백만 불을 사용할 계획이라니 반갑고 꿈의 일부가 실현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군요. 2백만 불이란 비록 10억 불이나 20억에 비하면 하찮은 것 같은 소금액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형편으로는 큰 것이 아닙니까? 이것만 보아도 우리나라에 원자력세대가 가까이 왔다는 느낌을 줍니다. 욕심 같아서는 매년 2천만 불 정도라도 원자력발전을 위하여 우리나라 예산에 넣어졌으면 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둘째 번 꿈입니다.

셋째, 우리나라의 핵분열물질이 무진장으로 있으면 하는 욕심 같은 꿈입니다. 앞의 두 가지 꿈은 우리의 노력으로 실현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만은 순전히 환상적인 꿈입니다. 그러나 환상적인 것이라고 속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원자력을 추출할 수 있는 물질이 무한정하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며 금시초문이라고요? 사실은 이러하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에 감추어진 핵분열물질에 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핵분열물질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고 있다고도 말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에 핵분열물질이 무한이 있다고 하는데 감정할 그거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광물이 지하에 무한이 있다고 생각하여도 별로 큰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천안, 구례 등지에서 매년 600톤 정도의 모나스 석(石)을 캐내고 그 중의 0.2 내지 0.3퍼센트가 우라늄 함유분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1.5톤 정도의 우라늄을 캐내고 있는 셈이랍니다. 만일 우라늄 50톤만 있으면 우리나라의 현재 발전량보다도 많은 전력을 발전할 수 있는 발전소를 세울 수 있고 그것은 수십 년간이나 다른 연료를 보급하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원자발전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이 밖에도 우리나라의 핵분열물질이 발견될 가능성은 많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꿈은 아니랍니다. 특히 앞으로 20년 후에는 핵융합반응으로도 원자력을 추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으니까 더욱 우리나라의 원자력 자원은 무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핵융합반응이란 무엇이며 어떤 물질로 어떻게 핵융합을 시키느냐고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융합반응이란 중수소와 중수소를 높은 온도(약 1억도 가량의 온도, 이 온도를 실현하고 유추(維推)시키기가 어려워서 핵융합반응을 수소폭탄 이외에 원자로에서 실현시키지 못하는 것이랍니다)에서 융합시켜 헬륨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내게 하는 핵반응이랍니다. 그런데 중수소는 바다 물에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바다 물의 약 1천 5백분지 1이 중수이며 이 중수의 4분지(分之) 1이 중수소랍니다. 그러니까 바다 물의 6천분지 1이 중수소이니까 중수소는 무한히 많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일 이 중수소 융 합핵반응만 해결된다면 인류는 참으로 놀라운 발전을 약속할 것입니다. 작년 8월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원자과학자회의에서도 인도의 바바 박사(이 사람은 국제원자력과

학자회의 의장을 하였습니다)는 각국 과학자들에게 각국이 가진 원자비밀을 말하고 특히 이 핵융합반응의 비밀을 말하라고 선언하였다 합니다. 오늘날 모든 원자과학자들의 꿈은 중수소의 핵융합반응의 실현에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루바삐 원자로를 도입하고 또 많은 연구비로 풍부하게 돈을 쓰고 많은 과학자를 배출시켜 이 세계원자력경쟁에 뒤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이 사람의 마지막 꿈입니다.

어째 그리 고리탑탑한 꿈을 꾸고 있느냐고요. 원자력시대가 오면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으며 어느 집에나 자동차, 텔레비전, 전화가 있고 산천과 들이 모두 공원이며 수렵장이며 골프장이 되고 누구나 백년은 고사하고 천년쯤 살 수 있으며 도적도 없고 범죄도 없고 경찰도 없고 그야말로 지상의 천국을 만들 수 있게 못하느냐고요? 아아! 그런 종류의 꿈을 말하라는 겁니까. 내가 이제까지 제 말에는 꿈이라고 말한 것은 헛말한 셈이 되었나 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말씀이냐고요. 역사를 말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발전의 과정이 있답

니다. 역사는 진보이니까요, 비록 지상에서 살아져 없어지는 민족과 족속이 있을지는 몰라도 인류 전체로서 볼 때는 진보이니까. 진보의 과정에서 어디 한꺼번에 뛰어넘고 도약하는 수가 있습니까? 도약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도약이 아니라 빠른 속도로 진보하는데 불과한 것입니다. 18세기서부터 인류는 참으로 그 진보의 보조를 빨리 하여 20세기에 와서는 범세계적이되고 그 속도는 눈부신바 있더라도 현대과학 특히 전기화학 그리고 수학물리의 뒷받침이 없이 원자력세대가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퍽 먼 장래에 비록 인류 전체가 원자력의 발전으로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또 훌륭한 집에서 살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현재 당장 그리고 명일(明日)을 위하여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지식을 넓히며 깊이 하고 그 지식을 인류가 공동으로 갖고 또 인류공동의 복지를 건설하기까지 한 나라 한 나라가 노력하고 개개인이 협력하며 현재 우리가 가진 것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보겠다는 명일에 대한 상념 이것이 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날의 꿈이요 명일의 원자력시대를 건설하기 위한 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오늘날 우리나라 모든 과학자들은 진실로 초조와 희망이란 상호 모순된 것 같은 평행선을 걷고 있답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현실과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것이지요. 다만 한 말로 말하여서 초조와 희망입니다. 꿈은 어디에 굴(屈)할까요. 말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필자(筆者) 문리대조교수(文理大助敎授))

<손자와 골프를 즐기는 아 대통령. 아 대통령의 손자인 금년 7세 되는 다윗드 다뷔드 아이젠하워 군(君)은 콜로라도 주에 있는 농장에서 열심히 조부의 타입을 본떠서 연습하고 있다. 아 대통령은 자랑스러운 태도로 자기 손자 옆에 서 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 대통령은 그의 가족과 더불어 휴가를 즐기고 있다.>

골프와 건강(健康)

김동준(金東濬)

근자(近者) 도시마다 베비 골프장이 생겨서 일반에 꽤 성행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영리적인 오락장이기는 하나 복잡한 도시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레크레이션으로서 도시생활인의 흥미를 돋우고 있는 모양이다.

나는 20년래 골프를 쳐온 사람인데 이 베비 골프에 대해서는 그다지 경험이 없다. 그러나 이것은 골프의 원신(元身)인 필드 골프의 축도(縮圖)로서 비교적 넓은 골프장과 이에 따르는 도구 그리고 클럽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동(使童)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시설과 준비를 요하는 필드 골프가 너무 거추장스럽고 일반으로서는 쉬 손대기 힘든데서 오는 하나의 편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것은 그것대로 의의가 있고 또한 거기서 적당한 운동과 레크레이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나는 굳이 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가 즐겨온 필드 골프는 이와는 규모가 아주 딴판 다르다. 그래서인지 골프는 신사적 경기요 부르주아적인 게임이라고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기회에 골프라는 경기가 어떻게 하여 발생하였으며 어떻게 전파되어 왔는가를 간단히 적어 보려고 한다.

X

골프는 기구(崎嶇)한 역사를 가진 경기이다. 무엇이든지 아주 고대에 그 기원을 찾고 싶어 하는 일파(一派)의 편협한 역사가들은 골프의 역사가 기독 기원 이전에 소급(遡及)한다고 주장하여 양(羊)을 치는 목동들이 맨 처음 골프를 쳤다고 한다. 흔히 우리가 그림에 보는 것처럼 양치기들이 돌이라도 치울 셈으로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는 꼬불탕한 막대기가 골프의 클럽의 전신(前身)이었다는 것이다. 또 어떤 역사가는 어떤 화란(和蘭)사람이 대가리가 달린 갸름한 막대기를 짚고 서있는 그림을 보고는 그것이 골프의 클럽이었고 따라서 골프의 시조는 화란[네덜란드]인이라고 해서 성급한 단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소론(所論)은 그 이상의 아무런 근거가 없고 모두 허망한 억설께 불과한 것이다.

후일에 와서 골프경기를 발명한 것은 스코틀랜드 사람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것은 스코틀랜드의 군주가운데 골프를 금지하는 법령을 내린 왕이 있었다는 스코틀랜드 역사를 들추어냄으로서 비로소 결정적인 설이 된 것이다.

그에 의하면 1444년 무렵에 스코틀랜드에서는 골프가 성행하여 일반의 풍습이 되다시피 하였는데 당시의 군주였던 제임스 2세는 국민이 골프에 탐닉함으로써 그 시대의 무술이었던 궁술에 게으름이 있어서는 일체 국가적인 한심사라고 해서 이를 금지하는 법령을 발포하였다. 그 즈음의 영국의 각 도서(島嶼)에서는 항시 외적의 침입이란 위협을 받고 있던 형편이었으므로 남자들은 법에 의하여 하루의 몇 시간을 궁술에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그 다음 제임스 4세 시대에 와서는 왕 스스로가 골프에 큰 매력을 느껴 제법 한사람 몫 의 골퍼가 되었다. 제임스 4세의 장손이요 제임스 5세의 장녀인 매리 공주는 소녀시절부터 골프를 배웠는데 이어 공부를 하기 위하여 불란서에 유학을 가게 되었다. 매리가 불란서에서 공부하게 되자 그는 동료학생들을 카데라고 부른다는 것을 배웠다. 이것이 나중에 골프 클럽을 가지고 다니는 아이들을 캐디라고 부르는 어원이 된 것이다. 제임스 5세는 골프를 궁정에까지 들여 놓게 되었다. 그는 골프에 대해서 그렇게 몰두하기까지는 되지 않았으나 골프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사상최초의 여류 골퍼인 매리 공주가 1542년에 스코틀랜드 여왕의 왕위에 오르게 되자 매리 여왕은 골프를 공적으로 허용할 뿐만 아니라 친히 골프를 즐겼다. 이로부터 골프는 매리 여왕을 축복하는 경기로서 점점 성하게 되었다. 이 여왕의 재위 시에 세계최초의 골프 코스인 세인트 앤드류스 골프장이 창설되었다. 이 해가 1552년이었다. 이에 따라서 골프가 클럽회원제도로 발전한 것이 1608년이었고 그 최초의 클럽은 왕립 브랙크해쓰 클럽이었다. 그 세인트 앤드류스 골프장은 지금도 남아 있어서 그 길이가 6,883야드나 된다.

이어 최초의 토너먼트가 행하여진 것은 1860년 스코틀랜드의 프레스트위크 코스에서였다. 이즈음부터 영국에서도 골프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시대까지는 골프 볼을 새털로 만든 것이었다. 엷은 가죽 속에다 새털을 잔뜩 채워 가지고 그 아궁이는 실로 기웠다. 그러나 아무리 털을 많이 채워도 이 공을 먼 거리를 날지는 못했다. 여러 가지 연구가 거듭된 끝에 1848년에 굿타 페르차 공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1899년 미국에서 고무볼이 발명되기까지는 이 공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골프가 미국에 수입된 시초는 아직도 명백히 판명되지는 않고 있다. 18세기에 미국에 골프 클럽이 있었고 골프장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을 뿐 골프 경기가 개최되었다는 말은 없다. 추측하는 바로는 미국의 남북전쟁 때 스코틀랜드 연대의 병사들이 가끔 골프를 치지 않았나 하는 것뿐이다. 미국 골프의 시조라 할 찰스 에반스가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엽에 이르는 골프에 관한 사적을 탐구한 결과 1795년 10월의 찰스톤의 「시리 가제트」지에 이러한 광고가 나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급고(急告)

골프 클러의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다음 금요일 헐스톤 골프장의 클럽하우스에서 기념행사가 있사오니 당일 하오 1시 정각에 회원 일동 무루(無漏) 참석하심을 앙망하나이다.

이로부터 미국의 골프가 점차 성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현재와 같은 골프경기가 실제로 개시된 것은 1880년대라고 하겠다. 필라델피아 출신인 조제프 미클 폭스는 1884년 스코틀랜드를 방문하고 익년인 1885년 여름에 폭스버그에 돌아와서 진짜 골프를 소개하였다. 이것이 지금도 건재하는 폭스버그 골프 클럽 창설의 선편(先鞭)이 되었는데 이 클럽은 현존하는 골프 클럽의 가

장 오랜 단체라고 할 것이다. 그 뒤로부터 골프가 발전해온 길을 기록하자면 상당한 지면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여기부터는 전문적인 분야를 섭렵(涉獵)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상에서 골프라는 경기가 어떻게 발생하였는가 하는 유래를 약기함에 그치기로 한다.

X

여러 가지 경기 가운데서도 골프는 비교적 가벼운 전신운동을 요구하는 스포츠다. 푸르른 잔디밭 언덕 위에 보통 100 내지 600야드의 간격을 두고 흩어져 있는 18개의 홀(구멍)은 골퍼의 두뇌와 근육의 종합적인 전신운동을 부르는 희망의 초점인 것이다. 시합의 종류는 경기 전의 결정에 따라 18홀, 36홀, 72홀로 되어 있다. 36홀 때는 투 라운드하고 72홀 때는 포 라운드 하면 된다. 경기의 종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즉 매치 플레이[11]와 스트로크 플레이가 있는데 매치 플레이는 18홀 혹은 36홀을 쓰게 된다. 스트로크 플레이는 보통 72홀이다. 매치 플레이에 있어서는 많은 홀을 이기는 사람이 우승하게 된다. 각 홀에 있어서의 승패의 결정은 한 홀에 볼을 집어넣는데 쓴 스트로크의 수의 다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 홀 하나하나를 쳐나가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 쉬는 것이 스윙이다. 이는 볼을 숏트할 때에 반드시 써야하는 자세다. 홀의 위치에 따라 이 스윙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여간에 그때그때 마다의 지형과 거리에 따라 골퍼의 자세가 볼에 대하여 어떠한 상호관계에 있는가는 아마추어들의 상상적인 것이다. 이를 테면 홀이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 왼쪽 발과 오른 쪽 발의 위치가 어디에 으며 체중이 어느 다리에 걸려야 하는가는 거의 기하학적이라 할만치 엄밀한 것으로서 이 원칙을 벗어나면 절대로 좋은 플레이의 성과를 거둘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골프가 두뇌와 근육의 전신운동이라 한 소이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정신과 육체의 종합적 그리고 혼연일체의 집중화 이것이 골프의 요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골프의 룰과 기본동작에 관하여 막연하나마 좀 길게 쓴 이유는 진부한 말이지만 어디까지나 진리인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육체에 깃든다'는 격언이 너무나 골프에 알맞은 말이기 때문이다.

---

11) 원문의 매치 프레이는 매치 플레이. match play

클럽을 쥐는 순간부터 세속의 모든 잡념과 위구(危懼)를 떠나서 오로지 근육과 두뇌의 예동(藝同) 작용으로 전화하는 골프는 육체와 정신의 건강의 상징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X

여기에서 하나의 실례를 들어서 본고를 끝맺기로 한다.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캘빈 쿨리지 대통령 이래의 최초의 골퍼로서 이름 있는 대통령이며 워렌 G 하딩 대통령 이래의 가장 열성적인 골퍼라고 한다. 아이크는 1930년대 필리핀에서 골프에 전심하였었다. 그러다가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골퍼의 생명선인 팔이 불편하여 일절 골프를 포기하였다. 그 이후 1946년까지는 클럽을 든 적이 없었다. 그의 숏트는 225야드에서 230야드를 전후하기까지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잘 쓰던 클럽은 컨트 아이언이었다. 아이크의 가장 우수하였던 스코어는 덴버 1J의 체리 힐스 컨트리 클럽에서의 84점과 뉴욕 주 해리슨에 있는 보라인드 브룩크 클럽에서의 81점이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시간만 있으면 미국의 주요 위정자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골퍼가 될 것이다. 율리시스 S. 그랜트 대통령은 미국에서 최초로 골프의 진가를 인정한 대통령이었다. 루즈벨트 대통령도 골프에 손을 대기는 하였으나 그다지 능숙하지는 못하였다. 태프트와 윌슨 대통령도 골프를 즐겼는데 골퍼로서는 윌슨 대통령의 부인이 꽤 능하였다.

우리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낚시질을 즐긴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가 좀 더 기력이 좋았던들 골프의 애호자가 되었을 것이 틀림없다. 위에 들은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골프열은 우열을 고사하고 모두 바쁜 정쟁의 틈을 타서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위한 양식을 삼으려 했다는데 하나의 흐름이 있는 것이다.

(필자(筆者) 합동통신사(合同通信社) 사장(社長))

도솔산(兜率山)

해병대 제1사단
정훈 참모실 편집

예술(藝術)과 인생(人生)

예술(藝術)은 생활(生活)에 필요(必要)한 것인가

이상조(李相助)

1

예술을 모르는 자가 예술을 논하려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소로운 일이며 무모하고도 위험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예술을 동경하고 예술을 갈망하며 예술을 알려고 끊임없이 추구하고 노력하는 것은 인간의 통정(通情)이며 또한 자유이다.

필자는 본래 예술을 모르며 예술의 학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예술을 이해하지도 못하며 예술에 대한 어떤 특별한 견해나 직업상의 관련을 가진 것도 아니다. 그러나 예술에의 동경과 갈망 따라서 예술을 알려고 하는 의욕은 누구에게도 못지않으며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렬한 것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감히 이글을 써보기로 한다.

예술은 생활에 필요한 것인가? 이 문제를 간명히 해답하기는 극히 난(難)하다고 하겠다. 하물며 예술의 학도가 아니며 예술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자가 이 문제를 운위(云謂)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미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예술을 동경하고 갈망하는 자로서 예술을 알려고 추구하는 견지에서 자기의 소신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전기(前記)의 명제를 해명하는 수단으로 먼저 예술이란 무엇이냐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그러한 예술이 생활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인가를 고찰하기로 하고 끝으로 필자의 편견이나마 결론적으로 명제에 대한 견해를 종합해 보기로 한다.

2

예술이란 무엇인가? 할 때 그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종다양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만족할만한 정의로 될 수는 없다. 여기에서는 예술에 대한 학적(學的) 정의를 구명(究明)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다만 예술의 의미만을 밝히는데 그치기로 한다.

일반으로 예술이라 하면 미적(美的) 효과를 환기하는 특수적인 인간의 활동 및 그 결과를 의미한다.

때로는 미술과 같은 조형예술만을 의미하여 음악이나 시문(詩文) 등과는 구별되는 경우도 있다.

조형(造形)예술은 특히 회화 및 조각을 주로 지칭하는 경우로서 그 외적표현에서 생산되는 관미적(觀美的) 성과가 영구적인 고정화로 된 것을 예술품 또는 예술적 작물(作物)이라 하며 그 생산자를 예술가라 칭한다.

그러나 예술의 관념은 이것보다는 좀 더 광범하여 일반으로 조형미술 이외에 시문 음악도 포함하는 것으로 주지되고 있다.

인간과 자연과 환경과의 관계를 문제로 하여 고찰해 온 장구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날 예술의 의미하는 바를 종합해본다면 예술이라는 어사(語辭)는 어떤 생산적 활동의 과정 또는 그 성과 소산(所産)도 포괄하여 칭하는 말이며 그 활동에는 스스로 특수한 성질, 목표, 양식, 재료, 수단, 내용, 동기, 원동력, 조건 등이 수반될 것으로 사유(思惟)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諸)관점에서 예술의 성립 요건을 종합한다면 "예술이란 인간의 내면생활의 요소 및 내용을 그 심적(心的) 충동에 기(基)하여 특수한 외적 재료와 기교와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미적으로 표현하는 인격적 활동의 과정 및 결과"라고 하겠다.

이것을 요약한다면 예술이란 "일정한 재능과 연습을 통하여 미적으로 표현되는 인간의 활동 및 그 결과"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의미의 예술은 다만 미술, 음악, 시문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정치에도 예술성을 엿볼 수 있다. 즉 '정치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부당한 언사는 아닌 것이다.

예술은 인격적 활동이며 의식적인 활동이므로 그 내용은 문화적 가치 있는 정신적 내용과 그 미적표현의 개성적 파악과 그 자체의 체계와 기도적(企圖的)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 그 형식에 의하여 조형예술과 음률적 예술 또는 공간적 예술과 시간적 예술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며 전자(前者)는 건축, 조각, 회화 등이고 후자는 시문, 음악, 무용, 연극 등이 포괄되는 것이다. 또 순정(純正)예술(또는 자유예술)과 부용(附庸)예술로 구별하여 특히 후자를 건축, 장식 같은 것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 밖에 남성예술과 여성예술로 구별하는 예도 있다.

이에 수반하여 예술적 작물을 창조하는 것과 재현하는 것과의 양면에서 창작적 예술과 재현적 예술로 구별하기도 한다.

전자는 시문, 작곡, 미술 등의 창작 면을 지칭하며 후자는

연극, 음악, 연주 같은 재현 면을 지칭한다.

그러나 재현(再現)적 방면과 창작적 방면과는 다만 경험적 사실에서 관찰한 구별에 불과한 것이고 그 가치 면이나 미적 표현 면에 있어서 의미하는 바는 역시 일종의 창작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특히 사진예술 같은 것은 그 한계가 불명확하다 하겠다.

또 예술에 목적에 대하여도 소위 '예술을 위한 예술'과 '인생을 위한 예술'의 양

면에서 대립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예술을 위한 예술'을 주장하는 견해에서는 예술의 절대적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며 '미'를 예술의 유일한 목적으로 하여 예술 본래의 형식적 측면 또는 개인적 양식의 미적 의미를 중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인생을 위한 예술'을 주장하는 견해는 예술이 인생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인생을 떠나서는 그 의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술 그 자체는 아무리 미적 의의가 있는 것같이 보일지라도 인생을 위한 존재로서의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그것은 배척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특히 예술의 개성적 의의와 사회적 의의 그리고 전자는 예술의 귀족주의 후자는 예술의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대립되는 예술상의 두 견해로 되어 있다.

이것은 후에 논하는 바와 같이 예술이 오(吾)인의 생활에 필요한 것인가의 문제와도 관련되는 문제이다.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이상으로 그치고 다음은 예술과 생활과의 관계를 보기로 한다.

3

인생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자유, 행복, 진, 선, 미 등을 들 수 있다.

오인의 추구하는 바가 자유, 행복, 진, 선, 미 등일진대 이에 전개되는 생활은 실로 다양다잡하다.

기와(起臥) 음식(飮食)이나 일거수일투족이나 희비애락(喜悲哀樂)이나 욕망, 의지나 증오(憎惡), 반목(反目)이나 지배나 복수나 정의나 부정의나 그 어느 것인들 생활 아닌 것이 없다. 생활은 현실적인 것의 일체에 의하여 생산되는 것이며 무한인 것을 그 중에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무한한 것은 한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고하는 것 그 자체가 생활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을 고찰할 때 거기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다. 그 1은 내적 생활이며 명상하는 생활이다. 그 2는 외적 생활이며 공존하는 생활이다.

특히 내적 생활에는 부모나 우인(友人)이나 처자나 기타 여하한 근친자와도 떠나서 오로지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세계이다.

이 명상생활에 있어서의 제일의 희열은 미의 사색이다. 인생의 내면에 있어서 '최상가는 표현'인 미의 사색에 대한 추구가 얼마나 강렬하게 오인의 생애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인도하는가는 이미 장구한 역사를 통하여 수다한 선철(先哲)들이 명시한 바이다.

그러나 명상생활은 미의 사색이며 내적인 것인 까닭에 명산(名山) 명수(明水)나 명사(名寺) 고찰(古刹)을 심방(尋訪)하는 실제적 행위와는 구별된다.

다만 사색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인간은 시(時)와 장소와 환경을 초월하여 무아자재(無我自在)의 세계에 소요(逍遙)하는 것이다.

피로한 자는 참된 휴식을 구할 수 있으며 위로하기 난(難)한 자는 안면(安眠)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영국의 시인 윌리암 워어스워드의 수선화(水仙花)에 대한 시의 한 수(首)는 이 사색의 면을 잘 표현하였다.

"나 홀로 방황하였노라 저 고운(孤雲)에……
산하(山河)의 높은 위를 감돌듯이……
그때에 번듯 보았노라 그 아름다움이여
황금빛 찬란한 수선화의 덤불을……
청벽(淸碧)의 호수변(湖水邊)에 수목하(樹木下)에서.
미풍(微風)에 나부끼며 홀로 춤추며……

X X

워어스워드의 이 명상적 시야말로 그 얼마나 현실적 고난에 신음하는 오인에게 따듯한 마음의 광명과 행복을 던져 주고 있는가.

그는 고독을 찬상(讚賞)하였고 "고독과 진미(眞味)를 모르는 자는 인생의 진미를 모른다."고 하였던 것이다.

인생이 추구하는 자유나 행복이나 진리나 선과 미나 가치나 어느 것이나 인간의 내적 생활의 일면(一面)에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

특히 인생의 청년은 꿈이 많고 눈물이 많고 고민이 많다. 정열에 넘치고 정의감에 불탄다. 비분감개도 있고 광음의 속주(速走)를 탄식하기도 하며 때로는 인생의 무상을 개탄하며 자포자기도 한다.

또 감격의 눈물에 넘치며 때로는 고독과 무력함에 땅치고 울기도 한다.

또 고금의 성현(聖賢)을 추모하며 자신의 무능을 슬퍼한다. 실망과 낙담도 하며 증오와 분노에 이성을 잃기도 한다.

때로는 사색에 잠기고 혹은 입산수도(入山修道)를 꿈꾸고 예술을 동경하며 진리를 탐구하려고 한다. 종교의 교리에 감복하며 학문의 유현(幽玄)함에 초조하기도 한다.

때로는 조국의 운명과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며 사회의 부패상을 개탄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제(諸)동태는 일면에 있어서는 현실적, 공존적, 외적 생활에도 관련되고 있으나 타면에 있어서는 내적, 명상적 생활과도 농후하게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명상의 세계가 우리들의 전(全) 생활은 아니다. 또 전 생활이어서는 아

니 된다. 우리는 또 하나의 생활면이 있다.

그것은 '나'만의 세계가 아니고 가족과 사회가 있다. 이것은 공존의 생활이며 실재의 생활이며 공존의 세계다.

명상의 생활은 유아독존의 세계로서 타인 또는 사회와 개입을 불허한다.

반대로 공존의 세계는 자기만의 생활을 불허한다. 2인 이상의 거의 같은 심적 작용을 유(有)하는 인간이 상호 의존하며 연결되어 생활하는 것이다.

이 생활에 있어서 가장 강대(强大)하게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공존의 감(感)이며 그것은 동포애, 인류애 같은 '사랑의 세계'이며 사랑의 실행이다.

이상과 같이 인간의 생활을 양면에서 고찰할 때 예술은 이 양면에 걸치는 것이다.

예술을 위한 예술보다도 인생을 위한 예술이며 인생을 위한 예술은 인생을 어떻게 '사랑의 실행', '사랑의 세계'로 인도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예술이 생활에 필요한 것인가?"의 문제에로 상통(相通)되는 것이다.

시인 쉐에리이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제종(諸種)의 덕(德)의 위대한 비결은 사랑이다.

여인칭호(女人稱號)

연산군(燕山君)은 폭군으로도 유명하지만 또 하나는 여인에 대한 칭호를 구별한데도 유명하다고 하겠다. 대체로 이것은 궁녀를 대(大)증원하는데 있어 구별한 것이요 다른 의미는 별로 없지만 종별 계급을 위해 채청사(採靑使)라는 관직까지 생겼다. 다음 소개하기로 한다.

가인(佳人), 재인(才人), 여인(麗人), 미인(美人), 선인(嬋人), 연인(姸人), 미인(媚人), 정인(精人), 혜인(惠人), 묘인(妙人), 빙인(娉人), 정인(婷人), 과인(姱人), 기인(綺人), 옥인(玉人), 무인(嫵人), 요인(嫽人), 섬인(纖人), 졸인(箤人), 완인(婉人), 연인(孌人), 아인(雅人), 열인(悅人), 주인(姝人), 명인(明人), 휘인(徽人), 조인(窕人), 요인(窈人), 의인(懿人), 유인(柔人), 석인(碩人), 염인(嬚人), 위인(韑人), 호인(皓人), 영인(穎人), 기인(婍人), 순인(純人), 수인(粹人), 찬인(粲人), 현인(顯人), 교인(姣人), 소인(昭人), 음인(陰人), 작인(妁人), 비인(賁人), 식인(飾人), 휴인(休人), 눈인(嫩人), 신인(嫀人), 예인(譽人), 요인(嫋人), 언인(嫣人), 애인(愛人), 행인(幸人), 수인(秀人), 진인(珍人), 보인(寶人), 태인(娧人), 온인(穩人), 영인(英人), 향인(香人), 방인(芳人), 요인(耀人), 낭인(郞人), 영인(寧人), 연인(嬿人), 환인(歡人), 선인(鮮人), 환인(環人), 연인(煙人), 청인(淸人), 저인(著人), 형인(熒人), 의인(儀人), 민인(敏人), 엽인(燁人), 추인(趨人), 탁인(卓人), 윤인(潤人), 나인(娜人), 용인(容人), 상인(爽人), 매인(邁人), 호인(豪人), 준인(俊人), 완인(完人), 담인(淡人), 은인(誾人), 예인(豫人), 갑인(甲人), 을인(乙人), 사인(姒人), 난인(蘭人), 운인(韻人), 장인(章人), 단인(丹人), 영인(穎人), 성인(誠人), 상인(祥人), 정인(禎人), 우인(尤人), 성인(誠人), 와인(娃人)

계집 여편(女扁)의 자를 이렇게 철저하게 쓴 이도 고금을 통해 동양에는 연산군 한 분일 게다.

가위와 풀에서

환언한다면 우리들 스스로의 성질의 진출(進出)인 것이다.

우리들 스스로의 것이 아닌 사상이나 행위나 또는 인물에게 존재하는 것과 우리들과를 결합시키는 것이다.

인간이 크게 선량하게 되기 위해서는 심각히 또 광범하게 상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예술이 인생을 사랑의 실행에로 인도하는 것은 곧 이것이라"고 하였다.

이 충고에 오인은 귀를 기우릴 것이 요망된다. 왜냐하면 예술에 의하여 상상력은 배양되며 그 원주(圓周)는 확대되는 까닭이다

그곳에 동포감이 용출되며 강렬한 '사랑의 세계'가 전개되는 것이다.

물론 감정이 직시(直時)로 의지(意志)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지를 움직여서 우리의 행위에 동기를 주는 것은 의논도 아니며 이유 주장도 아니고 그것은 감정인 것이다.

톨스토이가 예술을 위한 예술을 반대하고 '인생을 위한 예술'을 주장한 것도 개인 및 사회적인 인간의 '생'을 충실케 하고 진전케 하고 향상케 하기 위한 예술을 존중히 여겼던 까닭이다.

4

예술과 생활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는 위에서 말한 것만으로서는 불충분하다. 좀 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

생활의 요소는 모두 상호 연관하고 있는 것으로서 소위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생활 연관의 원리' 혹은 '생활 연속의 원리'라 칭한다.

이와 같은 상호 연관에 있어서 생활이 있는 것이며 이것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다. 물론 생활의 제상(諸相) 간에는 심한 대립과 모순도 없지 않다. 그것은 주로 개념적 추상에 기인하는 것이다.

분열의 경향은 '생명' 그것의 내부에도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여하한 경우에도 전혀 분열로 끝이는 일은 없는 것으로서 분열의 경향과 함께 통일의 경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괴테는 명저 파우스트에서 "친구여 모든 이론은 회색(灰色)이니라. 생명의 황금의 초목만이 녹색이니라."하였다.

이와 같이 본다면 생활의 요소는 생명이다. 그러므로 생활은 생명과 동의어로도 된다. 그리고 생활의 의욕은 생명의 의욕과도 상통되는 것으로서 실재의 근저가 되며 우주의 본체가 되는 것이라고 본다.

맹목적으로 또 이유 없이 부단히 작용하며 항상 결핍을 느끼며 그리고도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끊임없는 욕구와 노력으로 시현되며 일물(一物)을 득하면 직시 또 타물(他物)을 득하려고 하는 무한정의 연장으로 끝일 줄을 모른다. 그것은 인생의 근저(根柢)이기도 하다. 그런 까닭에 인생은 항상 불만족하며 고통의 상태에 있다. 생활의욕에 수반하는 생활감정은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며 우리의 행위에 동기를 부여한다. 이러한 감정, 상상력은 예술에 의하여 배양되며 확대된다.

이러한 감정과 상상력은 또 이상(理想)과도 상통할 뿐 아니라 끊임없이 어느 이상에로 지향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은 미의식(美意識)에 의하여 표현하려고 한다.

미는 경험상 항상 일종의 쾌감으로 긍정하게 되며 그것은 오인의 생활감정으로서 이해되고 있다.

이미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예술이 인간의 내면생활의 요소와 내용을 심적 충동에 기하여 일정한 재능과 양식에 의하여 미적 표현 및 미적 효과를 환기하는 특수한 활동 및 결과라고 할진대 그 미적 표현은 미의식이 없이는 그 목표에 달할 수 없으며 또 미적 효과의 환기도 미의식에 있어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적 표현이나 미적 효과는 미의식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미의식은 생활감정에 연관되며 그것이 오인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며 생활의지를 움직인다. 따라서 예술은 인간의 생활에 필요하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비록 예술의 학도나 예술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생활의욕과 생활감정을 가진 자는 예술을 떠날 수 없으며 오인의 생활에는 예술이 필요한 것이다.

괴테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멀다.”고 외쳤으며 톨스토이는 “예술은 인생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외쳤던 것이다.

건축, 조각, 회화, 장식, 시, 음악, 무용 등에 시현되는 미적 효과는 얼마나 오인의 생애를 행복하게 인도해 주는가. 만약에 인생에게 예술이 없다면 그 얼마나 무미한 세계이며 그 얼마나 쓸쓸한 세계인가.

우리의 인간적 생활은 예술성을 생명과 더불어 보지함으로서만 더욱 빛나는 것이며 광명과 희망이 있는 것이다. 예술이 없다면 인간의 생활은 암흑의 세계며 죽음의 세계일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천성으로 사회적 동물이며 정치적 동물이라.”하였다.

그와 동양(同樣)으로 “인간은 예술적 동물이며 예술의 꿈속에서 생활하는 동물이라.”하겠다.

인간이 자연을 찬미하고 자연을 동경하며 자연과 인생과를 비교하며 자연을 격리하여서는 생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다고 외치는 것과 동양으로 예술을 동경하며 예술을 찬미하며 예술을 추구하여 예술과 인생을 비교하며 예술의 꿈속에 끊임없는 행복을 느끼며 예술 없이는 암흑과 죽음을 의미한다고 외치는 것은 예술이 인간의 생활에 얼마나 필요한 것 인가를 넉넉히 말해주는 것이다.

다시 우리의 생활관계를 살펴볼 때 예술은 다만 미술이나 시나 음악이나 무용의 세계에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에만 전유(專有)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종교, 문화, 전쟁 등의 여러 장면에서도 예술성이 엄연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찾아 볼 수 있으며 또 연극이나 영화나 사진 같은 것에는 물론이고 나가서는 교통이나 통신이나 기타 도시, 농촌, 어촌의 어느 일부 면에서도 예술의 한 편린(片鱗)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생활면에는 어느 곳에나 예술이 편재(遍在)할 수 있으며 또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5

인간은 누구나 제1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노력은 이 일점(一點)에 집중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따라서 예술이나 종교나 철학 같은 것은 제2 의적(義的)인 것으로서 아무래도 생명을 유지한 연후의 문제인 듯싶다.

그러나 인간이 다만 생의 보지나 육체의 존속이나에 급급하여 그것으로써 전부라 하고 따라서 모든 희비애락(喜悲哀樂)도 육신(肉身)의 쾌불쾌(快不快)나 육체의 보호 여하로 끝인다면 예술은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또 예술이 성립되어있다 할지라도 그 가치나 존재를 모를 것이다. 인간의 의식있는 생활에서 불멸의 ‘혼’의 생활에 진화(進化)하는 것이라는 점을 믿지 않는 이상 그곳에는 예술은 잊을 수 없다.

미국의 시인 에머슨은 “시란 사물의 정신을 표현하려는 노력이다. 즉 수적(獸的)인 육체를 넘어서 육체로 하여금 생존케 하는 생명 및 영혼을 탐지하려고 하는 부단의 노력이다.”하였다.

이 해명은 실로 적절한 표현이라 하겠다. 오인이 다만 육체적으로 생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배후에 이 ‘육체로 하여금 생존케 하는 생명’이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은 사색하는 인사(人士)의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바 이것을 탐지하고 표현하여 인류 진화의 도정(道程)에 일보(一步)를 전진케 하는 것이 시가 아니고 무엇이랴.

오인의 육체가 다만 후멸(朽滅)하는 육체가 아니고 이것이 있는 까닭에 오인의 혼은 발달하고 향상한다는 것을 사유할 때 오인은 육체를 애무하고 또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인은 중세의 인간들과 같이 육체를 영혼의 장애물로서 관찰하지는 않는다.

육체가 재래(齎來)하는 제종(諸種)의 충동 그리고 그것을 지혜에 의하여 조절해 나가는데 혼의 발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까닭에 오인은 육체를 애무하며 인

생의 사랑을 더욱 느끼는 것이다.

예술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혼의 영원성을 신앙함에 의하여 생(生)하는 인생을 사랑하는 마음의 구체적 표현인 것이다.

그리고 미술은 미술을 통하여 표현하는 예술의 일부문(一部門)이며 음악은 음률을 통하여 표현하는 예술의 일부문이며 시는 주로 정신과 사랑을 통하여 표현하는 예술의 일부문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예술과 인생을 고찰할 때 예술은 인생을 '사랑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다. 인생애라는 말은 때로는 철학적으로 또 추상적으로 사고된다.

그 결과는 자칫하면 집합적 추상적인 인류는 사랑하나 개개의 구체적인 인간은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예술의 정신은 그래서는 아니 된다.

어디까지나 구체적으로 개개적인 인류 또는 인간으로서 추상이 아니고 '나', '너', '누구'에게나 지향되며 누구에게도 미치는 풍부한 너그러운 사랑의 정신인 것이다.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이른바 '미적 표현'의 희열이 사회의 희열이며 인생의 추구하는 진, 미, 선으로 애(愛)로 발로(發露)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이 곧 예술의 길인 것이다. 인생이 생을 향락하며 생의 의기(意氣)를 느끼며 아름다운 인생을 찬미할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이며 '예술' 때문이다.

세상에는 예술을 무시하고 인생에게 무용한 장식이라고 경멸하거나 혹은 미술, 음악, 시 같은 것은 여유 있는 자만의 완구(玩具)처럼 생각하는 가련한 인간도 없지 않다. 때로는 예술을 위험시하는 자도 있다. 그러나 예술이 인생에게 얼마나 유익하며 또 필요한가를 찰지(察知)하는 인사에게는 그러한 인간이 얼마나 무미하며 얼마나 가련한 인간이며 그것이 얼마나 심한 오류인지를 잘 알 것이다.

또 어떤 인간은 예술을 허위나 허식과 혼동하는 자도 있다. 또 어떤 자는 예술가를 가장하고 예술가(藝術家)연(然)하는 사이비(似而非) 예술가도 있다.

그러나 예술의 길은 오히려 그러한 허식을 제거하고 적나라한 인생을 진지하게 진상(眞相)에 육박하여 참된 면을 계시(啓示)하고 그 예술을 통하여 참다운 인생을 알려주는 사명을 가진 것이다.

예술은 인생의 향기이며 사랑의 세계며 참관 세계인 것이다.

예술을 안다는 것은 인생의 미를 아는 것이며 인생의 진미를 아는 것이다.

예술을 알아야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알아야 참된 세계를 알며 인생은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 것이다.

이것이 곧 예술이 생활에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

(필자(筆者) 법대조교수(法大助敎授))

신춘유감(新春有感)

안호삼(安鎬三)

신춘수감을 적도록 의뢰를 받은 것이 1월 25일이었고 어느 날까지 적으라는 기한이 2월 초이니 「코메트」 지(誌)의 신춘은 1월말로 되어 있는 모양이다. 아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잡지의 생명은 독자에게 있으니 이 글이 지상(誌上)에 인쇄되어 독자가 그것을 읽을 때가 바로 신춘이 되도록 계획을 세웠는지도 모른다.

만일 이렇다고 하면 글 쓰는 사람에게는 좀 곤란한 일이다

금년 신춘은 아직 지내보지 못하였으니 부득이 앞에 어떠한 소감이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하여 적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작년 신춘, 재작년 신춘에 경험한 바를 적는 도리밖에 없을 것인데 지나간 봄도 새봄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여하튼 봄이라는 말의 내용은 어떻다고 규정짓기가 어렵다.

따라서 아무리 신춘이라고 '신'자를 딱 박아놓아 보았대야 역시 애매함을 면치 못 한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한 장의 편지가 놓여 있는데 날자는 1월 20일로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첫머리에는 "복유신년맹동지절(伏惟新年孟冬之節)에"라고 쓰여 있느니 이 편지를 쓴 분의 맹춘은 아마 4월 20일경에라야 올 것이다.

맹춘과 신춘은 같은가? 다른가? 아이들이 아랫목에서 읽고 있는 신문을 넘겨다본즉 신춘문예라는 란(欄)이 있는데 다는 그것은 1월 1일부터 연재되는 것인 줄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면 그 글은 늦어도 작년 12월쯤에 썼을 것만은 확실하다.

이렇게 따지고 있는 필자 자신도 어수룩하다

씨를 뿌리면 적어도 한 열흘 지나야 쌀이 나고 그 싹이 또 두서너 달 지나야만 꽃이 피게 되는 것은 뻔히 알면서 '꽃피는 봄', '씨 뿌리는 봄'하고 내 멋대로 떠드는 일도 가끔 있다.

말이야 거짓말은 아니지. 개나리꽃, 진달래꽃, 복숭아꽃, 사과꽃, 배꽃 피는 것이 모두가 봄인 동시에 볍씨, 조씨, 피씨, 콩씨를 뿌리는 것도 역시 봄이니 봄에 꽃이 피고 봄에 씨를 뿌린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로되 꽃피는 봄, 씨 뿌리는 봄이라고 하면 연꽃은 여름에 피고 국화꽃은 가을에 피고 무씨, 배추씨는 입추에 뿌리고 시금치씨, 쑥갓씨는 겨울에 뿌린다는 사실을 도외시하는 것이니 아무리 생각하여도 과학적 표현도 아니고 논리적 표현도 아니다.

'꽃피는 봄', '씨 뿌리는 봄'이라는 말이 거짓말 아닌 것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또 한 가지가 있다.

이 말에 부정사(否定詞)를 넣어서 거꾸로 붙여본다.

'꽃 안 피는 봄', '씨 안 뿌리는 봄', 이런 봄이 있을 수 없고, 만일 있다 하면 무서운 일이다.

희고 붉고 누르고 푸른 자연의 꽃이 아무리 많이 피었다 하더라고 꽃을 꽃으로 보는 마음의 꽃마저, 피지 아니하는 봄은 무서운 봄이다.

1951년, 52년, 53년 세 해 봄에는 문경새재, 단양죽령, 월성태백, 춘천봉의, 인제금강, 가

까이까지도 수십 차를 돌아다녔지만 진달래꽃 한 포기를 본 기억이 없고 다만 휴가로서 동래에 사는 가족을 찾았을 때 뜰에 핀 채송화가 어여뻤다는 기억만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여름의 이야기니 여기에 논할 필요가 없다.

"씨 안 뿌리는 봄, 역시 무서운 봄이다."

봉일천(奉日川)에서부터 판문점까지는 길가에 있는 것이 전부가 옥토양전(沃土良田)이었건만 1953년 봄에 서울과 판문점사이로 내왕할 때 길가에서 씨 뿌리는 사람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뿌려지는 씨는 다만 쑥씨, 돌피씨, 무순 물레씨 등 바람을 타고 가고 싶은 데로 가서 뿌려지는 씨들뿐이었다.

사람이 뿌리거나 안 뿌리거나 씨는 뿌려진다. 문제는 곡식의 씨냐 잡초의 씨냐 하는 것뿐이다.

인생에도 봄이 있다. 청춘이란 봄이 있다. 이 청춘기를 자연에 맡겨 두면 잡풀 씨가 뿌려지어 내 밭 남의 밭을 황폐하게 만드는 사람밖에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민을 가르치려고 교육기관을 세우고 개인은 배우려고 학교에 다니는 것이지만 이 나라 청춘들에게 과연 옳은 씨만 뿌려주고 있는가.

나의 연배 가운데서 보수적이 아닌 사람 하나를 뽑는다면 나는 넉넉히 그 후보자가 될 자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나라 청춘들의 수확기가 한없이 염려된다.

아무리 좋지 아니한 논일지라도 백평 당 벼가 두 가마는 나건만 작년 재작년부터 무성해 온 풀씨가 우리 청춘들의 마음 가운데 수 없이 뿌려져 있으니 무슨 시책이 있지 아니하고는 그들의 가을에 이르러서 백평 당 벼 한가마를 과연 거둘 수 있을까가 무한히 염려된다.

문제를 다시 앞으로 돌리자. 대저 양력 정월 초하루니 신춘, 입춘이 되었으니 신춘, 음력 정월이니 신춘, 얼음이 녹으니 신춘, 새싹이 나니 신춘, 이 여러 가지 관념의 차이는 결코 개인별 차이가 아닌 줄로 안다. 나라는 동일인이 이 모든 것을 시인한다.

시인하는 이유는 이 모든 관념에 공통되는 점이 있는 까닭이다. 묵은해를 터날 때나 새해의 새로운 것을 볼 때나 희망의 감격이 그것과 합치면 신춘이라는 생각이 솟아오르는 것이라고 믿어진다.

다시 말하면 희망의 감격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신춘이란 느낌을 가질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Paupora가 인간으로 내려와서 호기심에 사로잡힌 탓으로 신들께서 받은 상자의 뚜껑을 열어 보아 온갖 비애와 모든 고통이 세상에 퍼지고 상자 속에 남은 다만 한 가지는 희망이라고 하나 나는 희망이란 그 다지 좋은 것인 줄을 알지 못한다. 나는 희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오늘일이 너무나 바쁘므로 내일 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이 오리다고 기대가 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이승(此生)에 대한 비관이 아니고 오늘에 대한 만족이다. 따라서 나는 희망의 감격이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게는 신춘이란 감격이 없다.

11월 30일 밤과 12월 30일 밤은 똑같은 하루 밤이다. 밤 열한시부터 새로 한시까지에는 120분이란 시간밖에 없으니 이것은 섣달 그믐날 밤도 6월 보름날 밤도 꼭 마찬가지다.

섣달 그믐날 밤에는 지구가 한 번 섰다가 다시 돌기 시작한다면 그날이 의미 있는 날이지만 그렇지 않는 한 그날이 다른 날과 다르지 않다. 정초에는 신년 연회라고 해서 술 마실 기회만 많이 오므로 모든 일에 지장이 많다.

신년은 귀찮기만 하다.

입춘이 지나고 차츰 따뜻해 오면 반가운 일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구공탄이 덜 들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크리스마스캐럴에 나오는 스크루지와 같이 인색한 사람으로 들릴는지 모르나 나를 인색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줄로 안다.

붓끝은 붙잡을 수 없이 탈선하려고 한다. 물론 수필인 이상 아무런 말을 쓰든 크게 상관할 것 없겠지만 변변치 못한 나에게 대한 말을 너무 벌려놓는 것은 확실히 탈선이다.

쓰고 나서 보니 우습기가 짝이 없다.

세상 사람은 인색하지 아니한 것이 보통이건만 나는 인색하지 않다고 변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대체 무슨 뜻으로 쓰는 것인가.

내 자신 부끄럽기 짝이 없다. 내 자신과 나의 주위에 있는 극히 소수인만 아는 사실로서 이런 지면에 보도하면 독자들이 다소 신기하게 읽을 만한 일이 없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금년 겨울 멕시코 서울에서는 기온이 영하 13도로 내려간 일이 있는데 이것은 천지개벽 이래 처음으로 생기는 일일 것이라는 소문이 아마도 이 나라에는 그다지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이고, 또 신춘에 관계되는 일만 하더라도 우리 서울 창경원 뒤 비원에 와서 반년을 지내는 황새인가 왜갈인가 하는 새를 해마다 해마다 남으로부터 날아와서 하루도 틀리지 않게 3월 18일 밤에 도착한다는 사실은 비원 옆에 30년 가까이 사는 필자 이외에 착안(着眼)한 사람이 드물 것이다.

그러나 붓끝이란 이상해서 한 번 방향을 정하면 그 방향으로 자꾸자꾸 달아나므로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면 상당히 조작을 요하는 것이다.

그 중에도 수필은 이러한 성격을 특별히 많이 가지고 있는 듯하다.

오늘은 1월 31일이다. 앞에도 적었지만 이 원고의 제출기한은 2월 초이다.

기한을 엄수하려고 붓을 드니 시작이요 붓 가는 대로 적으니 수필이다.

신춘에 소감이 없다고 적었으나 이 모든 것이 얼음 녹는 이 날에 적은 것이므로 틀림없는 신춘소감이다.

영국의 수필가, 에이 밀튼의 작으로서 남자는 옷을 입으면 호주머니가 보통 스무 개쯤은 된다는 이야기를 적은 것이 수필로서 세계적 걸작의 하나로 되어 있다

우리 공군비행사가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몇 개나 되는지 모르나 육군의 작업복에는 주머니 네 개만 있는 것이 있어서 필자는 그것을 입을 때에 대단히 편리하다고 생각하였다. 요사이에 입는 옷을 두고 생각해본즉 외투에는 주머니가 겉에 둘 안에 셋 모두 다섯 개쯤이고 저고리에는 겉에 셋 안에 셋 모두 여섯인데 때로는 주머니 안에 또 주머니가 있는 일이 있으므로 도합 일곱 개가 되는 일이 있고, 조끼에는 안에 보통 다섯, 바지에는 옆과 뒤와 앞에 있는 시계 주머니를 합하면 역시 다섯이고 보통 와이셔츠에는 하나쯤 있을 수 있다. 그 뿐인가 나같이

추위를 몹시 타는 사람은 조끼와 저고리 사이에 세타를 입으니 거기에도 둘이 붙어 있다.

내 몸에 달린 호주머니 수는 스물이 훨씬 넘는다. 이러한 밑튼의 이야기는 간접으로 읽는 독자에게까지 다소의 흥미를 느끼게 할 터이니 이것이야 말로 수필의 정화(精華)라고 하겠다.

여러분이 읽어 주신 이 글에는 신춘에 대한 해설이 있었고 또 수필에 대한 해설도 있었다. 신춘의 수필이 아니고 신춘수필이단 제목아래에 지은 졸렬한 작문에 지나지 못하는 것을 피자는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이다.

(필자(筆者) 외국어대교수(外國語大敎授))

왜색영어일소(倭色英語一笑)

김명수(金明水)

3.1정신을 계승하여 건국된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우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왜색(倭色)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럽고 슬픈 사실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국어 정화를 위하여서 일어를 일소할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영어를 배우는데도 이 왜색을 일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나는 영어교육자의 한사람으로써 영어교수상, '일본어화된 영어' 때문에 단단히 골치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영어가 일본으로부터 수입되었다 하거니와, 일본이 우리 강토로부터 물러간 지 10년이 지난 금일, 아직도 어찌해서 식자(識者) 간에 이 JAPANIZE ENGLISH가 유행되고 있는 것일까? 영어의 정확한 발음을 가르치는데 큰 장해를 끼쳐주고 있다.

우리의 훌륭한 한글로써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지어 낸 그 누추한 발음을 그대로 쓰고 있을 필요가 어디 있는가?

영어깨나 알만한 지식인들이 신문, 잡지, 기타 번역 서적 등등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왜식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은 그것을 옳은 것인 줄로 알고 따라간다. 더구나 인명, 지명 등의 원어는 틀려서는 안 된다.

요새 유행되는 단어 중에서 일례를 들면 헬리콥터(HELICOPTER)를 헤리코프타라고 한다든가, 텔레비전(TELEVISION)을 테레비죵이라고 부르는 따위가 다 그러하다.

심한 것은 섹스피어(SHAKESPEARE)를 일본식 그대로 세크스피아라고 쓰는 문인들도 있다.

일반 시정(市井)에서 무식한 다방이나 식당에서 쓰는 가쓰레쓰(CUTLER), 사라다(SALAD), 에그스(EGGS) 따위 말은 이미 우리 귀에 너무나 익어졌으므로 여기서 새삼스레 평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다행히 해방 이후로 도락꾸가 추력(TRUCK)이 되고 빠스가 버스(BUS)도 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일본음으로 발음되지 않는 ㄴ(ㄹ 받침) K. T. D. P. 등은 모두 (ㅋ), (ㅌ), (ㅍ) 등의 받침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ER, UR, OR, IR, AR 등은 다 우리말로는 (어-)로 해당되는 것인데 구태여 일본식으로 (아)라고 발음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는 지면관계상 더 열거할 수는 없으되 그릇된 발음의 단어를 몇 개 소개하고 그치겠다.

미씽은 쏘우윙 머쉰(SEWING MACHINE)
밋숑 스쿨은 미슌 스쿨(MISSION SCHOOL)
케키는 케익(CAKE)
아이롱은 아이언(IRON)
나이롱: 나일런(NYLON)
후랏슈: 플래쉬(FLASH)
카리큐람: 커리큘럼(CURRICULUM)
차타레부인: 촤털리(CHATTERLEY)
부리크스 대사: 부릭스(BRIGGS)
쥬리아스: 줄리어스(JULIUS)
쥬리에트: 줄리엘(JULIET)
도라이 크리닝구: 드라이 클리닝(DRY CLEANING)
호프: 홒(HOPE)
라부레타: 러브레터(LOVE LETTER)

(필자(筆者) 영문학자(英文學者))

실향사민(失鄕私民)

이하윤(異河潤)

본의 아닌 휴전협정이 체결될 무렵에 '실향사민'이라는 전시(戰時) 용어가 생겼다. 이 소위 실향사민이 남한과 북한 지역에 얼마나 많이 있어 고향의 하늘과 땅을 그리고 부모와 처자를 안타까이 그리워 할 것이랴. 38선이 그어짐으로 말미암아 동란이 발발함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참극이 3천리 강토에 벌어졌거니와 마침내는 '실향사민'이란 처량한 대명사가 3천만 겨레의 머리위에 임하게 되었으니 이 또한 어찌 슬프지 않으랴?

나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실향기」라는 일문(一文)을 초(草)하여 지상(誌上)에 발표한 일이 있었거니와 그것은 다만 어려서 고향을 두고 온 젊은 나그네가 고향의 황폐를 걱정하면서 오히려 아름다운 추억을 서술한 소품이었다고 기억한다. 거기서 내가 사용한 실향은 실향 아닌 기실은 망향(望鄕)으로 표현 못할 그윽한 정회(情懷)를 하소함이었더니 일찍이 서구(西歐)에서 사용되던 정처 없이 떠도는 피난의 유랑민과 흡사한 '실향사민'의 실향(失鄕) 역(譯) 이것은 기구한 운명을 뜻하는 전시에 용어로서 아무리 조문(條文) 번역의 정확을 기한 소산이라고는 할지라도 그 어감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는가 생각해 볼 때 문득 심신

이 송연(悚然)해짐을 금할 길이 전혀 없다.

일찍이 고향을 떠나온 몸이기에 나는 가지가지의 추억과 더불어 소중한 동경의 세계를 그곳에 간직해 두었다. 나를 낳고 나를 길러준 고향, 산 깊고 물 맑은 내 고향의 하늘과 땅, 길과 바위와, 그 어느 것이 나를 부르지 않은 것이 없는 희망의 보금자리, 아 나는 아니 우리는 영원히 고향을 잃은 백성이 되고 말 것인가.

◇

나는 38선이 그어지자 '고향'의 노래 한편을 써서 강물의 고기만치도 공중을 나는 새만치도 산야의 짐승만치도 자유가 없음을 한탄한바 있으며 개성역(開城驛)에 내려서 전신주와 철로 길은 쭉 북으로 뻗었으되 더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정을 무심히 오락가락하는 구름에 의탁한 시를 지은 일도 있거니와 진실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원한에 사무친 38선이었고 또 비분에 넘치는 휴전선이다.

인류의 역사가 있은 이래 불행하게 전쟁과 침략이 종식되는 일이 없으나 한국의 동란처럼 동족상잔(同族相殘)의 참혹한 전화(戰禍)를 초래한 예는 드물 것이니 누구를 원망하랴! 소연방공산제국주의의 주구들로 이루어진 괴뢰집단의 끊임없는 파괴공작과 불법 침략으로 5천년의 역사를 말살하고 3천리 강토와 3천만 동족을 소련에 예속시키려는 음모에서 맺어진 결과가 아니면 무엇이랴.

기러기 떼가 남에서 북으로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을 부러워 한지도 이미 오래다. 하늘이 하나이매 까마귀도 까치도 참새도 남과 북이 있을 리 없고 38선과 휴전선을 가릴 리 없을 것이다. 산맥이 연달았으매 다람쥐도 너구리도 여우도 오고감이 자유로울 것이다. 지세에 따라 흘러내리는 강줄기를 오르고 내리는 고기들 어제는 남쪽 나루에서 놀다가도 오늘은 북쪽 여울을 거스르고 있을 것이며 상류 산골짝이의 뱀장어가 산란차 떼를 지어 하류로 내려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에겐 금수어개(禽獸魚介)만치도 여행의 자유가 구속되고 있는가. 남북 미주와 서구(西歐), 아프리카 못갈 곳이 없건만 우리 한국의 엄연한 영토인 휴전선 이북 우리 형제가 사는 고장엘 왜 우리는 가고 오지를 못하는가. 한식(寒食)과 추석이 올 때마다 성묘 못가는 실향사민들이 남한에 얼마나 많을 것을 생각할 때, 부모를 북한에, 처자를 남한에 두고 보내고 흩어진 채 생사조차 모르고 지내온지 어언 십년이 찬 것을 생각할 때, 가슴은 미어진다.

◇

집은 불타고 사람은 달라지고 마을 또한 변하였으리라만 고향은 고향대로 낳고 기른 자식들을 말없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해와 달, 봄과 가을, 비와 눈, 예와 다름없으리니 평화가 이 땅에 깃들이는 날 집 다시 세우고 길 다시 닦아 흩어졌던 겨레를 모여들면 쟁기 벼려서 밭 갈고 소와 말, 돼지와 닭 동리마다 번성하리니. 어서 하루바삐 고향을 찾는 날 우리 겨레의 살길은 열리는 것이다. '실향사민'의 불명예스러운 명사가 우리 땅에서 없어지는 날이 진정한 인류평화에 서광(曙光)[12]을 보는 날일 것이다.

---

12) 원문의 서선(曙先)은 서광(曙光)으로 봄.

바다를 차지하고 하늘을 차지했던 권리조차 휴전협정으로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바다의 용사도 하늘의용사도 강토를 에워싸고 강토를 굽어볼 기회가 없어 졌구나.

그러나 여러분이 제패한 하늘 밑에는 아무런 제약도 구속도 있을 수 없다.

<사대교수(師大教授)>

나이

한철영(韓徹永)

중학을 다닐 때는 빨리 대학에 가고 싶었다.

대학을 가자면 나이가 많아져야 하니까 정월이 한두 달만 앞서도 그 놈의 세월이 거북이 걸음이라 퍽이나 안타깝도록 초조했다.

말하자면 스무 살을 빨리 먹어야 하겠다는 그런 심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스무고개를 넘고 대학이라고 적을 두고 보니 중학시절은 확실히 철없든 것을 뉘우치게 되었다.

스물이 되고 보니 세월이 중학시절과는 판이하게 그야말로 유수와 같이 빠르다. 특히 정월 한 달은 마치 한 주일을 지나듯 재빨리 지나가곤 했다.

나이 들수록 십이월 달은 퍽이나 괴로운 달이 되고 말았다.

이 한해를 또 무위(無爲)하게 지낸 한 탄밖에 나오지 않는다.

크리스마스라야 천진난만하게 예배당에서 밤을 새며 즐길 줄을 모르고 생리적으로 진정 마음을 바칠 수 있는 애인과 더불어 그 밤을 즐거워야만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이다.

확실히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고역(苦役)의 축적이 되면서 생리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한다.

처칠은 스물넷에 벌써 국회의원이 되었고 또 현역 우리 정치가 중에서도 스물서 넷 때는 군수를 지낸 사람도 있다고 한다.

한편 옛날에는 스무 고개를 넘으면 아들 딸 자식의 버젓한 아버지가 되어 잘하든 못하든 사람의 구실을 했다한다.

그러나 요즘에도 물론 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발전에 원인도 있겠으나 스무고개에 애 아버지가 된다는 일은 거의 드물다.

그래서 옛 노인들의 말씀을 들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지각이 없고 철부지들이라 한다.

그들 사고방식에 의하면 확실히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도 어린애 짓을 하지 않나 싶도록 긴장이 들어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나의 친한 친구하나가 아버님 덕택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될 때 있은 일이다.

그의 아버님은 아들의 유학비용을 염출해 내느라고 퍽이나 안타깝도록 애를 쓴 모양이었다.

"나는 대학을 나오자 그래도 내 용돈은 벌어서 썼는데 너는 왜 이 꼴이냐?"

고 짜증을 내더라는 것이다.

이 꾸중 비슷한 말을 들은 그 친구

"요즘 대학을 나와도 써 주는 데가 있습니까?" 대꾸를 하였다는 것이다.

확실히 대학을 나왔지만 용돈이라도 얻어 쓸 만한 곳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옛 노인들은 이런 대꾸로 납득이 안갈 것이다.

무슨 짓이라도 해서 자립할 방도를 강구 못하느냐 할 것이다.

무슨 짓이라니 할 방도가 별로 없고, 보니 나이만 그저 먹고 살밖에 없다.

나이를 먹고 보니 사회적 지위를 탐내는 자도 있겠으나 결혼문제가 중대한 것이다.

결혼문제에 있어서 여자 측 동향을 보면 거의가 돈이 있어야 하겠고 그것이 없으면 사회적인 무슨 명색이라도 갖춘 자라야 한다는 것을 내 세우고 있는 모양이다.

이러고 보니 이에 합격될 자가 몇이나 되는지 실로 의문된다.

그런데 하나 기이한 현상이 있다.

제 나이 행세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나이를 부쩍 늘려서 행세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서로 가까운 사이면서도 피차 몇 살인가를 알지 못하고 사귀는 수가 많다고 하며 그 사람이 비로소 죽었을 때 그 나이가 밝혀진다고 하거니와 나이를 묻는다는 것은 퍽 실례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런 일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선후를 가리려는 데서 온 인습인지 모르겠으나 반드시 피차에 나이를 알게끔 된다.

최근에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나이를 늘린 사람도 있으나 거의 동배 되어 보이는 사람을 알고 보면 나이가 위이다.

세상에 비밀이 없다 듯이 속인 나이가 밝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왜 나이를 속여서 올리는 것이냐. 따져보면 으레 어른 노릇을 하여 대접을 받으려는 심보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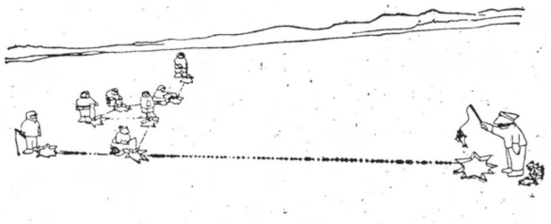
주책없는 데까지 신경을 쓴다고 본다.

그냥 나이 먹는 것도 해놓은 일 없어 걱정되는 판에 고작 나이라도 올려서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는 심보는 아무리 해고 좋게 해석할 수 없다.

오히려 어떻게 다시 어려서부터 시작 해볼 수 없나 싶은데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나는 남모르게 코웃음을 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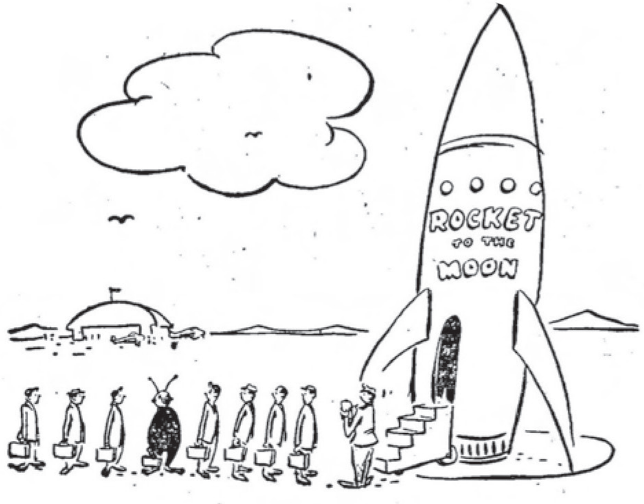
만기대성(晩器大成)이라고도 했지만 나이 더 먹기 전에 할 일을 남보다 부지런히 해야겠다는 생각밖에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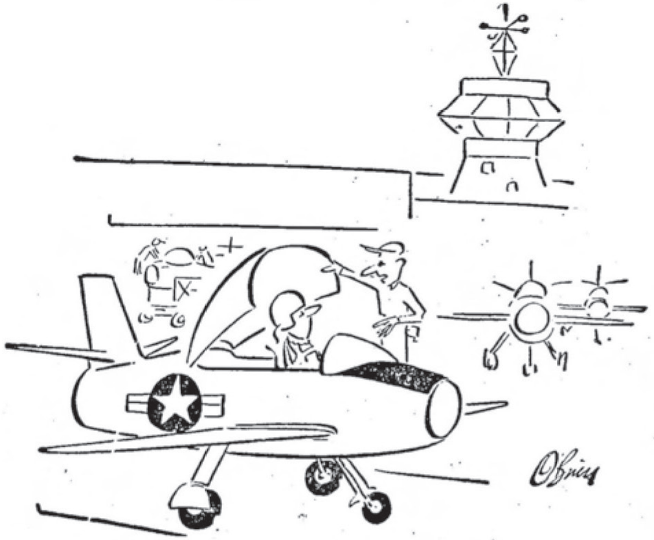
(평론가(評論家))



天文學者

월세계(月世界)로 가는 여객(旅客)





진기(珍奇)한 주문(注文)

"여보게, 우선 1,500리의 속력을 내려면 600리 이상 빨리 가서는 안 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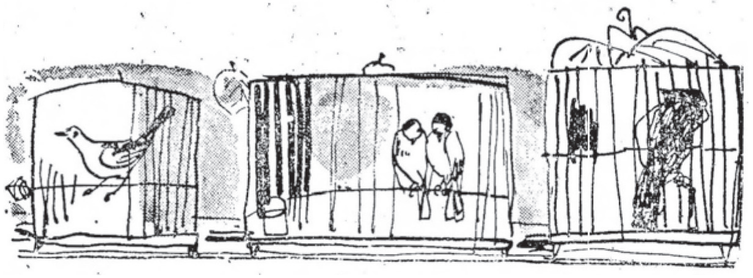
"?"

시(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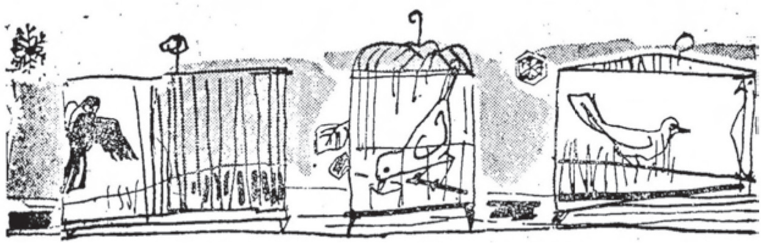
백의(白蟻)

김수영(金洙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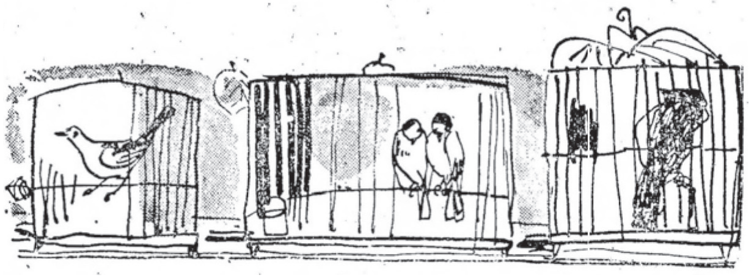
내가 비로소 여유를 갖게 된 것은
거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집안에 있어서도 저 무시무시한 백의를 보기 시작한 때부터 이었다.
백의는 자동식문명의 천재이었기 때문에 그의 소유주에게는 일언(一言)의 약속도 없이 저가 갈 길을 자유자재로 찾아다니었다.
그는 나같이 몸이 약하지 않은 점에 주요한 원인이 있겠지만 뇌신(雷神)보다 더 사나웁게 사람들을 울리고
뮤즈보다도 더 부드러웁게 사람들의 상처를 쓰다듬어준다.
질책의 권리를 주면서 질책의 행동을 주지 않고
어떤 나라의 지폐보다도 신용은 있으나 신체가 너무 왜소한 까닭에 사람들의 눈에 띠지를 않는다.
고대 형이상학자들은 그를 보고 '양극(兩極)의 합치(合致)'라든가 혹은 '거대(巨大)한 희열(喜悅)'이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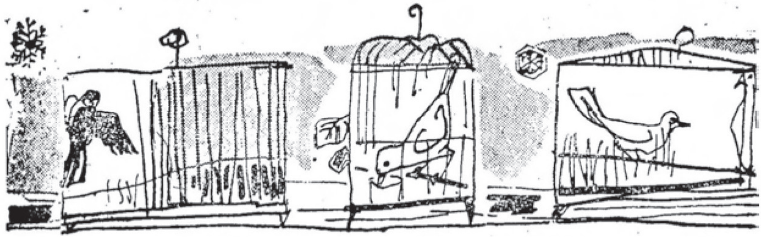
19세기 시인들은 그를 보고 '도피(逃避)의 왕자(王者)' 혹은 단순히 '여유(餘裕)'라고 불렀다.
그는 남미(南美)의 어느 면공업자(綿工業者)의 서자(庶子)로 태어나서 나이가라 강변에서 수도공사(隧道工事)에 정신(挺身)하고 있었다하며 그의 모친은 희랍(希臘)인이라고 한다.
양안(兩眼)이 모두 담홍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오랜 세월을 암야(暗夜)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만은 확실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의 맏누이동생이 그를 '하니'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꼬워서 내가 어느 날 그에게 '마신(魔神)'이라는 별명을 붙였더니 그는 대뜸
"오빠는 어머니보다도 더 완고하다."고 하면서 나를 도리어 꾸짖는 척 한다.
(그가 나를 진심으로 꾸짖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그의 은근하고 매혹적인 표정에서 능히 감득(感得)할 수 있었다.)
- 비참한 것은 백의이다.



그는 한국에 수입되어 가지고 완전한 고아가 되었고
거리에 흩어진 월간(月刊) 대중잡지(大衆雜誌) 위에 매월 그의 사진이 게재(揭載)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어느 3류 신문의 사회면에는 간혹 그의 구제금 응모기사 같은 것이 나오고 있다.
나는 이러한 사진과 기사를 볼 때마다 이것은 '아트랜틱'과 '하파스'의 광고부의 분실(分室)이 나타났다고 이곳 저널리스트들의 역습(逆襲)의 묘리(妙理)에 감탄하고 있었는데
백의는 이와 같은 나의 안심과 태만을 비웃는 듯이
어느 틈에 우리의 가정의 내부에까지 침입하여 들어와서 신심(身心) 양면(兩面)의 허약증(虛弱症)으로 신음하고 있는 나를 독촉하여 「희랍[그리스]인을 모친으로 가진 미국인에게 대한 호소문」과 「정신상으로 본 희랍의 독립선언서」를 써서 전자(前者)를 현재 일리노이 주에 있는 자기의 모친에게 보내고 후자는 희랍국립박물관 관장에게 보내달라고 한다.
이러한 그의 무리한 요청에 대하여 나는 하는 수 없이



"그것은 나의 역량 이상의 것이므로 신세계(新世界) 극단(劇壇)의 연출자 S 씨를 찾아가보라."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여가지고 즉석에 거절하여 버렸다.
오히려 이와 같은 나의 경멸과 강의(剛毅)로 인하여 나는 그날부터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나 바로 어저께 내가 오래간만에 거리에 나가니
나의 친구들은 모조리 나를 회피하는 눈치이었다. 그중의 어느 시인은 다음과 같이 나에게 욕을 하였다.
"더러운 자식, 너는 백의와 간통하였다지? 너는 오늘부터 시인이 아니다.……"
- 백의의 비극은 그가 현대의 경제학을 등한이 하였을 때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시(詩)

동양(東洋)의 산맥(山脈)

김관식(金冠植)

아침 햇살이 퍼져 흐르는 창(窓)살 사이로
저어, 불그스름한 햇무리 황홀(恍惚)히 얼비치어 상서(祥瑞)로운 구름 안개를 정수리에 휘감아 무릎쓰고 서있는 청산을 우러러보며 실상 사람이란 한낱 하잘것 없는 미물(微物)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관악산이여.
아리아리 닿을 길 없는 하늘이언만 끝내 저버리지 않고,
참으로 한결같이 마음속에 염원(念願)하여 눈물겨운 보람으로 이루어진 순수(純粹)한 입상(立像)
에서 별안간
남무(南無), 대자대비(大慈大悲)! 성(聖) 관세음보살. ……
그리하여 필경(畢竟) 내가 배태(胚胎)하기 전 그 아초(兒初)의 본연으로 회귀하는 날 한줌 티끌로 까만 허공에 사라지던지 한줌 흙으로 너의 품안에 가 안기기도 즐거웁거니.

젖가슴 풀어헤친
북받쳐 터질듯이 새까맣게 살쪄서
머루처럼 여무른 꼭지를 달고
젖가슴 풀어헤친 서른 대여섯 살쯤의 커다란 항아리마냥 투박하고 건장한 시골 아낙네

은밀히 피어오로는 고운 입김이기에 해도 인제는 발갛게 솟아
은 누리에는 흩어져 내리느니
혼란(焜爛)한 혼란한 빛…… 뿐이로다.

시(詩)

잎

허만하(許萬夏)

늘 이만치 제마다의 목숨들이
피었다간 지고
졌다간 다시 피는
살아있는 시간(時間).

보이지 않는
끝없는 층계를
차근차근 밟아 오르는 발자국들이

제마다 그렇게밖에 있을 수 없는 자리를 잡고 있다.

그것은 벌써
아득히 먼 태초(太初)의 씨앗 속에 있던 것이
이토록 곱게
풀리어나는 강물소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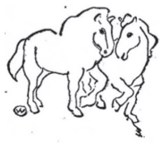
그날
그만치 사라져간 마음들이
조용히 그만치 되살아오는
시간의 수교(水絞)

그것은
스스로를 아득히 앞선 투명한 지대에서
언제나 그날처럼
굽이치고 있는
푸른, 푸른 들길 같은 시작이다.

2차(二次) 대전비화(大戰秘話)

히틀러는 제2차(第二次) 대전(大戰)에서

왜 패망(敗亡)하였는가?



알베르트 케셀링

독일이 제2차 대전에서 패망한 것은 네 가지의 과오에 기인한다. 이것은 전 독일 육군원수 알베르트 케셀링의 견해 이다. 그는 연합군에 대하여 가장 완강한 작전을 전개한 독일군 사령관의 한사람이다.
그 과오란

(1) 전체적 전략이 결핍되었고
(2) 1940년에 영국을 침공하지 못하였고
(3) 소련군이 완전히 전쟁준비를 하기 전인 1941년에 모스크바를 점령하지 못하였고
(4) 전쟁을 계속하는데 필요한 공업력을 동원하지 않았다.

케셀링은 아직도 독일이 승리할 번 하였다고 믿고 있으며 독일이 패망한지 10년 만에 그는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독일 바트 오인하우센에서

(문) 케셀링[13] 원수, 만일 당신이 히틀러라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쟁을 다시 시작한다면, 당신이 색다르게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답) 나 같으면 1939년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완전히 산업동원을 단행하였을 것이다. 1940년에 불과 15%의 독일 산업생산량이 군비에 충당 되었을 뿐이고 1941년에는 19%였다. 산업동원이 실시된 후 1942년에 26%로 증가되었고 1943년에는 38%, 1944년에는 50%로 각각 증가되었다.

1942년부터 1944년까지 우리는 무기생산을 거의 3배로 증가시켰다. 탱크생산은 9,300대에서 27,000대로 증가되었으며 항공기는 14,500대에서 38,000대로 증가되었다. 포의 생산은 11,800문에서 40,000문으로, 탄약은 1,270,000톤에서 3,350,000톤으로 증가되었던 것이다.

13) Albert Kesselring

<알베르트 케셀링 전 독일 육군원수>

우리의 무기생산이 절정에 달한 것은 1944년이었다. 만일 우리가 좀 더 일찍 착수하였더라면 1942년이나 혹은 그 이전에 이 최대량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1944년에는 너무도 시기가 늦었던 것이다.

(문) 독일에 대한 연합군의 항공전은 독일의 패배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답) 그것은 절정적안 요소였다. 연합국 공군은 푸르트 바페(독일공군)의 척골(脊骨)을 분질러 놓았다. 이태리와 노르망디에 대한 상륙작전을 가능케 하고 프랑스와 독일에의 신속한 진격을 가능케 한 것은 연합군이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 독일공군이 패배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독일의 항공 연료 공장이 분쇄되었다는 것이 그 큰 이유인가?

(답) 연료가 부족하여 비행기가 날지 못하였다는 것은 중요한 원인의 하나였다. 그러나 그밖에도 원 인은 많이 있다. 항공기의 발전은 1940년에 중지되어 1941년 말에야 비로소 다시 시작되었다. 만일 우리가 1940년과 1941년에 계속하여 독일공군을 증강하였더라면 후일에 연합군의 공중작전이 그렇게 성공적일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1943년 말까지는 대량의 제트기를 보유할 수 있었을 것이며 ME-262(제트기)는 독일의 하늘을 완전히 소탕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ME군용기의 설계제작자인 메서슈밋트는 큰 과오를 범하였다. 그는 게에링 공군원수에게 ME- 262는 야간 전투폭격기로 개조할 수 있다고 말하였던 것이다. 그가 본래의 전투기 설계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1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였다. 이 제트전투기가 전투에 참가한 것은 1944년 말이었다.

그때까지 연합군의 폭격은 교통을 분열시키고 항공기 부분품을 조립공장으로 수송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생산량은 예정보다 저하되어 전쟁이 종식되기 전에 우리가 보유할 수 있던 ME-262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 폴란드와 프랑스의 침공에서 우리는 공군력이 승리에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세계에 증명하였다. 연합국은 이 교훈을 깊이 명심하였으나 우리는 그 교훈을 잊어버렸던 것이다.

<히틀러와 그의 참모들> 그는 공군력에 무관심하였다

히틀러는 육군출신이었다. 그는 공군력에 무관심하였다. 그는 공군력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독일공군이 약화하는 것을 내버려두었다.

그것은 4발 폭격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1938년에 이미 우수한 원형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수년 후에 비로소 생산되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1938년에 정산하기 시작하였더라면 우리는 영국의 침공에 알맞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문) 4발 폭격기는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었을까?

(답) 영국은 우리 비행기가 도달할 수 있는 이상으로 그 비행장을 철수시킬 수 있었다. 우리는 지상에 있는 영국공군을 분쇄할 능력을 가지기 전에 공중전에서 그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문) 영국의 침공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 카페 그리즈 네츠에 있는 지휘소에서 나는 영국 해협을 완전히 내려다 볼 수 있었다. 해협에 나타나는 영국전투기는 지극히 드물었다.

네덜란드(和蘭), 벨기에 및 북부 프랑스의 제공권은 독일이 장악하고 있었다. 해안과 우리 비행장에 대한 영국 주간폭격기의 공격은 큰 손해를 입고 한동안 공격을 단념했을 정도이다. 야간폭격기의 공격은 이렇다할 성과를 보지 못 하였다. 영국의 침공을 반대한 독일해군의 보고서를 보더라도 영국해협에 있는 우리 항구에 대한 공격은 능히 견딜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든 것에 비추어 보아 침공에서 영국폭격기는 과히 두려워할 것이 못될 것 같았다.

그 동안에 영국은 남부 영국의 전선으로 그 정예부대를 16개 사단 이상 투입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의 가장 큰 위험은 영 본국함대에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독일 해공군이 전력을 기우리면 처치할 수 있는 것이었다.

1940년 8월 중순까지는 적절히 준비된 해협횡단침공은 확실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 후에는 더욱 독일공군과 낙하산 강하에 그 성공이 좌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이틀 동안의 집중공습은 그 침공을 가능케 하였을 것이다.

★ 왜 영국을 침공하지 않았던가?

(문) 왜 침공을 결행하지 않았나?

(답) 독일해군이 반대하였다. 라에데르 제독은 영국해협에서 완전한 제공권을 장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우리는 하려고만 했으면 충분히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45년 베르슈테스가덴에서>
케셀링 원수는 맥쓰웰·D·테일러 미군 소장에게 항복하였다.

영국공군은 영국본토에 있는 독일군을 공격하는 동시에 대륙에 있는 독일비행장과 해협에 있는 항구와 널리 분산된 수송선을 공격하고 영국함대와 지상 및 해상수송을 엄호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히틀러가 영국침공을 결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영국에 대한 침공은 흔히 기도는 하였으나 계획한 일은 없었다. 정말 침공할 것을 기도하였다면 1939년 11월에 이미 계획에 착수했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히틀러는 영국 해군이나 영제국을 분쇄하기를 원치 않았다.

1943년 어느 날 나는 히틀러에게 영국인의 무훈에 관하여 보고하였는데 그때 그는 가슴을 펴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물론 영국인도 게르만 민족과 같은 사람들이다."

히틀러는 이상하게도 영국인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는 영국이 강화를 요구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히틀러는 영국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는 영제국을 보호하라고 제의함으로서 영국인을 노하게 하였다. 처칠은 "노(否)!"하였다. 이 말은 오직 처칠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다. "노!" 그렇다. 이것은 처칠의 가장 큰 과오였다. 그는 늦어도 1943년까지는 강화

를 성립시켜야 했다. 그것은 스탈린으로 하여금 유럽에서 물러서게 하는 유일한 방도였던 것이다.

(문) 영국군이 덩켈크[14]에서 철수하려 하였을 때 왜 공격하지 않았는가?

(답) 그것은 큰 결과를 가져온 전략적 과오였다. 히틀러는 1개 기갑사단만을 가지고도 능히 덩켈크지 구를 소탕할 수 있었을 때 독일 기갑부대의 진격을 중지시켰다. 후일에 나는 직접 현장을 가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전쟁에서 극히 드물게 나타나는 기회였던 것이다.

그러나 나의 휘하 항공대는 공중으로부터의 나머지 영국 원정군을 격파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네덜란드(화란)에서의 공중전에서 나의 휘하 항공대의 전투력은 30 내지 50%로 약화되었으며 악천후와 영국의 현대식 전투기 스핏트화이어의 출현은 더욱 작전을 힘들게 하였다.

나는 게에링에게 작전의 성공은 새로운 부대가 투입된다 하더라도 거의 가망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게에링이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이유에서 그의 공군을 가지고 영국을 분쇄하겠다고 히틀러에게 약속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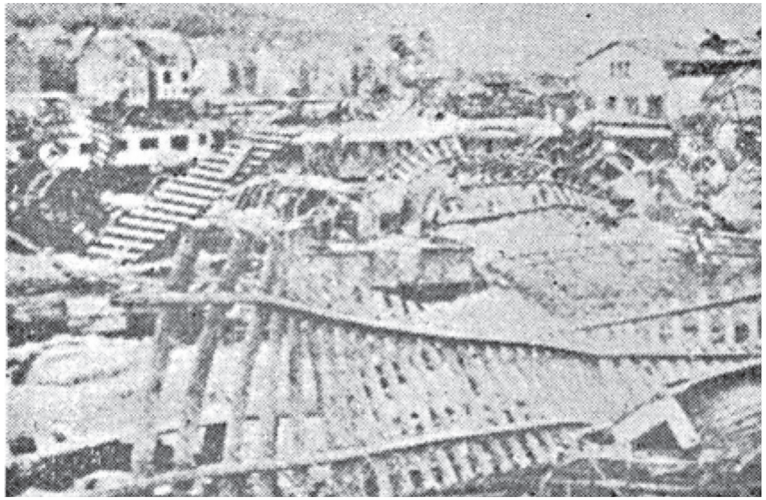
당시 우리는 덩켈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 사실상 100,000 이하의 영국 및프랑스군이 있는 줄만 알고 있었고 그곳에서 300,000이나 탈출할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히틀러는 또한 지세상(地勢上)의 곤란과 과로한 탱크의 수리 등을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히틀러는 당시 아직도 남쪽에서 그대로 남아있는 프랑스군이 측면으로 공격해올 것을 두려워 하였던 것이다.

(문) 소련에서의 전투에서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가?

(답) 큰 이유는 히틀러가 일본군으로 하여금 먼저 시베리아를 치도록 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본래 히틀러는 영국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었을 때 일본군으로 하여금 싱가포르를 공격 하도록 하였다. 1941년 봄에 독일 외상 리벤트로프는 양국이 소련을 공격할 필요가 없다는데 일본 측과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6월까지에 리벤트로프는 일본에게 대소전쟁에 참전할 것을 맹렬히 권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너무도 늦었던 것이다.

14) Dunkerque



<전쟁의 3개 분기점 독일교통망에 대한 연합군의 폭격>

★ 모스크바를 구한 지연(遲延)

그러나 신속한 작전에서 소련을 쳐부실 가능성은 있었던 것이다. 소련은 1943년까지는 전쟁준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모스크바는 1941~42년 겨울 이전에 도달하여 점령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히틀러는 큰 작전과 작전 사이에 오랫동안 신중을 기하느라고 6주일을 허비하였던 것이다. 모스크바에 대한 공격이 실패하자 히틀러는 겨울을 위하여 대철수를 할 것을 주장한 그의 참모들의 제의를 일축해버리고 독일군에게 모스크바 교외에 참호를 파고 잠복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 명령은 그 후 소련군의 공세에서 파멸을 면하게 하고 소련으로 통하는 독일군 보급망을 유지케 하였다. 히틀러는 여기에서 자기의 판단이 틀림없다는 자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의 참모들을 다시는 믿지 않게 되었다.

그 후부터 히틀러는 소련에 있는 그의 현지 사령관들에게 한 자(尺)의 땅도 포기하지 못하도록 완강히 명령하였다. 초기의 승리를 가져온 기동성과 기동 작전은 망각되고 있었다.

어떠한 이동이라도 적이 있는 방향이 아니면, 히틀러가 후방에서 통제할 수 없는, 후퇴하기 위한 기만이 아닌가 의심을 받았다.

한자의 땅이라도 고수하게 함으로서 히틀러는 모든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모든 말단부대 지휘관을 장악할 수 있었고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몸소 작전에 참가할 수 도 있었다.

히틀러는 후퇴를 명령함으로서 그의 정치적 위신을 손상할 것을 두려워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소련전투에서의 승리를 희생시키고 말았다.

만일 그 최초의 잠복명령이 1941~42년 겨울에 좀 더 후방전선에서 실시되었더라면 전국은 히틀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을 것이다. 독일군 사단들은 증강하여 겨울에 대처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고 시베리아의 소련군은 패배 되었을 것이다.

그다음 작전에서 독일군은 기동성 있는 공격력을 가지고 소련군에 대하여 섬멸전을 전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동시에 우리 전선후방에 있어서의 적 유격전도 모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발틱 연해 제국은 우리를 해방자로서 맞이했을 것이며 만일 그들을 우리의 동맹국으로서 대우하고 무장시켰으면 그들은 우리의 후방을 안전하게 하고 기동작전에서 독일군을 자유롭게 하였을 것이다.

(문) 언제 독일은 제2차 대전에서 패전하였다고 판단하였는가?

(답) 1943년 1월 스탈린그라드에서 패배하고 그 후 튜니스에서 패전하였을 때 승리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쟁을 무승부로 이끌어 가도록 싸울 수는 있었다.

(문)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한 후에도?

(답) 그렇다. 이태리 상륙작전에서 내가 얻은 고훈은 결코 프랑스에서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노르망디와 브러탕에서의 해안방위는 깊숙이 전개되어야 했다. 그리고 가장 우수한 방위는 가장 우수한 부대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프랑스에 있는 우리 사단들은 소련에서 돌아온 낡은 부대거나 그렇지 않으면 3년 동안의 점령임무에서 약해진 부대였다.

그러나 아이젠하워 장군은 만일 독일의 제15군이, 영국 해협연안으로부터 노르망디로 좀 더 신속히 재전개 되었더라면 노르망디 교두보는 봉쇄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 그리고 만일 독일공군이 그렇게 완전히 약화되지 않았더라면 연합군은 바다 속으로 몰려 들어갔을지도 모른다.

상륙작전이 있기 전에 발틱 연해와 노르웨이를 포기함으로서 30개 내지 40개 사단의 예비군을 보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발틱 연해만 하여도 23개 사단이 집

<스탈린그라드에서의 독일군의 참패.>

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태리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일련의 견고한 방위선을 구축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만일 연합군이 연해의 방위선을 돌파하였더라도 독일군은 동구 쪽으로 전개되어 있는 방위선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서구에 있어서의 이러한 전술은 소련에서의 기동작전과 함께 비록 공군력은 제압되었다 할지라도 정돈상태를 가져왔을 것이다.

(문) 추축동맹 간의 군사적 협조는 효과적이었다?

(단) 일본과는 협조가 없었다. 무솔리니는 우리와 상의 없이 참전하였고 그 후 발칸 제국과 그리스(희랍)에서 공격하였으며, 아프리카에서는 여전히 궁지에 빠져 있었다. 만일 이태리가 중립을 지켰더라면 우리는 훨씬 유리했을 것이다.

우리는 일종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것이 필요하였는데 그러한 것이 없었다. 연합군은 그들의 합동참모본부를 가지고 훨씬 잘해나갔다.

(문) 전쟁에서 가장 불유쾌하게 놀랜 것은 무엇인가?

(답) 많이 있었다.

내가 가장 놀랜 것은 아마 연합군의 안지오 네튜노 상륙이었을 것이다. 내가 연합군의 상륙을 예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사흘 밤 동안 나는 휘하부대를 계

속하여 경계에 임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경계는 부대를 지치게 하였고 나의 참모들은 경계의 계속을 맹렬히 반대하였다. 내가 경계를 해제한 1월 21~22일 밤에 바로 연합군은 안지오에 상륙했던 것이다.

★ 이태리에서의 전투

(문) 당신은 이태리에서 어떻게 그러한 장기의 지연작전을 하였는가?

(답) 나는 정예부대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연합군이 그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첫째로, 연합군은 해상으로부터의 상륙으로 우리를 측면으로 포위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지 않았다. 연합군은 후일에 그들이 큰 상륙작전을 감행할만한 충분한 선박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반드시 큰 상륙작전은 필요치 않았던 것이다. 만일 그들이 매일 밤 1개 대대 혹은 1중대씩 우리 후방에 상륙시켰더라면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을 것이다.

둘째로 미군 특히 영군사령관들은 판에 박힌 일정한 작전만을 썼다. 그들의 비행기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날아왔으므로 우리는 언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가를 잘 알고 있었다. 미군의 일선부대는 정기적으로 교대되었으며 이 교대된 부대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며칠이 걸렸다. 우리는 이러한 소강(小康)에 따라서 우리 부대를 휴식시키고 재장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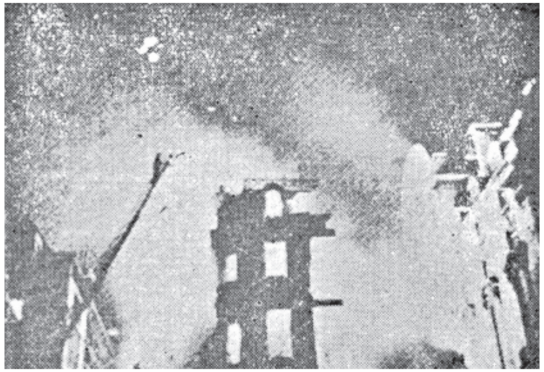
셋째로, 연합군 부대들은 일정한 고지를 점령하는 거와 같은 제한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이 그곳에서 진격을 멈추고 마음대로 그 이상 더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음 공격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 미군부대는 공중엄호가 미치는 그 이상으로 전진하려고 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언제나 미군 부대가 얼마나 멀리 진격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

(문) 당신의 임무는 지형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닌가?

(답) 일부지역, 카시노와 같은 곳에서는 그러하였다. 그러나 지형은 피아를 다 같이 돕는 것이다. 연합군은 그들의 지형을 이용하지 못하였다.

내가 생각지도 않은 큰 행운은 미국의 맥스웰 테일러 장군이 로마를 방문한 것이었다. 그는 이태리가 항복하기 전에 잠수함으로 상륙하여 비밀리에 바도글리오[15] 원수(이태리 수상)을 방문하였던 것이다.

15) Pietro Badoglio


<히틀러의 영국분쇄의 실패
“그는 영국침공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바도글리오 원수는 그에게 로마의 비행장은 독일군에 의하여 견고히 장악되어 있으므로 공중강하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것은 과장이었다. 살레르노 상륙과 동시에 공중강하를 감행하였더라면 우리는 큰 곤경에 빠졌을 것이다. 테일러 장군의 보고는 1943년 9월부터 1944년 5월까지 나폴리와 볼투르노 지구에서 우리를 구해 주었던 것이다.

(문) 1945년 5월에 당신의 항복을 받은 것은 테일러 장군이 아니었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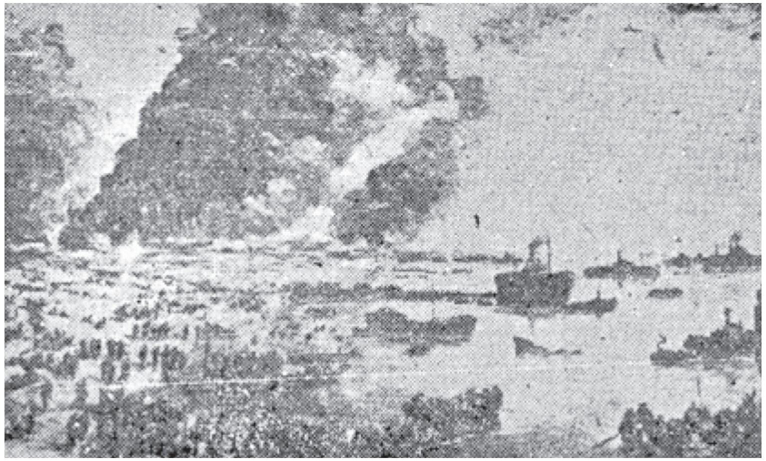
(답) 그렇다. 바바리아의 베르슈테스가덴에서 이었는데 그는 나를 신사적으로 대우해 주었다. 나는 지난번 그가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되었을 때 축하의 편지를 보냈다.

(문) 살레르노 상륙은 당신을 괴롭혔는가?

(답) 당시 나에게는 그다지 유쾌하지 못한 날이 계속 되었다. 나의 사령부는 폭격당하여 나는 구사일생으로 탈출하였다. 이태리군은 항복하고 우리에게 총부리를 대고 있었고 우리는 독일군을 고스란히 철수시키려고 애쓰고 있었다. 한편 연합군은 도처에 상륙하고 있었으며 우리는 그들이 다음 어느 곳에 또 상륙할지 몰랐다. 그러나 만일 나에게 1, 2개 사단만 더 있었더라면 나는 연합군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문) 당신이 북부 이태리로부터 일부 사단을 이동시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가?

(담) 북부 이태리에 있던 8개 사단은 나의 지휘 하에 있지 않았다. 그들은 롬멜 장군의 휘하부대였다. 히틀러는 그 부대가 남하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다. 롬멜은 내가 북부 이태리로 후퇴할 것을 원하였고 히틀러도 처음에는 그를 지지하였다. 그는 중부 이태리를 방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 반대하여 나의 주장을 세운결과 나는 로마 이남을 견지하여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다. 그



뎅켈크에서의 영국군의 탈출
“당시 우리는 덩켈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있었다.”

러나 물론 나는 북부로부터 증원군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히틀러를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하였던 것이다.

(문) 1944년 1월 미군 제36보병사단이 라피도 도강작전에서 실패하여 1,681명의 사상자를 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가?

(답) 카시노 남방 가리글리아 노라피도 전선에 대한 연합군의 공격은 1월 17~18일에 개시되었다. 그것은 일부분 주의견제운동(主意牽制運動)이었으나 또한 절박한 안지오 상륙작전과의 연결을 위하여 구스타브 전선을 돌파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나는 즉시 2개 기갑사단을 가지고 동 지구를 강화하였다. 이것이 연합군을 더욱 곤란에 빠뜨리게 한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라피노 강을 정면으로부터 공격하는 일은 절대로 피해야 했을 것이다. 만일 그 공격을 명령한 미군장성 마아크 클라아크 장군이 나의 부하였다면 결코 나는 그를 신사적으로 대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 왜?

(답) 그의 측면에는 독일군 포, 박격포 및 로켓포로 충만된 높은 산이 있었다. 그 강 전면에 우리는 또한 견고히 구축한 진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넓은 전선에 대한 공격은 가능하였을지 모르나 이 미군사단은 우리 포병대로 완전히 둘러싸인 좁은 전선에 공격을 가해왔던 것이다. 군사적 견지에서 보아 그것은 불가능한 기도였다. 불과 소수의 미군부대만이 도강을 하였으며 그 부분은 사살 혹은 포로가 되었다

그러한 무모한 기도는 다시 반복되지 않았다. 후에 프랑스 원정군은 카시노 북부에 있는 산을 넘음으로서 훨씬 지혜롭게 작전을 하였다.

(문) 독일군 장성들은 전쟁을 원하였는가?

(답) 독일군 장성들은 1939년에는 전쟁을 원치 않았다. 그들의 군비계획은 1948년에야 비로소 완료되는 것이었다. 케에링은 대 폴란드 전쟁에 반대하였으며 심지어 히틀러도 전쟁을 원치 않았다. 그는 단지 단치크를 도로 찾고 독일일이라면 누구나 다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폴란드 회랑을 제거하기를 원하였던 것이다.

영국은 단순히 폴란드에 대하여 약간의 압력을 가함으로서 전쟁을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국은 그것을 거부하였던 것이다.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지(誌)에서)

<한국 팀이 시합 전에 숙의(熟議)하고 있는 광경 >

제2회 아세아야구대회참가기 (亞細亞野球大會參加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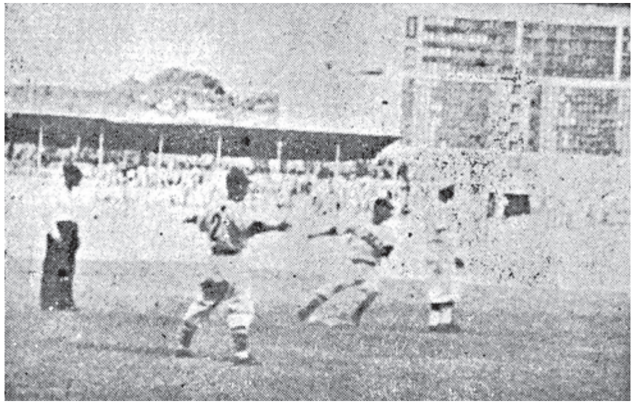
김영조(金永祚)

머리말

제2회 아세아야구대회의 우리나라 출전팀은 제1회 때와 같이 전국선수 중에서 선발한 것이 아니고 육군팀이라는 단일팀이 선발되었으며 그 외에 다른 팀에서 5명이 픽업 되었던 것이다. 육군팀이 주동으로 11명의 선수와 5명을 합친 16명의 선수로서 우리나라 팀이 구성되었으며 필자도 픽업된 5명 가운데의 한사람으로 두 번째 이 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번 대회 때 우리나라가 제3위이었던 것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바 있었으므로 이번 대회에서는 비록 전승은 못하더라도 제2위는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면서 출발에 앞서 그러한 심산으로 있었던 것이다. 출발 전의 합숙연습은 충분한 정도이었다. 단일팀이라는 데서 팀워크에 있어서는 혼성팀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러한 자신은 더욱 강하였던 것이다. 목적지인 마닐라에는 12월 7일 정오에 도착하였다. 체재기간을 통해서 본 기후는 두 번째라 그러한지 전번보다는 그다지 더운 줄을 몰랐다. 시합의 경과에 대해서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독자들은 이미 이해하였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 여기서는 장차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우승할 수 있으며 좀 더 야구기(技)를 향상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논하고자 한다. 모든 스포츠가 다 그러하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서 더욱 뼈아프게 느껴진 것은 기능도 우수하여야 하지만 보다 더 정신력이 강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능보다도 정신력>

현재 우리나라 야구계는 후배의 양성이 시급하며 또한 실지에 있어서 후진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후진의 양성이 시급하다는 까닭에 지도층에 있는 선배들은 기술습득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정신력이 되어야 기술도 향상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



<중국팀과의 대전광경>

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제1회 대일본전은 완전히 패배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게임에 있어서는 3차나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逸失)하였음은 모두 우리의 기술이 부족한 탓도 아니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정신력의 유약에 있다고 하겠다. 야구는 평범한 사람들의 경기인 고로 실수 실책 삼진 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핀치 때 실패한 이유가 찬스는 몇 차례 있었어도 선수 각자가 너무나 쳐야만 한다는 관념에 사로 잡혀 평소와는 달리 몸 전체에 힘이든 까닭에 한 개의 안타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었던 기회를 급기야 놓치고 말았던 것이다. 이것은 정신력의 유약을 말함이며 그때에 정신력이 강하고 훌륭하였더라면 더욱 냉정하고 진지한 동작을 하였을 것이다. 일상의 연습 때에 연구하는 사람과 이것을 게을리 하는 사람의 차이는 팀의 승패를 결정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다. 타격연습은 야구선수들이 제일 흥미를 느끼는 것이다. 그 진보는 또 제일 늦은 것이다. 왜냐하면 잘 맞히면 타구가 멀리 가고 그 음향은 무엇이라고 형언할 수 없는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때의 상태는 머릿속 깊이 남지 않는 것이다. 타구할 순간의 연구심(자기의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는)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보가 없고 나아가서는 중대한 승패를 결정할 시기가 도래하면 기대에 어그러지게 되는 것이다. 요는 평상시에 연습을 할 때,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간단한 러닝을 할 때라도 자기보다 빠른 사람을 목표로 삼고 폼을 생각하고 뛰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결국에는 자기의 수양이 되고 정신력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또한 타격에 있어서 지금 미국의 야구를 대표하는 강타자는 보스턴 레드삭스의 텟드 윌리암 씨이다. '천재형의 타자'라고 불리는 그는 '타격에 있어서의 천재'는 없다고 부정하며 1에도 2에도 3에도 연습 그리고 항상 좋은 컨디션을 보지하며 타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즉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은 상대투수의 하나하나를 잘 파악하며 어떠한 사람의 타격에 관한 이야기도 항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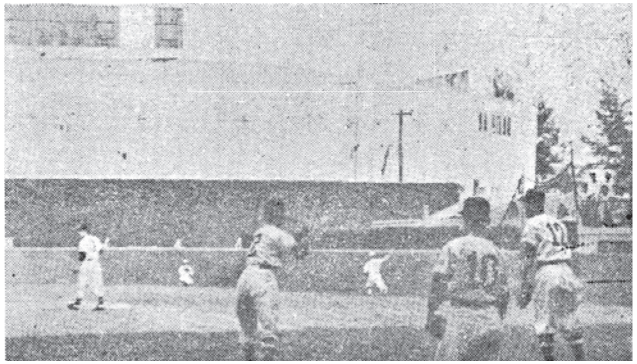
주의하여 들어두며 조홀(粗忽)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 함이다. 그리고 최후에 '절대로 악구는 치지 말 것'이라는 것이다. 악구라 함은 물론 볼을 말 함이다. 플레이트에서 1인치 쏠린 볼에 손을 내면 투수 쪽에서는 슬깃해서 다시 1인치 쏠린 볼을 투구하여 타자를 낚는 것이다. 요컨대 '악구는 치지 않는다'라는 지극히 평범한 말은 타격의 향상을 위하여 심심히 음미해볼 점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수비연습은 타격연습에 비하여 직접 몸 전체가 볼을 포구해야 되는 고로 피로를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며 요령을 속히 습득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진보가 빠르다고 보는 것이다. 해방 이후의 야구는 근대전술이라고 해서 그 연습에 있어서 질량 모두 약해진 까닭에 자연적으로 기술에만 치중하게 되었는데 야구다운 야구를 하려면 스파르타식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심판>

이번 시합에 있어서 심판원은 참가 각국에서 각 1명씩 참가하여 차례로 세 번씩 심판을 보았는데 경기는 각국이 거의 같은데 심판기술은 각각 다르니 이상한 감이 드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스트라이크 범위가 전연 다르므로 투수가 제일 고통을 느끼었던 것이다. 아웃코스는 전연보지 못하는가 하면 인코너는 무조건 볼 같은 것도 스트라이크가 되며 볼의 고저는 전연보지 않는 형편이며 심한 것은 머리위로 오는 것도 어떤 것은 스트라이크가 되고 하니 타격할 때 추스볼(選球)을 할 수가 없었으며 그 좋은 실례로 벨기에(比國)와의 제1회 대진시 우리 서동준(徐東俊)선수의 투구를 벨기에 선수가 연속 3개 본 루타를 쳤을 때 (아웃코스 또는 인코스) 스트라이크 존(범위)을 통과해도 모두 볼이라고 심판원이 인정하는 고로 할 수 없이 중앙으로 투구하였던 것이 그대로 홈런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투수 자신은 완전한 스트라이크로 알고 있으나 심판은 이것을 볼이라고 하니 자연중앙으로 투구 아니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태산같이 믿었던 서동준 투수가 위와 같은 불리한 조건하에서 투구하여 자신을 완전히 잃어 앞일이 걱정된 때도 있었으나, 대일본전에서는 다시금 자신을 회복하고 완투하였던 것이다.

<타격과 투수>

전번 제1회 때나 금반대회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로 우리팀은 타격부족을 면할 수 없었다. 타격이 강력하려면 우리나라 야구팀의 각 투수가 맹직구(스피드가 빠른)를 투구할 투수가 먼저 나와야 겠다는 것은 필자의 지론인 것이다. 강력한 투수가 있으면 강타자는 스스로 생긴다는 것은 야구의 철칙인 것이다. 해방 후는 투구하는데도 먼저 곡구(曲球) 슈트를 연습하여 원칙인 직구를 도외시하였던 것이니 중학교 고 등학교에서 투수하는 선수들은 이 원칙인 직구를 어떻게 투구하며 스피드가 빨라지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대회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 필자는 지기나 팬들로부터 이구동성으로 일본의 아키야마(秋山) 투수가 잘 한다지? 하는 따위의 질문을 수없이 들었다. 필자의 견해로는 일본 대학투수 가운데의 넘버원이란 아키야마 투수가 어떤 투수인가 하고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보았으나 앞서 말한바와 같은 직구투수(원칙투수)가 아니라 변화구(횡수투, 하수투, 사도) 투수이었던 것이다. 비록 우리 팀이 일본에게 패하였다 하더라도 상대투수가 강하고 좋은 투수였기 때문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아키야마 투수에 비하여 우리 서동준 투수가 훨씬 나은 점이 많은 것이다. 일본은 투수는 약하지만 투수를 커버하는 백(내야와 외야)이 강력하기 때문에 시합에 승리하였던 것이다. 우리 팀은 평범한 땅볼도 실수하는 수가 비일비재한데 일본은 이러한 땅볼은 고사하고 안타성의 강구까지도 미기(美技)로 포구하는 것이니 투수를 그만큼 유리하게 해주는 것이다.


<대(對) 일전 광경>

아무리 우수한 투수가 있더라도 백이 약한 팀은 투수의 제 실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것은 야구에 있어서는 상식이하의 문제라고 하겠다. 이번 기회에 마침 과거 필자의 와세다대학(早大) 재학 시 감독이었든 이원(伊圓) 씨가 일본심판으로 참가하였기에 시합 후 야구의 과거와 현재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필자는 이원 씨에게 현재 투수와 과거의(필자의 재학 시) 투수를 비할 때 과거 투수가 훨씬 우수 (과거는 상수투로 타자에게 정면으로 향해 투구하였음)하다고 생각되는데 귀견은 어떠냐고 하였더니 자기 역시 동감이라고 공명(共鳴)하면서 그는 말하기를 현재 투수는 과거 같으면 부원투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比律賓軍과의 試合光景>

주(註)

1, 이번에 참가한 일본 투수는 4명인데 이들은 모두 횡수투 하수투 투수였다

2, 부원이라 함은 과거 각 대학에서는 60명 정도의 야구부원이 있었는데 그중 25명이 모교의 유니폼을 착용하고 메이지(明治) 신궁(神宮)구장에 참가하였으며 부원이라 함은 이 25명을 제외한 사람들을 칭하는 것이다. 현재의 일본 각 대학의 야구부원은 각 교(동대제외) 120, 130명 정도라고 한다.

또다시 이원 씨에게 그러면 왜 알고도 시정 못하느냐고 물은즉 일본 역시 행동보다도 입과 말이 앞서기 때문에 상수투(원칙투)는 없고 횡수투, 하수투가 유행되었다고 하며 차차로 근년(4287년경)부터는 행동이 시정되어 간다는 것이다. 또한 타격 홈에 대하여 그는 말하기를 과거나 근래나 홈런을 잘 치는 사람은 말없이 묵묵하고 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떠들으나 이는 아무 소용없는 말이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제일 편한 자세를 가지고 볼을 미도(타구할 순간)하면 자연 풀스윙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타구에 대하여 이해라 저래라 주의를 듣는 정도라면 선수생활을 청산해야 될 것이라고 한다. 역시 자기노력으로 자기 폼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

<주력>

일본선수는 연령적으로 젊은 관계도 있지마는 주력이 빠른 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수비에 있어서나 공격 시에 있었어도 마치 무릎에 스프링을 단 모양으로 동작이 경쾌하고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볼 때 이것은 필시 유년기부터 그렇게 훈련이 시작되었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참으로 기본동작이 완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야구인이나 후원하는 사람까지도 야구는 시즌에만 하는 것으로 알고 동(冬)계절에는 무위로 소일하고 있는데 이 점은 각기 반성하고 단연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동(冬)절에도 매일 약 2키로 정도는 뛰어야 하며 주력방법도 200m 가량을 전속력으로 뛰어야 하며 또 스로로도 뛰기도 하는 연습을 반복하여야 할 것이다. 막연히 뛰지 말고 각자가 약점을 시정하기에 명심하며 동절 연습이 있어야 한다.

<결론>

야구가 인디비주얼 플레이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팀워크에 의한 플레이니만큼 팀워크에 결점이 생기어서는 아무리 개인의 기능이 장하다고 하드래도 승리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선수는 감독의 명령 작전에 복종하고 일사불란의 팀워크가 되어야 비로소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설혹 감독의 작전 또는 명령에 불만이나 의견을 달리하는 일이 있더라도 전체를 위하여 사는 희생이 되어야 하며 그것은 대아의 경지로서 승리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것이다.

격언에 말하는 '명장 밑에 명졸 있다'는 말은 특히 야구에 있어서는 지고의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지나간 제1회, 제2회의 두 번 대회를 통하여 경험하고 느낀 모든 점은 모두 우리들의 산 교훈으로 알고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있을 제3회 대회에는 필승의 의욕을 더욱 굳건히 하여 지나간 실패를 설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여 느낀 바의 일단을 기술하였으나 우리나라 야구기(技)의 향상과 진보에 일조가 되었으면 필자는 이 이상의 행은 없을 것이다.

※ 편집자는 마닐라 대회의 편모를 써달라고 하였으나 곳에 어긋났음을 미안하게 여기는 바이다.

(필자(筆者) 야구선수(野球選手))

베토벤의 전원교향곡(田園交響曲)

베토벤은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유명한 교향곡 제5번 '운명'을 완성한지 얼마 안 되는 1808년에 즉 그의 나이 서른여덟이라는 한창 때에 또 하나의 교향곡을 작곡했다.

그것이 교향곡 제6번 F장조 작품68번으로 보통 우리가 '전원교향곡'이라고 부르는 곡이다.

이것을 작곡할 때쯤 해서 베토벤은 병으로 귀가 거의 들리지 않게 되었으나 생활도 그렇게 괴롭지 않고 음악에 대해서 깊고 힘찬 정열을 품고 있어서 작품을 하나 낼 때마다 다른 사람이 따를 수 없는 우수한 구성과 깊은 내용을 가진 걸작을 내었다.

교향곡 제6번도 그러한 작품이다. 이곡은 '전원'이라 불리고 있다 그것은 실은 베토벤 자신이 붙인 이름으로서 자연에 대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곡의 성질을 잘 나타내고 있다. 베토벤은 운동이라든가 오락에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전원이라든가 삼림 같은 자연을 무엇보다도 사랑했다. 빈에 있을 때에는 거의 매일같이 날씨가 좋건 나쁘건 간에 교외로 나와 거닐었고 피서차 시골에 갔을 때에는 그 토지의 풍경을 마음으로부터 즐겼다.

특히 하이리겐슈닷드라는 곳에서 자기의 귀가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을 슬퍼하여 유서를 썼으나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다만 작곡에 힘을 써서 거기에서 자기의 살길을 찾는 동시에 더러운 인간세상에서 보다 자연을 사랑하게 되고 자연이라는 것에 고독한 마음의 위안을 찾아 구했던 것이었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사랑, 찬미를 음악으로 나타낸 것이 이 '전원' 교향곡이다.

베토벤은 이곡 외에도 자연이라든가 전원을 그려냈다고 하는 음악을 작곡했다. 피아노 쏘나타 작품 28은 베토벤 자신이 붙인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전원」쏘나타라고 불리고 있으며 전원적인 분위기를, 충분히 갖고 있다.

그러나「전원」교향곡이 그러한 것들과 틀리는 점은 위선 첫째로 전원 이라는 이름을 작곡자 자신이 부쳤을 뿐 아니라 각 악장에도 표제곡의 내용, 감정 정서 등을 암시하는 말이 붙여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베토벤의 교향곡에는 물론 이곡뿐으로 또 베토벤의 전 작품을 통해서도 수가 매우 적다.

둘째로 또 베토벤에게는 모처럼 곡 중에 적지 않게 사실적인 자연묘사가 넣어져 있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곡은 묘사적인 표제음악이며 다음 시대의 표제교향곡(베루리오즈)이나 교향시(리스트)의 선구가 되는 것이다.

베토벤은 다른 경우에도 이따금 하고 있긴 하지만 이번 경우에도 거의 같은 시기에 썼던 제5번의 격렬한 교향곡과 전연 다른 대조적인 성격의 전원 교향곡을 만들고 있다.

이것은 베토벤의 창작력의 풍부함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저 위대한 '영웅' 교향곡 이래의 베토벤의 두 개의 방향과 관계가 있을 것 같다.

즉 '영웅'으로부터의 해방으로서 제4번의 서정적, 낭만적인 교향곡을 낳고 '영웅'의 격렬함을 이어서 제5번의 교향곡이 살았다고 본다면 제4, 제5, 제6으로 스케치 혹은 작곡을 시작한 것이 거의 같은 때였 으니까 '전원'은 제4교향곡을 다시 추진한 것이고 '영웅' 그리고 제5교향곡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도 말 할 수 있겠다.

베토벤이 '전원' 교향곡을 쓰게 된 것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당시 제법 많던 자연묘사의 음악에서 영향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다. 구네히드라는 작곡가 같은 사람은 베토벤의 거의 같은 표제를 가진 다섯 개의 악장에서 이루어진 '자연의 음악묘사'라는 작품을 발표했다. 당연히 베토벤도 이러한 것에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곡은 전통적인 4악장의 형식을 깨트리고 다섯 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졌고 그 제3악장 이하의 세 개의 악장은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연주하게 되어있다.

제1악장은 '전원'에 도착했을 때의 명랑한 감정의 눈뜸이라고 제목 붙여져 있고 별로 빠르지 않는 속도로 연주된다.

최초의 밝고 명랑한 바이올린이 내는 제1주제는 민요풍으로 곡 중에는 몇 번이고 단편적인 모습을 보인다.

제2주제는 소박한 감을 준다.

이 두 개의 주제를 취급해서 곡은 진행되는데 그 사이에 적은 새들의 울음소리를 연상케 하는 사랑스러운 구절도 나타난다. 제2악장은 '개울 근처의 경치'는 서정적인 부드러운 악장이다.

일관해서 현악이 시내의 조용한 흐름을 나타내는 것 같은 움직임이 있다.

쏘나타형식에 따라서 봄날의 즐거움이 꿈처럼 계속된다.

제3악장은 '시골집 사람들의 즐거운 모임'이라고 쓰여 있고 '스켈쓰오'에 해당하는 유쾌한 악장이다.

시골집의 악대가 농민의 모임에 즐거운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모여 떠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다.

그러나 일기가 바뀌고 별안간 비오는 기척이 나고 곡은 곧 다음 악장으로 쉴새 없이 진행된다.

제4악장 '뇌우, 눈보라' 과연 뇌우가 굉장한 소리를 내고 찾아온다.

떠들고 있던 사람들은 놀라 소리를 지르며 도망간다.

베토벤은 이러한 모습을 음악적으로 극히 교묘하게 그려놓았다.

얼마 안 있어 비는 조금씩 내리다가 태양이 밝게 얼굴을 내놓는다.

여기서 이어서 최후의 악장으로 들어간다.

제5악장은 '목동의 노래, 눈보라가 온 뒤의 기쁜 감사의 감정'이라고 제목 붙여져 있어, 전원적인 감정이 넘쳐흐르고 있다.

베토벤은 이 곡에 대해서 '묘사보다도 오히려 느낌의 나타냄'이라고 써 놓았다.

대체로 이곡들의 묘사는 교모하게 되어있으나 베토벤이 이 곡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자연묘사가 아니라 앞에 말한바와 같이 자연에 대한 감정이다.

따라서 이 곡을 들을 경우에도 반드시 어디에 무엇을 묘사하고 있다고 일일이 따질 필요가 없고 어디까지나 음악 그것으로서 들어 이 음악에서 베토벤의 자연관을 감지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음악미에 젖어 즐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交響曲) 「비창(悲愴)」

차이콥스키의 음악은 여러 번 들으셨을 줄 안다. 크리스마스가 오면 의례히 듣게 되는 '호두까기 인형'이나 애수를 띄운 '안단테 칸타빌레'의 멜로디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그리운 명곡이기도 하다.

차이콥스키는 1840년에 나서 1893년에 세상을 떠난 러시아의 음악가이다.

그 당시의 러시아는 구주 일반의 문화에서 고립되어 있어 음악은 그리 신통치가 않았었다. 국내에서 연주되는 음악이란 대개가 외국 그 중에도 특히 이태리의 가극이었다.

차이콥스키

그 후 그린카가 처음으로 국민적인 음악을 작곡한 이후로 파라키레프, 큐이, 보도진, 무솔스키, 림스키 콜사코프 등의 음악가가 잇달아 나와서 러시아음악은 세계수준을 돌파하게까지 되었다.

이들은 불독이(佛獨伊)의 음악을 모방한데 그치지 않고 될 수 있는 한 러시아의 특성을 살린 훌륭한 음악을 만들려고 무진 애를 썼기 때문에 국민 악성(樂聖)의 다섯 사람이라 불리게 되는 것이다.

차이콥스키도 이들과 동시대의 사람이었으나 모두 일반적인 구주의 전통가운데서 음악을 만들려 하였다.

그러나 차이콥스키의 음악이 러시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차이콥스키의 작곡기술이 앞서 말한 다섯 사람보다 월등하기도 하였다.

그의 음악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그 아름다운 멜로디에 있겠지만 그 가운데 북국인(北國人)다운 우울한 애수를 품고 있는데 그 본보기가 바로 이 '비창' 교향곡이다.

그는 생전 여섯 개의 교향곡을 지었는데 이 '비창'은 그 마지막의 것이며 동시에 그의 마지막 작품이기도 하다. 그가 이 곡을 자신 지휘하였으며 그 후 얼마 안 되어 호열자에 걸려서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났다.

이 곡의 착상이 처음으로 차이콥스키의 마음에 떠오른 것은 1892년 12월 불란서의 서울 파리에 가는 도상에서였다.

처음부터 이곡은 어떠한 감정 뒤에 불리듯 '비창'의 감정을 나타내려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차이콥스키는 그 당시의 편지 가운데서 '나는 머릿속에서 이곡을 작곡하면서 여러 번 울었소.'하고 썼 다 한다.

이렇게 해서 이 교향곡이 이루어 진 것은 1893년 8월 혹은 9월경이었다.

이 곡은 차이콥스키 자신이 '가장 훌륭한 작품'이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는 그해 10월에 첫 연주가 페테르스부르크에서 행하여지게 되어 차이

콥스키는 그가 살고 있는 크린(러시아 서부의 소도시)을 떠났다.

첫 공연은 10월 28일에 행하여 졌고 청중은 이에 박수갈채를 보냈지만 차이콥스키는 이 갈채가 헛된 것임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 곡에 표제가 없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아우인 모데스테와 의논하였다.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모데스테가 이윽고 '비창'이란 표제를 생각해 내었다.

차이콥스키는 이때 뛸 듯이 기뻐하고 "훌륭하다! 모데스테! 브라보! '비창'이다."하고 부르짖었다고 한다.

11월 초하룻날 벗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가 냉수를 벌컥벌컥 들여 마시는 차이콥스키를 보고 호열자가 유행하나 조심하라고 그 벗이 다짐까지 주었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그는 호열자로 신음하게 되었고 6일에는 이미 절망이었다.

11월 18일 '비창'이 다른 지휘자에 의해서 연주되었다.

마치 이 슬프디 슬픈 곡이 작곡자 스스로 자기를 조상하는 듯 들렸기에 관객석 여기저기에서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비창'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슬프고 괴로운 것'이라 적혀져 있다. 무엇이 그리 슬프고 괴로운지? 차이콥스키가 이 곡에서 나타내려한 것은 실제로 일어난 슬픔이나 괴로움이 아니고 말하자면 만인이 다 느끼는 깊으디 깊은 슬픔 - 이를테면 생명의 슬픔이라든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세상의 흐름에 대한 노여움이나 체념 등 인문의 숙명이라고나 할 도피할 수 없는 끝없는 슬픔을 표현하려한 것이다.

대부분의 교향곡이 그러하듯이 이 곡은 4악장으로 되어있다.

첫 악장의 첫머리에 나오는 낮은 베이스의 멜로디는 유명하고 무엇인지 모르게 슬픈 느낌을 주기도 한다.

다음 악장은 급한 속도로 되어있으나 4분의 5박자란 불안정한 리듬이 불안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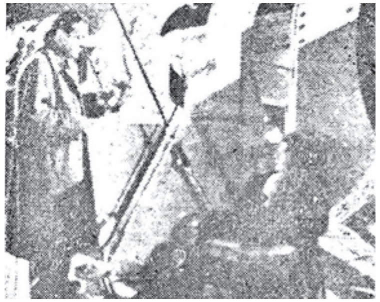
제3악장은 이태리의 무곡과 비슷한 리듬에 잇대어 행진곡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일반의 행진곡과 달리 밝은 것이 아니고 음침한 행렬을 상기케 한다.

마지막 악장은 일반으로 빠르고 밝은 것인데 여기서는 역시 무겁고 어둡게 표현되어 있어서 슬픔이나 체념을 더욱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서만석(徐萬錫))

해방(解放) 후(後) 10년간(年間)의 명화(名畫)들

산더미 같이 쌓인 프로그램에서 한 장 한 장 골라내기란 여간 재미있지 않았다. 문득 한 장의 옛 프로그램을 손에 들었을 때 한참동안 그리움에 멍하니 정신을 놓은 때가 있었다. 이상하게도 한 장의 화면(畫面)이 이렇게 옛날로 되돌아가게 하다니—. 우선 생각나는 명화 34매를 실어봤다. (편집인)



방년(芳年)의 봄

해방 후 처음으로 본 영화였다. 할리우드의 향기 풍기고 디아나 다링 주연

카사부랑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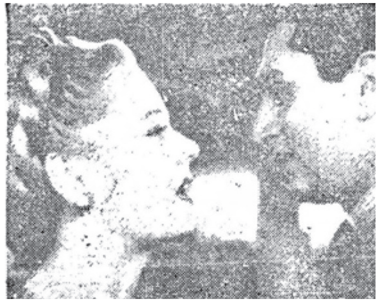
세기의 여우 잉그리드 버그만의 등장

육체와 환상

전쟁으로 미국에 건너간 뮤비비에가 할리우드에서 만든 작품

백만인(百萬人)의 음악

소녀로서 등장한 마가렛 오부라인의 귀여운 모습. 지금은 스크린에서 찾아 볼 수 없다.



아메리카 교향악

조지 카쉬인의 라프소피 인 부루를 실고 해방 후 우리를 즐겁게 하든 명작

미녀와 야수

6.25후 처음 수입된 불란서 영화, 그리고 장 곡토의 작품, 잔 마래는 여기에서부터 그의 인기가 올랐다.

의혹의 애정

히치곡 감독의 스리와 영화. 생각하면 이때는 아직 스는리라라는 말도 한층 산뜻한 맛이 있었다. 존 폰테인 주연

인생의 황혼

듀비비에의 제2차 대전 전의 총결산. 패시미즘 예술의 절정. 루이 쥬베, 훼루난데루 등 대명우가 공연.

마음의 행로(行路)

기억을 상실한 신사로 분하는 도낼드 콜맨, 그리고 인기 절정의 그리아 가슨.

밀회

절찬을 받은 영국영화. 데이비 르 린 - 감독의 화술의 묘미, 섬세한 분위기, 존슨의 명연기

잃어버린 주말

알코올 중독환자에 분한 레이 미란드의 열연, 이상한 쇼크를 준 문제작이다.

눈물 젖은 천사

인생의 어두운 부분 운명의 수레바퀴에 얽힌 비련에 우는 바로 우, 휘애루의 애절함

전진(戰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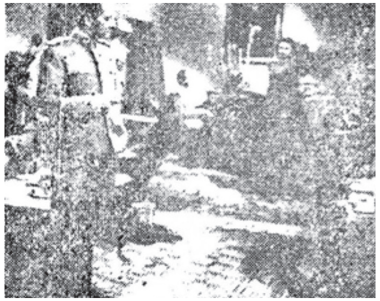
이태리의 리얼리즘의 등장,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롯세르니의 현실 응시와 시의 대드라마 편

자전차 도둑

빅토리아 테 시키의 리얼리즘과 휴머니즘의 작품, 세계의 양심을 부르짖은 예술작품

애수(哀愁)

로버트 데일러와 비비안 리의 열연, 정서가 넘쳐흐르는 문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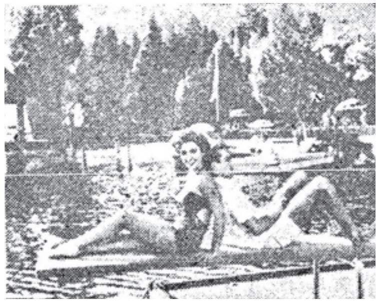


무방비 도시

롯세보니 - 충격작품의 므 탄, 피비린내 나는 베를린 시가, 절망의 구렁이에 허덕이는 인간사회의 모습을 그린 명작

정부(情夫)마농

이것이야말로 구트소- 의 대화제 작품. 혹성(惑星) 세실 오부리—가 열연하는 경천동지(驚天動地)의 대 드라마



젊은이의 □지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뜨러 이렇게도 뒤흔들어 놓은 절품이 이 이외에 또 어이에 있겠는가.

참피온

크레이마 제작의 박력편, 강렬한 펀치, 야망의 화신인 커크 다그라스의 사투가 멋있었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가스등에 못지않는 샤르트 보아이에의 연기, 진아서의 신 벋고 밤새워 춤추는 모습이 머리에 남아돌아간다.

오르페

시인 장 곡토가 그린 생과 사의 환상극, 쟌 마래의 혼을 뒤 흔들어 놓는 가사테스의 사신(死神)이여—

여수(旅愁)

추억의 카프리도. 부풀어 오르는 그리움에 눈물지우는 콧튼과 폰테인의 콤비

귀향(歸鄕)

애상(哀傷)과 로맨스로 엮어진 마빈 푸로이 감독의 작력(作力). 케이불과 라나타나의 호연(好演)이 그리움다.

심야의 탈주

추격 받는 사아니, 제임스 멘슨의 우수(憂愁)가 아로새겨진 그 표정, 리드 감독에서 처음 보는 역작.

영양(令孃) 쥬리

북구(北歐)의 한밤중에 나타난 새장안의 새 스트린도베리 문학은 아름답게 영화화 되었다.

제3의 사나이

위인 포도(鋪道)의 빛과 그늘, 그리고 서스펜스, 찢어져가는 우정과 연대의 착잡이 일어난다.

종착역

가슴이 미어질 것 같은 이별의 한 순간, 제니파 죤스와 몽고메리 크리프트와의 애타는 마음을 헤어 놓고야 마는 로마역

인생유전(人生流轉)

카르네가 보내는 드라마, 뒤섞여 돌아가는 인간세상. 바로의 무언극이 그리웁다.

내일이면 늦으리

해방 후 처음보는 사춘기 영화의 가품, 피아 엔제리의 귀여움이 머리에 남는다.

카로리느

에로리즘과 검의 멜로 드라마, 몰로에 대항하는 누드의 미녀 마루친 캬롤의 등장

나이아가라

입술과 움직이는 허리. 대폭포의 폭음 가운데 백치적인 웃음, 바로 이이가 몬로가 아닌가.

아프리카의 여왕

가슴을 조이는 색채와 고급 코미디 터치. 함부리 보가드 대(對) 캐서림 헤프반의 명호흡

지상 최대의 쇼

평명영화 최대의 쇼ㅡ 세밍 B 데밀이 지휘하는 대(大) 서커스와 배경의 드라마가 눈을 앗빼는다.

호프만 전기(傳記)

황홀한 발레와 노래와 정열 시인 호프만의 사람. 마스카니니의 곡을 타고 모이라 샤터의 율동은 한층 빛나고 있다.

새로운 항공시대(航空時代)를 가져올 제트여객기(旅客機)

뉴욕에서 파리(巴里)까지 6시간 35분

공중여행자들은 가까운 장래에 제트기로 보다 더 단 시간에 훨씬 편한 여행을 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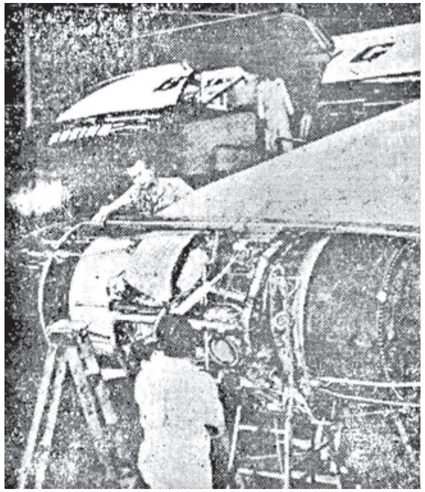
현재 거대하면서도 날씬한 제트여객기가 주문되고 있다. 미국의 항공회사에서는 이 신형기를 위하여 수억 불을 소비하고 있다. 최초의 제트여객기의 운항은 뉴욕 런던 간에 개시될 것이며 1959년 중기까지에는 상업용 제트기가 미국의 하늘을 정기적으로 날으게 될 것이다.

X X X

앞으로 약 4년 이내에 제트를 동력으로 하는 여객기들은 미국에 새로운 항공시대를 가져올 것이다. 이 박두한 새로운 시대에 미국인은 세계가 과거보다도 훨씬 좁은 세계로 느껴질 것이다. 미국에서 제작된 제트여객기는 1959년 여름까지에 미국과 많은 해외항공로를 정기적으로 날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제트기들은 여객기의 속도에 80 내지 90%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이 새로운 속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한 예를 들어 본다면, 미국 중서부로부터의 여행자는 시카고를 아침 아홉시에 출발하여 6시간 45분 만에 런던에 도착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아침 8시에 뉴욕을 출발하여 4시간 25분 후에는 제트여객기에서 나와 로스앤젤레스에서 점심을 먹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속력의 증가는 여행의 관습에 변혁을 가져오고 필연적으로 여행을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항공회사에서



<항공회사들은 제트여객기에 옮겨 가고 있다>

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갑작이 거대한 제트여객기를 주문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몇 해 동안 논의되어온 끝에 항공회사들은 이 신형기에 돈을 내고 있다. 최초로 제트여객기를 주문한 것은 '내셔날' 항공회사와 '판 아메리칸' 항공회사이다. 현재는 거의 모든 주요한 항공 회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제트여객기를 구입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거래(거래)는 수십억 불에 달하는 것이다. 그 주문과 그 막대한 돈은 미국의 제조업자에게로 가고 있다. 제트여객기에 리드하고 있던 영국은 그 코메트(제트여객기)를 일부 재설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곤경에 빠졌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미국이 영국에 앞설 것 같이 보인다.

내막에서는 항공회사 측과 제조업자 측 사이에 비행기의 가격문제로 말이 많은 모양이며 비밀거래의 말까지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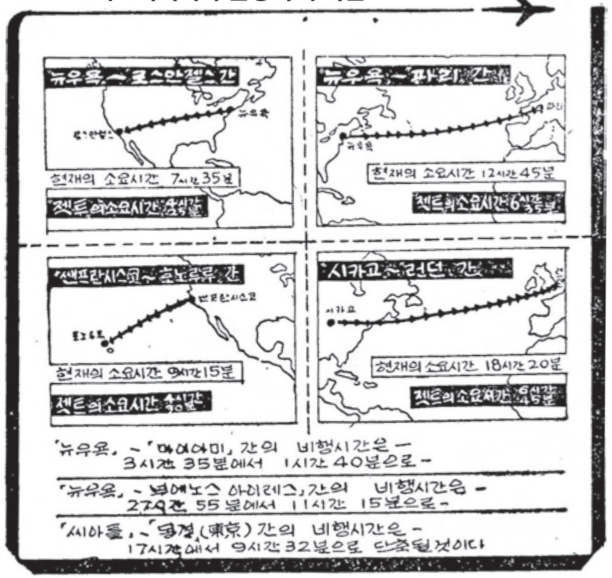
몇 해 동안 제트수송기에 관해서는 말만 많고 행동은 취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떠들석하게 된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즉 드디어 제트여객기는 대량 생산될 준비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러한 비행기들은 여객에게 새로운 속도와 새로운 안락의 도(度)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은 과거의 역사에 비추어 보아 제트여객기가 여객수송업의 정화(精華)를 차지하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쟁자들이 제트여객기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가지지 못하는 항공회사는 뒤떨어지고 말 것이다.

제트여객기

보잉 항공기 제작회사에서는 미국 최초의 터보 제트여객기 707형(型)을 제작 시험 비행하였다. 얼마 전에 이 원형은 그 실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4시간 이내에 날았다. 판 아메리칸항공회사에서는 최초의 납품이 1958년 말기에 이루어질 약속 하에 이 707형 20대를 최초로 주문하였다. 판 아메리칸 사의 이 제트여객기는 중앙통로의 양편에 각각 세 개의 좌석을 가지고 도합 125명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더글라스 항공기 제작회사에서는 그 DC-8 여객기를 가지고 둘째로 터보 제트수송기의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DC-8은 131명을 수용하게 될 것인데 내셔날 항공회사에서는 더글라스 사와 이 비행기 6대를 구입할 것을 구두로 약속하고

제트여객기가 운항하게 되면



있으며 판 아메리칸 사에서는 25대를 주문하고 있다. 그밖에 제트여객기를 주문하고 있는 것은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등 미국의 주요한 항공회사들이다. 제트에 대한 퍼레이드는 크게 시작되고 있다.

속도와 안락감

보잉기와 더글라스기는 둘 다 시속 약 550마일의 속도로 날을 것인데 오늘날의 빠른 피스톤 엔진의 여객기는 시속 약 320마일로 날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트기의 사실상의 이점은 수송 중 시간을 절약한다는 데다가 더욱 안락하다는 것이다. 여객에게는, 뉴욕에서 부에노스 아이레스까지 현재는 28시간을 요하지만 새로운 제트여객기로서는 11시간 밖에 안 걸린다는 차이가 있다고 항공회사 당국자들은 확신하고 있다.

이 제트기의 시간절약은, 예를 들자면, 뉴욕에서 호놀룰루로 가는 사람에게 휴가를 이틀 더 주게 되는 셈이라고 항공회사에서는 말하고 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동부의 여행자는 이 새로운 제트여객기의 운항이 개시되는 날에는 2주

일의 유럽여행에 최소한도 하루를 더 관광을 위하여 짜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제트여객기는, 비행기 타는 기분도 역시 다르다. 이륙에 중하(重荷)도 덜 할 것이며 활주로에서, 오늘날의 비행기로 여행하는 일부 여객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오랜 엔진의 시동도 없을 것이다.

소음과 진동은 피스톤 엔진비행기보다 훨씬 감소될 것이다. 제트기는 급속히 상승하므로 고공병을 발생하는 험악한 기류에 봉착하는 기회는 현재의 비행기보다 적을 것이다.

제트여객기가 똑바로 코스를 잡은 후에는 여객들은 비행이 원활하고 평온하여 흔히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잊어버릴 것이다.

스케줄

미국 최초의 제트여객기가 취항할 항로는 판 아메리칸 사의 뉴욕-런던 간의 무착륙 비행일 것이다. 이 운항은 1959년 초기까지에 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다음 판 아메리칸 사는 뉴욕-파리 간의제트항로를 개척할 것이다.

그 후에, 아마도 1959년 여름까지에는, 제트여객기가 미국 내의 항공로에 나타나게 될 것이며 대륙횡단 항로에 최초로 제트운항이 시작될 것이다. 점차로 대부분의 주요 항공회사에서는 산디에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워싱턴, 마이애미, 댈러스 등 많은 도시로부터 장거리 항로에 제트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보스턴-뉴욕 간이나 혹은 워싱턴-시카고 간과 같은 단거리나 중간거리에는 터보 제트기가 사용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한 거리에는 제트를 이용해서 프로펠러를 회전시키는 터보 프롭 수송기가 사용될 것이다.

제(諸)문제

항공회사측의 견해에 의하면 제트여객기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원가가 비싸다는 것이다. 최초의 제트여객기는 한대에 약 500만 달러나 하는데 이것은 가장 값비싼 피스톤 엔진 비행기 두 대 값인 것이다.

제트기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훨씬 능률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크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여객을 수송할 수 있을 것이다. 터빈 엔진에서 나오는 소리나 제트의 빠른 착륙속도와 같은 조작상의 문제는 대형 피스톤 엔진 비행기에서도 해결된 바와 같이 해결될 것이 분명하다. 파일럿은 30일의 훈련으로 현재의 비행기에서 제트기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이다.

여하튼 제트여객기의 중요한 점은 그 속도에 있다. 일반 대중이 좋아하는 것도 그것이다. 그리고 대중이 좋아하고 있는 것은 그 속도가 빠른 제트기를 타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제트여객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몇 해 후의 일일 것이다. (끝)

2월 탄생의 음악가와 음악

2월 달에 난 음악가로 멘델스존, 쇼팽, 헨델 등이 있다

멘델스존은 2월 3일 출생하였고 피아니스트 지휘자 음악원장으로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 이태리, 스코틀랜드 등의 교향곡 바이올린 협주곡 '어느 여름날 밤의 꿈' 등의 명곡을 남겼다. 이 음악들은 행복한 음악이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면 우선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실천한 음악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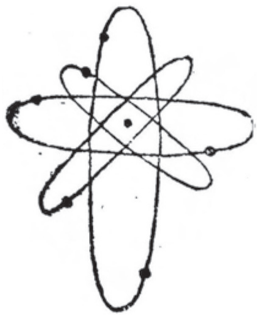
쇼팽은 2월 22일생으로 20세 때 네덜란드를 떠나 또다시 조국 땅을 밟지 못한 음악가다. 파리의 살롱에서의 숙명적인 연애, 피아니스트 및 교사로서의 성공 등 피아노의 시인 쇼팽은 로맨틱한 짧은 생애를 통해 그는 조국에의 애정과 향수를 피아노곡 속에다 불어 넣었다.

피아노에 생명을 불어 넣고 피아노라는 악기에다가 독립을 준 쇼팽은 위대한 인간이요 위대한 음악가다.

헨델은 2월 23일생으로 그의 생애는 실로 악전고투의 일생이었다. 허나 그는 싸워 이겨냈다. 신은 만년의 평화를 주지 않고 대신 실명이란 시련을 주었다. 헨델도 이렇게 되니까 꽤 속도 상했지만 입으로 불러 대작을 많이 작곡했다. 영국을 제2의 고향으로 헤스트 민스트 사원에 묻힌 헨델은 영국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어 영국인은 금일에도 '우리들의 헨델'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리 부자연스럽게 생각지 않는다.

원자전(原子戰)과 그 방어책(防禦策)

공군항공의학연구소(空軍航空醫學硏究所)
공군 중위 조규상(曺圭常)



내용

1. 원자탄(原子彈)과 일반폭탄(一般爆彈)
2. 원폭(原爆)의 상황(狀況)
3. 인체(人體)에 주는 피해(被害)
4. 방어책(防禦策)
5. 제염작업(除染作業)
6. 방어의(防禦衣)
7. 결언(結言)

1. 원자탄(原子彈)과 일반폭탄(一般爆彈)

불안정한 화학결합을 가진 분자가 어떤 자극으로 안정된 결합상태로 연쇄적인 분해에서 내는 큰 힘을 이용한 것이 재래폭탄이라 하면 원폭은 이 분자분해에 대하여 원자핵중의 불안전한 입자분포의 변동 즉 원자핵전환의 연쇄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서 이때는 무서운 파괴력을 발휘한다.

일본 히로시마(廣島)에 투하된 원자량이 큰 Uranium이나 나가사키(長崎)에 던져진 Plutonium은 원자핵분열의 힘을 이용한 것이나 수소폭탄은 경(輕)한 수소원자핵을 융합하여 중 Helium 원자를 만들 때 방출하는 힘을 이용한 것으로서 원폭을 분열폭탄이라고 하면 수소는 융합폭탄이라고 할 것이다. 원폭이나 수폭에 있어 원자핵의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으로서 Uranium 원폭은 1/1000 수폭은 7/1000 만이 Energy 전환에 관여하니 일본에 투하된 1,000Lb 의 원폭은 그중 1Lb가 무서운 위력을 발휘한 셈이 된다.

현재에 있어 원자과학자들의 연구의 초점은 원폭의 양적 문제보다 연쇄반응 속도 즉 완전한 연쇄반응을 일으키게 하는데 집중이 되고 있다.

원폭은 대량의 Energy 좁은 장소로부터 일시에 방출되는 결과로서 폭발의 효과를 내는 점은 재래형의 폭탄과 근사하나 세 가지의 큰 차이점을 들 수 있는 것이다.

제1은 원폭에서 나오는 Energy는 가장 강력한 TNT 폭탄의 1,000배 이상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오.

제2로는 폭발 시 강렬한 열과 광채가 나오는 외에 대단히 투과력이 강하며 유해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것이며.

제3으로는 폭발 후에 잔류하는 물질이 방사능을 가지고 있어 이로서 일정한 기간 생물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재래폭탄이 폭발 시에 생긴 물질은 자동차나 비행기 Engine에서 배기된 GAS 정도밖에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으나 원폭 시는 전연 특수하며 살인적인 방사선을 방출한다.

원자구조를 보면 이를 구성하고 있는 양자(陽子)는 그 수(양자 수)로서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표시하는 원자번호가 결정되며 중성자의 수는 원소의 중량 즉 질량의 번호를 대표한다. 여기에 있어 같은 원자번호(동일한 원소)도 가지면서 원자량(질량번수)이 틀린 원자들을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자연계에는 대개 2개 이상의 안정된 동위원소가 존재한다.

원자가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원자핵내의 양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일정한 범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 비례가 파괴될 시는 불안정한 핵이 안정한 상태가 되려고 변화를 일으킨다(즉 중성자가 많을 시는 양자로 되어 음전자를 핵으로 부터 방출한다). 이때 방출되는 방사능을 가진 원소를 불안정한 동위원소라고 말하는데 원래 자연계에는 불안정한 동위원소밖에 없는 원자량이 무거운 Uranium, Radium 등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최근에 와서는 핵반응으로서 모든 안정된 원소도 불 안정된 동위체(同位體)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원자핵분열은 중성자방출이 연쇄적이며 무서운 속도로 진행됨으로서 성립되는 것으로서 공기 중에 비래하는 중성자로서 자연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폭발시킬 때까지는 2개 이상의 부분으로 분리시켜 놓았다가 폭발 직전에 급속도로 결합시키게 되는데 아직 완전결합 전에 폭탄이 부서져서 발산을 보는 수가 있다.

원자핵붕괴 시의 방출하는 방사능의 기간을 각 원소에 따라 특유하며 수초(數秒)부터 수천 년에 이르는바 각 고유원소의 방사능량이 반으로 주는 시간을 반감기라 부르고 있다.

2. 원폭(原爆)의 상황(狀況)

일본에 투하된 시초의 원폭은 표준형으로서 TNT 20,000톤에 해당되며 Bikini 수폭은 5,000,000톤으로 추산한다.

1,000,000톤을 메가톤으로 하여 현재 미국은 30~50메가톤 제조를 발표하고 있으니 원폭의 상황도 각급(各級)에 따라 전연 달라진다. 각급에 따라 규모는 달라지나 일본과 Bikini의 상황을 중심으로 원폭의 상황을 요약하여 보기로 한다.

원자탄폭발 당시의 열(Energy)량은 상상외의 온도로서 폭심부(爆心部)는 태

양의 10배되는 광채를 수반하며 섭씨 300,000도 즉 태양 중심부의 온도에 근사하다. 이 열(Energy)은 폭발과 동시에 상하로 급속히 이동하는데 형용할 수 없는 이 화구(火球)는 지구상에서 원폭에 있어서는 3~4초, 수폭에 있어서는 약 20초간 머무른다. 고로 폭심으로부터 원폭은 1리(哩), 수폭은 5리 반경이 완전히 소이(燒夷)된다. 열복사선에 의하여 일어나는 현상은 가연물의 인화(引火)와 피부의 화상이다. 일본 히로시마원폭 시의 특이한 현상으로는 소위 폭발 순간의 순간적인 화상(내광(內光)화상이라고 부른다)으로서 폭심에 면(面)한 부위에 국한되어 착의자(着意者)에 있어서도 의복이 밀착되었거나 흑색인 것은 의복의 여유가 있었거나 백색인 부분에 비하여 피해가 심하였다. 전(全) 원폭피해자 중 15%의 내광화상자에 비하여 60%의 2차적인 화상자를 낸 것은 가정의 화기와 건물의 도강(倒降)으록서 일어난 화재로서 이때 소방과 통신, 구호 등 모든 기관이 동시에 마비된데 기인한 것이었다.

폭발 시의 수천 내지 수만 기압은 폭풍과 충격을 수반하며 2리 내지 20리 반경의 대(大)파괴를 일으킨다. 폭풍에 의한 사상(死傷)은 직접 및 간접 원인에 기인하였는데 과거에 보지 못한 점은 단시간에 다종다양한 상해를 받은 것이었다.

원폭 시에 특유한 방사능에 있어 폭발순간(1분 이하)에 방사하는 것을 초기핵방사라 부르는데 이때 α, β, γ 등 각종 파장을 가진 광선이 방출된다. 이 방사선이 인체에 조사(照射)되면 생체 내 조직은 전리(電離)를 일으켜 그 결과 유기체의 기능이 파괴된다. 폭심으로부터 1리 이내, 수폭에 있어서는 4 내지 5리 내는 폭발 시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폭풍과 열복사를 면하였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 지 않으며 물체를 투과하여 들어오는 이들 방사선의 조사로서 생명의 위험을 받게 되는 것이다.

초기핵방사능을 성질별로 일람하면 다음 표와 같다.

	α선	β선	γ선	중성자
강도	10N 화심 air로부터 5~10mM 투입	10N 화심 X선의 100/1임 air로부터 5cm~10mM 투입	10N 화 투광성이 가장 심함 (γ는 방사능의 당위 표기가 된다)	직접 10N 작용 없으나 γ선 $\alpha\cdot\beta$선 형성
흡수물체	glass, plastic material	glass, plastic material	lead, concrete	water, concrete
인체 해	0.1mm투입으로 큰 해 없음(접촉시만 위험)	1~3cm 투입으로 심부조직은 영향 없음	400γ를 수분간 일시에 받으면 50%는 사망한다.	직접 해는 없으나 이는 다 유해방사선 구성의 조성적 역할을 한다.

이중 γ선은 투과력이 강하여 일본의 예에 있어서도 폭심으로 부터 900m 떨어진 곳의 30cm되는Concrete내의 피신자에 400γ선량(이는 50% 치사량)을 조사하였다. 전신에 받은 일격선량(One-shot dose per min)이 600γ에 도달 시는 완전 치사량이 되나 이 이하인 100~200γ 시는 여러 증상을 가진 원자병을 야기한다. (일본원폭사상자의 15%는 원자병이었다.)

초기 핵방사 시에 방사된 중성자는 폭발지역의 토지건축 등의 물체를 포획하여 방사능을 유기하는데 그중에도 동·아연유리(규소 Na) 등이 가능성이 가장 크며 목재·의복 등은 유기되기 곤란하다. 이리하여 잔류하는 2차적인 방사선을 잔류핵방사선이라 하며 폭발지역을 일정 기간 오염한다.

인체의 장해를 방지 않은 방사선의 서한량(恕限量)은 일주 0.3γ 이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방사능과 원폭을 모르는 시대에 자연계의 우주선과 토지 중의 Radium 등 붕괴생성물질로서 토지·식물로부터 매주 0.003γ 일생을 통산하면 10~15γ 정도를 받아온 셈이 된다.

기압의 격변으로 원폭시의 볼 수 있는 원자운은 고온으로 상승한 기층이 감압단계에 들어서자 온도는 충격 전보다 저하되어 이때 공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하여 형성되는 것으로서 10분간에 40,000ft까지 상승하는 이 구름은 핵분열로 생긴 방사능을 내포하고 기류와 더불어 원거리에 이동하여 원자우(原子雨)를 보게 한다. 방사를 가진 원자운을 비행기가 기내를 밀폐하고 480km/hr의 속도로서 통과 시에 550~25γ의 방사능을 받게 된다.

원폭의 폭발결과 대량의 Energy나 공중에 전리된 입자가 수증기의 응결핵으로서 운우를 조성하여 천기의 변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나 돌발적이며 일시적인 Energy의 방출은 큰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연이나[그러나] 폭발 후 화재로 인한 대류로서 단속적인 '비'를 보는 것은 산화재에나 일반폭격에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원폭의 결과 전 세계가 방사능으로 오염되지나 않나 하는 걱정이 있는데 500km 지역에 표준형원폭(TNT 20,000톤급) 1개의 비례로 1,000,000개가 폭발 시에 성립되는 것이며 수폭(TNT 10,000,000톤급) 2,000개로서 이 걱정이 성립된다. 그이나 비교적 소수의 폭발이 일국지역(一局地域)을 오염하는 동시에 그 낙하물이 광범위로 퍼져서 폭심으로부터 수백 내지 수천 리 원방(遠方)에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수 가 있다. 실례(實例)로 미국 Aramogold의 폭발에 의한 방사능의 먼지(Dust)가 1,600km 이상 되는 장소에서 제조된 종이 상자에 출현하여 포장한 사진 film을 못 쓰게 한 예와 Bikini 시험에서 일본 고기잡이들이 원자병에 걸린 사실을 볼 수 있다.

방사능에 의한 오염의 극단적인 예로서는 이런 물질은 공격용 무기로서 사용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인체, 물체 및 지역을 오염하는 방사능전의 원료로서는 원자로에서 생긴 원자탄 제조의 부산물과 강한 중성자로서 방사성포획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이 핵방사능전의 유리(有利) 점은 어느 지역을 사상자나 파괴 없이 출입을 방지할 수 있으며 소형으로서 이 목적을 달할 수 있는 외에 심리적인 효과가 큰 것이나 결점으로는 자연붕괴로서 저축 불가능한 것과 유효방사량을 유지키 곤란하며 인체생리적 효과가 나타날 시까지는 시간이 걸리며 군대가 장래의 소모를 각오하고 싸우거나 또는 일정 시간만 조사(照射)되게 교대하여 가며 작전할 것이므로 군사상의 가치는 그리 크지 못하다.

3. 인체(人體)에 주는 피해(被害)

일본 원폭의 인체에 미친 피해상황을 대분(大分)하여 보면 피해자의 반수 이상(약 60%)이 화상을 입었으며 폭발 시 죽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도 후일 원자병으로 15% 내외가 희생되었다. 원폭은 폭발하는 폭심고도에 따라 인체 피해상황도 달라지는바 공중폭발 시는 폭풍과 충격 그리고 화상에 의한 피해가 크며 지상 또는 지하폭발 시는 방사능의 위험이 더 한층 크게 된다. 폭풍으로 또는 충격으로 인하여 일시에 각종 각색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약 10%) 섬광화상은 신체 노출부인 피부, 모발을 태워버렸고(피해자 약 15%) 폭심을 직시(直視)한 사람들은 일시 또는 소수에 있어서는 영구적인 실명을 보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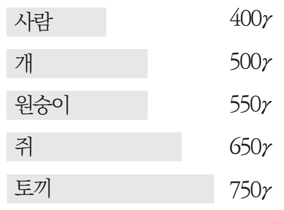
각종의 방사능은 파장에 따라 인체에 주는 영향에도 차이가 있으나 귀착되는 점은 모두 조직에 대한 전리작용으로 우리 조직기관을 파괴시킨다. 특히 인체의 조혈기관인 골수, 생식기관인 남자의 고환, 여자의 난소 그리고 점막세포조직인 소화호흡기와 피부 등에 파괴가 극심하다. 여기에 일어나는 증상군도 받은 선량(線量)에 따라 각종 각색인바 이를 치사선량(100γ), 표준 치사선량(400γ), 병(幷)선량(300~100γ)으로서 대분하여 보면 다음 표와 같다.

<table>
<tr><th>노출 후의 시간</th><th colspan="3">제1주</th><th>제2주</th><th>제3주</th><th>제4주</th></tr>
<tr><td>치사선량</td><td>1~2 시간 후 한기 및 구토</td><td>일정한 징후 없음</td><td colspan="4">하리(下痢), 구토, 구강 인후부의 염증, 발열, 급격한 척수(瘠瘦) 사망(사망 확률 100%)</td></tr>
<tr><td>표준 치사선량</td><td>1~2 시간 후 한기 및 구토</td><td colspan="3">일정한 징후 없음</td><td colspan="2">탈모 시작, 식용감퇴, 불쾌, 불안, 발열
인후부의 심한 염증
창백, 점상 출혈, 하리, 비혈(鼻血),
급격한 척수 사망
(사망확률 50%)</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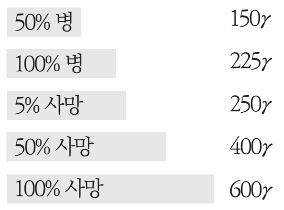
<table>
<tr><th>노출 후의 시간</th><th>제1주</th><th>제2주</th><th>제3주</th><th>제4주</th></tr>
<tr><td>병선량</td><td colspan="2">일정한 징후 없음</td><td colspan="2">탈모
식용감퇴, 불쾌 불안
인후두염, 창백
점상 출혈, 하리, 보통의 척수(전부터의 불건강에 의한 합병증, 또는 상해 감염과 겹하지 않으면 회복 가능)</td></tr>
</table>

병선량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 아무 피해를 받지 않았다 자각하여 모든 폭발 후의 구호, 정리작용에 종사하다가 약 3주, 긴 사람은 그 이상 시일의 경과 후에 표와 같은 증상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원자병환자의 대부분은 조혈기관에서 완전한 혈액을 만들지 못함으로 다시 말하자면 인체의 면역성이 저하케 됨으로서 타질환이 합병되어 사망한 예가 많았다. 여기 1γ의 선량은 결핵검진에 있어 흉부투시를 할 때 받는 량으로서 인체와 타동물의 방사선에 대한 내력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이 사람이 가장 약하다.

이상 방사능은 직접 피해 외에 영향이 문제가 된다. 방사능은 친화력이 강한 생식세포에 있어 부모로부터 자식으로 형질(形質)을 유전하는 염색체를 파괴함으로서 문제를 일으키어 유전자에 돌연변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식물과 달라 사람에게서는 유익한 변이를 일으키지 않으며 이 변이한 유전자는 그대로 자손으로 유전하게 된다. 현재 동물실험을 통하여 방사능과 유전의 문제가 연구되고 있으나 인체실험은 할 수 없는 것으로서 과거 일본 피해보고로는 변이라 볼 수 있는 부인의 대부분은 자연임신중절 또는 사망하였음으로서 많은 학자들은 한 개체에 있어 20,000되는 유전인자를 앞으로 계속 관찰하고 있다. 원칙으로 방사능을 받은 사람은 2~3개월간 적어도 임신치 말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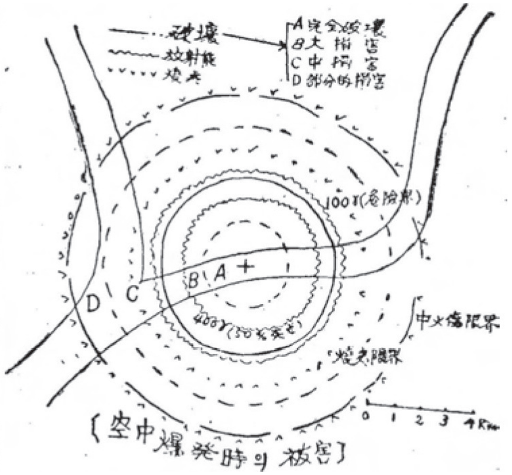
(50% 사망, 방사선량)



(방사선의 직접 인체 피해)

4. 방어책(防禦策)

원자폭탄의 파괴작용을 보면 폭풍에 의한 것, 토지 및 공기의 충격에 의한 것, 열복사선으로 오는 것, 초기핵방사선에 의한 것과 잔류핵방사능에 의한 것 등을 열거할 수 있으며 이외에 2차적인 원인으로는 광범위한 화재를 수반한다. 이러한 여러 파



괴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닐 것이나 다행이도 위험의 원인이 많은 것보다는 복잡치는 않은 것이다. 일반으로 폭풍과 충격 그리고 화재로 부터 적당히 보호되면 동시에 열복사선이나 초기핵방사선으로부터도 인체를 방어할 수 있는 까닭이다.

복사열에 의한 화재나 화상으로부터 방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체나 인화물체를 직접 복사선에 노출시키지 말 것이오.

초기핵방사선을 막는데 유일한 방법은 인체와 원폭 또는 화구(火球) 간에 충분한 양의 물질을 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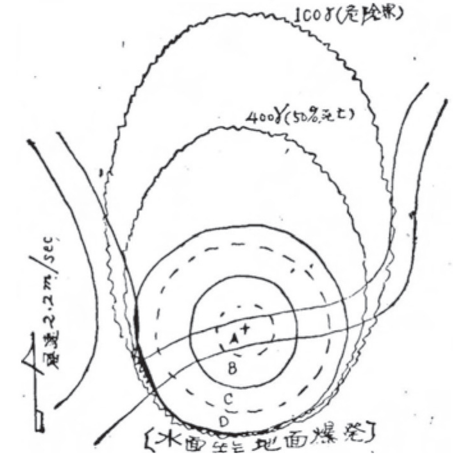
폭풍과 충격으로 인한 물적 손해로 보아 원폭방어의 문제는 재래형의 폭탄에 비하여 근본적인 차위(差違)는 없으나 잊어서 안 되는 것은 극히 강력하며 광범위한 지역의 피해에 대하여 통일성 있는 구호계획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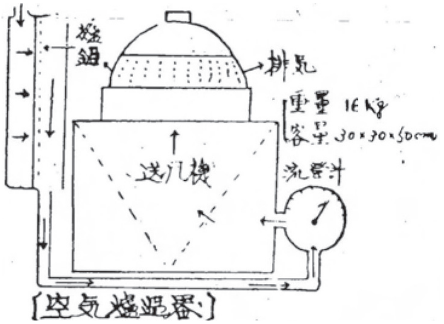
방어대책에 대한 참고로서 표준형(TNT 20,000톤급) 원폭의 폭발고도와 이로 일어난 피해상황을 보면 다음 도표와 같다.

원폭의 공격은 목표물의 군사적 가치에 따라 지중(地中) 또는 지상 혹은 부두 시설을 목표로 할 것이니, 공중폭발은 파괴와 소이역이 넓어지고 지상 또는 수면 폭발에서는 초기핵방사선과 폭심부의 피해가 심대하다.

원폭의 피해를 국한하기 위하여 소개(疏開)나 지하건물은 논외로 하고라도 원폭에 의한 인명의 손해와 물적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신축설계 시에 방어책을 최소경비로서 할 것이며 기설건물이라도 좀 더 폭풍과 화재 그리고 방사선에 견디게 보강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폭풍에 대하여 건물은 측면과 상면(上面)으로부터 오는 힘에 대하여 보강할 것이며 부속물, 장식용 도료의 벽 또는 건물에 강한 힘이 주어 졌을 때에 부서질 물품은 최소한도로 사용함과 동시에 인화성이나 가연물은 가급적 피할 것이다. 약한 벽의 보강은 골격보강보다 횡벽(橫壁)을 추가함이 효과적인 것으로서 건축 재료는 분해 분산되는 유리와 연와(煉瓦)를 피할 것이다. (Plastic 대용)원칙으로 방어물은 30cm 이상의 철근 Concrete로서 내진성을 갖게 하되 지하수도, gas관, 배수관 등에 있어서 지형도 고려하며 도로건(道路巾)은 30m 이상의 거리를 두어 설계해야 할 것이다.

지휘본부의 천정은 2,400kg/㎡에 견뎌야만 될 것이며 출입구도 벽체와 동일한 압력에 견뎌야만 될 것이다. 창은 없고 실내는 인공조명과 air condition으로서(아래 그림과 같음) 잔류핵방사로 오염된 외부공기를 여과하여 도입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비상사태를 고려하여 독립된 전력과 통신, 기타 구호 등의 예비력은 필요하다. 공격목표가 될 건물 또는 이 목표로부터 3리(원폭기준) 이내에 있는 지역은 완전(인공조명, 공기여과장치 등)을 설비하며 견고(수평압 440kg/㎡, 수직압 340kg/㎡)한 형(型)의 대피소의 설치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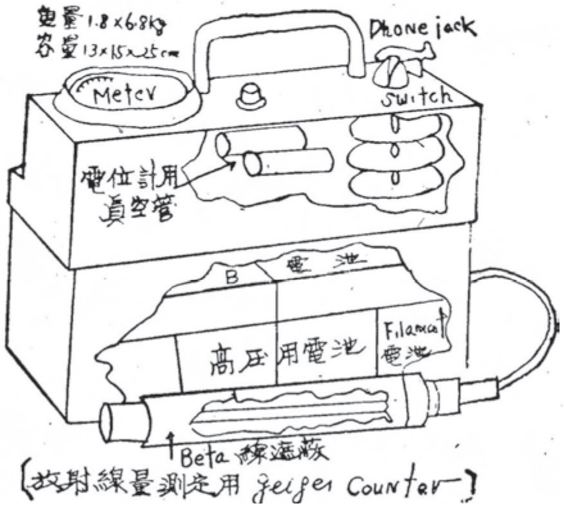


원폭에 수반된 잔류핵방사선의 위협으로부터 많은 사람을 방어하는 것은 경험치 않은 문제로서 이는 3단계로 구분하여 대책을 세우게 된다.

A. 전(全) 기능 정지기(靜止期) 이 시기는 폭발 직후 광범위한 지역의 대파괴로서 교통, 통신이 정지되어 독립된 무선장치 외는 연락방법이 없게 된다. 또 이때 방사능의 선량은 가장 강한 시기로서 시간과 더불어 급속히 붕괴됨으로 최초기에 있어서는 응급작업원도 특별 중요사명 외에는 방사선에 노출치 말 것이다.

B. 긴급처리기에 들어가면 중요도로, 통신의 긴급처리로서 지휘소는 각처의 정보를 얻게 된다. 이는 폭발 후 일주일을 잡아야 하며 지휘소에 있어서는 방사선 방어조직의 전면적인 계획을 세워 어느 지역이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있으며 어디가 완전한가를 검지(檢知)해야 될 것이다. 이 검지는 원자전에 있어 지상에서 작전하는 보병 각 지휘관에 있어서도 항시 유의하여야 할 점이다. 검지는 제1로 저공비행기 내에서 선량검지기를 가지고 하게 되며 이로서 대개 오염지대와 오염강도를 찰지(察知)한 후 CBR 방사선 생물화학장교 하사관들이 휴대용 검지기(geiger counter)로서 각 지역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긴급시설에 대하여서는 제염작업을 개시한다.

C. 회복기로 들어가면 대부분의 위험기는 벗어가는 것으로서 철저적인 제염작



업을 개시하게 된다. 이 시기에 있어서는 가급 유효한 제염을 실시하여 금반(今般)의 오염도를 1주 0.3γ 이하로 할 것이다. 방사선에 노출된 전(全) 장병은 오염되지 않은 물에 목욕시킨 후 오염으로부터 면한 피복을 교환케 할 것이다. 폭풍이나 화재의 피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고로 일반으로 폭발 후 비교적 속히 처치할 수 있으나 핵방사선은 계기(計器)를 사용치 않고서는 감지할 수 없음으로 방임할 시는 유해한 방사능이 몇 주 또는 며칠간이고 그 일대를 위협한다.

5. 제염작업(除染作業)

제염작업이라는 것은 방사선을 없애는 것이 아니요 방사성물질을 일개 장소에서 다른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이니 여기서 오염물을 태운다든가 세척하는 것은 하등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분열생성물질의 방사성 붕괴시간은 시간과 더불어 감소되는 것이니 시간은 만능 제염제라 하겠으나 긴급성을 요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실행성과 작업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일정 시간식 교대로서 작업케 할 것이다.

오염물체 중 적은 것은 지중(地中)에 매몰하거나 해중(海中)으로 투기할 것이며 큰 물체 즉 건물 등에 있어서는 물리적(Vacuum cleaner, Sand bags) 또는 화학적(Pyro phosphoric acid)으로 제염을 실시한다. 도로 세척 시는 세척수 처리에 유의할 것이며 오염된 토지는 약 30cm 정도 신토(新土)와 교환한다.

인체가 방사선을 받았다고 볼 시에는 각질용해제로 목욕해야 될 것이다. 외부에 노출된 음식물은 먹어서는 안 되며 상수에 있어서도 유수지, 급수관 등 계락(系絡)의 오염을 검토한 후 마실 수 있게 된다.

외부와 차단된 지하수는 비교적 안전하나 물을 자비(煮沸)하여 먹는 것도 의미 없는 일이다.

여하간 오염의 위험성이 있을 때는 검지기를 사용하여 위험성의 여부를 판단해야만 된다. 군사상 중요한 건물표면은 미리 Plastic으로서 포장함이 안전하며 방사능의 흡착이 크며 제염키 곤란한 건물은 Paint로서 도장함이 유리하다.

오염된 공기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이동하니 중요한 설계는 교통, 지형, 배수관계를 유의해야 할 것이다.

6. 방어의(防禦衣)

오염지대에 들어가는 작업원은 방어의를 착용하여야 된다. 상하 일련으로 된 염가(廉價)한 연관(烟罐)복이 우수하며 Plastic 또는 Rubber로 된 의복도 대용된다.

신은 구두위로 신을 수 있는 Canpas 제 Rubber 장화와 Rubber 수건 그리고 모발을 완전히 감춰주는 모자를 착용한다. 방사능의 먼지를 가진 공기를 호흡하지 않으려면 화학병기 방어용 mask나 조종사용 산소 mask를 사용함이 안전하다.

7. 결언(結言)

이상 각종 자료로서 볼 때 원폭공격의 효과적인 방어는 대단히 광범위하며 상세한 계획을 수립함이 필요하다. 무지나 과대한 공포감에 일반이 부화뇌동(附和雷同)하여 적은 사고를 대재해로 이끄는 수 있을 것이니 현 단계에 있어서는 방사선 생화학장교, 하사관의 교육을 통하여 원폭에 대한 일반의 정확한 지식의 보급과 또는 신설 시설과 건물에 대한 재검토, 방어복과 원폭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화상, 원자병 등에 대한 연구 등을 게을리 하지 말 것이다. (끝)

<명작영화(名作映畵)스토리>

나폴레옹과 데지래

데지래 구라이는 부친으로부터 선물로 보내준 일기장에 처음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하였다. 때는 1794년 봄 어느 날 밤의 일이었다. 그날 밤 그는 자기 집 넓은 뜰에서 젊은 장군과 함께 난생 처음으로 달콤한 포옹을 했던 것인데 이러한 포옹을 청해온 그 젊은 장군이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던 것이다. 일기장에 쓰여진 글은 모두가 기쁨에 넘쳐흘러 있었다. "아-아, 언제 까지나 영원히 이 밤이 계속되었으면 좋으련만!"

걸레 같이 헤어져 낡은 군복을 입고 있는 나폴레옹의 눈동자는 성난 독수리와 같이 빛나고 자랑스러운 마음에 넘쳐흐르고 있었다.

"데지래 - 마음에 흡족하고 기다렸던 이름 아름답다." 나폴레옹은 속삭이면서 데지래를 힘껏 껴안았던 것이다.

<나폴레옹으로 분장한 말론 브란도>

데지래는 2개월 전 불란서 마르세유의 부자며 포목 상인이었던 부친과 영원히 작별하였던 것이다. 지금은 부친을 비롯하여 가업을 맡은 오빠 애겐누와 의언니인 스산느 그리고 네 살 위인 쥬리란 언니뿐이다. 그러든 어느 날 자기 집 상점에 조셉 보나파르트란 젊은 청년이 물건을 사러왔다. 데지래는 그 젊은 청년과 친근하게 이야기 하게 되고 그 젊은이의 소박하고 좋은 점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조셉이 말하는 것은 자기가 코르시카 섬에서 자기 동생과 더불어 빠져 나왔는데 그의 동생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나이도 젊은 늠름한 장군이라는 것이다. 데지래는 생각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 언니인 쥬리를 위해 좋은 기회라고 다음날 이들 두 젊은이를 집으로 초대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날부터 이들 형제는 매일 이집에 놀러오게 되었는데 데지래가 계획했던 생각과는 아주 딴판으로 나폴레옹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상대인이 바로 자기인 데지래였던 것이다. 나폴레옹은 애지엔누와 더불어 정치, 군사에 대하여 이론을 따지는가 하면 또한 데지래와 더불어 정원에서 뜀박질도 곧 잘하여 이로부터 그들 사이엔 새로운 사랑의 싹이 트기 시작했던 것이다.

"데지래 그대는 자기의 운명을 무서워하는가?" 나폴레옹은 약간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자기 운명 같은 것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내 운명은 내자신인거야."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선 나폴레옹은 자기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서 포옹을했던 것이다.

엄격하고 훌륭한 나폴레옹이라고 데지래는 자기 일기장에다 기입하고 그 후 또한 나폴레옹의 형인 조셉과 자기의 언니인 쥬리와 약혼한 것을 마음깊이 축복한다고 썼다.

X X

이로부터 수주일이 지나가고 결혼식도 머지않아 거행하게 되었던 조셉은 매일 밤 데지래의 상점을 방 문 하여 왔다. 이러하던 어느 날 밤, 나폴레옹과 같이 찾아와서 결혼식에 입을 의상을 구경하고 있을 때 난폭한 군화소리가 들리며 수명의 병사들이 거침없이 뛰어 들어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나폴레옹을 체포하고 그의 친구였던 로비스삐엘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나폴레옹까지가 정부에 대하여 반역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의심 없는 사실이라고 알았다.

"앗 자네의 저고리 단추가 벗겨져있다."라고 나폴레옹은 침착하고 여유 있게 자기를 잡으러온 일병사에게 주의를 던지면서 끌려가는 것을 보고 놀란 데지래는 이런 후환이 가족에게까지도 미칠까봐 서둘러 집에 소식을 전했던 것이다. 나폴레옹의 모친에게 미칠 듯 허겁지겁 전달했으나 그의 모친은 이것을 귀담아 들을 뿐 놀래거나 동요하는 빛은 하나도 없고 더욱 침착하였다. 나폴레옹이 옥중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데지래는 그를 위해 의복과 술, 과자 그리고 서적을 보내 주었던 것이다. 어느 날 밤 나폴레옹을 꿈에서 만난 데지래는 놀래어 꿈을 깨었다. 문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나가본즉 다름 아닌 나폴레옹이었다.

<부란드와 데지래로 분장한 진 시몬스>

더러운 군인 코트를 입고 있는 나폴레옹은 뛰어 나오는 데지래에게

"석방되었어. 왕당파 일당을 체포할 임무를 맡았구 또 포술 전문가가 되었어."

경찰도 아닌 무리들이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야. 데지래는 그와 헤어지는 것이 싫었다. 군무를 떠나서 자기와 같이 상점을 계속 경영하도록 충고했으나, 혈기왕성한 나폴레옹이 원하는 것은 파리로 향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육군성과 교섭하여 자기를 이태리 원정군 사령관에 임명하도록 부탁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던 것이다. 데지래로부터 여비를 마련해 받고 나폴레옹은 말하였다.

"파리에서 그들을 설득할 터이고 이것이 성공되면 돌아와 결혼하지." 그는 딱 잘라 말했던 것이다. "어떻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줘."

이와 같이 말로 구혼 말을 남기고 나폴레옹은 데지래와 헤어져 갔다.

그의 일기장은 이로부터 1년간 나폴레옹에 대하여 써지지 않았다. 그것은 데지래에게 태산 같이 쌓여진 슬픈 고민뿐이었다. 나폴레옹으로부터 오는 편지는 거의 두절되었고 인편에 따라 알게 된 것은 군정부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 나폴레옹은 때로는 급료까지 못 받게 되어 굶는 날도 허다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그는 현 정부의 5두(頭)집정관의 한사람인 바라 씨와 가까이 하고 그의 애인인 백작부인 조세핀 드 보아르네와 마담 다지안의 클럽의 호감을 사서 그들 모임에 출입을 빈번히 하게 되었다.

나폴레옹의 형 조셉 앞으로 오는 서신에는 마담 다리안의 집에 모임을 갖는 정경이 상세히 씌어져있으며 또한 화려 찬란한 귀부인들의 풍문 등이 실려져있다……

데지래는 조금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시녀인 마리아를 데리고 단신 파리로 떠나게 되었던 것이다.

X X

하루 종일 비가 나리는 불란서 파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비단에 몸을 감은 데지래도 여기에선 시골색시로 밖엔 보이지 않았다. 마담 다리안 집으로 찾아간 그는 현관에서 집 머슴에게 보기 좋게 거절당하고 말았다.

마침 그때 여기에 찾아온 미모의 신사가 있었다. 데지래는 창피를 무릅쓰고 그 신사에게 자기와 동반하여 들어가도록 청원 하였다. 이를 쾌히 승낙한 그 신사는 데지래를 동반하고 휘황찬란한 의상으로 휩쌓여진 남녀들이 모인 살롱에 섞이게 되었는데 그때 이 신사가 쟝 바브데스트 바나돗트 장군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꿈속에서 헤매는 것 같이 멍하고 서있는 데지래 귀속엔 축배를 올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나폴레옹과 조세핀 보아르네와의 약혼을 축하하는 축배였던 것이다.

"안 되요!"

돌연 데지래는 비명을 부르짖고 뛰어나가 나폴레옹을 그 여자로부터 잡아떼고서 손에 든 술잔을 조세핀에게 내던져 그의 치마를 술로 더럽히고 말았다. 나폴레옹의 사자같이 성이 난 얼굴을 흘겨본 데지래는 미치광이처럼 마담 다리안의 저택을 뛰쳐나왔다. 뭐가 뭔지도 모르게 비가 나리는 거리를 단숨에 내달려 세느 강가에 다다를 때 그의 뒤로부터 그를 잡는 자가 있으니 그는 바나돗트 장군이었다. 데지래를 마차에 태우고 울음을 끝이지 않는 데지래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하는 것이다.

"뭐라고 말해 주었으면 좋을는지 나는 그대와 같은 여인을 만난 것은 처음이요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장군같은 자리를 차지할 수도 못했을 것이며 가문도 없고, 소양도 부족한 일개 병사로서 출세한 인간이지만 그대와 같이 있다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적은 집을 그대와 둘이 그리고 두 아들들을 위해 장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연령이 너무 차가 나는지 모르나 나는 지금 31세인데"

장군의 우아하고 섬세한 구혼의 말을 받아드리는 데는 데지래는 너무나 마음의 상처가 컸던 것이다.

마음을 진정시킨 후 쓸쓸한 미소를 띠면서 데지래는 장군에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나는 머지않아 열여섯 살이 되지만 나이도 어리고 배움이 적어 마음에 걸려요."

그날 밤부터 데지래는 뜨거운 열을 내면서 침대에만 파물이게 되었다. 침대에만 신세를 끼치는 동안에 나폴레옹이 파리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수도(首都)의 폭동을 완전히 진압시켰다는 소식이 들려왔던 것이다.

X X

1798년 전 세계는 나폴레옹의 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들끓고 있었다.

그는 조세핀과 결혼한 지 이틀 되던 날 정부로부터 이탈리아 원정의 위임을 받고 출정하게 되었다. 불과 6주일도 못되어 여섯 번째의 승리의 개선을 올려 그곳에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여야 될 형편으로 전개 되었다.

데지래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귀담아 들었던 것이다.

"젊은 보나파르트는 어느 항구도시의 존재 없었던 지위로부터 오늘날 최고의 지위를 차지한 사람이 며 천재인 것이다."

그 당시 나폴레옹의 형님 조셉은 쥬리와 결혼하여 로마의 대사로 임명 되었었다. 데지래는 마음의 상처를 안은 체 언니의 집에서 신세를 끼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2년간 로마의 생활은 그에게 놀라울만한 미모와 매력을 갖게 했던 것이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그는 파리로 돌아왔다. 그가 가지고 온 짐 보따리 속엔 끊임없이 써온 그의 일기장이 몰래 숨겨있음은 물론이다. 나폴레옹이 동서의 막대한 지역을 통치 병합하기 위한 야심에서 이집트 원정으로 출발할 때 데지래는 쥬리와 더불어 나폴레옹의 출정환송연회에 참석하였다. 자기 눈을 의심하듯 아름답게 성장한 데지래를 보자 나폴레옹은 손을 내밀었던 것이다.

"대단히 오래간만이군, 참 예뻐졌어. 그리고 아주 어른이 되었는데."

"참 오랜만이군요, 나도 벌서 열아홉 살인걸요."

냉정하게 적의를 갖는 조세핀 부인에 구애됨이 없는 데지래의 인사는 이러했던 것이다.

여기에 참석한 손님들 중엔 바나돗트 장군도 끼어 있었다. 주연이 베풀어지는 동안 그는 열심히 데지래에게 이야기를 걸었으나 데지래의 마음은 거기엔 통 기우려 지지 않았다. 그의 마음 전부를 쏠려넣는 것은 일방단심 나폴레옹을 연모하는 것에 열중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주연이 끝나고 최후로 바나돗트 장군의 마차의 권유를 받은 것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이 두 사람을 실은 마차는 세느 강가를 따라 달리고 있었다.

"나는 머지않아 전장에 출정치 않으면 안될 것이요. 그전에 나는 당신과 아해들을 위해 훌륭한 집을 장만해 놓고 싶소."

바나돗트 장군의 이상한 말에

깜짝 놀란 데지래는

"아이들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아이들……"

그의 음성은 훌륭히 길들어져있다.

"나는 군인이요 때문에 그대의 가족을 방문하든가 나의 친우들을 소개 하는 덴 3개년이나 걸리려는지도 모르는 노릇이야"라고 말하고 그는 데지래를 끌어안고 포옹을 힘 있게 하였던 것이다.

당신은 나에게 있어 두 번째 키스한 여인이다. 데지래는 놀래어 비명을 소리쳤다. 데지래에겐 두 번째 의 키스였는진 모르나 바나돗트 장군에 있어선 최후의 포옹이었고 마지막 키스였던 것이다.

데지래가 바나돗트 장군의 처가 된 것은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데지래 일기장에다 크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입한 것은 1799년 6월이었던 것이다. 그때 남자 애를 낳는데 그의 이름을 오스카라고 했다. 나폴레옹 부부도 이 아이를 보려고 먼 말메종에서부터 찾아 왔으나, 조세핀의 눈초리는 부러운 듯 벨트 속에 아늑히 파묻혀 있는 오스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에겐 아직까지 아이가 없었다. 때문에 나폴레옹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데지래는 지나간 섭섭한 생각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도리어 그 여자에게 동정심을 느끼었다. 그 후로부터 이들 두 부인들 간엔 새롭고 아름답고 따뜻한 우정의 싹이 트기 시작했던

파티에 나타난 나폴레옹과 데지래

것이었다. 불란서 국내외엔 비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으니 공화'주의자인 바라 씨와 전(前) 과격파인 슈에 등의 집정보다 나폴레옹을 불란서 최고집정관으로 임명하고 강력한 정체를 수립하는 편 이 낳다고 조셉은 주장하고 이를 반대하는 바나돗트 장군을 물리치고 이집트 원정에 종군하고 있는 나폴레옹을 불러들였던 것이다.

파리에 돌아온 나폴레옹은 돌아온 지 몇 시간도 못 되어 쿠데타에 성공하고 불란서국을 통치하는 최고 집정관에 취임하였다. 데지래의 남편 바나돗트 장군은 끝까지 나폴레옹의 독재정치를 반대하여 왔으나 그가 주장하는 국내개혁문제에 나폴레옹이 동의하였기 때문에 상호협정을 체결서약하게 되었던 것이다.

1804년 5월 20일 데지래 일기장엔 다음과 같이 기입되어 있었다.

쥬리가 조셉의 황녀(皇女)이고 나는 바나돗트 원수의 아내라고 하지만! 즉 나폴레옹 그 일가는 불란서의 최고 지위에 군림하였으며 나폴레옹은 산구류 사원에서 왕위대관식을 거행하여 불란서 제왕으로 등극하였던 것이다. 1809년 7월 나폴레옹이 불란서 국내원정에 출정하는 틈을 타서 영국해군은 해협을 건너 불란서에 상륙하여 파리로 향하여 진격하는 중대위기에 봉착했을 때 바나돗트 장군은 남은 군사를 통솔하여 이를 격파시킴으로서 불란서방위의 대명을 완수하고 공명을 세웠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이 공적에 대하여 한마디 말도 없었으니 이는 나폴레옹 신변에 복잡다난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조세핀 부인과 이혼하고 그 대신 오스트리아 왕녀인 마리아 루이스와 새로 결혼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당시 세계정복 제왕의 꿈을 꾸는 나폴레옹은 날이 갈수록 호전적 태도로 나타나 바나돗트 장군의 반감을 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데지래도 조세핀에 대한 우정이 자기 자신 차가워지는 태도에 환멸감을 느끼고 다시 조세핀 부인과 친밀하여져가는 것이었다. 그 이듬해 9월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 출정한 뒤 돌연 바나돗트 장군에게 스웨덴의 사자가 뛰어 왔다. 왕년에 왕위계승자인 크리스찬 오가스마가 불상사로 인하여 서거한 후 스웨덴에선 다음 왕위 인물을 물색하는데 오래 고민하여오다가 의회에선 바나돗트를 왕위계승자로서 지명하여 왔던 것이었다. 그러니까 데지래는 미래에 있어 스웨덴 여왕이 된 셈이 되었다.

X X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서 맹위를 자랑하는 동장군에 패하여 돌아온 것은 1812년 9월의 일이었다. 나폴레옹은 파리에 돌아오자 곧 데지래에게 편지를 썼다. 그래서 바나돗트의 원조를 받으려 했으나 러시아와 외교관계를 갖인 바나돗트는 나폴레옹의 청원을 거절하였다. 그 후 데지래는 단신 스웨덴에서 파리에 혼자 돌아왔다.

그것은 스웨덴 왕족들이 지나치게 냉냉하게 싫어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814년 5월엔 영국을 위시한 독일·오스트리아 연합군에 의해 나폴레옹의 불란서는 완전히 패망되고 나폴레옹은 제위에서 물러나 엘바 섬에 유형 되었던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파리에 머물던 데지래가 그의 남편인 바나돗트와 이혼한다는 소문이 퍼져 큰 화제를 던졌는데 그 소문은 정말로 시행되었던 것이다. 어느 날 파리로 돌아온 바나돗트는 데지래를 마차에 태우고서 말하였다.

"마지막 산보니까." 그러나 세느 강가를 따라 마차가 달리고 있을 때 데지래는 저도 모르게 바나돗트를 끌어안고 지나간 과거의 것을 회상하며 상호간에 해어질 것을 깨끗이 하였던 것이다. 1915년 엘바 섬을 탈출한 나폴레옹은 파리로 진격하여 왔으나 워털루와 싸움에서 단번에 패하고 말았다. 패전의 몸을 말멘슨에 의탁하는 나폴레옹을 찾아준 것은 데지래였던 것이다.

무슨 기구한 운명이었더냐 그와 처음으로 사랑을 속삭이던 젊은 날의 생애의 그늘에서…… 나폴레옹은 말했다.

"패-한 장수는 승리한 장군에게 그 검(劍)을 넘겨주는 것이다. 뉴지애 데지래나의 운명은 나 자신인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나는 잊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집 전원(前園)에서 뜀박질을 했다…… 그 여자는 그 후 스웨덴 왕의 처가 되고 나는 왕위에서 벗어나 다시 새로이 두 번씩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 앞에 나갈수 없는 인간이 된 것이다 -. 어둔 밤을 뛰는데 그 여자는 승리를 했다…… 나는 나의 운명을 건 워털루 전장에서 휘두른 검(劍) 이것은 패한 내가 그대에게 넘겨줄 당연한 물건인 것이다.

"안녕히 계십쇼, 나폴레옹"

데지래의 샛별 같은 눈동자엔 눈물이 고여 방울방울 떨어진다. 데지래가 떠나가 버린 후 '황제'는 단 혼자가 되었다. 어디선가 아득히 먼 곳에서 '라 마루세이유'의 음향이 조용히 흘러오는 것이었다.

(끝) (석순(石筍))

군인(軍人)을 위한 윤리(倫理) (1)

김기석(金基錫)

1. 겨레

이 땅위에는 많은 겨레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겨레와 나라들은 각각 자기의 말과 문화와 역사와 전통이 있어 서로 같지 않은 빛깔로 자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조국인 한국도 그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겨레의 구별이 없는 하나의 세계가 올 것이라고 하거니와 이것은 꽤 오랜 뒤의 일일 것이고 또 하나의 세계란 겨레가 없어지는 세계가 아니고 겨레와 겨레가 서로 돕고 일으키는 세계일 것입니다.

겨레. 이것은 우리들의 목숨의 근원이요 또 그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일정한 겨레에 속하여 말하자면 그 한 조그만 잎사귀로 태어나는 수밖에 없거니와 이 한그루 나무가 내 겨레요 그 가지가 내 집이요 잎과 잎이 내 형제요 자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기 목숨의 근원인 겨레를 위하고 그 속에 있고 또 거기에 돌아가야 하는 것은 진실로 마땅한 도리요 자연스러운 이치일 것입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성벽이거니와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겨레의 군대입니다. 나폴레옹의 경우와 같은 개인의 군대도 아니고 소련의 경우와 같은 공산당의 군대도 아니고, 겨레를 지키고 겨레를 위하여 싸우고 겨레를 빛내고 겨레를 북돋우고 이렇게 하여 겨레의 깃발인 태극기 아래서 붉은 피를 쏟고 쓰러져서 겨레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서고 이것이 겨레의 군대인 한국군인의 지극한 소원이요 또 존귀한 책무일 것입니다.

겨레의 5천년 사(史)는 애오라지 겨레의 독립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피어린 싸움의 역사였거니와 우리겨레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양의 한 구석에서 위태롭게 깜박거리면서 줄기차게 내어뻗지 못한 것은 겨레를 지키고 이것을 일으키는 씩씩한 군대를 갖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꿋꿋한 군대와 그 질박(質朴) 강건한 기풍은 다름 아닌 겨레의 힘의 표현이요 상징일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나라의 형세 떨치고 이것이 없을 때 종묘와 사직이 위태로움을 면치 못하는 것이니 일어나던 신라와 고구려, 이 때문에 우렁차게 내어뻗쳤고 기울어지는 고구려와 이조, 이 때문에 비틀거리고 쓰러져 넘어간 것입니다.

동양에 있어서 가장 정강(精强)한 군대를 갖는 나라가 되는 일은 우리겨레의 오랫동안의 또 애달픈 오직 하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겨레의 소원이 꿈과 같이 진실로 꿈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이 겨레를 위하여 영용(英勇)스럽게 싸우고 줄기차게 일할 때가 돌아온 것입니다. 국조(國祖), 우렁차게 나라의 터전을 열었고 삼국이 다투어 일어나 이것을 받아 내리어 오늘의 우리들에게 전하는 동안 겨레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적의 화살 속에 던졌고 어머니와 누나들이 치마폭에 돌을 싸고 앞으로 달리던 일을 우리들이 알고 있거니와 원효(元曉)와 율곡(栗谷)과 충무공(忠武公)과 이준(李儁)) 선생의 조국을 우리들의 조국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광영(光榮)스럽게 또 감회 깊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겨레 남에게 눌리고 나라를 통째로 빼앗겼을 때 우리들의 분함과 슬픔과 부끄러움이 얼마나 큰 것이었습니까. 피로 지켜온 우리나라, 피로 찾은 우리나라를 우리들은 다시 이것을 남에게 빼앗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겨레를 위하자는 것은 우리 겨레만이 강성하고 번창하여 마구 남을 누르고 이웃을 못살게 굴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우리겨레를 위하는 데는 겨레와 동양의 해방을 이룩하여서 기울어진 역사를 바로 향도하려는 지극한 원(願)이 우리 가슴속에 있기 때문이니 이것을 위하여 싸운 것이 3.1 운동이요, 이것을 위하여 싸운 것이 주권의 회복이요, 이것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 한국전쟁이요, 오늘의 정강한 백 만 국군의 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 만 국군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하나가 겨레를 위하여 살고 겨레를 위하여 죽는 겨레의 군대가 되어 안으로 3천만의 생명을 지키고 밖으로 인류의 고귀한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나라

동양의 이스라엘인 우리 겨레는 유구(悠久) 반만년 한 줄기 줄을 그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 동안에 우리들은 우리 옆에서 많은 겨레들이 일어나고 살아지고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이 역사위에 나타났던 겨레들은 역사위에 나타나면서 자기들의 나라를 세웠고 역사에서 내려서면서 자기들의 나라를 빼앗겼다.

수많은 겨레가 나라를 세웠고 수많은 겨레가 나라를 잃었다. 우리 겨레의 역사는 결국 이 나라를 일으키고 눌리고 한 역사였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3년 뒤인 1948년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졌다. 이렇게 하여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지 38년 만에 다시 나라가 회복되었다.

1905년 을사(乙巳) 망국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어 나라가 송두리째 적의 주머니에 들어갈 때 안에서는 민영환(閔泳煥) 경(卿)의 자결, 밖에 나가서는 이준 밀사의 붉은 피로 죽음으로써 침략을 물리치는 민족항쟁의 성스러운 봉화가 올라갔는데 연달아 일어나는 구국의 혈우(血雨), 잠시도 쉰바 없다가 마침내 1919년의 저 커다란 불길을 불러일으킨 것이었다.

나라,

아, 이 '나라'라는 두 글자, 그리고 그 숭고한 음향은 우리들에게 한없는 감회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나라가 무엇이냐.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 - 이것은 나라를 잃어본 자만이, 나라를 남에게 빼앗겨본 자만이, 그리고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하여 피투성이가 되어 싸운 자만이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나라란 무엇이냐. 나라란 언제부터 생긴 것이냐. 앞으로 나라란 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같은 물음에 대한 대답을 우리들은 전문학자들에게 맡기려고 하거니와 나라란 무엇이냐라는 문제를 한가하게 논의하고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나라와 우리들은 하나인 피, 하나인 숨결로 얽매어 있는 것이다.

나라, 이것을 우리들은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은 느낄 수는 있는 것이다. 나라를 잃고는 살아갈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뼈 마디마디 속에 새겨진 글자인 것이다. 나라를 잃은 것은 죄악 중에도 가장 큰 죄악이다.

이것도 우리들의 뼈 마디마디 속에 새겨진 글자인 것이다. 한 가족들이 한 집을 이루고 살아가는 모양으로 겨레 한 나라를 세우고 그 속에서 부모를 섬기고 동생을 가꾸면서 밖에 향하여 이웃을 돕고 일으켜서 버젓하고 광영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듯이 겨레 한 나라를 세우고 그 속에서 나라의 살림으로서의 정치와 교육을 꾸려나가면서 밖에 향하여 이웃 나라를 돕고 국제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여서 안으로 민족의 존영(尊榮)을 꾀하고 밖으로 세계문화의 대조류에 기여보비(寄與補裨)[16]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름답고 의로운 나라를 세우자.

이 지상(地上)의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사모하고 본받는 나라를 세우자.

그리고 이 의(義)의 나라인 겨레의 나라를 영원히 보유하고 이것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되어 모든 그릇된 나라를 밝히고 높이는 등불이 되자. -

이것이 조국, 나라를 우렁차게 연 슬픈 원(願)이었고 삼국이 다투어 일어난 슬픈 원이었고 수많은 선열들이 나라를 위하여 가시덤불을 체치고 불속에 몸을 던진 슬픈 원이었고 그들의 후손인 오늘의 우리들의 이것을 이어받는 슬픈 원인 것이다.

겨레에게는 모두 그 맡고 또 맡아서 수행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본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맡겨졌고 희랍(希臘) 사람들에게는 학문과 예술이 맡겨졌고 근세 구라파(歐羅巴) 사람에게는 자연과학과 기술이 맡겨졌고. 그런데 우리 겨레에게는 예나 이제나 변함없는 한 가지 긴중(緊重)한 책임이 맡겨졌으니 그것이 다름 아닌 아름답고 튼튼한 나라를 일으키는 일일 것이다.

저들에게 나라가 맡겨졌으나 번번이 병신 된 나라에 굴러 떨어졌고 우리에게 아득한 상대(上代)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거듭 거듭 나라가 맡겨지는 것은 이 겨레로 하여금 하늘이 명하는 의(義)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이 지상에 일으키려기 때문인 것이다.

늙은 구라파가 지칠 대로 지쳤고 새로운 동양이 여기에 바뀔 새로운 시대가 돌아 온 것이다.

(필자(筆者) 사대교수(師6大敎授))

16) 원문의 補裨는 보조의 뜻

독(獨), 불(佛), 이(伊) 1일1야기(一日一夜記)

송정훈(宋政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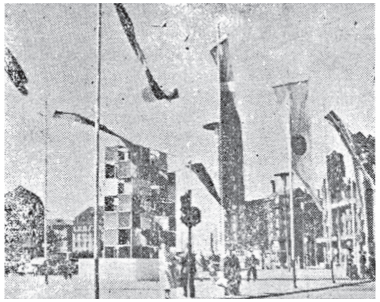
독일라인 강반(江畔)의 리마겐에서 기차로 3시간 시종 차창 밖의 아름답고 역사적인 풍경을 내다보고 오후 2시경에 후랭크폴트에 도착하여 스위스(瑞西)로 향하려던 것이 비자를 얻지 못하였다. 귀로는 바빴지만 당일은 토요일이고 자동차박람회를 개최 중이라 각국에서 모여든 대 실업가들 때문에 호텔이 초만원인데다가 각국 항로도 좌석을 얻을 수 없는 추계여행 시즌인 까닭이었다. 할 수 없이 여장을 갖추고 비행장까지 가서 어디든지 향발하려고 각 항공회사에다 신청을 해놓고 대합실에서 대기를 할 수밖에 없는 기막힌 나그네였다.

독어 불어가 중심인 각 항공회사의 아나운스멘트만이 시끄럽고 동양 사람이라고는 한사람도 눈에 띠우지 않고 독 불인에게 영어로 문의한다는 것은 실례랄 정도로 모른다는 것이다. 편지도 쓰고 잡지신문도 발송한 다음 값싼 독일맥주나 먹으려고 스낵바에 가서 있는 중에 에어 프랑스 여사무원이 찾아와 "무슈 송 방금 캔슬한 좌석이 하나 있으니 빨리 타고 파리로 가오."라는 것이다.

에어 프랑스 더 룩스 여객기는 최대형의 호화로운 것이었으며 불란서 캔디를 주고 또 사과도 줌으로 그 맛을 보았더니 우리나라 홍옥(紅玉)과 같이 감미하였다.

한 시간여에 파리는 두 번째 도착이고 재입국비자가 있었기 때문에 말썽이 좀 있었으나, 세계일주의 탑승권 소지의 여행자이므로 24시간 내에 출국을 하라는 것이다. 파리의 호텔은 루 콜부체 연구소근처에 정하고 20시간의 파리를 어떻게 지낼 것이냐? 는 너무나 애석한 제약이었으나 메트로(지하철)를 타고 세느강반으로 나섰다가 몬말톨을 산책하고 예술가들이 모이는 도메카페에서 맥주한 잔을 놓고 혹시 친구나 만날까하는 심정으로 한 시간이나 쓸쓸한 파리의 추야(秋夜)를 보낸 다음 택시로 고상한 중간색 네온사인의 밤거리 샹젤리제를 한 바퀴 돌아서 호텔로 돌아왔다. 이 거리만은 원색소(原色素) 네온은 거리의 미관상금하고 있는데다. 아침에 김중업(金重業) 씨를 만나 작별하고 파리를 예정대로 떠나 남불 니스공항에서 한 시간 반 휴식한 다음 네 시간 만에 공기 맑은 이태리의 수도 로마에 도착하고 독, 불, 이 1주야 행각(行脚)으로 3개국을 헤매고 보니 세계 일주라기보다 고역강행이 아닐 수 없음을 느끼었다.

(필자(筆者) 국제보도연맹(國際報道聯盟) 사장(社長))



<독일 후랭크폴트 역전에 세운
자동차 박람회 아아취 만국기>

<로마의 근대미술관>

<파리의 거리에 선
건축가 김중업(金重業) 씨의 스냅>

<파리 PAK 극장의 진열장>

<남불(南佛) 니스의 아가씨>

꿈은 어떻게 해석(解釋)되는가

외지(外誌)에서

인류의 역사가 비롯된 이후로 사람은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많은 애를 써왔다. 가장 원시상태에 있던 우리의 조상들에게도 이 신기한 '수면의 언어'는 의미심장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함축의 신비를 해명해볼 길이 없었던 인류에 대하여 꿈은 언제나 마법의 세계로 생각되었으며 대체로 초자연적인 신령의 묵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소행에서 유래하는 혹종(或種)의 시현(示顯)으로 보여져왔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50년 동안의 노력으로 과학자들은 마침내 '꿈의 언어'도 현실생활의 언어와 다름없이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해명케 되었다. 꿈 세계의 해석은 개인의 생리적 기능에 대한 이해를 조장하는 동시에 타인에 대한 인식의 도(度)를 넓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현금(現今)의 과학적 발달이 꿈의 의미를 풀 수 있는 해석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큰 관심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심리학자를 비롯하여 정신병학자 및 기타 꿈의 해석을 연구의 과제로 하고 있는 저명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에 따라서 열 가지의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꿈의 의미를 분석해보기로 한다.

1. 돈을 본 꿈

예— 나는 혼자 모래밭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다 바닷가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즐거이 뛰놀고 있었지만 나는 그중에 아는 사람도 없었거니와 우선 부끄러움이 앞서 감히 어울려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모래 밑에서 이상한 물건이 손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한 잎의 50센트짜리 은화였습니다. 얼른 그 밑의 오래를 파보니 놀랍게고 그 속에는 파는 곳마다 돈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해석— 돈은 해몽의 언어로서는 사랑을 의미한다. 따라서 돈의 발견은 사랑의 발견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꿈의 경우에 있어 중요한 사실은 꿈을 꾼 사람이 현실에 있어서 진실한 사랑을 못 가지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그 현실의 미흡을 채우기 위하여 이러한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이다.

이 꿈은 어떤 여자의 꿈인데 그는 이미 두 번이나 파경의 쓰라린 경험을 맛본 일이 있었으며 언제나 행복스러운 가정생활을 해보았으면 하는 안타까운 소원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부유한 생활의 가망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꿈에서 즐거이 뛰노는 사람의 무리가 자기로부터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늘 남이 가까이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평소에 느끼왔던 것이다.

2. 나체(裸體)의 꿈

예— 나는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걸어가다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내 몸은 한 오리의 실도 감겨져 있지 않은 알몸뚱이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가로등의 그늘 밑으로 숨으려고 했지만 어디선지 난데없이 나타난 사람의 무리는 나를 둘러싸고야 말았습니다. 나는 제발 덕분에 그 사람들이 내가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몰라주었으면 하고 원했습니다.

해석— 이 꿈에는 두 가지의 해석방법이 있다. 첫째 것으로는 꿈꾼 사람이 다시 한 번 옷을 걸치지 안하여도 좋은 철모르는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해석이고 둘째 번의 해석은 꿈꾼 사람이 무엇인가 감추어야할 수치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생시에 감추고자 마음먹고 있던 그의 비밀의 죄가 꿈속에서 폭로된 것이다.

3. 날아다닌 꿈

예— 나는 애인과 더불어 산보를 하고 있는 중 갑자기 들 위를 날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양팔을 펼치고 공중으로 뛰어올라 갔습니다. 아무데나 원하는 방향으로 몸을 돌리고 쉽사리 날아다니고 있었지만 조금도 이상하게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신기한 능력을 언제까지라도 잃지 말고 가지고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해석— 이러한 꿈은 현실생활에서 느끼는 자신의 무능력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늘을 난다는 것은 평소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여러 가지의 난관을 속 시원하게 물리쳐 볼 수 있는 비상한 초인적(超人的)인 능력을 말한다. 이 꿈을 꾼 청년의 애인은 현실에 있어 그에게 대하여 결혼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청년은 아직 경제적인 여유도 없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사실 자기가 그 여자를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어떤지도 확실히 느껴보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기는 그 여자의 이러한 결혼요구를 수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의무감만은 언제나 느끼고 있었다고 한다.

4. 지각(遲刻)의 꿈

예—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기차를 타려고 했습니다. 나의 처는 저녁 일곱 시에 초대연을 준비해 놓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차장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기차가 발차를 해버리고 난 뒤였습니다. 나는 택시라도 잡아타려고 했습니다만 택시 운전수는 내가 세우라는 말을 듣는 체도 안하고 곧장 지나가 버리기만 했습니다. 나는 다시 근처에 있는 자전차를 발견하여 이것을 타고 집으로 가려고 했지만 타고 가려는 순간 앞

바퀴의 타이어가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해석— 이것은 두 가지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꿈이다. 두 가지의 욕망 중의 한 가지가 다른 한 가지보다 좀 더 크게 움직이고 있지만 서로 견제하는 까닭에 두 가지를 다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러한 꿈이 생긴다. 이 꿈의 경우에 있어 주인공은 때마침 남편으로서의 충실을 다하고자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에 이를 전(前) 막역한 친구와 포커 놀음의 약속을 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출발을 주저하고 있었다. 이 사람에게는 놀고 싶은 의욕과 집으로 가야겠다는 의무감의 두 가지 생각이 반대의 방향으로 강력히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이 꿈에서 겪은 낭패(狼狽)는 여행지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약속한 친구와의 환락도 저버릴 수 없다는 진퇴양난한 마음의 상태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발이 땅에 붙어서 떨어지지를 않는 꿈도 이러한 종류의 꿈이다. 이것도 역시 꿈의 주인공이 현재 있는 위치에 머물러 있고 싶다는 생각과 한편 유혹을 피해서 자리를 떠나야 하겠다는 두 가지의 상반된 의욕의 싸움을 마음가운데 가지고 있을 때에 흔히 볼 수 있는 꿈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꿈을 깨버림으로서 해결을 보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5. 시험(試驗)을 받는 꿈

예— 나는 수학시험을 받아야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치러야 할 수학에 대해서는 백지상태에 가깝도록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시험실에 앉아있기는 했지만 문제를 보고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도 못되는 자신의 능력이 한심스럽게만 생각되어 얼굴이 뜨거울 지경이었습니다.

해석— 이것은 항상 일에 대하여 준비가 없거나 실패를 거듭해 온 사람들이 꿀 수 있는 종류의 꿈이다. 이와 같은 꿈에 있어서는 과거에 겪은 일이 있든가 또는 합격을 한 일이 있는 시험의 장면을 꿈에 보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이 꿈은 대체로 새로운 일에 착수할 경우와 같은 그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없는 문제에 당면해 있을 때에 나타난다.

이 꿈은 새로운 난관에 봉착해서 가능여부가 걱정될 때 마음속으로 자기의 성공을 믿어보려고 하는 노력의 표시라고 볼 수 있다. 자기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실패에 대한 걱정을 지워버리고 용기를 얻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꿈을 꾸게 된다.

6. 친근자(親近者)의 사상(死傷)을 본 꿈

예(1)— 나는 들을 걸어가다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실상 그는 서른다섯이나 되는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열댓 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로 보였습니다. 죽은 시체를 보고 참 귀여운 소년이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슬픈 마음은 전연 없었습니다.

예(2)— 나는 이웃집 부인을 만났는데 그는 난데없이 나의 형의 장례식이 언제 거행되

꿈의 상징(象徵)과 그 해석(解釋)

상징	해석
간호부, 여왕, 늙은 부인, 교사	모성애 또는 여성의 품위
경관, 의사, 두목 또는 영도자	아버지
대양, 호수, 연못, 우유, 소	어머니
건물, 집	여자
교회, 수녀, 흰색깔	순결
뱀, 곤봉, 펜, 검, 총, 장대기	남성의 성적상징
동굴, 지갑, 반지, 열려진 문, 창구	여성의 성적상징
영악한 동물	죽음에 대한 공포
음식물	행복, 안전
폭발	수치에 대한 공포
불, 밝은 색채	정열
기차 또는 선박여행	생활의 향방
등산 또는 높은 곳의 등반	야심 또는 남성적 정욕
강하 또는 추락	실패 또는 의기의 소침
스스로 상처를 입히는 것, 이가 빠지는 것	자해의 충동
아름다운 화초	로맨틱한 사랑
돈	사랑
수갑 또는 몸을 조이는 의복	양심의 가책
차량의 운전	흡족한 감정의 표시

는가를 물었습니다. 나는 형의 죽음이 언제 있었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석— 예(1)의 꿈은 죽음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어린 시절의 가장 친하던 친구와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소원의 표시라고 볼 것이다. 이것은 2차 대전 시 일선에서 후방 근무로 전속명령을 받은 한 군인의 꿈인데 그의 친구는 그 당시 위험한 전투비행임무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한다.

예(2)의 꿈은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노여움의 표현을 의미한다. 이 꿈속에서 죽어 보인 형은 실제에 있어 아버지로부터 가업의 계승을 받은 후로 이 꿈을 꾼 동생에 대하여 억울하게 생각할 정도로 독선적인 태도만을 보여 왔던 것이다. 동생은 형의 집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 전 월급 인상의 청을 들었을 때도 그는 동생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종류의 꿈은 반드시 그 사람의 죽음을 원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기의 불리한 입장이 해소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7. 추락(墜落)의 꿈

예— 나는 어떤 높은 탑의 사닥다리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한참동안이나 올라가다가 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려다보는 순간 이상한 힘이 내 몸을 끌어가는 듯한 감이 들더니만 갑자기 굳게 잡고 있던 손의 힘이 풀리면서 나는 허공중에 그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공포에 싸여 떨어지는 도중에서 잠을 깨고 본즉 꿈이었습니다.

해석— 이 꿈도 역시 마음 가운데에 상반되는 충동을 느끼는 사람의 꿈이다. 특히 환경의 유혹을 굳게 거부하려는 경우에 생기게 된다. 추락은 유혹에 대한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굳게 잡았던 손이 풀려져 보인 것은 그만큼 현실의 유인 요소가 컸다는 것을 말한다.

이 꿈의 유인은 성적인 유혹을 상징하고 있었다. 꿈의 주인공은 행복스러운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였는데 자기와 친근한 사이로 지내고 있던 어떤 미모의 과부가 그에게 연정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그 전날에 이르러 알게 되었던 것이다.

8. 같은 꿈의 반복(反復)

예— 나는 마음에 끌리는 어떤 미남의 청년과 한자리에 있게 되는 꿈을 과거 반년동안에 여섯 번이나 되풀이해서 꾼 일이 있습니다. 매번마다 나는 그를 껴안아보려고 했는데 껴안으려고 하기만 하면 그는 보기에도 흉한 노인으로 변해버리곤 하였습니다.

해석— 동일한 꿈의 반복은 어떠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관심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문제의 성공적인 해결을 다시 한 번 시도하여 보려고 하는 생각의 표시라고 본다. 이 꿈의 경우에 있어서 꿈꾼 사람은 결혼에 대하여 극도의 공포증을 느끼고 있는 서른다섯 살의 노처녀였다.

이 처녀는 처음에는 매우 행복스러웠으나 나중에는 아버지가 알코올중독이 되고 어머니는 정신분열로 광증을 보이게 된 비참한 가정의 출신이었다. 사람의 결혼에 대한 관념이란 일반적으로 그의 양친의 결혼생활의 관찰에서 형성된다는 점으로 미루어보마 이 처녀의 경우에 있어서는 결혼은 한 가지의 공포의 대상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매력 있는 청년이 추한 늙은이로 화(化)하는 것은 결혼이란 처음에는 아름답게 보이다가도 결국은 추잡한 관계로 변하고 마는 것이라는 그가 어려서부터 느껴오든 고정관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9. 꿈속의 꿈

예— 나는 꿈속에서 내 처가 죽은 꿈을 꾸고 꿈을 깬 다음 친구에게 그 꿈 얘기를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해석— 이것은 가장 신기하게 생각되는 꿈으로서 매우 흥미를 끄는 문제의 한 가지다. 이러한 꿈은 엄밀한 현실의 사건이 현실이 아니고 꿈에 지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이것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랑이 신부가 중한 폐병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꾼 꿈이다. 신부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남편이 진단의 결과가 현실이 아니고 꿈이었으면 하고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0. 예언(例言)의 꿈

예— 나는 지배인이 사무실로 와서 내 봉급이 오르게 되었다고 말해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다음부터 내 봉급이 5불씩 더 오르게 될 것을 말했는데 과연 다음 봉급날에 봉투를 뜯어본즉 틀림없이 5불이 더 많아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석— 이런 종류의 꿈은 꼭 미래를 예언하는 꿈은 아니다. 과학자들 가운데도 이러한 꿈의 예감적 요소를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마음속으로 봉급의 인상을 늘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 꿈의 원인이 되어있다. 이 꿈의 주인공은 평소에 있어 근무성적이 매우 우수한 청년이었는데 그의 회사에서는 전부터 봉급은 한몫에 5불씩 인상되는 것이 상례로 되어있었다. 이 꿈이 있은 후에 마침 월급의 인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우연의 일치라고 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가 다 알려고 하는 사실이지만 특히 과학자들은 서방 꿈의 해석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수천수만의 꿈을 수집하면서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이상에 예거(例擧)한 해석(별표도 아울러 참조)은 이러한 연구의 일단(一端)을 소개한 것으로서 우리가 흔히 보면서도 해명에 고심을 하던 꿈의 풀이를 위하여 좋은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아직도 이 연구는 초보적인 시도의 단계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꿈을 가리고 있는 상징의 해득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오늘에 있어 인간의 꿈이 반드시 어떠한 구체적인 의미를 내포한다는 사실만은 틀림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대과학의 힘은 불원한 장래에 있어 종종 우리를 놀라게도 하지만 때로는 무한이 아름답기도 하고 이상스럽기도 한 그러나 언제든지 의미심장한 뜻을 함축하는 수면속의 경험세계로 통할 수 있는 해명의 대로(大路)를 완성하는 날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끝)

재무장한 서독은 다음과 같은 국방력을 유지하게 된다

- 6개 기갑사단
- 6개 기계화한 보병사단
- 3개 공정여단(空挺旅團)
- 20개 비행단(飛行團)
- 1,326대의 전투용 항공기
- 180척의 해군함선
- 370,000명의 육군
- 70,000명의 공군
- 20,000명의 해군

전도요원(前途遼遠)한 서독(西獨)의 재무장(再武裝)

그 부진(不振)한 이유(理由)와 계획(計劃)의 전모(全貌)

박병화 역(譯)

몇 해 동안에 걸친 회담 끝에 서독은 이제 재무장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공격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여 긴급히 서둘지 않고 있다.

서독의 재무장이 완료되는 날에는 서독은 유럽에 있는 그 어느 연합국보다도 많은 군대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수천대의 제트기와 탱크, 최신 원자장구 심지어는 잠수 함대까지 보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서독의 재무장계획은 당초에는 2개년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앞으로 최소한도 5년은 요할 것 같 다.

X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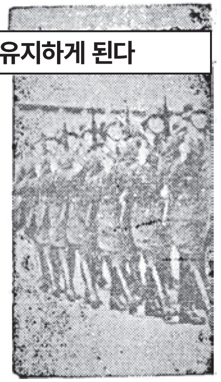
★ 서독수도 본에서

서독군이 소련에 대한 서방의 방위에 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은 1960년이라는 것이 현재 명백해지고 있다.

서독의 재무장은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그 진도는 완만하다. 콘라드 아데나우어 수상은 소련과의 외교회담이 성립될 때까지 재무장계획을 전적으로 지연시키라는 모종의 압력을 받고 있다. 아데나우어 수상은 모든 그러한 제의를 일축하고 있으나 연합국 군사지도자들은 서독의 신속한 재무장에 대한 희망을 단념한 지 오래이다. 현재의 계획은 1955년 12월까지에 불과 6,000명의 장교와 하사

재무장한 서독은 다음과 같은 국방력을 유지하게 된다

1955년 12월까지	최초로 장교 하사관 6,000명을 보유한다.
1956년 봄까지	서독군의 핵심을 이룰 150,000명의 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병을 실시한다.
1958년까지	최초로 징병을 개시한다.
1960년까지	전투태세를 갖춘 370,000명의 지상군을 완비한다.



관을 모병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순 지원제에 의한 150,000명의 간부급 직업군인의 확보에 본격적인 노력을 경주하게 되는 것은 1956년 봄의 일일 것이다. 현재의 계획은 1958년부터 징병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국의 군사지도자들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서독은 일단 시작만하면 2, 3년내에 재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었다. 1952년에는 22개월 이내에 독일군 12개 사단을 편성하려는 한 공식계획까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야기가 다르다.

현재의 전망은, 서독군이 편성되고 응소자로서 충당되어 훈련되고 전투태세를 갖추게 되기까지에는 5년을 요하리라는 것이다. 서독정부는 3년 이내에 독일군을 재무장할 수 있다고 확언하고 있지만 이것은 현재 본에 있는 대부분의 미국 당국자들의 공통된 견해인 것이다.

드디어 구체화하고 있는 독일재무장계획에 의하면 동 계획이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날에는 독일의 재무장을 좌절 혹은 최소한도로 약화시키려는 모든 공산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독은 철의 장막 서방의 유럽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근대적인 군대를 가지게 될 것이다. 사실상 독일의 상비사단은 수적으로 현재 유럽대륙에 유지되고 있는 영국, 프랑스, 벨기에 및 네덜란드군 전체에 필적할 것이다.

더욱이 서독은 2,00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며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영국 및 프랑스군 전체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숫자인 최소한도 3,000대의 탱크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밖에 서독은 낙하산부대, 잠수함, 최신형 제트기 등 원자무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서독군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다른 나라

군대와 마찬가지로 원자폭탄, 원자포, 로켓 및 유도탄으로 무장한 미군부대로부터 원자공격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 대기 중에 있는 무기

미국은 이미 서독의 재무장목표인 12개 사단과 20개 비행단의 절반을 위한 대부분의 큰 장비품을 저장해놓고 있다. 서독은 제1단계로 무기만으로도 9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의 확약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는 1,000대의 패턴 형(型) 탱크와 600대의 제트전투기가 포함되어 있다.

5년 동안에 걸쳐 토의되어온 서독재무장계획은 무려 150억 달러를 요하는 방대한 과업이라는 것이 현재 밝혀지고 있다. 다년간의 빈곤 끝에 전례 없이 번영하고 있는 서독인들은 이 부담을 좋아하지 않고 있지만 필요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초기의 예정보다 왜 더 오랜 세월을 요할 것인가에 대한 일부 이유를 알 수가 있다. 현재 수립되고 있는 계획에 의하면 350,000명 이상의 새로운 병력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그밖에 아직도 쓸 만한 제2차 대전 시의 고병(古兵)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다. 서독에는 단 하나의 병기창도 남아있지 않으므로 무기생산 공장도 건설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군사기지와 병사(兵舍)도 그렇다. 서독건축업의 4분의 1은 국방시설로 전환되어야 하며 현재 국내시장을 위하여 생산하고 있는 트럭 공장의 절반도 국방에 충당되어야 한다.

새로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서독 국방당국에서는 미국, 영국 및 프랑스의 최신기술시험부대를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그들은 모든 독일부대를 제2차 대전과 같은 전투가 아니라 원자전투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원자폭발이 발생하는 열에서 인원을 최대한도로 보호하기 위하여 한 벨기에 인이 발명한 복장재료표까지 채택되어 있다.

★ 육군

현재의 계획에 의하면 신생 서독지상군은 370,0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그것은 6개 기갑사단, 완전히 기계화된 6개 보병사단, 및 각각 5,000명으로 편성된 3개 공정여단으로 구성될 것이다. 1개 보병사단은 13,600명으로 1개 기갑사단은 12,800명으로 각각 편성될 것이다.

서독군 1개 보병사단은 7개 보병대대로 편성될 것인데 미군 1개 사단은 9개 보병대대로 편성되어 있다. 연대는 없고 오직 1개 사단에 신축성있는 2개 전투사령부가 있을 다름이다. 각 전투사령부는 그에 예속된 많은 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기동 부대 사령부가 될 것이다.

서독육군에는 도보보병부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미군 기갑사단 보병사령부대와 마찬가지로 각 사단은 각각 12명의 무장병을 운반하는 특수한 자동차로 장비될 것이다. 현재의 계획에 의하면 신생서독육군은 6,000대의 이와 같은 자동차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 양은 모든 보병에게 완전한 국가횡단기동성을 주는데 충분한 것이다. 현재 각 미군 보병사단은 그러한 자동차를 불과 7대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서독군 각 사단은 약 600대를 가지게 될 것이다.

10개 서독군 사단은 4개 군단으로 편성되어 중부전선으로 배치될 것이다. 2개 사단으로 구성된 또 하나의 군단은 NATO의 북부사령부 휘하에 슐레즈위그 홀스타인 지구에 배치되어 덴마크에 대한 침공을 방위할 것이다.

★ 공군

서독공군의 총병력은 70,000명에 달할 것이며 부대수송기 2개 비행단과 200대의 훈련기 이외에 1,326대의 전투용 항공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서독공군은 완전히 제트기로 장비된 18개 전투비행단, 6개 요격비행단 - 그중 2개 비행단은 전천후전투기로 장비 - 및 2개 정찰비행단을 가지게 될 것이다.

서독공군의 계획은 처음에 2,000명의 전투조종사를 훈련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500명은 교대로 미국에 가서 훈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밖에 전독일공군의 베테랑 120명이 바바리아에 있는 3개 미 공군 제트기지에서 6개월간의 교육을 받게 될 것인데 그 후에는 이들이 다른 독일조종사의 교육을 대부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서독은 처음에 그 전폭비행단을, 미국의 F-84F 후퇴익의 선더어스트리이크로 장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서독정부는 또한 그들의 주간전투기로서 300대의 제트기를 영국으로부터 구입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항공기의 예비부분품과 엔진은 후에 허가를 얻어 서독에서 생산될 것이다.

★ 해군

서독재무장에는 해군도 계획되고 있다. 서독해군은20,000명의 병력과 180척의 함선을 보유하게 될 것인데 그 중에는 2개 구축함전대와 300톤급 소형잠수함 20척이 포함되어 있다. 서독 해군은 또한 대잠수함 및 정찰임무를 위한 100대의 항공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해군기습부대도 편성될 예정이며 그러한 부대는 발틱 연안에 대한 기습공격을 위하여 탱크를 운반할 수 있는 350톤급 상륙주정(上陸舟艇)으로 장비될 것이다.

이상이 현재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서독재무장계획의 개요이다. 1950년에 최고조에 달하였던 소련공격에 대한 서독의 공포는 스탈린이 죽은 이래 감소되었고 최근의 소련의 소위 협조행동이 있은 후부터는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사실상 일부 서독 정치지도자들은 소련과의 협상이 성립될 때까지 재무장을 연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아데나우어 수상은 이와 같은 제의를 일축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서독재무장 계획의 긴급성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끝)

피분 태국수상(泰國首相) 영양(令孃)
미국장교(美國將校)와 결혼(結婚)

태국 수상 피분 송그람 씨의 막내딸 송그람(20) 양과 그의 남편인 미 해군장교 랄프 J 페로타(22) 중위는 현재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신혼여행 중에 있다.

양인(兩人)은 지난번 결혼식을 거행하였다. **가위와 풀에서**

리더십 문제(問題)

전포로(前捕虜)가 호소(呼訴)하는 리더십 문제(問題)

데비드 에프 맥키
이태현(李泰鉉) 역(譯)

군인으로서 전쟁포로로 공산주의자 수중에 넘어 갔을 때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군인으로서의 자기의 의무와 개인 생존과의 관계다. 포로수용소 내에서의 개인 생존의 욕망은 기본적인 동물 본능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동료 간의 교제에 있어 포로수용소 내에서처럼 비인도적인 인간관계가 공공연하게 행하여지는 곳은 없을 것이다. 각 개인 인간의 가치와 행동기준이 직접 우리 국가의 위대성을 증진시키는데 공헌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우리 미국인으로서는 적의 수중에 들어간 후에도 도의적 행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피치 못할 각자의 책임이 될 것이다. 내가 전쟁포로로서 북한공산주의수용소 내에서 지낸 1,030일 동안 가장 절실히 부족을 느낀 것은 음식도 아니었고 의료품도 아니었고 피복도 아니었다. 가장 바랐던 것은 헌신적이며 완전히 이기주의를 떠난 리더십이었다.

오늘까지 미국의 신문은 끄는 말보다는 굴리는 마차에 더욱 치중하였으며 국가의 이익보다는 개인에 관한 흥미 있고 동정적인 이야기에 더욱 관심을 표시함으로서 일반국민의 마음속에 인간관계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오해를 조장하였다. 이와 같은 국민 여론의 오도의 결과 굴러가야할 마차가 도리어 밀고 있으며 이 마차를 정지시키지 않는 이상 우리 군대 내의 리더십 능력은 퇴폐를 계속할 것이며 드디어는 마차가 말을 밀어서 도덕적 나락으로 몰아넣고 말 것이다.

우리들 미국인은 전장(戰場)에 처하는 사람의 입장에 관하여 두 가지의 그릇된 오해를 범하고 있다. 그 하나는 우리가 임의로 전쟁에 참가할 수도 있고 무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며 또 하나는 서로 대적(對敵) 발포가 끝나는 순간에 전투가 실제로 종료된다는 생각이다. 특히 이 후자의 허위성이 현재의 오해의 대부분을 초래하였으며 국민 여론의 오도를 결과한 것이다. 칼폰 크라우제비츠는 “전쟁은 별개 수단에 의한 외교의 계속”이라고 말하였으며 공산주의자들은 “전쟁은 투쟁의 최고형식이며 각 개인은 반드시 그 한편에 가담하여야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런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인간의 마음 및 생활양식의 우월을 위

한 투쟁은 각종 각색의 수단, 무기 및 정도의 계속적인 투쟁인 것이다.

군인은 잘 무장되고 지원된다면 자기의 최고의 힘과 능률로서 전투에 참가할 수 있다. 중요한 문제는 그가 만일 포로가 되었다고 해서 딴 방법으로 그리고 필요하다면 혼자서 투쟁을 계속할 책임이 면제되느냐 하는 점이다. 여러분은 물론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은 적에게 굴복하는 것이며 조금 전까지도 군인으로서 자기생명을 걸어서 수호하는 원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전장에서 싸워서 수호한 가치 있는 우리의 생활양식이라면 적의 수중에 들어가고 적의 우세에 포위되고 무장이 해제되고 완전히 외부지원이 없어졌다고 해서 어찌하여 그것을 계속 수호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투쟁을 계속하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과거 및 장래의 포로의 거취에 대한 문제와 장래의 인원에 대한 보다 낳은 훈련에 대한 해답을 다음에 말하겠다. 포로가 된 후 우리의 생활양식을 계속 방위하였는가, 또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였는가, 또는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로서 적을 원조하였는가, 적에 대한 각자의 태도는 도의적 원리가 개인적 생존욕망에 굴복하느냐를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며 적극적 리더십과 소극적 리더십 그리고 적에 대한 저항과 협조의 분할선이 되는 것이다.

공산주의포로수용소 내의 생활에서 우리는 계속 투쟁하는 많은 방법을 발견할 것이다. 즉 예를 들면 수용소 내의 일상생활에 있어 미국식 생활양식의 원리의 우월성을 행동으로 표시함으로서 또는 미국인으로서 도덕적으로 옳다고 믿는 기준을 따르고 실천함으로서 투쟁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다.

재능, 총명, 지식, 기략(機略), 인내, 용기, 이것이 다 무기다. 투쟁은 보통 도망의 준비라든가 선전요구에 대한 공공연한 항거라든가 사상적 토론 등의 확실한 형태를 취한다. 패배와 후퇴를 당하는 수도 있다. 그러나 요(要)는 어떠한 시간이나 환경 하에 있어서도 가능한 수단방법을 가지고 투쟁을 계속하여야 한다. 자기가 자신을 존경하여야 적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례를 하나 들겠다. 적은 우리의 도덕적 소질을 최대한으로 시험할 것이며 그 결과 발견되는 어떠한 약점이라도 이것을 자기들 이익을 위하여 악용할 것이다.

우리들의 마음의 안정과 성공의 정도는 직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원리의 강도에 비례하는 것이다.

어떤 장교는 자기부대가 적에게 포위되어 교전 중 탄약이 떨어져 마침내 공산군의 포로가 되었다. 포로가 된 이 장교에게 공산군은 죠지 마샬 장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였다. 마샬 장군은 미국의 위대한 장군이라고 그는 답변하였다. 이런 답변을 하자 그 자리에서 소총 개머리판으로 얻어맞아 땅에 쓰러졌다. 한참 후 정신을 차려 일어나자 그는 같은 질문을 다시 받았다. 대답은 역시 같았다. "마샬 장군은 미국의 위대한 장군이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 체형을 받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그는 자기의 도덕적 성실의 견고함을 표시한 것이다. 이것은 한 개의 작은 싸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이 싸움으로서 자기 자신과 자기 군대와 자기 국가에 대한 존경을 획득한 것이다.

30년간의 미국생활이 이 장교에게 가르쳐준 미국인으로서의 도덕적 정의(正義)를 그 후 3년간 포로수용소 내에서 이 장교는 실천하였던 것이다. 확실히 그는 여러 번 패하였다. 한 번은 자기 동료 포로 50여명이 공산주의 선전방법에 순응함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식사공급이 중단되자 그는 후퇴하였고 지휘관의 결심을 내려 동료에게 서명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시종일관 지휘관으로서의 완전한 리더십책임을 졌던 것이다. 그에게는 창피스러운 패배였다. 그러나 그가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계속 리더십을 발휘하였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사상투쟁을 하였다. 그는 공산주의 강제주입교육에 반대하는 선봉적 역할을 하였으며 1951년 봄에 이 교육이 폐지됨으로서 그는 승리하였다. 그는 포로의 생활조건 향상을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동시에 적의 군사신문(軍事訊問)제도를 파괴시킬 목적으로 중공군은 북한인을 열등민족으로 멸시하고 북한인은 중공군을 정복자로서 '동양의 아리안 민족'으로서 적시(敵視)하게 하여 그들을 이간시키는 행동을 공작하였다. 그는 집단저항을 전파시켰다. 그는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였으며 드디어는 희생을 당하였다. 공산군은 그를 일반포로로부터 격리수용하였다. 그러나 투쟁은 역시 계속되었다.

그의 개성의 발로와 처벌당할 때 취한 행동으로 그는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표시하였다. 그 결과 한 중국인 사환(使喚)은 그를 고급장교식당에 안내할 때 새치기하는 중공군 장교 및 포로신문자를 제지하면서 이 미국 손님이 "넘버 원 띵호후"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미국식 생활양식으로 볼 때 한 개의 작은 승리에 지나지 않으며 중공군간부들에 대하여서는 모욕이 아닐 수 없었다. 과연 그들은 이 장교를 독방 감금함으로서 즉시 보복하였다. 패배? 그렇다. 그는 패배하였다. 그러나 그는 있는 수단을 다하여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를 위하여 계속

투쟁하였다. 그는 전투에서 자기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꺼리지 않았으며 포로가 된 후도 미국인으로서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바를 자기 최선을 다하여 실천하는데 있어 자기의 생명 희생과 고통을 개의하지 않았다.

수용소에서는 처참히도 리더십이 부족하였다. 이 사실은 군대에 가련하게도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병이 느끼는 군대의 가치마저 저하시켰다. 또한 이 부족은 공산주의자에게도 직접 작용되어 우리의 생활양식에 대한 모욕을 가하였으며 우리들을 서로 이간시켰으며 우리 하급 장병 간의 치열한 반항의식을 감소내지 말살시켰다. 전반적으로 보아 적의 처벌에 대한 공포 및 반항 지도(指導)의 주저뿐만 아니라 실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안이(安易)에의 은퇴 및 개인 위험과 불안의 기피가 있었다는 것이 그들의 행동으로 증명되었다.

개인의 인격, 안정된 감정, 논리적 사고방식, 행동모범의 표시, 개성, 판단력, 실천력 등을 기본으로 한 부하의 지지를 획득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리더십의 발전이야 말로 공산치하의 포로수용소 생활조건에서 가장 요망되는 것이다. 공산지도자들은 계급 및 군대의 권위와 각 계급 간의 예의를 무시하고 국민적 명예를 파괴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할 것이다. 또한 지지자보다도 계급이 높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주동하였을 때 그 행동이 단지 주동자의 계급이 높기 때문에 지지를 받는다든지 또는 반항포로분자 혹은 후일의 군법회의의 위협 공포로 인하여 지지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공산주의자에 의하여 증명되는 날에는 그 주동자는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미국인으로서의 도덕적으로 정당한 입장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건전한 토론에 입각한 반항 지도는 결국에 가서는 공산주의자의 관심을 초래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려고 할 것이다. 이리하여 때로는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요구를 변경한다. 그러나 또 때로는 간단히 무기를 가진 것은 자기들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리더십을 말소시키는 방법으로서 그 리더십을 일반포로로부터 격리시킨다.

우리의 이 리더십 토론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즉 허약하고 기회주의적인 우리의 포로들은 하나 빠짐없이 자신(自信)의 결핍, 감정의 불안정, 판단의 오류, 도덕적 원리보다도 강한 개인의 생존욕망, 고통 및 독방감금에 대한 개인적 공포,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단을 두려워하는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포로가 될 전후(前後)의 지휘관의 행동을 하급자가 볼 때에는 역시 같은 리더십의 부족을 느낀다. "내가 시장이 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원칙에 입각한 리더십은 언제나 포로의 전적인 지지를 얻으며 완전히 이기관념을 떠나 적극적인 협조를 얻을 것이다. 우선 이것을 실천할 것이며 다음은 지도자가 공산주의자의 탄압으로 희생되었을 때 즉시 그 리더십을 인계받아 전진할 수 있는 지지자를 준비하여야 한다.

상당수의 장교가 최고의 리더십능력을 구비하여야 할 계급에 승진되었으나 아래서 볼 때 역시 리더십능력이 없다는 것이 포로수용소 내에서의 동료 희생 및 상급자에 대한 계속적인 아부, 또는 경거망동으로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

본인은 본국으로 송환된 후 여러 사람들과 면담하였다.

대부분 사람들은 포로로서의 행동문제에 대한 명확한 개인적 판단을 하지 못한 포로들의 착오를 변명 정당화하는 데에 이 문제 논의의 주관심점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들이 대중의 여론을 두려워하고 또한 리더십의 필요성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이다. 또는 자기들이 부득이 필요가 있을 때까지는 비판의 대상이 될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 무서운 책임의 기피는 도덕적 타락의 자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몇 개인의 행동이 그릇된 인도주의의 보호 하에서 국가이익을 무시하고 국민의 도덕적 부패를 촉진하는 것을 방임하여서는 안 된다. "나는 그때 없었다.", "나는 그 사람보다는 덜 잘못했다." 등으로 자기를 변명하는 것은 회피주의며 이것이야말로 직무태만이 아닐 수 없다. 각 장교 및 하사관은 자기들의 봉급을 지불하여 주는 국민이 자기들에게 위임한 국가이익과 안전의 요소를 명심하고 행동으로서 실천할 의무가 있다.

과거 및 장래의 포로의 행동은 개인 생존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국가이익 및 안전의 입장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원리를 왜곡하고 약점 또는 판단의 착오를 변명하기 위하여 인간적 동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도덕적 허약을 은폐하고 그 허약을 다시 조장하기 위하여 '세뇌공작', '정신적 자살' 기타 다수의 정신병리학적 용어를 사용하여 포로의 불량행동을 정당화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의 도덕을 구성하는 원리가 인간의 존엄성 및 자유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위대하여진 것이며 이 개념을 보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사회의 어느 개인 또는 개인집합체의 이기적 이익보다도 국가적 이익 및 안전이 절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다. 어떠한 행동이 고 그것이 적을 원조하고 적에 이익을 주고 적을 평안하게 하였다면 우리의 국가이익은 적절히 보호되지 않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론상으로 볼 때 우리 군대의 장교단은 우리 국가의 최고 리더십의 정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계급이 높을 수록 리더십의 책임과 그 리더십의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수범(垂範)이 요구되는 것이다. 리더십의 발휘는 어느 일정한 환경 하에서 요구될 뿐만 아니라 장래의 리더십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런 수범은 우리 군대의 명예와 전통의 위대함을 반영시켜야 하며 또한 장래에 대하여 미국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어 장구한 군대전통을 구비한 최고의 도덕적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절대적인 신뢰의 눈으로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고급장교를 존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생존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리더십의 포기란 우리 군대에서는 있을 수 없다.

미국군대의 일원으로서 군복을 착용할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동시에 미국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측 못할 시기에 자기생명을 희생할 가능성을 승낙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입대시의 복무서약서에는 개인이 기입하는 장소가 없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 같다. 즉 서약서에는 어느 시기에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죽겠다는 각 개인의 희망을 기입하는 공란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국가이익의 요소를 보호하는 전투에서 우세한 적과 대진하였을 때는 상황에 따라 자기 위치에 우군 포탄낙하를 자원한다든지 또는 적 수중에서 단독으로 투쟁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여서라도 그 지위와 그 배경이 되는 원리 원칙을 사수하여야 된다는 것을 각자는 다 잘 알고 있다. 개인생존이나 안락을 원리 원칙보다 더 치금(置金)하는 것은 우리 국가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 권리는 무엇이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들은 개인생존의 욕망은 모든 동물본능 중 가장 강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다.

인문과 동물의 차이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즉 이성(理性)에 있는 것이다. 선악을 구분 못하는 포로는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난 사람중의 몇 명은 선악 구별의 능력은 있었으나 평이(平易)한 길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였다. 동물적 본능이 종교적 원리나 자기의 명예를 유린(蹂躪)함으로서 자기가 입은 군복이나 국가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그의 양심은 그의 남은 평생을 통하여 그 사람을 가책할 것이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희생한 사람은 부지기수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대단히 용이한 일이다.

자기가 착용하고 있는 군복이 부여하는 책임의 중대성을 인식 못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인내와 이해를 베풀어 국가복무에 재기(再起)하도록 원조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이익을 무시하고 리더십 책임의 회피를 정신병리학으로 정당화한다든지 또는 개인생존욕망에 대한 고려로 무마한다든지 하는 것은 국가적 도덕 나락의 길에 올라서는 것이다.

(역자(譯者) 공군중령(空軍中領))

<필자 소개>

맥기 소령의 전쟁포로 행동에 관한 철학의 스파르타식 색채는 공산포로수용소 생활의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좀 이상한 인상을 줄 것이다. 그러나 맥기 소령은 자기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실제로 알고 있다. 그는 공산포로수용소에서 근 3년을 지냈으며 이 동안 딴 사람이 견디지 못한 가혹한 심신양면의 고문을 계속 당하였다.

당년 34세의 데이비드 폴레스트 맥기 소령은 1941년 사관후보생으로 공군에 입대하여 항법사로 임관되었다.

제8공군에 배속되어 B-17 폭격기로 25회 출격하는 동안 수훈비행십자훈장, 조종훈장(첨엽장(添葉章) 3개)을 수여받고 귀국하여 전투공중근무자 교육을 담당하였다. 귀국 도중 추락한 B-24의 승무원을 구조하여 군인훈장을 받았다

계속 공군에 복무 중 1950년 9월 B-29 관측사로서 한국전쟁에 출정하였다. 1950년 11월 10일 그의 B-29는 북한상공에서 최초로 적 MIG-15의 공격을 받아 추락되었다. 포로가 된 그는 1953년 9월 5일에 본국에 송환되어 현재 미 공군본부 작전국 심리작전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뉴저지 주 무어스타운 출신 부인 벳티와의 간에 2남 1녀가 있다.

맥기 소령의 최대 화제는 1951년 5월에 있었다. 그때 그는 2명의 동료와 수용소를 탈출하여 배로 대동강 어구에 있는 UN군 점령하의 초도(島)를 향하야 섬 바로 앞까지 도달하였을 때 불행히도 적에게 다시 나포되어 재수감되고 동료와 함께 심한 고문을 당하였으며 적은 담뱃불로 지졌다. 맥기 소령의 손톱 발톱들은 거의 다 이때 빠졌다.

그러나 그는 그 후도 적에 협력하지 않고 점차 공산주의선전에 저항하는 포로의 지하조직의 지도자가 되었다. 끝끝내 저항하는 소위 '불사조'들은 공산 측과 협조하는 소위 '진보분자'들과 대항하였으며 그들을 '카나리아'라고 별명 지었다. 카나리아들이 수용소본부에 호출되면 의례히 불사조들은 합창을 하였다. 카나리아들은 허위정보 유포시켰다. 그중의 하나는 미국 초장거리용 폭격기 B-108을 만들었으며 이 비행기는 승무원의 재입대 복무수속을 하기 위하여 3년에 한 번씩밖에 착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카나리아들는 자기들 일파(一派)의 훈련을 시작하였다.

이 카나리아들의 선동으로 맥기 소령은 사격장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는 눈을 가리고 끓어 않아 사격수의 장전(裝塡)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맥기 소령의 반공산행동을 자백시키려는 간계였었다. 드디어 그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무인계곡'에 부상되어 수용되었다.

맥기 소령은 포로가 된 후부터 1952년 1월까지 소위 세균전술 자백 선풍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을 극력 피했다고 자백하고 있으며 또한 12개월 내지 19개월간 강요당하고도 드디어 자백하지 않은 사람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맥기 소령 이야기의 중점은 개인 및 국가를 위한 리더십 및 책임 관념에 대한 호소이며 이 개념은 전국 미인(美人) 특히 제복을 입은 군인이 재삼 반복 명심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인류사회(人類社會)에 공헌(貢獻)한 사람들>

링컨과 소년시절(少年時節)

미합중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1809년 켄터키 주 변경에서 가난한 농부 겸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중한 노동을 하여가며 독학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획득하였으며 우편국장 일리노이 주회 의원을 거쳐 1846년 하원의원에 선출되었다.

1856년 노예 폐지문제가 일어나자 인도주의의 입장에서 노예제도의 폐지를 강경히 주창함으로서 1858년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후보와 다툰 결과 낙선되었으나 그의 노예반대자임과 미합중국의 통일주의자로서의 명성은 날로 높아가서 1860년에는 공화당의 추대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남부의 6주는 그때 바로 연방에서 탈퇴를 결의하고 그해 11월 아메리카연합국을 조직하여 자체의 헌법을 제정하는 한편 리치먼드를 수부로 정하고 제퍼슨 데이비스를 대통령으로 추대하였다.

그 후 이 남부 아메리카연합국에 다시 5주가 가입하여 11주로서 남북전쟁을 준비하였다.

링컨은 민주주의의 옹호와 아메리카연방의 통일주의사상으로 해서 남북전쟁을 결의하고 1861년 1월 찰스톤 항의 충돌사건을 계기로 전쟁에 돌입하였다.

이리하여 동년 9월 노예폐지령을 선언하고 1863년 1월 노예해방을 실행으로 옮겼다.

이때 남부에는 민중의 지지를 받고 있던 로버트 리 장군이 있었으며 북부는 초기에는 유능한 군인도 적을 뿐 아니라 전비(戰備)도 열등하여 고전하였으나 그랜트(Grant) 장군의 힘으로 전력을 만회하여 선전하는 한편 남부 제주(諸州)의 노예들도 해방시킨다고 한 링컨 선언의 효과도 나타나 다시금 해군으로서 남부를 해상으로부터 봉쇄하였기 때문에 남부는 점차로 힘이 쇠퇴하여 드디어 1863년 7월 피터스버그의 싸움이 남군패전의 기로가 되었다.

이리하여 1865년 4월 북군은 리치먼드를 점령함으로써 리 장군은 그랜트 장군 군문에 투항하여 남북전쟁은 종결된 것이다.

1864년 링컨은 대통령에 재선되어 다음해 4월 14일 즉 리치먼드를 점령한지 만 1년하고 10일이 경과한 날 워싱턴 극장에서 남부출신의 부스라는 자에게 저격되어 다음날 아침 세상을 떠났다. 링컨이 한참 전쟁이 치열하던 1863년 11월 19일 게티즈버그의 전몰자묘지 건설식에서 행한 연설가운데 저 유명한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정부'라는 말은 그 후 미국 민주주의 정치의 이상으로 되고 나아가서는 세계 민주주의의 지표가 되었다.

이와 같이 입지전중의 위인인 링컨의 소년시절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일화가 남아있다.

그것들은 모두가 링컨이 용담(冗談)을 잘 해서 사람들을 잘 웃기고 정직하며 우아한 마음씨로 면학에 얼마나 정열적이었는가를 말하는 것뿐이다. 그가 탄생한 데와 같은 벽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날그날 살기 위해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격심한 노동에 쪼들렸다.

이런 곳에서는 들에 나갈 때에도 꼭 책을 주머니에 넣고 가서 틈만 있으면 독서에 열중하고 있는 링컨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지나친 게으름뱅이로 보였던 것이다. 이런 모습을 그의 부친한테 들켜 말 못할 게으름뱅이로 몰려서 야단과 매도 많이 맞았다. 그뿐 아니라 고용인 노릇을 할 때는 많이 쪼여오곤 하였다.

이럴 때면 그는 언제나 다만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풀이 죽어 있는 것이었으나 그의 심중은 여간 쓰라린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의 면학을 중지시키지는 못 하였다.

링컨은 생애를 통해서 학교라고는 1년도 못 다녔으나 그가 남긴 연설이나 문장은 대학자나 웅변가도 따를 수 없는 훌륭한 것들뿐이다.

태종우(太宗雨)

이조(李朝) 개국 21년 임인(壬寅) 5월 10일은 태종대왕이 훙거(薨去)한 날이다.
훙거에 임해서 대왕은 가뭄(한재(旱災))을 크게 걱정하시여
"내가 죽는 날 비를 오게 하여 주십사."하고 빌었다.
그 후 2백년이나 매년 대왕의 기진(忌辰)에는 반드시 비가 왔기에 그날의 비를 태종의 비라고 일컬어 왔다.
헌데 선조조(宣祖朝)의 신묘(辛卯)년에 한해서는 웬일인지 비가 내리지 않았다.
식자(識者)는 예측하되 임진(壬辰)의 병란(兵亂)을 근심했었다.

가위와 풀에서

세기(世紀)의 영웅(英雄)

맥아더 장군(將軍) 약전(略傳)

"노병(老兵)은 죽지 않았다. 단지 사라져 갈 뿐이다."
이 옛 노래와 같이 '위대한 노병 맥아더'는 역사상 길이 빛날 것이다.

그의 생애(生涯)의 빛나는 날

1945년 9월 2일 미주리 함상 항복서 조인식의 그날 맥아더 원수는 역사의 초점에 서 있었다.

세계를 뒤덮던 제2차 대전도 그날로서 종결된 것이다. 전쟁은 끝나고 자유는 왔다. 평화는 드디어 도래하였으니 아마 이날이야 말로 맥아더 장군의 전 생애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 아니었던가.

회고해보면 66년의 그의 생애는 이날 하루를 위하여 있었다 하여도 과언은 아니리라.

진주만의 기습으로 태평양전쟁에 돌입한지 4년 국운을 기우리고 전력을 다하여 악전에 악전을 거듭하다가 드디어 숙적으로 하여금 무조건 항복을 감수케할 완전승리를 축하하는 그날이다.

사이판 유황도, 필리핀, 오키나와 작일의 격전지를 점철하는 무수한 묘표(墓標) 그것만이 금일의 승리와 영광을 보상할 뼈저린 대가이기도 하다.

무지개 사단장(師團長)

맥아더 장군은 유서 깊은 명문의 출신이다. 맥아더의 일가는 맥아더 원수의 조부시대에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조부는 후년 위스콘신 주의 부지사까지 지낸 인물이었는데 그가 도미하자 1남 [맥]아더가 탄생하였으니 그가 맥아더 장군의 부친이다.

남북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맥]아더는 겨우 16세였으나 전쟁에 출정하기를 열원하였음으로 조부는 부득이 탐정을 시켜서 집을 나가지 않도록 엄중할 경계를 명하였다. 그러나 너무도 열심히 지원함에 못이겨 다음해는 드디어 출정을 허락하였다. 그때 계급이 소위였다.

자그마한 체구에 어울리는 소년다운 용모였기 때문에 동료의 장교들로부터 소년취급을 받았으나 일단 전쟁이 벌어지자 발군의 공을 세워서 용명을 떨쳤다. 사단장 연대장 이하 간부장교가 모조리 전멸하여 아군이 후퇴하였을 때 [맥]아더 소위만이 찢어진 군기를 사수하여 위기를 모면하였다.

또는 탄막을 헤치고 단신적진에 돌입하여 닥치는 대로 쳐부수고 자신도 중상을 입고 후송된 때도 있었다.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장과 훈장을 수많이 받고 영예의 개선을 하였다.

스페인전쟁(1898년)에는 사단장으로서 필리핀공략전에 참가하여 마닐라 점령의 선두를 차지하였다. 이것이 기연이 되어 필리핀군정관에 임명되어 주둔미군의 지휘를 위임받았다.

약 10년 후 1912년 겨울 64세로서 퇴역하였을 때는 중장이었으나 그 후 얼마 안 되어 밀워키 시에서 서거하였다. 그런데 죽을 때의 그 장면이 무인다웠다고 한다.

남북전쟁에서 그가 지휘하던 연대사관이 50회째의 연차 간친회를 개최하였으므로 병중을 무리하면서 출석하였다는 것이다.

일찍이 장검을 어루만지며 야영의 밤을 함께 이야기로 밝히던 혈기왕성한 전

17) 원문의 旣秋聲은 已秋聲의 오기임.

우는 그 대부분이 유명을 달리하고 생존자라 할지라도 모두가 백발의 노옹이 되었다.

미각지당(未覺池塘) 춘초몽(春草夢) 계전오엽(階前梧葉) 이추성(已秋聲)[17]이라 추풍낙엽(秋風落葉)과 같다. 아더 중장의 음성은 떨렸다.

"제군의 용맹한 돌격은……"

하자 그대로 단상에 쓰러졌다. 그는 절명한 것이었다. 곁에 있던 옛날의 부관아 피에 물든 당시의 명예군기를 장군의 시체위에 덮었다. 그러자 서너 걸음 비틀거리더니 그 노부관도 뒤를 따라 절명하고 말았다.

이 에피소드는 금일에 이르기까지도 맥아더 중장의 최후를 장식할 미담으로서 전해지고 있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그 장군을 부친으로 하고 아칸소 주에서 탄생하였다. 그것이 1880년 1월 26일이다. 그러니 장군은 금년 76세가 되는 것이다.

모친은 버지니아 주의 구가(舊家) 하디 씨의 딸이다. 버지니아라면 남북전쟁에 있어서 남부제주를 인솔하고 궐기할 남군의 중심세력으로서 하디가도 로티트리 장군을 따라 용전하였다.

남북전쟁은 사상 미증유의 처참한 내란으로서 수년에 걸친 격전으로 남부제주는 폐허화하였다. 거기에다가 전세가 불리하여 항복한 남부는 전후의 부흥시대에 북부의 압력으로 남부인은 오랫동안 북부인을 적대시하였다. 따라서 하디 씨의 영양(令孃) 메리가 북부군와 한 대위와 상사(想思)지간이 되자 하디 일가로서는 용이치 않은 중대문제가 되었다. 그래도 메리 양은 [맥]아더 대위와 결혼한 것이다. 주위의 반대는 이 영리하고도 자부심이 강한 여성에겐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맥아더 장군은 용기를 그의 부친으로부터 받고 재능을 그의 모친으로부터 이어 받았다. 더글러스 이외에 2남이 있었으나 하나는 요절하고 또 하나는 해군 소령이 되었을 때 병사하였다. 부모의 총애는 맥아더 장군일신에 집중되었다. 그것도 모친의 사랑이 더욱 강했다한다.

사실상 후년의 맥아더 장군은 그의 자모(慈母)의 존재를 무시하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그림자처럼 82세의 고령으로 작고할 때까지 모친은 항상 맥아더 장군신변에 있었다. 그리고 맥아더가는 유례가 드문 명문이며 아들에게 부친보다도 훌륭한 무공을 세워서 가명을 높여야 한다고 늘 타일렀다 한다. 더구나 모친은 맥아더 장군을 사랑하는 나머지 건강으로부터 면학에 이르기까지 만사에 있어서 세심히 보살펴 주었다. 맥아더 장군이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재학 중 우연히 동급이 된 율리세스 그랜드(그랜드 대령의 손자)와 수석을 다투었을 때 매일같이 교정에 나타나서 경쟁을 하던 두 부인이 있었는데 그것이 맥아더 장군의 모친과 그랜드 부인이었었다는 것은 지금도 유명한 이야기다.

<사진설명>
사진은 코레히들로부터 호주에 도착하자마자 일본 공원을 산책하는 맥아더 장군의 아들과 부인이다.

결국은 맥아더 장군이 수석의 영예를 획득하였는데 재학 4년간의 총평균점수가 98.14점이라는 전대미문의 성적이었다. 그리하여 개교 이래 최고기록 점수로서 졸업하여 세인으로 하여금 귀재출현이라고 오랫동안 경탄을 불금케 하였다.

맥아더 장군이 귀재를 발굴한 것은 수□ 시대뿐만이 아니다. 그는 무엇에든 항상 으뜸에 있었다. 그리고 항상 기록을 깨트렸다. 미국 역사상 가장 젊은 사단장도 맥아더 장군이요 가장 젊은 사관학교장도 맥아더 장군 또 가장 젊은 참모총장도 역시 맥아더 장군이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오랫동안 참모총장으로 있었던 것도 맥아더 장군이었다.

이러한 일은 무수하게 많다. 그는 실확히 천재적이라 할까 영웅적이라 할까 - 그러한 소질을 가졌다. 그러나 그 소질을 난만하게 개화시킨 것은 그의 모친의 공적이다. 부친의 정력과 모친의 야심 등이 때로는 빛이 되고 어떤 때는 수분이 되어 이 희유의 꽃을 피우게 한 것이다. 허나 항상 수석이 되어 동료선배를 뛰어넘어 이례의 세출(世出)을 거듭한 것은 반드시 본인의 행복이라고만 할 수도 없다. 후년에 공을 이루고 명성을 떨쳤을 때 맥아더 장군은

"장군이란 이 얼마나 고독한 것이냐."

하고 개탄한 일이 있었다 한다.

왕후처럼 기연하게 스스로를 높이려는 기풍이 있다는 맥아더 장군에 대한 비평이 있다. 사실 이점에서 반감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 최근 존 갠서는 그를 태평양의 시저에 비하고 「뉴욕 타임스」지는 '무관의 제왕'이라 하였다 한다.

어쨌든 맥아더 장군은 어릴 때부터 군인을 지망한 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에 있어서는 군인 이외의 다른 길을 택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도 모친의 영향이 있었는데 그의 최초의 기억은 나팔소리였다고 한다.

이것은 부친과 함께 임지를 전전하면서 각지의 병영생활을 같이 하였다는 것

게릴라부대가 외치던 "나는 돌아 온 것이다."라는 구호는 잡지, 삐라 및 포스터 등에 인쇄되었다. 위에 삐라는 호주(濠洲)에서 준비되어 가지고 적지(敵地)에 산포되었었다.

을 생각한다면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다. 이를테면 요람시대부터 병영의 분위기와 함께 성장한 것이다. 4세 때에는 인디언에게 병영을 습격당하여 모친에 안겨서 빗발같이 날라 오는 독시(毒矢) 속을 구사일생으로 피난한때도 있었다.

남북전쟁 인디언 토벌 – 지금은 전설 같은 먼 옛이야기이지만 맥아더 소년에 있어서는 가슴을 뛰게 할 만한 신선하고도 모험적인 로맨스였었을 지도 모른다.

맥아더 장군이 로맨스를 동경한 것은 사실이다. 웨스트포인트 육사재학 중에는 동시에 여덟 여성과 약혼하였다고 한다. 이것도 아마 신기록 속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그 8여성과는 그 후 소식을 끊었다는 것이다.

젊은 맥아더 장군은 로맨스를 찾아서 필리핀으로 갔다. 육사를 같이 졸업한 공병사관이다. 이 신천지에서 그는 길을 닦고 다리를 가설하고 있었는데 토인(土人) 반란군과 교전중 모자를 관통당하고 여기서도 생명을 건졌다.

귀국하자 여사한 것이 기연이 되어 대통령부부 부관이 되었다.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은 지금도 T. R이라고 애칭되고 있는 역대 대통령 중의 거인이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정책을 강행한 쾌걸인 일면 호화로운 정치가였다. 그가 어떠한 영향을 맥아더 장군에게 주였는지, 그것은 미해답의 연구과제로서 남아 있다.

그 후 그는 뻬라 쿨쓰 원정군(1914년)에 참가하여 적지에 변장을 하고 잠입하여 첩보근무도 하였고 참모본부 부(付)로 되어 검열사무도 맡다가 미국이 세계 제1차 대전에 뒤늦게 참전하자 출전욕을 억제하지 못하여 매일같이 상관에게 전선출동을 간청하였다는 것이다.

그때의 일이다. 어느 날 베이카 육군장관이 그를 초청한 다음 합중국의 각주 주병에서 부대를 소집하여 1개 사단을 편성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질문하였다. 맥아더 장군은 첫마디에 찬성하면서

"그것 참 멋진 일입니다. 마치 무지개처럼 대륙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리를 걸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육군장관은 무릎을 탁 치면서

"자네 바로 그 것일세. 레인보 디비전(무지개사단)일세!"

라고 말하자 조속히 편성에 착수할 것을 명하였다. 여기에는 각 방면으로부터 의외의 반대가 있었으나 윌슨 대통령도 무지개사단이라는 명칭에 홀딱 반하였기 때문에 1917년 말에는 어쨌든 불란서에 상륙하게 되었다.

맥아더 장군은 신편성 사단의 참모장(대령)으로서 영예의 출정을 하였으니 그 때 맥아더 장군의 나이는 37세였었다.

그 때 이처럼 용감한 참모장은 일찍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후방의 안전한 사령부에서 작전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전선에서 진두지휘를 하였다. 전투가 시작되면 불란서군의 전선까지 단신 나가서 응원하였다. 무지개사단의 공격에는 반드시 선두에 서서 적의 참호에 돌입하였다. 어떤 때는 소수의 부하를 이끌고 포화를 무릅쓰고 적진으로 야습하였는데 언제까지 기다려도 참모장만이 돌아오지 않더라는 것이다. 모두가 이마를 찌푸리며 걱정하고 있을 때 프러시아 사단의 연대장을 포로로 끌고 돌아 왔다. 게다가 자신은 무기하나 휴대하지 않은 알몸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철모나 헬멧은 전연 쓰지 않는다. 여하한 격전에도 태연하게 보통 때의 군모를 쓴다. 게다가 대단한 스타일리스트였기 때문에 군모의 철사를 빼고 약간 모자를 뒤로 쓰는 것이다. 또 언제나 거울처럼 광채가 나는 장화를 신었다. 아무리 진흙투성이 속에서 혼전을 겪은 뒤라도 맥아더 참모장만은 왜 그런지 청초하게 보였다는 것이다.

어쨌든 참모장의 진두지휘와 영웅적인 자태가 초출진인 무지개사단의 사기를 크게 고무한 것만은 틀림없다.

무지개 떨어지는 곳에 승리가 있다.

전 군장병은 이 군가를 고창하면서 전진 또 전진하였다.

맥아더 참모장 그는 무지개사단을 창설하고 여기에 승리의 영관을 준 것이다. 그리하여 전투 때마다 감사장을 받고 새로운 작전 때마다 훈장을 받아 38세 때에 이미 사단장으로 등용되었다. 물론 무지개사단장이다 이런 사이에도 부상도 하였고 독가스(毒瓦斯)에도 혼이 났다. 여느 때는 너무 멀리 진격하였기 때문에 우군포화를 만났고 어떤 때는 너무 빨리 진격하여 독일병이 미국 군복을 착용한 것으로 오인되어 포로가 된 때도 있었다.

그가 의기양양하게 개선하였을 때 가슴에는 D.S.C(수훈십자장) 이하 13개의 훈장이 빛나고 있었다. 부두에 출영한 자당(慈堂)의 만족이 또 짐작 하고도 남음

이 있다.

포성은 그쳤다. 세계는 군복을 벗는다. 평화와 군축으로 장군은 필요치 않다.

이때 맥아더 장군은 추거되어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의 교장이 되었다. 대전(大戰)은 사관학교교육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다. 맥아더 장군은 착착 교육을 재건하면서 그때 이미 차기전쟁에 대비할 것을 역설하였다.

그가 필라델피아의 대부호집 영양(令孃)인 루이즈와 알게 된 것이 이때였다. 그때 루이즈는 초혼에 파경하여 파리에서 이혼하였을 때였다. 당시 그 여자는 퍼싱 장군과 친근한 사이여서 장군의 연회에는 반드시 주부인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 많은 사람들이 60세의 장군과 25세의 재원과의 로맨스를 수근거렸던 것이다. 퍼싱 장군이라면 원정군의 총사령관으로서 무훈이 혁혁한 육군의 최고 존재였었으며 루이즈는 풍염(豐艶)한 가인이었으니 무리도 아니다.

그러던 이 루이즈가 하룻밤 사이의 연정을 불태우고 홀연 맥아더 장군과 결혼하고야 말았다. 허지만 구혼한 쪽은 사관학교장 맥아더 장군이었다.

결혼식은 1922년 성 벨런틴 제(祭)인 2월 14일을 기하여 거행되었다. 이날 사관학교생도는 전부 홍백의 리본으로 장식된 웨딩 케이크를 한 상자씩 받았다고 하니 호화현란을 다한 성전(盛典)이었다 한다. 신문은 '군신과 백만장자와의 결혼'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그러자 결혼한 지 2개월도 못돼서 맥아더 장군은 필리핀으로 전임되었다. 퍼싱 장군의 기휘(忌諱)에 의한 것이라는 풍문이었다. 사람의 운이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맥아더 장군의 후반생을 결정한 기로였다.

루이즈 부인과의 결혼은 7년도 못되어 해소되었다. 부인은 '바람과 함께 사리지다'의 여주인공인 스칼렛 오하라의 면모가 있었다는 것인데 사교적이고 호화스러웠기 때문에 군인생활에는 별로 적합지 않았다. 특히 마닐라에서는 자극이 없어 너무도 심심해서 여자경찰을 지원하여 동물을 학대한 마부를 체포해서 신문에는 쓸데없는 가십을 제공하였다.

부인은 맥아더 장군을 지극히 사랑은 하였으나 한편 맥아더 장군은 군무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에 함께 즐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부인은 빈번히 군적에서 이탈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40세의 장년 장군으로서는 불가능할 일이었다. 게다가 그에게 있어서 군무는 성직과 같았다. 부부의 관계는 본국에 귀임하자 다소 완화되었다가 1928년 맥아더 장군이 다시 필리핀으로 부임을 명받음에 이르자 드디어 파탄이 생겼다. 루이즈 부인은 마닐라에 동행하지 않고 레노 시로 향하였다.

그 후 2년인 1930년 맥아더 장군은 미국역사상 가장 젊은 참모총장으로 기용되었다. 그때 나이 55세였다. 이 나이로 그런 중직에 취임한 장군은 일찍이 없었다. 그런데다가 임기 4년을 마치고 1년 이상을 더 중임하였으니 이는 당시의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간청에 의한 것이다.

재직 중 그는 전력을 다하여 군비충실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후버 시정(施政)의 심각한 불경(不景) 시대였었음으로 재정 긴축의 요구는 오히려 군비축소를 여지없게 하였기 때문에 그의 논의에는 귀를 기우리는 사람이 적었다. 그가 상세한 수자를 들어서 미국군비는 위험한 수준에도 훨씬 미달하고 있다고 경고하자 나이 상원의원은 그를 '전쟁선동가'라고 비평하였다. 퍼핀제이(멋쟁이)라는 별로 아름답지 못한 별명을 얻은 것도 이때였다.

<사진 설명>
맥아더 장군이 일본의 포로수용소로부터 그전 자기부하를 구출해내는 감격적인 장면으로서 한 포로가 맥아더 장군과 더불어 희열의 악수를 교환하고 있다.

그래도 그는 장래의 전쟁은 기동전의 양상을 띠우리라는 확신 하에 육군의 기계화를 극력 추진하였다. 특히 공군참모본부를 창설한 것은 그의 탁견으로서 특서 대필할 가치가 있다. 그의 의견서와 보고서는 4백 페이지의 대책(大冊)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읽으면 흡사 예언자라는 감명을 받는다는 것이 정평이다. 그 점은 같은 때에 처칠 씨가 저술한 「영국이 잠자는 사이에」라는 책과 비슷하다는 것인데 양자가 공통적으로 침략의 위협을 강조하고 군비의 충실을 역설한 것이다. 아울러 양자는 모두가 명문필가다. 처칠과 맥아더의 문체는 별개의 것이나 때로 맥아더참모총장의 보고서는 고전문학을 접할 때의 그 맛이 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군인으로서는 드물게 보는 독서가이며 특히 동서고금의 역사에 밝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참모총장재임 중에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보너스 마치 사건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것은 1932년 여름 대전의 귀환용사가 생활원호를 요구하여 처자를 거느리고 속속 수도로 행진하였다. 워싱턴 정부(華府)의 중앙통 가두에 집결하여 야영을 하면서 기세를 올렸다. 드디어는 이것이 폭도가 되어 백악관 앞으로 쇄도하여 경찰의 손을 넘게 하였다. 그때 참모총장은 육군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군대를 출동시켰는데 그는 백마를 타고 이를 지휘하여 곧 진압시켰다.

그때 군대가 보너스를 요구하는 귀환용사의 주둔지와 숙소를 불살라 버렸다. 해서 그는 신랄하게 비난을 받았다. 진상인즉 보너스를 요구하여 폭동을 야기시킨 분자 중에 공산당원이 혼입되어 그 분자들이 주둔지와 숙소에 방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한 때 심한 원망의 대상이 되었음으로 그가 공산당을 증오하는 감정이 강했다.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를 놓지 않았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지극히 그를 신뢰하였다는 것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중들로 하여금 친밀감을 갖게 하는 민중정치가적인 타입을 가졌다하면 맥아더 장군은 그와 반대로 공경 받는 과두정치가적인 풍격을 가졌다는 것이 통설이다.

여하튼 루즈벨트 대통령은 유사시에는 맥아더 장군밖에는 없다고까지 심중 크게 신뢰하였다는 것이다.

나는 귀환(歸還)하리라

그것이 맥아더 장군의 필리핀 파견으로 된 것이다. 참모총장을 마치면 보통 순서 같으면 퇴역하는 것이 전례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필리핀정부의 간청에 의하여 맥아더 장군을 필리핀에 보낸 것이다.

때는 1935년 그리하여 맥아더 장군은 55세 때에 또다시 부자의 인연이 깊은 마닐라에 돌아 간 것이다.

그의 사명은 필리핀이 독립하는 1946년까지 공화국의 국방력을 완성함에 있었다. 케손 대통령은 이를 위하여 연액(年額) 8백만 불의 지출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고립주의 전성시대였음으로 필리핀을 깊이 돌봐줄 여유도 없고 한편 마닐라 국회는 불황을 이유로 군사비의 삭감을 요구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의 임무는 결코 용이한 것이 아니었다. 그때 케손 대통령은 약속을 몇 번이고 어겼다. 그래도 맥아더 장군은 일의전심(一意傳心) 사명달성에 몰두하였다. 마닐라 호텔의 5층에 있는 그의 거실에는 야심을 넘어도 전등이 황황히 비치고 때로는 철야낭하를 걷는 소리가 아래층 사람들의 안면을 방해할 때가 몇 번이고 있었다. 사실 그는 깊은 사념에 잠겼을 때나 대담할 때는 곧잘 거닐었다. 동경 연합군총사령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한국전선으로 비래(飛來)하는 애기(愛機) 속에서도 한 가지였다. 그는 마닐라를 사랑하였다. 격무 중에도 촌가(寸暇)를 얻어 독서하였다. 그의 장서는 7천권을 초과하였는데 전화(戰火)로 말미암아 상실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뜻하지 않은 행복이 손짓하고 있었으니 그 이름을 진 페아크로스라는 여성이 홀연히 출현하였다. 그가 바로 현재의 부인이다.

페아크로스 가는 테네시 주의 마푸리스 보로라는 소도시의 재산가이다. 인구 1만 정도의 이 시에서 진 양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 여자는 적은 체구에 활발하였기 때문에 시중의 인기여성이 되었다. 어릴 때부터 군대를 좋아하여 '마푸리스보로의 국기 아가씨'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7월 4일의 독립기념제에는 폭죽놀이를 하는데 한발이 터질 때마다 차려 자세로 거수경례를 하였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다.

이 진 양이 부친사망 후 20만 불의 유산을 받고 관광여행을 떠났다. 때마침 동선(同船)한 것이 맥아더장군의 모친 메리 여사였다. 모친은 첫눈에 진 양에게 매혹당하고 말았다.

"여기에 더글러스의 좋은 반려자가 있군.……"

심중 은근히 기대한바 있어서 모친은 진 양을 마닐라에 올 것을 권유하였다. 과연 모친의 눈에는 틀림이 없었다.

춘풍은 춘심을 요동한다. 맥아더 원수의 가슴속에 춘심이 찾아든 것이다. 마닐라 체재 1년 반 사이에 진 양은 맥아더 장군을 정복하고 말았다. 1937년 4월 30일 그들은 뉴욕 시에서 결혼하였다. 진 양은 한걸음 먼저 귀국하고 있었는데 근친에게도 이 결혼을 알리지 않았다. 신랑은 신부를 동반하여 즉시 마닐라에 귀임하였다.

맥아더 장군부처는 결혼 이래 14년간 본국을 방문하지 않았다.

이 결혼은 성공하였다. 이래 부부의 애정은 더욱 굳고 깊어갔다. 특히 다음해에 외아들 아더 군을 낳게 되자 가정의 단락(團欒)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망을 불금케 하였다.

그와 함께 맥아더 장군의 성격에도 유화한 면이 자연 유로(流露)하게 되었다. 사랑이 마음의 왕좌를 점유한 것이다. 생각건대 그는 항상 마음의 안주지를 구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험한 파도를 헤치고 돌아온 배처럼 그의 마음은 안식의 항구를 언제나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소년시절의 항구는 인자한 어머니였다. 성년된 날의 항구는 상애(想愛)의 처래야 할 것이다.

마닐라 만에 정박한 맥아더 장군은'루손도의 나폴레옹'이라는 놀림을 받으면서도 행복을 느꼈고 또 충분히 행복하였다. 이미 육군으로 부터 퇴역하여 공화국 군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이 행복도 그리 오랫동안 허용되지는 못하였으니 포성은 다시 비익의 꿈을 깨트렸다. 1941년 6월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기 6개월 전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돌연 맥아더 장군을 현역에 복귀시키고 극동미군 총사

페이방의 맥아더 장군

령관에 임명하였다. 역사의 전당은 그를 위하여 다시 문을 열었으니 그때 나이는 61세. 12월 8일 태평양전쟁이 진주만 기습으로 개전되었다. 그 때 일본군의 기습은 전승 장군인 그에게 악전고투와 참패를 가져왔다. 드디어 바탄의 견루(堅壘)로 후퇴하게 되었다. 더구나 연일악전이 거듭된다. 고성낙일(孤城落日) 투병(鬪兵) 희소(稀少)하려 할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비전(飛電)을 보내어 그에게 탈출을 명하였다.

밤이 찾아들 무렵 잠입한 수뢰정 4척에 분승하고 맥아더 장군은 가족과 소수의 막료와 함께 민다나오 도로 향하였다. 도중 일본군의 잠수함을 목격하였으나 발견되지 않았다. 민다나오 도에서 대기한지 3일후 일행은 '하늘의 요새'인 B29로 호주의 멜버른에 안착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 이것이 그의 반격작전의 대기지가 되었다. 상륙하자 즉시 그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대통령이 나에게 코레히노올 탈출 명령한 것은 일본에 대한 반격을 준비하기 위함에 있다. 그 목표는 필리핀의 해방이다. 여는 탈출하였다. 여는 귀환하리다."

"I shall Return." 이 말이 곧 그 후 전군의 표어가 되었다. 흡사 처칠 씨의 V 사인처럼 '아이 쉘 리턴'의 세 단어는 게릴라와 주민에 의하여 필리핀 가는 곳마다 여기 저기 할 것 없이 아무데에든 써졌다. - 벽, 전주, 도로상, 심지어는 일본군의 탄약고에도 일본군사령관의 승용차에까지 아무도 모르게 써져 있었다. 드디어 그날은 왔다. 2년 반의 악전고투 끝에 1944년 10월 맥아더 장군은 레이테 만두에 상륙한 것이다.

"이것은 자유의 소리입니다. 맥아더 장군이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귀환하였다."

그는 이렇게 필리핀국민에게 귀환을 보고한 다음 궐기하여 한데 뭉쳐 일본군을 구축하자고 격려하였다.

이 방송은 너무 거창하다고 해서 당시 꽤 비평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동양인의 심리 속에 파고드는 데에 그는 독특한 직감적인 세능(歲能)이 있었다. 그로 말하면 "나는 귀환하리다"라는 공약을 그때 실행한 것이었다. 더구나 "나는 귀환하였다"라는 이 방송은 과연 필리핀 전도(全島)에 전격적인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한때 미국은 필리핀을 우회하여 대만을 칠 방침이었었다. 그것을 변경시킨 것은 1944년 초두하와이에 있어서 루즈벨트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과의 회담에서였다. 사실은 그때 맥아더 장군은 퇴역이 될 예정이었었는데 필생의 웅변을 토하여 필리핀해방의 급무임의 소치를 역설하여 드디어는 대통령을 설득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는 옛날부터 신비에 가까운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그 회담 때의 웅변은 더욱 훌륭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전선에 귀임하였다. 좌우간 세치의 혓바닥 하나로 본국정부가 결정한 기본전략을 일변시켰으니 그야말로 놀라운 웅변이다. 게다가 퇴역도 안 되고 귀임하였으니 더욱 놀랍다.

"맥아더군 내가 지고 말았네. 그러나 필시 저 해군이 시끄러울 것일세."

이렇게 말하며 루즈벨트 대통령은 쓴 웃음을 하였다는 것이다.

다음해 즉 1945년 3월 2일 맥아더 장군은 코레히도올 요새위에 섰다. 힐끗 쳐다보니 낡은 깃대가 있었다.

"국기를 올려라!"

나팔소리와 함께 성조기가 필필 날리며 올라간다. 그것을 우러러 보는 쌍안(雙眼)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 때 눈물에 젖은 눈에 띠인 것이 있었으니 언덕 위에 있는 흰 벽의 집이다. 그 집은 연일연야의 폭격 속에서 애처와 애식과 함께 지내 오던 '사랑의 집'이었다. 가련한 처자는 여하히 치열한 폭격에도 불구하고 한 때도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코레하도올 탈출의 날을 상기하면 만감이 교차하여 무한한 감개가 한꺼번에 복받쳤다. 그 감개를 벅차게 지니고 그는 부인에게 금시계를 증정하였다. 그 이면에는 역시 세단어가 조각되어 있었다.

"To the Bravest"(가장 용감한 사람에게).

평화(平和)의 승리(勝利)

"평화에도 전쟁에 못지않는 승리의 명성이 있다." - 섹스피어의 이 명언은 아마 맥아더 장군의 경우에 가장 잘 맞는 말이 아닐까?

맥아더 장군은 5년 8개월간의 일본점령을 통해서 유감없이 그것을 입증하였다.

필리핀을 탈환한 그는 곧이어 오키나와를 공격하였다. 그것이 1945년 6월이다. 그때 미국정부는 원자폭탄의 사용을 결정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본토 작전도 예정하고 있었다. 그해 10월에는 규슈(九州) 남단 1946년 봄에는 관동평야에 진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오키나와 함락 후 1개월이 지나자 포츠담선언이 발표되고 원자폭탄이 투하된 다음 뒤이어 소련이 참전하자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한 것이다.

미국은 일본의 항전능력을 과대평가하였다. 그 결과는 한편으로 소련의 참전을 요청하는 과실을 범하고 또 다른 면으로는 일본처리의 복안이 충분히 성숙되기 전에 종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얄타협정에 의하여 남사할린(南華太)과 쿠릴열도(千島) 및 재만(在滿) 권익을 획득한 소련은 불과 수일간 참전한 대상으로 맥아더 장군과 같은 권한을 유(有)하는 사령관으로서 와시레프스키 원수를 일본점령에 참가시켜 북해도를 점령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을 거부당하자 이번에는 독일의 경우와 같은 거부권을 인정하는 연합국관리이사회의 설치를 집요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맥아더 장군은 점령행정에 있어서 소련의 개입에는 시종 단호히 반대하여 만일 소련의 주장이 통과될 경우에는 즉시 최고사령관의 직을 사임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로 응수하였다.

무조건항복이 초래하는 혼란을 회피하면서 소련의 간섭을 완전히 봉쇄한 것은 맥아더 장군의 탁월한 수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결과 일본점령에 대하여 크렘린은 완전히 방관자의 지위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제까지 1억 옥쇄를 떠들고 있던 광신적인 일본국민을 일조일석에 평화적인 민주국민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용이치 않은 난(難)사업이었다.

그러나 맥아더 장군은 어느 정도 그 난사업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아니 그보다는 일본이 가면을 쓰고 비군사화 민주화를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그것은 요즈음 일본의 침략근성의 대두 그리고 친공(親共)적인 정책이 여실히 증명한다. 그야말로 일본은 미국의 은혜를 배신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맥아더 장군은 드물게는 신념이 투철한 장군이다. 그가 일본점령의 제1보를 아쓰기(厚木)비행장에 내디뎠을 때 얘기 바탄 호는 일체무방비였었다고 한다. 탄흔이 생생한 비행장에 내려선 맥아더 장군은 무기 없는 맨몸이었다.

막료가 무기를 휴대하고 있는 것을 보자

"자네 그 무기를 두고 오게."

이렇게 말하였다.

특히 그 아쓰기 비행장에는 그 직전까지도 소위 특공대원이 항복에 불응하고 최후의 일전을 지껄였다는 것이다.

생각하면 맥아더 장군은 절대적으로 자신을 믿는다. 그는 자기 스스로가 '운명의 사람'임을 자임하고 있다. 운명이 그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운명을 움직인다고 할까? 그의 초연주의, 무한의 용기, 절대의 권위, 굳은 의지, 엄연한 위용 등의 총화가 숭배자의 눈에는 시대의 영웅으로 보이고 비방자에게는 일세의 과대망상자로 보이는 것이다. 여하튼 그는 세기적인 거인이며 영웅에는 틀림이 없다.

2차 대전 당시 에리테 도 및 투손 도 작전에 같이 참가하였던 윗트니 장군과 더불어 상륙용 주정에 타고 있는 맥 장군으로서 인상상륙작전을 지휘하고 있다.

시대의 진보에 따라 영웅이라는 개념이 점점 희박해진다고 하는데 그런 점으로 볼 때 맥아더 장군은 확실히 영웅이다.

패전 후 6년의 일본역사는 맥아더 장군 개인의 역사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다.

맥아더 장군이 로맨티스트라는 것은 전기(前記)하였는데 그와 동시에 그는 이상주의자다. 더구나 맥아더 장군처럼 경건한 크리스천은 다시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심이 두텁다. 그가 연설에서 누누성서에서 인용하고 신에 호소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어느 해의 탄생일에는 로마 교황으로부터 자서(自署)한 사진을 받고 극히 기뻐하였다는 것이다. "교황과 장군 두 사람만이 '크리스트' 교의 수호자인 모 양"이라던가 아무래도 "하느님과 친척인 모양" 이렇게 짓궂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도 이쯤 추겨 놓으면 곤란하다. 사실 어느 사이에 맥아더 장군만은 만능이라는 전설적인 신앙이 미국민에게 퍼졌다.

노병(老兵)은 죽지 않는다

그야말로 청천의 벽력이다.

1951년 4월 11일 오전 1시 투르만 대통령은 심야의 특별기자회견을 소집하여 돌연 맥아더 장군의

해임을 공표하였다. 잠옷 위에 외투를 걸치고 백악관으로 달려간 기자단은 의외의 처사에 아연하였다. 전 미국민은 경악하여 전국은 순간에 흥분하고 일대 센세이션이 일어났다.

도쿄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때 오후 3시 바로 그때 맥아더 장군은 미국 대사관에서 내일(來日) 중인 매그낫쓴 상원의원과 오찬 중에 있었는데 제1보는 라디오로 알았다는 것이다. 부관의 하후 대령이 긴장한 표정으로 사령부에서 달려왔다. 손에는 'Flash' 긴급이라고 주서한 다색 봉통(封筒)을 가지고 있다. 해임의 군사

명령이다.
일독한 맥아더 장군은 눈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유연하게 담소를 계속하였다. 흉중이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윽고 하후 대령은 현관에 다시 나타나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단에게
“성명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사라졌다.
다음엔 호외소리 요란하고 서글프게 울렸으니 낙화무정(洛花無情)이라.
왜 이런 의외사가 돌발하였나?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통제 즉 명령위반이요 또 하나는 정책 즉 의견의 대립이다. 한국동란 발발 이래 본국정부에서는 맥아더 장군이 걸핏하면 국책에 반하는 독자적인 의견을 발표하여 통제를 문란케 한다고 우려하고 있었다. 몇 차례나 맥아더 장군의 주의를 환기하였다. 그러나 신념이 강한 맥아더 장군은 의연 그의 견해를 강조하며 서슴지 않았다. 그러한 결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미국의 아세아정책을 지도하는 것은 워싱턴이냐 도쿄냐 하며 반문하였다. ‘맥아더주의’라는 신어까지 나왔다.
남에게 지기 싫어하며 자부심이 강한 투르만 대통령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백악관의 권위를 옹호한다는 입장에서 드디어 해임이라는 비상수단에 호소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문제는 정책의 상위에서 발생된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본국정부가 구주를 아세아에 우선시키는 데 대하여 맥아더 장군은 당면의 중요무대가 아세아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기 때문이다. 모든 분규는 이 대립으로 부터 초래된 것이다. 구주제일주의는 미국의 전통적인 정책으로서 금일에 시작된 것은 아니다. 제2차 대전 당시에 있어서도 먼저 독일을 타도하는데 주력을 경주하였던 것이다.
구주를 우선시키기 위해서는 한국동란을 극력 국한하면서 가급적이면 외교적인 해결을 도모하며 따라서 중공과의 전면전쟁을 유발할 우려성이 있는 조치는 일체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령 한국전선에서 미국이 패전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 이것이 워싱턴정부(華府)의 입장이었는데 그 배후에는 영국과 불란서가 있었다.
영불양국과 외교적인 협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그 입장을 견지해야 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주제일주의는 3국 협조의 전제조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맥아더 장군은 구주를 편중하는 결과 아세아를 상실한다면 자유세계는 급격하게 위태롭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말을 쫓는다면 소련은 현재 서구에 대해서는 수세를 취하고 오히려 아세아에 대하여 공세를 취하고 있는 만큼 한국전선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획득하면 그에 의하여 서구에 대한 위협까지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맥아더 장군은 일찍이 UN군을 상당히 증강하거나 또는 만주 등지의 중공기지에 대한 공격을 인정하지 않는 한 한국의 전국은 조만간 막다른 골목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해 왔었다.
그러나 UN군의 증강은 현하 불가능하였다. 그러면 정치적인 해결은 어떠냐 하면 이것도 당면은 난망이다.
그리하여 맥아더 장군은 승리로서 급속히 전쟁을 종결시키는 방책으로 만주 기지의 폭격 이외에 장개석 총통의 자유중국군을 사용하는 한편 중공봉쇄 등을 주장하다. 그리고 일본 필리핀 등의 방위선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만은 절대로 적군에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었다. 화부에서는 맥아더 장군의 권고를 따른다면 전국을 확대하고 중공 - 나아가서는 소련 - 과 전면전쟁을 격발할 위험이 있다고 반대하는 것이었다.
대만에 대해서는 적어도 동란이 계속되는 한 중립화 정책을 버리지 않을 방침인 모양이었는데 중공이 장래 정전에 응한다면 별개의 고려를 아끼지 않겠다는 시사까지 있었다.
이렇게 타협이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함으로 트루먼 대 맥아더의 대결은 어차피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해임명령에 접한 지 불과 5일째의 16일 맥아더 장군은 애처애식과 함께 귀도에 올랐다.
하네다(羽田)비행장서의 송별은 특히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군악대의 취주 19발의 예포 열병 그것도 순식간에 끝나고 장군은 기상에 올랐다.
이별곡의 주악 공항을 제압하는 감정의 고조 비등(沸騰), 맥아더 장군은 잠시 승강대에 정립하여 환송에 응한다. 왼 손을 들었다. 기가 막히게 멋진 ‘포즈’.
맥아더 장군은 언제 여하한 때에도 극적인 포즈를 한다. 더구나 그것이 지극히 자연스럽다.
7시 18분 이륙, 기수(機首)는 일로(一路) 동쪽으로 잡고…… 어느덧 까맣게 멀어지며…….
14년래의 귀국이다, 아니 개선이다.

호놀룰루,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어디서든 전대미문의 열광적인 환영이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전일 일부러 예행연습까지 실시하였는데 특히 비행기를 띠우고 한 소령을 맥아더 장군으로 가상하여 착륙시키기까지 한 치밀한 준비였다. 뉴욕 시에 동원된 사람은 물경 7백만 명이라는 호화찬란하고도 열광적인 환영으로서 일찍이 미국사상에 없었던 일이라 한다. 이점에 있어서도 맥아더 장군은 기록을 깨트렸으니 아이젠하워 장군의 환영기록을 훨씬 능가하였던 것이다.

거기에는 물론 호기심도 있었을 것이다. 아무튼 14년간이나 해외에 있으면서 항상 인기투표의 수위를 차지한 이상하게도 매력적인 인물이다. 영웅숭배심도 있었을 것이다. 동정도 있었을 것이다. 역전역승의 명장 아니 영웅이 일편의 통고로서 해직된 것이다. 맥아더 장군의 해임이 그 정당성이나 이론상으로는 납득이 되지만 감정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고개가 좌우로 흔들어 지는 것 이것이 인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그 해임에는 당파적인 감정도 있었을 것이다.

바야흐로 트루먼 대통령의 인기가 조락할 때였고 공화당의 박격이 급한 때였다.

이런 복잡한 이유가 한꺼번에 겹쳐서 맥아더 장군의 인기를 더한층 높인 것이다.

마치 이것을 배경으로 하는 것처럼 19일 맥아더 장군은 의회의 초청에 응하고 양원합동회의에 임하여 필생의 그리고 세기적인 대연설을 행하였다.

그 풍채야말로 연기 효과 100%이며 또한 위대한 연설이었다. 애국의 지성 우국의 열정 언언구구가 폐부를 찌르는 것이었다. 38분간에 걸쳐 의회는 흥분에 백열화(白熱化)되고 미국민 역시 한꺼번에 감격 열광하였다. 특히 최후의 일절은 그야말로 황금의 문자였다.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라는 옛 노래를 인용하여

"나도 역시 이 노병처럼 사라지려 합니다."

하고 "굿바이"의 일구로서 끝을 맺었을 때는 만장이 숙연하여 유구무언 옷깃을 여위고 경건 그대로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노병은 과연 그림자처럼 사라질 것인가?

트루먼과 맥아더의 관계에 있어서 맥아더 장군도 타일(他日) 언젠가는 루비콘을 도강할 것이다. (끝)

<취미(趣味)의 미술감상(美術鑑賞)>

현대미술(現代美術)의 이해(理解)를 위(爲)하여

정규(鄭圭)

뎃상 마팃쓰

현대미술의 모태는 19세기 중엽에서 19세기 말까지에 완성된 인상주의 미술입니다. 때문에 현대회화에 대한 우리의 상식적인 기초는 인상주의미술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상주의미술이란 말을 바꾸면 '주관적인 자연주의' 또는 '실험적인 자연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상주의미술은 자연주의미술을 주관적인 실험으로서 전진시킨 미술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상주의미술은 전, 후, 2기로 나누어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중 후기 인상주의미술이 현대미술의 성격을 결정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후기인상주의 내지는 인상주의미술이 근거하는 현대사적인 의의는 어디 있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잠시 해야 하겠습니다. 근세 철학이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인 "내가 사유함으로서 내가 있다."에서 출발되었다고 하면은 현대미술의 시작은 "내가 표현함으로서 내가 있다."고 하는 말로서 설명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주관을 외적인 형태 즉 자연으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관이란 보편적이라기보다는 개성적인 자각에서 발단되는 것으로서 미술상에 있어서 자아를 표현한다고 하는 말은 자각된 개성의 주관을 보편적인 형태 즉 '자연'으로서 표현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이란 개성적인 표현대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비개성적인 종합현상입니다. 따라서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자각은 자아의 독자적인 표현을 위하여 자연의 종합현상을 '해체'하고 단순화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실로 현대미술의 표현방법의 시초는 자아의 표현을 위한 자연의 단순화와 '해체'였던 것입니다.

자연의 모든 속성을 빼내고 생명의 본연의 호흡을 포착하고자 하는 개성의 의

뎃상 마팃쓰

지가 현대미술을 비롯한 현대문화의 개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너무 광범위해졌습니다만 현대미술도 말한바와 같은 현대문화의 성격위에 기초된 미술현상이라는 것을 먼저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술에 있어서는 어떠한 형태로서 현대정신의 개성적인 자아의 표현을 위한 자연의 단순화와 해체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미술적인 논제가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미술의 시기적인 첫 구분을 미술사상(史上)으로는 1900년에서 1910년간에 두고 있습니다.

1900년에서 1910년 사이에 미술상에 나타난 새로운 주장을 대표하는 미술운동은 야수파(Fauvism) 운동과 표현파(Expressionism) 운동입니다.

이 두 미술운동은 현대미술의 근본성격을 형소(形所)하였습니다. 이 미술운동의 지역적인 중심과 선후는 먼저 야수파운동이 불란서의 파리를 중심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표현파운동이란 불란서의 야수파운동에 자극된 독일의 화가들이 독일적인 철학적인 심도(深度)에서 야수파운동을 자기네들의 미술운동으로서 전개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미술의 주도적인 유파의 시단(始端)은 야수파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X

야수파라고 하는 말은 처음부터 화가들이 내세운 미술적인 주견으로서의 명칭은 아닙니다. 야수파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의 청년화가군의 전람회를 보고 그 소야(素野)하고 생생한 화포(畵布)에 대하여 극작가 베벨(Vebel)이 이름 지어 부른 것이 그대로 사용된 것입니다.

야수파회화에 있어서 현대미술적인 요소로서 주목할 만한 회화적인 업적은 화면(畵面)이 전체적인 통일성의 강조로서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술이란 자연과 달라 2차원적인 세계가 있으므로 자연의 미술적인 구성이란 다원적인 것이 아니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직시적인 자연을 구성으로서 해체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연의 해체는 자연의 단순화로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려워졌습니다만 이를 종합하여 말한다면 미술은 자연의 진실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미술적인 감흥을 유도하는 선과 색채를 자연에서 발견하고 이를 구성하여……

또 하나의 다원적인 미의 세계를 창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뎃상 마팃쓰

이러한 미학적인 주장을 배경한 현대미술의 선봉으로서의 야수파가 시도한 현대미술적인 방법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현대미술의 모태가 되었을 뿐이 아니라 이는 현대문명으로서의 미술문화의 전개를 가능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위선(爲先) 이렇게 현대미술의 성격을 개설(槪說)하는 것은 현대미술작품에 대한 일반적인 감상의 높이를 부축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X

Henri Matisse
앙리 마티스

마티스는 1869년 불란서 샤토(Chateau)에서 출생, 1893년 이후 구스타브 모로(Gustave Moreau)의 문하에서 공부를 하고 그곳에서 후에 야수파 동인으로서 현대미술상에 큰 영향을 준 벗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즉 마르케(Marquet), 루올(Rouault), 카미옹(Camion), 망강(Manguin)과 같은 현대의 거장들이다. 마티스는 후기인상주의화가인 세잔느(Cesanne)의 그림에서 새로운 표현방법을 발견하여 1905년에 포브(Fauve) 운동에 참가, 1908년에 그랑드 르뷔(Grand Revue)라는 그림을 발표함으로서 일약 포브 운동의 대표자가 되었다.

그 후 마티스는 장식적인 요소를 그의 화면에 도입함으로서 현대적인 강렬한 아라베스크의 형식을 완성하였다.

마티스는 말하기를 자기의 그림은 안락의자와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뎃상 마팃쓰

러한 마티스의 말은 다시 반성되어야 하겠으나 그가 생신(生新)한 생명을 현대의 화포(花布)위에 대담한 자연의 단순화로서 형성할 수 있었다는 것은 크나큰 공적이 아닐 수 없다. 그는 말년에 그의 장식적인 수법을 종합하여 반스에 교회를 설계하고 장식하였음으로서 커다란 관심을 오늘의 세계미술계에 던졌다. 마티스는 1954년 말80여세의 고령으로 타계하였다.

X

Maurice De Vlaminck
(모리스 드 브라맹크)

1876년 파리에서 바이올린 교사의 아들로 출생. 어렸을 때 음악공부를 한 일이 있었는데 그 영향은 생애를 두고 컸다. 그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는 자신의 손으로 쓰여진 「두르낭당제로」에 잘 나타나있으며 최근에 출판된 포리망에도 보이고 있다. 그는 후일 도랑과 친교를 맺고 1903년에는 둘이 함께 그림을 그리게도 되었다.

1902년에서 1906년에 이르는 동안은 반 고호와 신인상주의자들의 영향을 받고 밝은 색채를 많이 쓰게 되었다. 1907년에는 보라르에 의하여 주목을 끌게 되었는데 그는 브라맹크의 전시작품을 보고 크게 격려를 해주었든 것이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그는 야수파의 대표자가 되었으며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세잔에 대한 연구와 니그로 조각의 극단적인 단순성을 통하여 독특한 화풍을 이룬 이래로 이러한 주관에 의하여 여러 가지의 성과를 수많이 되풀이 하면서 별다른 변화를 취하지는 않았다. 대다수의 작품은 오보르를 중심으로 제작되었는데 이 거리는 브라맹크 예술의 주제를 이룬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예술은 마르땡 A. 리에르종의 수집(蒐集)에 의한 저명한 수채화 대집성 속에서 면모를 볼 수 있다.

X

André Derain
(앙드레 드렝)

1880년 파리에서 멀지않은 세느강반의 샤토에서 출생. 가족들로부터 자연과학의 공부를 하라는 권고를 받았으나 15세 때부터 그림 연습을 했으며 그후 파리로 가서 따리에르의 화실에서 공부를 하였다.

최초로 교우를 맺게 된 브라맹크와 더불어 오래 계속된 활동은 아니었지만 샤토화파(Chateau School of Art)를 창설하였다. 초기회화에 있어서는 시낙크와 스라의 화풍을 따랐으나 곧 밝은 색채의 사용과 인상주의적인 화법을 버리고 마티스, 마르케, 듀퓌, 프리츠, 브라맹크, 브라크 등이 속하고 있는 소위 그들의 야수파와 동조를 취하였다.

야수파는 신인상파에 불만을 품고 세잔에서 비롯된 소각(塑刻)적인 화풍을 추구하는 한편 순수한 색깔을 강조하고 원시동양예술의 강력한 윤곽과 운율적인 기조를 적용한 고갱의 화풍을 숭배했던 것이다.

드랭은 입체파의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았으며 박물관에서 공부를 하는 한편 브라(布臘), 로마(羅馬의 조각을 비롯하여 초기 프로텐스파에서 코로, 세잔에 이르는 고전파의 전통을 더듬어 연구를 한 일이 있다.

드랭은 종종 인물화도 그리고 중후한 정물화 구성에도 머리를 썼지만 주로 그가 원숙의 경지를 개척한 분야는 풍경화에 있었다.

때로 색조가 천박하고 조잡한 일도 있음으로 아류의 작품으로 간주되는 일도 있지만 만년에 '쌍막시망'에서 그린 일련의 웅장한 풍경화가 보여주듯이 그의 수작을 보는 사람이라면 그의 진실하고도 불멸한 업적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그의 많은 대표작은 '뻐취 바트벳트'의 수집가운데 대부분이 소장되고 있다. 1955년에 사거하였다.

(끝)

이조오백년(李朝五百年) 기담(奇譚)

서성배(徐成培)

공당문답(公堂問答)

이조초기에 명상으로 이름이 높았던 맹사성(孟思誠)이 온양(溫陽)의 향리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도중에 비가 몹시 퍼부어 용인(龍仁)에 있는 어떤 여관에 들어 비를 피한 적이 있었다. 여관에는 위풍당당한 옷차림을 한 청년이 누상의 상좌에 앉아 있었다. 맹공은 풍채가 올라가지 않는 검소한 옷차림으로 방 한구석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다.

교만한 청년은 맹공을 보통 흔히 있는 여객으로 알고 이말 저말 이야기를 걸어 말을 하고난 다음에 공자와 당자(堂子)의 음(音)을 가지고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맹공은 청년에게 향해 "자네는 무슨 용무로 상경하느냐"고 물었다.

청년은 어깨를 한번 으쓱 하더니

"벼슬을 얻고자" 간다는 것이었다. 맹공은 "무슨 벼슬을 구하는가."라 물었다.

청년은 의기양양하여 "녹사(錄事)이요"

하고 코를 한 번 번쯕하였다. 맹공은

"그것이라면 내가 채용하여 주지."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청년은 노기가 머리끝까지 올라 "사람을 병신인 줄 아느냐"고 격노하였다.

그 후 얼마가 지나 청년은 녹사라는 벼슬에 채용하여 달라고 정청에 출두하였다. 정청에는 맹공이 (威儀)를 단정히 하고 청년을 내려다보며 "그동안 잘 있었냐"고 어깨를 쳤다.

청년은 이때서야 알아차리고 민망히 여기며 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고 어쩔 줄을 몰랐다. 좌중 일동은 모두 놀랬으나 맹공은 사건의 상세함을 설명하여 다른 재신(宰臣)들은 모두 크게 웃어 대었다. 맹공은 곳 그 청년을 녹사에 채용하여 주었다. 훗날 사람들이 이를 가리켜 공당의 문답이라고 전했다.

송도계원(松都契員)

세조의 공신 한명회(韓明澮)가 아직 낙백(落魄) 불우한 몸으로 있을 때 이야기다.

40이 되어 처음으로 창덕궁직(개성에 있는)에 임명되어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어느 날 동료들이 만월대에서 연회를 베푼 적이 있었다. 술이 한참 돌아가자 동료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말하기를 우리들은 경락(京洛)의 출신으로 옛서울(故都)에 머물러 있는 몸들 - 서로 의좋게 계를 맺어 먼 날까지 영구히 수교하면 어떠냐고 제의를 하였다.

한공도 그 계의 한사람으로 들여 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동료들은 조소만 해 던질 뿐 아무도 그를 그 계에 한목 끼워주지 않았다. 헌데 그 다음해에 한공은 세조를 보좌하여 단종을 쫓아내고 원훈(元勳)이 되었다. 당시 계를 맺은 적은 벼슬아치들은 크게 후회하였다.

그 이래로 세만 믿고 풍채를 보아 사람의 평가를 내리는 바보를 가리켜 송도계원이라고 불려 내려온다.

설중매(雪中梅)

태조대왕이 등극한지 얼마 안 되는 어느 날 왕은 조정의 재신을 초청하여 연회를 베푼 일이 있었다. 불리운 사람들은 거의 전부가 전조의 재신이 아니면 신조의 재신들이었다. 연석에는 술 따르는 기생과 함께 가기(歌妓)도 끼어 있었는데 얼굴이 아주 예쁘고 품행이 그리 단정치 못하다는 소문이 있는 설중매라는 가기가 있었다. 한 대신은 곤드래 취해서 설중매의 어깨에 손을 얹어 쓰러질 것 같이 기대여 "너는 정을 동쪽에 쏟고 서쪽에다는 몸을 판다 고 하니 이 늙은이와 오늘 하룻밤 베개를 같이 하는 것아 어떠냐"고 농을 걸었다.

설중매는 방끗 웃으며 "동쪽에 정을 쏟고 서쪽에 몸을 파는 천한 계집과 왕 씨를 쫓다가 다시 이 씨를 쫓는 대신과 베개를 같이 하는 것도 꽤 괜찮은 대조일겁니다"라 답했기 때문에 대신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도 못 들고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

종침교(琮沈橋)

성종대왕이 즉위한 초에 왕비인 한(韓) 씨가 돌아가시었다. 후궁의 윤(尹) 씨는 원자(燕山)를 낳기 때문에 윤 씨를 책봉하여 왕비를 삼았다. 윤 씨는 질투심이 강하여 궁중에 있는 여러 원(媛)을 미워하였고 대왕의 면전에서 꽤 자기 마음대로 굴었기에 대왕은 격노하여 폐비시키고 나중에는 약사발을 내려 죽일 생각으로 어전에 제신(諸臣)을 불러 회의를 열게 되었다. 대왕의 노여움

이 하도 크기 때문에 감히 대신중 아무도 대왕의 마음을 거슬려 간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영의정 허종(許琮)은 그 어전회의에 참석차 궁을 향해 가던 도중 잠깐 누님 집에 들었었다.

누님은 허종을 향해 사사집의 노복이 주인의 명령이라고 주부를 죽인다면 훗날 그 집 주부의 아들이 그 일을 안다면 그 아들한테 복종할 때 화가 일어나지 않고 무사하겠냐고 넌지시 비유하여 일러 주었다.

허종도 깨달은 바 있어 누님 집을 물러나와 돌다리를 건너다 고의로 말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었다.

그 상처를 이유로 그날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 후 성종이 돌아가시고 연산이 등극하자 연산은 어머니의 복수를 하기 위하여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여러 대신을 하나 남기지 않고 모두 살육하였다. 단지 한사람 허종만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화를 면 하였다.

후에 허종이 낙마한 다리를 종침교라 부르게 되었는데 지금 사동에 있는 돌다리가 바로 그것이다.

전화위복(轉禍爲福)

성종조에 왕비를 폐하고 약사발을 내려 독살할 때에 입직승지 유순(柳洵)은 그 약사발을 가지고 가서 먹여야 되는 임무를 맡아보게 되었다.

바로 그날아침 포천(抱川)의 향리에서 급보가 왔는데 부인이 호랑이에 물려갔으니 빨리 내려오라는 급보가 왔다.

이에 순은 그 사실을 고하고 포천으로 급행하였다.

독약을 먹일 임무는 그의 동료인 이세좌(李世佐)가 대신하였다. 순은 포천에 당도하여 보니 과연 부인은 호랑이에 물려갔었지만 호랑이 등 뒤에 업혀가던 부인은 도중에서 나무에 기어 올라가 위급한 난은 면할 수 있었다기에 순은 마음 편히 쉬고 기쁘게 서울로 돌아왔다.

그 후 연산의 세상이 되고 세좌 부자는 참살을 당하였지만 순은 이 화를 면하였을 뿐 아니라 중종조에 입각하여 대신까지 되었다.

녹사자상공서(錄事子相公婿)

윤효손(尹孝孫)은 성종조의 명신(名臣)인데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 처관(處寬)은 의정부의 녹사를 지내고 있었다. 처관은 공용으로 아침 일찍 좌의정의 문에 가서 쪽지를 전하고 기다려도 문지기는 아직도 주무시고 있다고 번번이 거절을 당하였다. 아버지는 저녁때가 다되어서야 기운 없이 돌아와서 효손을 무릎에다 올려놓고 애비는 못난 탓으로 이렇게 모욕을 당하니 너는 아무쪼록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라고 다짐을 받았다.

효손은 아버지가 면회를 청하는데 사용하는 종이 한귀에 시 한수를 적었다. 그 시는 이러하였다.

상국감면일정고 문전자지이생모(相國酣眠日正高 門前刺紙已生毛)
몽중약견주공성 수문당년토악로(夢中若見周公聖 須問當年吐握勞)

다음날 아침 아버지는 이런 것도 모르고 그 종이를 그대로 내어 밀고 면회를 청하였다. 상공은 그 시를 보고 이내 불러 드리라고 하여 만나 이 시는 대체 누가 쓴 것이냐고 물었다.

처관은 놀래어 글씨체를 보니 아들 효손의 글씨에 틀림이 없어 어젯밤 이야기를 거짓말 없이 이야기 하였다.

상공은 곧 효손을 불러 보시고 그 얼굴 됨이 범인이 아니매 마음에 들어 사위를 삼기로 결정하였다.

상공은 다른 사람 아닌 박원장(朴元章)이었다.

묘활저두(猫活猪頭)

장순손(張順孫)은 성주(星州) 사람인데 그 얼굴의 생김새가 꼭 멧돼지와 같기 때문에 동료들은 그를 가리켜'멧돼지머리'라는 별명을 부르고 웃곤 하였다.

연산군은 성주의 한 기생을 특히 총애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멧돼지머리'를 헌상하는 자가 있어 이 기생은 이 돼지 머리를 보자 생각지 않았던 웃음이 나와 그만 웃어 버렸다.

연산은 웃는 이유를 물었다. 기생은 고향인 성주에 장서두(張猪頭)라고 별명이 불리는 묘하게 생긴 사나이가 있어 그를 생각하고 웃었습니다고 했다.

그러니까 연산군은 대발노발하며 필경 그놈의 멧돼지머리라는 별명을 가진 놈은 너의 정부일 것이라고 하며 금부에 명하여 멧돼지머리라는 자를 잡아 오라고 명령하였다.

서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줄은 꿈에도 모르는 순손은 점심 식사를 막 하는 도중에 체포되었다. 어처구니없는 일에 포박당해 구인되는 도중 함창(咸昌)이란 곳까지 와서 그곳 공검(公儉)이란 연못까지 다다르니 한 마리의 고양이가 튀어나와서 지름길인 적은 길로 도망쳐 버렸다. 순손은 포졸들에게 향해 "나는 평상 과거 보러 가는 도중에 고양이가 지나간 도로를 따라가면 반드시 붙었는데 지금도 역시 고양이가 지름길로 튀어 갔으니 지름길로 가는 것이 제 소원이니 들어 주실 수 없느냐"고 애원하였다.

포졸들도 쾌히 승낙하여 문경까지 갔다. 문경에서 들으니 선전관이 왕이 더 참을 수가 없어 목을 잘라오라는 명령을 받고 정로(正路)를 따라 이곳 문경을 지나 성주로 갔다는 것이다.

그래 일행은 그곳에서 다시 돌아올 선전관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선전관이 채 돌아오기 전에 연산군이 폐하여 졌다는 보도가 선착하였기에 순손은 형을 받지 않고 무사 하게 되었다. 순손은 후에 중종의 대신까지 지났다.

언언시시(言言是是)

시비의 변별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황희 정승'이라고 부른다.

황희는 이조의 명상으로 대사에 임할 때는 시비곡절을 꼬박 가리는 사람이지만 평생 담담하고 적은 일에는 조금도 구애되지 많고 시비를 가리지 않았다. 어느 날 비복(婢僕) 둘이 싸움을 하였다.

한사람의 비복이 상세하게 황희정승에게 이야기하고 누가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여 달라고 하였다. 황공은 한 비복의 말을 듣고 나서 "네가 이야기 한 것은 도리에 맞는다."고 머리를 끄덕였다. 비복이 나가자 또 한 비복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였다. 황공은 듣고 나서 "네가 이야기하는 것도 맞았다."고 하였다.

옆에서 이것을 듣고 앉아있던 부인은 웃으면서 "아니 노공은 모르셔도 분수가 있지 사물은 일시일비가 있는 것으로 어느 한쪽이 잘잘못이 있는 것인데 두 쪽이 다 네 말이 맞는다면 어찌됩니까."했다.

그러니까 황공은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도 옳소."하고 그만이었다.

문곡지간(聞哭知奸)

중종 때 무인출신의 박영(朴英)은 김해부사(金海府使)로 있었는데 동쪽 마을 한 집에서 여자의 통곡 소리가 들려 형리를 시켜 포박시켜 왔다.

얼마 있다가 끌어내어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통곡을 하느냐고 물었다.

통곡하던 여인은 우리 남편이 화목하게 지냈는데 별안간에 죽었습니다고 대답을 하였다.

박영은 한층 소리를 높여 힐책을 하였다.

통곡하던 여인은 울음을 그치고 우리 부부는 화목하게 지냈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잘 알고 있습니다고 대답했다. 박영은 형리에게 명하여 사체를 조사하여 본 결과 변사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여인은 이것을 보고 한층 통곡소리를 자르며 하늘은 이 첩의 정을 알아주는데 관리 양반들은 죽은 시 체지만 이렇게 무참하게 다루느냐고 애소(哀訴)하였다. 박영은 그런 말에 개의하지 않고 기운 센 형리를 불러 시체를 하늘을 보게 눕히고 힘 있는 데까지 가슴으로부터 배까지 안마를 시키었다.

그러니까 배꼽 속에서 예리한 대 바늘(죽침(竹針))이 나왔다.

여기에서 여인을 고문하니 더 감출 수가 없어서인지 간부(姦夫)와 공모하여 남편이 술 취해 자는 틈을 타서 이런 짓을 했느니라고 자백을 하였다.

형리도 이상하게 생각하여 박공은 어찌하여 그 여인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느냐고 물어 보았다.

박영은 말하기를 처음 통곡소리를 들었을 때 조금도 슬픈 모양이 아니었기에 의심스러워 체포한 것이요 또한 시체를 검사할 때 통곡을 하면서도 실은 공포의 빛이 보였기에 여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인접포적(因妾捕賊)

인조(仁祖)의 갑신년에 훈련대장 구인후(具仁垕)는 하룻밤 그의 첩의 집에서 자고 있었다.

그러자 밤중에 문지기가 뛰어 들어와서 급한 볼일로 대장을 꼭 만나야겠다는 사람이 왔다고 전하였다. 구공은 뛰어 일어나 만나 보려 하였더니 첩(妾)이 구공의 옷소매를 잡으며 .밤중에 사람을 찾아 잠자리를 소란하게 만드는 사람은 신통한 일이 아닐 겝니다. 어쩌면 악인인지도 모르니 만나지 마시는 것이 좋을까 한다고 말했다.

구공도 그럴싸해서 곧 부하를 불러 불을 더욱 크게 밝히고 위졸(衛卒)을 배열하여 놓고 불러들여 대 면하여 보니 과연 소매 속에 비수가 감추어져 있었다.

그것은 청원군(淸原君) 심기원(沈器遠)이 사변을 일으키려고 우선 구공을 살해할 목적으로 자객을 보낸 것이었다. 구공이 화를 면하고 복이 온 것은 그의 첩의 덕이었다.

이승(異僧)

인조조(仁祖朝)의 정모(丁卯) 정월 7일 날에 한 늙은 중이 지팡이를 짚고 평양의 영문을 두들기면서 우리나라의 화기(禍機)가 지금 목첩에 박두하고 있다.

만일 나의 이 한마디를 듣는다면 무사히 끝날 것이라고 소리치고 있었는데 문지기는 미친 늙은 중이 떠든다고 쫓아버렸다. 그리한 지 얼마 가지 않아 왜구(倭寇)가 일어났다. 이것은 필시 이인(異人)으로 화를 복으로 만들 수 있는 술(術)을 아는 사람으로 예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을 그대로 쫓아 버렸다는 사실은 참으로 애석한 이야기다.

금일화출(今日火出)

광해조(光海朝)의 병진(丙辰)년에 어전시험(御前試驗)이 있었다.

그 삼사일 전에 권신(權臣) 이이첨(李爾瞻)은 친족의 이(李) 진사에게 한 자루의 붓을 보냈다. 그런데 심부름꾼이 잘못 알고 그 옆집에 그것을 전하였다.

옆집사람이 그 필통(筆筒)을 잘 보니 적은 종이쪽지에 무엇인지 쓴 것이 있는

것 같아 들어보았더니 그것은 어전시험에 나올 과제로서 「의당조선신사사유류화(擬唐朝鮮臣謝賜楡柳火)」라 쓰여 있다. 옆집사람은 급히 이를 등사하여 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李) 진사 집에 전하여 주었다.

어전시험 날이 왔다. 두 사람은 조금도 그런 빛은 보이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누가 그랬는지 오늘은 화(火)자가 나온다. 화자가 나온다고 떠들어 대고 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그 제목이 나왔고 둘이 과거에 급제하였음은 당연한 일이다.

아차현(呀嗟峴)

홍계관(洪繼寬)은 명종(明宗)때 사람으로 신복(神卜)으로 유명하였다.

일찍이 명종왕의 명수(命數)를 점쳐 모년 모월에 비업(非業)의 최후를 마칠 것이요. 그것을 피하려면 용상(龍床)밑에 숨어 있으면 면할 수 있겠다고 점을 쳤다. 그날 왕은 용상 밑에 숨어 있으니 한 마리의 쥐가 앞을 지나갔다. 왕은 홍에게 향하며 지금 쥐는 몇 마리나 지나갔냐고 물었다.

계관은 공손하게 세 마리라고 대답을 하였다. 왕은 노하여 네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가 거짓말이라고 곧 형관(刑官)을 불러 목을 잘라 죽이라고 명하였다. 그때만 해도 형장은 당현(堂峴)의 남쪽에 있는 사강(沙江)변두리에 있었다.

계관은 형장에 끌리어 와서 점을 한 번 치고는 얼마 안 되는 식사할 수 있는 시간만큼만 기다려 준다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조금 여유를 달라고 청을 하였다.

왕은 계관을 압송한 후에 그 쥐를 잡아 배를 째여본 결과 뱃속에서 두 마리의 생쥐가 들어 있음이 판명되었다.

왕은 놀래 급히 급사를 보내어 계관의 처형을 중지하라고 하였다. 급사가 당현까지 뛰어가서 동정을 보니 짝 처형을 하려는 참이라 큰소리로 중지를 소리쳤지만 혹 들리지 않을까봐 손을 들어 신호를 하였다.

형관은 이것을 보고 처형의 집행을 빨리 서두르라고 하는 줄 지레 짐작을 하고 곧 계관의 목을 떨어트렸다.

급사는 할 수 없이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 드리자 왕은 앗차(呀嗟)하니 소용없는 일이나 그 형장을 당현으로 옮기게 하였다.

때에 흐름에 따라 후에 사람들은 당현을 고쳐 아차현이라 불렀다.

이처대기(以妻代妓)

광해조(光海朝) 때 한 사람의 이조낭관(吏曹郎官)에 권세를 부리는 자가 있어 관리들의 진퇴는 대개 이 사람의 수중에 있었다. 낮은 벼슬아치들은 제마다 이 사람의 거동에 귀 기우리고 아첨하는데 바빴다.

또한 어떤 구관자(求官者)는 그의 청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조낭관의 문을 두들기며, "우리 집 근처에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기생이 있사온데 한 번 술을 먹으려 같이 가셔서 놀아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하고 구미 당기는 소리를 했다.

이조도 눈을 가늘게 뜨고 승낙하였다.

구관자는 기뻐서 기생집에 청해 같이 가보니 공교롭게도 그 날은 출타하고 없는 날이었다.

구관자는 신용이 타락될까 걱정되어 곧 생각해낸 것이 자기 처를 기생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조와 동침하라고 명하였다. 처는 싫다고 승낙하지 않았다. 구관자는 사정을 이야기 하고 처보고 재삼재사 간청하였으나 그래도 승낙하지 않아 무리로 처를 끌어 이조의 침상에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처가 마구 대성통곡을 하며 거절하는 바람에 이조는 영문도 모르고 놀래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무지한 사람도 많지는 않은 것 같다.

니승고소원(尼僧固所願)

판원(判院)의 김효성(金孝誠)은 많은 애첩을 거느리고 있었기에 부인은 질투(嫉妬)들 일으키어 마음 아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어떤 날 여니 때와 같이 효성이 돌아오니 부인이 앉아있는 옆에 검은 색의 옷과 저포(苧布)가 한 필(疋) 놓여 있었다. 효성은 이상히 생각하여 저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부인은 몸을 고치고는 당산은 많은 첩을 귀여워해주고 나를 마치 원수같이 대하시니 나는 출가하여 중이라도 되려고 생각하여 준비한 것이라 하였다.

김 판원은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서는 한바탕 웃으며 그것 참 멋들어진 일이다. 나는 호색으로 예기창기(藝妓娼妓)는 물론이요 신분이 낮은 남편 있는 아내로부터 침사사의 일하는 이까지 손을 안댄 일이 없는데 아직 여승하고는 잔일이 없는 즉 만일 네가 여승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바라고 시치미를 데고 이야기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약이 올라 한 마디도 대꾸를 못하고 검정 옷을 발기발기 찢어 방위에 던져 버렸다.

<명작단편소설(名作短篇小說)>

별이 총총한 밤에

라울 브란다아오

김병룡(金炳龍) 역(譯)

라울 브란다아오(Raul Brandao: 1867-1930) - 포르투갈의 소설가, 그의 내력에 대하여서는 알 길이 없으나 포르투갈 평론가의 말을 빌리면 그는 "깊은 동정과 높은 해학의 향기"를 가지고 가난과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의 세계를 기발한 솜씨로 그려냄으로써 당시의 문단에 특이한 존재를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포르투갈은 고대 그리스를 제외한다면 약소국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문학수준을 가진 나라라고 지적한 영국의 평론가 A. F. 벨의 말을 보더라도 브란다아오와 그를 낳은 포르투갈의 세계적 문단의 위치를 짐작 할 수 있다. 만년에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그의 작품으로는 A Farsa, Os Pobres, Humus. Memorias, Teatro, El-rei, Junot, Os Pescadores 등이 유명하다.

이미 세대가 달라진 작가의 단편이지만 영역(英譯)이 뜨인 기회에 영미불 각국의 작품 외에는 별로 접해보지 못하는 우리의 '빈곤' 속에 남이 무쳐온 향기를 다시 찍어오는 격이 나마 색다른 것을 전해볼 양으로 중역(重譯)에 겹친 졸역(拙譯)을 소개하는 바이다. 영역문(英譯文)의 제목은 'The Thief and His Little Daughter'로 되어있다. (역자)

도둑, '죽음의 머리'와 '고아원 내기'라고 부르는 창녀의 어린 딸은 날카로운 매춘부들의 고함 소리에 섞여 병정의 무리와 도둑들의 음탕한 농담으로 날이 지새는 뒷골목에서 자라났다. 네 살 백이의 어린 소녀는 '뚱보'니 '귀머거리'니 하는 창녀들의 품속에서 잠이 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느 외진 구석에 혼자 쓰러져 잤다. 하수도의 도랑치기가 업이었다는 '늙은 뱅이'는 심심할 때면 이 어린것을 무릎에 끼고 앉아 이빨하나 안 남아있는 흉측한 입을 벌리면서 농을 치는 것이 일수였다. '주인마님'은 마음씨가 무척 후한 편이었고 '색시'들은 가끔 생각이 나면 미친 듯이 어린 뺨에 키스의 소나기를 퍼부어주는 일도 있었지만 때로는 며칠이 지나도록 그림자하나 안보일 때가 많았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소녀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다. 이러할 때면 으레 이불속이나 문간 한 구석에서 혼자 울다가 잠들 곤하였다. 오히려 남보다도 딸을 유달리 싫어하는 어미는 언제나 어린것을 피해 다니는 눈치였다.

"에이, 보기 싫은 것, 눈앞에 띠기만 해도 죽겠어."

그래도 어린것은 자라나기만 했다. 사람의 참된 모습이 꿈속에서나 볼 수 있듯이 잠시 치욕과 비참의 세계에서 머리를 쳐들고 나왔다가도 다시 사라져버리고 마는 이 그늘진 곳에서도 어린것은 생장의 기회가 없다는 듯이 잘 자라났다. 도둑, '죽음의 머리'는 가끔 계집에게 이러한 말을 하였다.

"왜, 애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응얼거리는 거야?"

"난 그 꼴만 봐두 못살아요! 못산다면 못사는 거지 또 무슨……"

"넌 염소의 암컷보다도 못한 년이야!"

이러곤 으레 매찜을 내는 것이 예사였다. 계집은 눈에 독살을 피우면서도 겁에 못 이겨 입을 다물어버리곤 하였다.

"날 때려죽이고 싶거든 죽여도 좋아요, 허지만 난 눈앞에 그 애 꼴만 비쳐두 살이 치미는 걸 어떻게 두고 봐요, 갔다 버리든지 어떻커든지 제발이지 내 눈앞에서만은 데려가줘요!"

도둑은 올 때면 언제나 어린 딸에게 넝마쪽을 둘러 주기도 하고 품에 꼭 안아 주기도 했다. 겨울이 되면 탄은 외투를 가져다가 포근히 싸주기도 하였다.

"이년의 아귀는 죽지도 않아!"

'고아원 내기'는 '죽음의 머리'의 매질을 각오하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귀'는 죽지 않았다. 어린것은 언제나 애비의 얼굴만 쳐다보면서 그가 나갈 때면 발길에 매여 달려서 울었다.

그러면서도 어린것은 욕설과 울부짖음과 그리고 창녀들의 구슬픈 노랫소리에 날이 저무는 컴컴한 뒷골목에서 무럭무럭 자라났다.

"넌 왜 자꾸 불상한 것을 때리기만 하니?" 다른 창부들이 이렇게 물어도 '고아원 내기'는 언제나 한결 같은 대답만을 내뱉었다.

"나두 모르지, 낸들 어떻게 알어!"

된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초겨울의 어떤 날 '고아원 내기'는 병원으로 끌리어 갔다. 병원으로 끌려가는 순간에는 무슨 마음이었든지 어린 딸을 부여잡고 몸부림을 치면서 통곡을 했다. 사람들은 씨름을 하면서도 그의 팔에서 어린것을 앗아내기에 힘이 들었다. 그 뒤로는 어린 것을 색시들 많이 돌봐주어야 했고 으레 그들의 품속이 아니면 아비 도둑의 품속에서 자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도 이상 더 말아볼 수는 없어요. 오늘은 모두들 가져다 파묻기라도 해야겠다구들 하는데요……." 창부들은 하루아침 그에게 이러한 말을 하였다.

'죽엄의 머리'는 혼자서 몇 시간을 두고 곰곰이 생각에만 잠기고 있었다. 밖에

서는 껄껄대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문의 커튼을 박차고 어린것을 무릎에 끼고 앉아 농을 치는 도랑치기 늙은이에게로 뛰어갔다. 그가 미친 듯이 늙은이의 팔에서 어린것을 잡아끌어도 사람들은 그의 분노에 찬 얼굴과 이가 빠진 야수의 아가리처럼 큰 입을 벌리고 절절대는 늙은이의 모양을 뚫어지게 번갈라 볼뿐 말이 없었다. 어린 딸을 데리고 나간 '죽엄의 머리'는 돌아오지를 않았다. 오정이 훨씬 넘어서 돌아왔을 때 그는

"밤까지만 얜 좀 맡아주우"하면서 '뚱보'에게 어린 딸을 맡겼다.

밤이 되어서 돌아온 그는 딸을 불러서 안고 시간이 가도록 멍하니 앉아만 있었다. 바로 이때에 그는'고아원' 계집이 제 자식에게서 느낀 두려움과 병원으로 끌리어 가는 순간에 보여주든 숨 막히는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듯하였다. 어린아이를 팔에 끼고 있는 그 추접한 늙은이, 마귀의 아가리처럼 벌리고 있는 그의 흉측한 입모양을 계집도 보았으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듯하였다.

"나하구 같이 갈까?"

"어데 가? 아빠, 산뽀?"

"응, 아빠하구 산뽀 가."

어린것은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좋아하였다.

"지금?"

"응"

그는 어린 딸의 조그마한 손을 끌고 강가로 나갔다.

그 곳은 바로 그가 '고아원' 계집을 처음으로 만나던 자리였다. 어린것을 데리고 배를 탄 그는 밧줄을 풀고 노를 젓기 시작하였다.

"어데 가는 거야, 아빠?"

"인제 가보면 알아. 너는 잠이나 자고 있어."

도적의 가슴에는 그 어미의 마음을 사로잡든 것과 같은 깨달을 수 없는 어떤 두려움이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그는 도저히 그 까닭을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그것은 그의 어린것이 달리 갈 곳 없이 찾아가서 살아야만할 그 음침한 골목에 대한 혐오에서 오는 감정은 아니었다. 어린 딸이 도랑치기 늙은이의 야수와 같은 팔에 안겨있는 것을 보거나 또는 그의 딸을 말없이 곁눈으로 노려보는 병정들의 음험한 눈초리에서 오는 것도 아니었다. 무언지 알 수 없는 오직 그의 가슴을 억누르는 괴로움이었다. 어찌하던 결말을 내리지 않고 마음가운데 두고서는 살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었다. 저의 어미가 말로서 표현할 길이 없든 것과 똑같은 꼴로 이 감정은 지금 그의 뼈 속으로 사무쳐들고 있었다. 도둑은 피할 수 없는 모든 불안의 그림자가 어린 딸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전율(戰慄)에 몸을 떨었다. 이 어린생명을 끊어버려야 한다. — 이것만이 필요의 전부였다.

"자, 그럼 —" 그는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어린딸은 여전히 그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웃고만 있었다. 도둑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떠돌았다.

"넌 자라니까 그래!"

"아빠! 아빠 말이지 응"

어린것은 지절거리기를 시작하였다. 그 나이또래의 어린아이들이 하는 분명치 않은 말투로 더듬거리면서 뒷골목에서 도랑치기 늙은이의 목에 매달려 얻어들은 가진 욕스러운 말들을 옮기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도둑은 목숨의 무서움에 새삼스럽게 놀랐다.

"아빠! 아빠 말이지, 응 저기 저건 뭐지?"

비참한 그림자만이 무겁게 드리워진 좁은 골목 속에서, 아직껏 하늘의 별을 모르고 자라난 어린것은 어두운 허공을 가르치면서 소리를 쳤다.

"아, 별! 별!"하고는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으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참으로 귀여운 말들이었다. 되풀이되고 또 되풀이되는 말이었지만 장미꽃 같이 붉은 입술위에 오를 때면 언제나 새롭고 싱싱한 의미를 가지는 귀여운 말들이었다. 어린이들의 말 가운데서 생명은 언제나 새로이 일깨워지는 듯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매양 두려운 말이기도 했다. 저도 모르게 휩쓸려 배우게 된 뒷골목의 비극 속에서 이루어지는 무서운 말이기도 하였다.

배 밑창에 누어서 하늘을 바라다보고 있든 어린것은 이윽고 잠이 들었다. 잠든 얼굴이었지만 어린 딸을 바라다보는 도둑의 마음에는 깨였을 때나 다름없는 두려움을 주고 있었다.……

그는 고이 손을 들어 밧줄로 딸의 허리를 묶었다. 잠시 옴찔거리다가 잠을 깬 어린것은 아비를 보고 웃음을 띠면서 입을 열어 "아빠"하고 부르더니만 다시 세상모르게 잠이 들고 말았다. 도둑은 오래도록 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만 있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린것은 제대로 잘나갈 수가 없을 것만 같았다. 그

의 눈앞에는 언제나 '늙은이'의 이빠진 아가리와 창녀들의 음탕한 모습이 사라지지를 않았다. 어린 딸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이 어떠한 종류의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었다. 그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바로 이 어린생명의 존재였다. 이것을 강물 속에 집어던지고 그 물속의 한밑 바닥까지, 이 어린것이 지녀야 할 욕된 괴로움과 비극의 도가니로부터 멀리 벗어나 밑으로 밑으로 한없이 내려가는 것을 봐야만 그는 이 땅위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의 마음에는 난생 처음으로 자기가 무엇인가 크고 한량없는, 보이지도 않고 이상스러운 어떤 존재에 대하여 죄를 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는 지금 생명의 잼물매 독약을 치고있다는 무서운 생각에 사로잡히고 있었다. 그러나 어린것을 살려둘 수는 없는 일이었다. 비록 형체를 짐작할 수 없는 새로운 두려움이 그의 머리를 엄습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있어서도……. 그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앞으로 다가갔다. 어린 목을 거친 손아귀로 졸라서 숨을 지우려는 속심이었다. 그러나 그 짓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 그는 해야 할 안타까움을 지니면서도 감히 해낼 수가 없는 괴로움에 몸을 졸였다.

"나는 겁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겁에 질려 버린 것이 아닐까?"

그는 자기의 손을, 그 크고 무지스러운 자기의 손을 아니 쥐어짜보았다. 어둠같이 차디찬 자기의 두 손을 모아 아스라 지도록 힘을 주었다.

가슴 한 밑으로부터 무엇인가 가느다란 생명의 온기가 치도는 것을 느꼈다. 한없이 고요한 밤하늘아래에서 그의 마음은 괴롭기만 하였다. 큰 산더미의 무게로 그를 억누르고 있는 두 가지의 모순된 힘 사이에서 그의 마음은 산산이 이지러지고 있었다. 그는 하늘을 치어다보았다.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는 밤하늘의 별들을 치어다보았다. 어린것은 배 밑바닥에 잠들어있고……점점 부풀어 오르기만 하는 두 개의 모순된 힘은 그의 숨을 막으려는 듯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밤이 주는 고요한 침묵에 쌓여 마음 속 에서 우러오르는 자식에 대한 사랑과 머리가 자아내는 행동의 의사를 서로 헤갈라 놓을 힘이 없는 약한 도둑의 비극은 말없이 계속되었다.

이윽고 그는 딸의 가슴위에 고이 손을 얹었다. 어린것은 잠을 깨고 눈을 떴다.

"아빠, 아빠."

애비가 자기에게 장난을 하는 줄만 아는 어린 딸은 그의 팔에 얼굴을 부비면서 소리를 질렀다.

"별, 별! …… 아, 로자, 로자, 로자! …… 아빠 아빠는 나 하구 동무야, 그지? 아빠는……아이 예뻐, 저별!……아빠……

X X

천진난만한 어린 입을 거쳐 나오는 말이었지만 그 말들은 모두가 도둑의 무리가 사는 거리 — 바로 우리가 사는 세계에 속하는 그러한 말들이었다. 그가 참기에는 너무나 멀미가 나는 말들이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말들이었다. 어린 딸이 지절대는 소리에 쓰라림과 전율의 마비로 가슴을 조이면서도 그는 자기의 무지스러운 손아귀에 쥐어지는 작고 포근한 손길의 체온을 느꼈다. 도둑은 무엇인가 말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말은 목에 잠긴 채 밖으로 나오지를 않았다.

생각에는 쉽던 일도 닥치고 보니 어려웠다. 딸을 죽여야만 된다는 생각이었지만 실상 죽일 수는 없었다. 다가오는 운명을 그대로 받아드리는 길밖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곁눈으로 흘겨보는 병정들의 눈초리와 손아귀에 들어올 먹이의 냄새들 맡고 음흉한 웃음을 띄우는 야수와 같이 무서운 그 '늙은이'의 아가리가 기다리는 운명을 그는 천천히 허리의 밧줄을 풀고 언덕을 향하여 배를 저었다. 매여진 생활 속으로 다시 돌리기 위하여 그는 배를 띄워놓은 채 어린 딸을 팔에다 안고 그 어두운 뒷골목으로 되돌아왔다.

<창작(創作)>

하이얀 마음

김형덕(金炯德)

1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정화는 다시 한 번 입속으로 기도를 끝마치고서 눈을 들었다. 눈은 똑바로 진수의 검짓검짓한 눈썹위에서 멎었다. 그때 진수도 숙였던 고개를 드는 것이 정화의 시선과 딱 마주쳤다. 그러자 후딱 외면을 한 것은 정화였다. 정화의 여태껏 정성들인 기도가 허사로 돌아갈 것 같은 순간이었다. 정화는 본능적으로 옆에 앉아있는 연숙이를 돌아보았다.

연숙이는 의자에서 상반신을 비틀고 돌아앉아서 어느새 뒷사람들과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자기들만 왔다는 얘기 같았다.

장하는 왜인지 진수를 보기가 무서워졌다. 연숙이 곁에 태연히 앉아있는 자기 자신도 무서워졌다. 정화는 저윽히 맥이 풀려오는 것을 느끼며 눈을 떨어뜨리고 찬송가를 뒤적이기 시작했으나 분명 이마 언저리에서 머뭇거리는 진수의 시선을 의식할 수 있었다.

예배가 끝났어도 찬양대원은 그대로 제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오늘따라 찬양연습이 있기 때문이었다. 예배가 끝난 직후의 교회 안은 마치 하학종이 울린 국민학교[초등학교] 교실 안같이 웅성웅성 소란스러웠다. 정화는 다시 한 번 조용히 진수 쪽을 바라보았다. 진수는 꼼짝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찬양대석에선 일반석 한쪽에 자리한 진수의 위치가 대각선으로 곧장 보이었다.

정화는 때로 어수선하게 서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진수의 듬직한 체구가 삭막거릴 때마다 그리고 연실 키드득거리는 연숙이의 웃음소리가 귓등을 울릴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초조와 짜증을 느끼곤 혼자 낯을 붉히는 것이었다.

"참 나 좀 봐, 모처럼 모시고 와선 깜박 잊어버렸네, 미안하지만 난 먼저 가야겠어요. 미안합니다."

발딱 일어선 연숙이가 찬양대원들을 향해서 커다란 소리로 사과를 하고는 우정 정화의 귀에다 대고 한마디 속삭인다.

"정화야 어때, 저만함 내가 반할만하지? 우후훗, 그럼 난 먼저 갈 테야."

콩콩콩콩 마룻바닥을 구르며 연숙이는 어느새 초연히 앉아있는 진수 곁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교회 안은 벌써 텅 비었고 때마침 찬양연습이 시작되어 앞에 나와 선 지휘자의 지시대로 찬송가를 펼쳐들었으나 정화의 목은 꽉 잠긴 채 도무지 노래가 불러질 것 같지도 않았다.

모두의 시선을 눈부시게 환히 웃어넘기며 나란히 교회 문을 나서는 연숙이와 그의 애인이라는(연숙이 말에 의하면) 진수의 뒷모습이 너무도 의젓해서 정화는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2

참으로 어쩌자고 밤하늘은 저리도 아름다운 것일까. 짙은 너무도 짙은 고운 바탕에 수없이 깜박대는 작은 생명들. 손을 들어 닿을 수 없는 그렇게 먼 거리를 두고 별과 인정(人情)은 하나같이 몇 천 년 몇 만 년을 고스란히 이어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뿐. 별은 여전히 하늘에서 아름다웠고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었다. 나의 것, 나의 것이란 얼마나 정다운 이름인가. 얼마나 그립고 아쉬운 이름인가.

정화는 새삼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분노를 자기 자신에게서 느끼고 있었다. 참으로 사료(思料)없이 경주된 감정의 연면(連綿)이었다. 다시없는 뉘우침이 정화의 가장 안 가슴 속에서부터 서서히 끓어올랐다. '

며칠 전이었다. 수요일 저녁 예배가 끝나자 연숙이와 정화는 나란히 어둔 밤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좀 천천히 걷자 얘"

문득 손을 잡아채며 연숙이가 먼저 걸음을 늦추었다. 정화는 연숙이에게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의 요즘 태도로 보아 확실히 생활에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짐작이 갔다.

"정화야, — 난, 큰일 났어."

불쑥 연숙이가 입을 열었다. 연숙이 답지 않게 가라앉은 목소리였다.
"왜, 무슨 일이 있니?"
무심히 반문하면서 정화의 마음속에 얼핏 지피는 것이 있었다.
"응, 아이, 아무것두 아니야."
정화는 연숙이의 등을 탁 치면서 소리쳤다.
"너 좋은 사람이 생겼구나."
"아이 기집애두"
연숙이는 펄쩍 뛰면서 눈을 흘겼으나 이내 하하핫하고 웃어버리는 것이었다.
연숙이의 성격으로 속이 간지러워서도 그대로 있을 수 없을 것은 빤한 일이었다. 더구나 정화에게는 말할 것도 없다.
교회에서 사귄 사이였지만 연숙이의 그 호탈한 명랑성은 정화의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과 잘 어울렸다. 연숙이는 E여대 정외과, 정화는 S여대 사학과로 같은 2학년이기도 했지만 청년면려회에서나 찬양대에서나 이 교회의 없지 못할 두 중진이었다. 그러기에 더욱 가까워졌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 누구 앞에서도 거침없이 휘두를 듯한 연숙이의 거만하다면 거만하다고 할 수 있는 태도까지도 오히려 밉지 않은 것은, 자기 어머니가 이 교회의 집사로 있어 교회 안에서 어깨가 넓은 탓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정화의 감싸줌이 더 큰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었다.
연숙이는 정화의 손에 꼭꼭 힘을 주어가며 적이나 즐거운 모양이었다.
얼마 전부터 양쪽 집안에서 말이 시작되어 둘이의 약혼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단지 그가 기독교신자가 아니어서 어머니가 그 점 불만이시고 그래서 자기가 요즘 그를 설복시키기에 무척 애를 먹고 있으나 잘 안된다고 했다. 자기 어머니는 그가 교회에 다녀야 허락하시겠다고 고집이시고, 만약에 잘 안되면 정작 자기가 큰일이라고 한다. 그동안 정이 들어 이젠 그이 아니면 결혼 안할 테라고 아주 결심이 단단해보였다. 무엇보다도 정화를 놀라게 한 것은 그가 공군장교라는 것이었다. 그 동안 부산에 있다가 얼마 전에 아주 서울로 왔다는 그 진수라는 분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화의 가슴이 훅 더워왔다.
벌써 며칠째 골목 어귀에서 만나고 있는 그 사람. 어딘가 꼭 짜인 듯 믿음직하게 정돈된 그 공군장교의 모습이 눈앞에 사뭇 커져오는 것이었다.
"어쩜 ... 너도."
정화는 우연한 일치에 신기하기까지 해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다가 뚝 끊었다. 어쩌면 너도 공군이냐고 손뼉이라도 치고 싶었으나, 그러나 그것은 안 될 말이었다. 아직 그의 이름은커녕 말 한마디조차 해보지 않은 것이다.
정화는 제멋대로의 아련한 그리움으로 가슴속이 따뜻해 오는 것이었으나 아직 누구에게도 얘기할 계제는 못된다고 단념하면서 연숙이와 나란히 걷고 있었다.
집 앞에서 헤어지면서 연숙이는 이번 일요일에는 세상없어도 그를 데리고 나올 테니 너도 그가 계속 교회에 나오도록 권유해달라고 거듭 부탁을 하는 것이었다.

3

정화는 무엇인지 모르게 막연한 그리움 속에 소그듬히 젖어있었다. 조그만 문방구점을 지키고 앉아계시는 홀어머니와의 조촐한 살림이다. 대학에 들어간 후부터는 아무것도 더 바랄 것이 없는 노곤한 오후가 계속되고 있었다. 학교에 다녀와선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었다. 그를 둘러싼 모두가 아무 탓할 것 없이 매끄럽게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정화는 정말이지 수선화같이 곱게 피어가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우연한 순간이긴 했으나 골목을 나서다가 주춤 그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면서부터 정화는 까닭 없이 아침 등교시간이 두려워졌다.
거의 매일같이 그는 그 곳에 서있었다. 마치 있어야 할 것이 있을 곳에 놓여있듯 그는 언제나 그곳에 서있었다. 아침 여덟시 십분 전. 출근하는 사람들과 학생들로 한창 바쁜 시간이련만 오히려 그 넓은 한길에 횅하니 바람이 일정도로 쓸쓸한 용산역 전 골목 어귀에 매일마침 오도카니 서있는 공군장교가 있었다. 골목만 나서면 바로 그 앞을 지내가야 하는 정화에게는 웬일인지 그런 아침이 거듭될수록 마음 가볍지 않은 것을 느끼며 고개를 갸웃거렸으나 얼마 후에 정화의 의혹은 풀어졌다. 그는 그 시간에 거기서 통근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얼마쯤 있으니까 공군전용버스가 지나가면서 그를 태우고 영등포쪽으로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고 정화는 호르르 웃음을 삼켰다. 그러고 보니 그는 공군대위였다.
어찌된 셈인지 그들은 거의 매일아침 만났다. 정화는 그의 앞을 지나 큰 길을 건너서 버스정유소에 이르는 동안, 때때로 자기도 모르게 긴장하여 진땀이 나는 것은 그의 시선이 줄곧 자기를 따르고 있는 탓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다가 눈이 마주치면 그는 인사라도 할 듯 그 부드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으나 정화는 얼른 고개를 돌리고 더욱 빠른 걸음으로 도망이라도 치고 싶었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어긋나 혹시 보이지 않는 날이면 온종일 허전한 것은 어인

일일까.

정화는 책장(書架)을 뒤적이다가 하이네 시집을 꺼내들었다. 새빨간 표지로 아름답게 포장된 그 하이네시집을 들고 앉아서 정화는 문득 공군장교를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 이름도 모를 공군장교에게 이 시집을 주고 싶어졌다. 그렇게 생각이 들자 잠시도 참을 수 없었다. 별다른 뜻은 없다. 그저 주고 싶었다. 암말도 없이 가만히 이 책을 내어 주리라. 그의 두툼한 손에 가만히 들려주리라. 정화는 그 애독하던 시집을 들고 혼자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 정화는 그의 먼 모습을 힐끗 보고는 곧장 아래만 내려다보면서 다른 때보다 더 빠르게 그 앞을 싹싹 지나쳐 버렸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

드디어 정화는 그것을 단념해버렸다. 아무렇지도 않게 소녀적인 기분으로 해낼 것 같던 것이 도무지 안 되었다. 처음부터 정화는 그에게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 놓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저 주고 싶은 책을 주고말리라 했던 것이 정작 그 앞에서는 쑥스러울 만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정화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눈을 비볐다. 무엇인지 모르나 막연한 가운데 연연 푸르게 피어나는 그리움으로 정화의 조용하던 생활에 미미한 파동이 일기 시작하였다. 정화는 자주 하이네시집을 뒤적이는 버릇이 생겼고 그리고 자주 기도를 하였다. 그러나 무한히 뻗어가는 혼자만의 그리움일랑 정화의 어린 마음으로는 어떻게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 정화의 숫된 마음에 너무도 놀랍고 어처구니없는 사실로 똑바로 조전해오는 엄연한 현실이 있었다. 정화는 비로소 꽁꽁 언 발끝을 돌부리에 매섭게 채이고서 그 호된 아픔이 자기 자신의 안이한 감정에의 당연한 대가임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연숙이와 나란히 일요일 저녁예배에 참석한 것이었다.

그가 생글거리는 연숙이와 가지런히 교회 문을 들어서는 순간 찬양대석에 앉아있던 정화는 저도 모르게 "안 돼!"하고 입 속으로 부르짖으면서 벌떡 일어났다. 일순 정화의 온몸이 안으로 자지러들면서 와르르 떨려왔다. 저만치서 연숙이가 손짓해 불렀으나 정화는 고개를 저으면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그러나 예배가 시작되어 연숙이가 제 옆에 와 앉았을 땐 정화는 이미 평상시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 있었다. 어떻게 그리도 빨리 자기의 감정을 수습할 수 있었는지 몰랐다. 체념이 빠르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었으나 정화는 연숙이 앞에서 우선 태연해야 했다.

얼마 안 있어 그도 정화를 발견하였다. 연숙이와 나란히 하여 찬양대 맨 앞줄에 앉아있는 정화를 그는 경이와 반가움으로 가득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적어도 정화에게는 그렇게 느껴졌다.

정화는 눈을 떨어뜨리고 그림 같이 앉아있었으나 마음속으로는 연방 "안 돼, 안 돼"하고 외우고 있었다. 무엇이 안 된다는 것인지 자신도 모른다. 그저 무엇인가 안 될 것 같았다.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았다. 결국 아무것도 안 되고 말 것 같은 절망 속에서 구원받기위하여 정화는 열심히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였다.

그가 연숙이의 애인이라는 점에서 도무지 납득되지 않은 자기 자신이 한없이 가없어졌다. 또 한없이 미워지기도 했다.

깊어가는 여름밤 하늘은 짙푸르게 창창 아름다웠으나 정화는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언제까지나 먼별과의 거리를 재어보면서 그렇게 앉아있는 것이었다.

4

진수는 벌써 며칠째 초조해있었다. 그럴 리가 없건만 교회에서 만난 이후로는 통 아침에 정화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시간이 조금 어긋난 것으로 돌려버렸으나, 차츰 그렇게 만도 생각할 수 없었다. 이렇게 며칠씩이나, 아니 일주일이 다 가도록 한 번도 볼 수 없는 것은 필경 병이 아니면 의식적인 행동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었다.

진수는 번민하기 시작하였다. 연숙이의 그 교묘한 유혹에 이끌리어 어수룩하게 교회에 따라 나간 것을 후회라도 하고 싶었다.

처음에는 뜻밖에도 그곳에서 정화를 발견하고 펄 듯이 놀라며 기뻐했다. 무엇인가 오래 찾아다니던 것을 문득 찾아낸 기쁨이었다. 물론 연숙이 앞에서 그런 내색을 할 수는 없었으나 그 지긋이 눌러오는 정화의 먼 시선을 똑바로 받으면서 진수는 비로소 자기 마음 어느 한구석에 큼직하게 자리하고 있던 그 엄연한 존재를 인정하고 머리를 끄떡이는 것이었다.

본래 교회와는 먼 거리에서의 생활이었으나 오랫동안의 군인으로서의 체험을 통해서 진수는 이따금 기도하고 싶은 심정이 되기도 하였다. 그것은 순전히 어릴 때 한동안 교회에 나가보던 막연한 기억에서 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새삼 이제 와서 교회에 나가고 싶은 의욕도 생기지 않았으므로 연숙이 모녀의 간절한 권유를 애써 쫓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허지만 이번 일요일만은 교회에 나가야겠다고 작정하였다. 아니 더 계속 나가도 좋을 것 같았다.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교회에 나가는 것은 죄가 될 것인가? 어쨌든 그는 정화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기로 했다.

어인 일일까. 그는 연숙이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랑하고 있음을 의심치 않았다. 집 안에서 맺어준 사이긴 했으나 진수는 연숙이의 명랑하고 솔직한 인간성을 좋아하였다. 마음같이 법석 법석 시원스럽게 대들지 못하는 자신에게 비하면 연숙이는 한단 높은 곳에서 밝게 살고 있는 것이라고 부러울 정도였다. 그런 자기가 이제금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가책도 되었으나 우선 걷잡을 수 없이 초조한 자신을 이기기 어려웠다.

진수는 자진해서 연숙이에게 교회에 동행하겠다고 말하였다.

“어마, 정말? 정말이죠? 네? 아이 좋아라, 기짓말하심 안돼요.”

그 커다란 눈을 부리부리 굴리면서 사뭇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리고 한편 장한 듯이 좋아하는 연숙이의 그 화사한 얼굴 앞에서 진수는 그런 자기가 끝없이 부끄럽게 생각되었다.

그러나 우선 정화를 보고 싶었다. 매일 보던 그림이 없어졌을 때, 매일 보던 나무가 잘려버렸을 때의 그 말할 수 없는 허전함을 생각해 보라. 더구나 그것이 사람인 경우, 더구나 그것이 마음 주던 사람인 경우 ―.

진수는 참을 수 없는 초조와 불안으로 밤을 새우고 일요일 아침엔 일찌감치 찾으러온 연숙이의 앞장을 서서 교회로 갔다. 아직 예비종도 치기 전이었으므로 교회 안은 휑글하니 찬바람이 일었으나 누군가 피아노앞에 앉아서 가볍게 찬송가를 치고 있었다.

“너무 일찍 왔군.”

진수는 공연히 서둘러댄 자신이 쑥스러워 연숙이를 돌아보고 빙긋 웃었다. 연숙이도 고개를 끄떡이며 오뚝이 서있더니 갑자기 “어마!”하고 가볍게 놀라면서 진수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정화가 먼저 왔네. 저기 저렇게 엎데어 있으니 알 수가 있어야지.”

목소리를 죽여 속삭이는 연숙이 옆에서 진수는 정화의 기도하는 뒷모습을 한동안 지키고 서있었으나 정화의 기도는 좀체 끝날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러자 그들은 똑같이 이끌리듯 나란히 의자에 앉아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였다. 교인들이 한두 사람씩 모여들기 시작했으나 웬일인지 그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았다.

얼마 후에 그들은 마주 서 있었다. 연숙이가, 정식으로 그 둘을 인사시켜주었을 때 오히려 뒤숭숭하던 여지껏의 감정이 푸근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 정화야, 네 덕택에 나도 오래간만에 기도다운 기도를 올린 것 같구나. 네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어쩐지 참으로 기도가 하구 싶어지더라.” 연숙이가 정화 눈을 들여다보면서 심상치 않은 어조로 말하고는 진수를 쳐다보면서 “그렇지요?”하고 동감을 구한다.

진수는 약간 고개를 끄떡였을 뿐 말이 없다.

“뭘 그랬을라구”

정화는 심중을 펴 보인 것 같아 부끄럽고 계면적어서 아무 말도 않았다.

“정말이야. 그런데 너 무슨 근심이 있는 것 아냐? 그새 얼굴이 아주 못쓰게 됐는데 그래.”

연숙이는 정화의 손등을 쓸면서 진심으로 걱정하였다. 그러고 보니 확실히 초췌하여졌다. 진수는 공연히 죄스러운 심경으로 가슴이 답답해 왔다.

정화도 그 이상 그 자리에 서있기가 괴로웠던지

“아니야.”

하고는 찬양대석으로 나아가려고 돌아섰다.

“아픈 데도 없는데 왜 그리 얼굴이 상한담. 옳아, 너 연엘 하는 게구나.”

연숙이는 재빠르게 한마디 찌르고는 하하하고 큰소리로 웃어댔다.

“어마, 얘는 못하는 소리가 없네.”

정화는 귀밑이 확 붉어지면서 저만치 도망갔다. 연숙이는 혼자 좋아서 한참을 웃고 있었으나 진수는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말없이 남자석으로 가버렸다.

어느새 교회 안은 거반 자리가 차가고 있었다.

“같이 차나 마실까요?”

교회가 파해서 나오면서 진수는 정화를 붙들었다. 정화는 고개를 흔들면서 빠져나가려 했으나 이번에는 연숙이가 놓지 않았다.

“그래, 우리 같이 놀자구. 응? 모처럼 그러시는데 너무 쌀쌀히 대하면 내가 부끄럽지 않어? 이이는 안심해두 좋아. 아주 젠틀맨이니까.”

진수는 고소(苦笑)했으나 연숙이는 웃지도 않고 곧잘 그런 소리를 쏙쏙 잘도 했다.

“글쎄 그거야 그렇겠지만, 난 좀 가봐야겠어. 어머니두 기다리시구 해서.”

정화는 연숙이와 진수를 번갈아 보며 사뭇 애원했으나 연숙이는 한번 말을 끄

내면 그만이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내는 것이 연숙이의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부르주아적인 그런 습성을 싫어하면서도 또 미워할 수도 없었다.

"이런 깍쟁이, 그래 젖 먹을 시간이 되었으니 가봐야겠지. 자, 그럼 우리 귀여운 아기에게 우유나 멕이러 갑시다."

연숙이는 정화의 등을 토닥토닥 치면서 진수를 보고 웃었다. 정화도 웃었다. 정화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진수도 웃었다. 정화는 웃으면서도 이 난처한 입장을 어떻게 모면하나 하고 걱정이었다. 연숙이처럼 둘러메치지도 못하는 제 꽁한 성격을 가지고 이런데 휩쓸리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정화는 진수를 쳐다보았다. 진수에게 어떻게 하라고 묻고 싶은 마음이었다. 연숙이보다 진수가 더욱 가까이 느껴지는 것이 별로 이상하지도 않았다. 진수는 눈으로 묻는 정화의 표정을 읽었다. 그리고 . 이렇게 대답하였다.

"무얼 그렇게 두려워해요? 걱정 말고 함께 있어주어요. 자 가십시다."

정화는 그렇게들은 것 같았다. 실상 입으로 한 말인지 눈으로 한 말인지 얼른 판정이 안 갔으나 "자 가십시다"하고 진수가 잘라서 말하고 나섰을 때 정화는 그 이상 거역할 수 없다고 느껴졌다.

셋이 정답게 나란히 걸으면서 연숙이와 자기의 위치를 자꾸 달아보게 되는 것이 싫어서 정화는 차라리 연숙이와 같이 큰소리로 웃어댔다. 그리고 연숙이의 의견대로 구경도 하고 식사도 하고 차도 마셨다.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온종일 몰려다녔다. 그리고 가지런히 저녁예배까지 보고야 그들은 헤어졌다.

이튿날 아침 정화는 가벼운 마음으로 진수가 서있는 골목을 지날 수 있었다. 그 앞에서 허리를 답쑥 꺾으며 인사하고는 책가방을 흔들면서 돌아섰다. 진수도 공연히 즐거워져서 때마침 다가와선 버스에 올라서면서 정화의 돌아서 걷는 참한 뒷골을 향해 미소를 던졌다.

5

여름도 이젠 한고비 넘어서는지 엷은 나무그늘도 한결 시원해 좋았다. 늦장마가 지려는지 질적질적한 구름진 하늘이 이따금 소낙비를 쏟기 일쑤였다.

진수와 연숙이와 정화는 곧잘 어울려서 한강에도 놀러 가고 멀리 인천까지도 가보았다. 진수는 집에서 통근을 하였으나 일요일이 고작 자유로운 시간이었다. 그래서 그 일요일이면 교회가 파하는 대로 이곳저곳 마음껏 돌아다녔다.

처음 몇 번은 정화는 정화대로 놔두기를 원했으나 진수보다도 연숙이가 더욱 성화였다. 자기네들 둘이서는 어딜 가도 재미가 없다는 것이었다. 혼자서 돌지만 말고 같이 동무해달라고 놓지 않았다.

교회에서 같이 나오는 길이라 자연스럽게 그들은 하나가 되어갔다. 진수는 이럴 때면 극성스런 연숙이가 고마울 정도였으나 정화와의 사이엔 약혼자나 다름없는 연숙이의 존재를 확실히 세워놓는데 소홀치 않았다. 그것은 의심할 줄 모르는 연숙이의 순심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함이었고 진수 자신의 하이얀 마음을 속이지 않기 위해서였다. 정말이지 진수는 그렇게 믿었다. 자기가 연숙이를 배반할 수 없듯이 정화도 연숙이를 배반하지 않고 그들은 지극히 모호한 가운데 확연히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범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또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들의 눈은 나날이 맑게 빛나갔고 그런 눈으로 서로 마주 보고 웃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이제 8월도 다 간 어느 날이었다. 그렇게 우중충하던 방안까지 화안해지도록 장마 끝의 햇빛은 쨍쨍 눈부시었다. 오래간만에 밝은 얼굴로 보인 세 사람은 교회에서 나오기가 바쁘게 안양으로 차를 몰았다.

연숙이의 제의로 오래간만에 맑은 휴일을 멋지게 놀아 보자는 것이었다. 그러기위해서 연숙이는 준비라도 했던 듯이 일부러 집에까지 들려서 간단한 취사도구와 쌀이랑 반찬이랑 싸들고 차에 실었다. 기왕이면 택시로 날려보자는 것이다.

정화와 진수는 그런 연숙이를 별로 탓하려고도 않았다. 그만한 여유 있는 환경임을 알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고 싶으면 하고야마는 성격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부리나케 서둘렀건만 안양에 도착한 것이 거반 두 시경이었다. 우선 거기서 차를 내린, 그들은 안양에서도 훨씬 골짜기께로 들어갔다. 풀과는 정반대방향으로 한참 들어가면 잉어도 낚을 수 있다는 넓고 깨끗한 모래로 깔린 물길이 있었다. 언제가 와본 적이 있는 듯 연숙이의 안내는 익숙하였다.

진수와 정화도 덩달아 좋아서 어서 밥을 지어먹자고 성화였다. 연숙이는 적당한 곳에 화덕을 만들면서 진수 보고는 나무를 해오라고 쫓아 보내고 정화에겐 쌀을 씻으라고 내주었다.

물이 어찌나 맑은지 그냥 엎드려 마시고 싶을 정도였다.

밥이 다 되기가 무섭게 그들은 몰려 앉아서 냄비 채 놓고 퍼먹었다. 그새 서너 시나 되었으니 배도 고팠었지만 보글보글한 양재기 끓인 국이랑 밥이랑 어쩜 그렇게도 맛이 있는지 그저 캬득캬득 어린아이같이 즐겁기만 했다.

그들은 한숨 들리자 물에 발을 담그고 노래를 불렀다. 사방을 둘러봐야 초가집 하나 없이 황당한 모래밭위에서 그들은 마음까지 활활 벗어젖히고 제멋대로 노래를 불렀다. 정화와 연숙이 진수 모두 찬송가를 합창해 부르기도 하고 연숙이가 '춘희'에 나오는 '축배'를 혼자 소리높이 부르기도 하였다.

긴긴 여름해도 짧기만 해서 그렇게 얼마 쉬지도 못했는데 어느새 돌아가야겠다고 애석해하는 참에 갑자기 주위가 확 어두워졌다. 참으로 순식간에 하늘은 성난 불도그같이 씩씩대더니 쫘악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들 셋은 후닥닥 걷어가지고 가까운 나무그늘로 피했으나 우르릉 탕탕거리는 천둥소리엔 등이 오싹오싹, 조여들었다.

비는 좀체 그치지 않았다. 지나가는 비려니 했으나 나무 밑에서도 온몸이 쪼르륵 젖어오도록 비는 줄기차게 쏟아지면서 좀체 그칠 것 같지 않았다.

그래도 진수만은 까딱하지 않고 제 웃옷을 벗어 연숙이와 정화의 어깨에 꼭꼭 감사주고 속샤쓰 바람으로 태연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후두둑 후두둑 나뭇가지 사이로 떨어지는 빗물에 가슴속까지 젖어들면서 이젠 제법 턱이 떡떡 마주친다. 정화와 연숙이는 오들오들 떨면서 두 팔로, 앞가슴을 가리고 있었다. 주위엔 줄기찬 비 때문에 뽀오얀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급격한 냇물 흐르는 소리와 천둥소리와 그리고 냇가에 서있는 상수리나무들의 미친 듯 휘젓는 음울한 소리뿐이었다.

그들은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꺼내 보았으나 점점 불안과 고독이 엄습해왔다. 지상에 오직 자기들밖에 남지 않은 듯한 공포와 고독감 속에서 헤어난다는 것은 지금의 그들에겐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졌다.

번개가 연거푸 두세 번 번쩍였다. 주위가 파랗게 질리도록 세찬 번개와 요란한 천둥소리에 기대어 선 나무가 뿌리로부터 쓸어질듯 흔들렸다.

연숙이가 먼저 흑 느끼면서 진수의 가슴에 매달렸다. 정화도 본능적으로 진수곁으로 바짝 다가섰다. 그러자 진수는 마치 바위와 같은 억센 젊음으로 그들 여인 어깨를 획 끌어당겨 가슴에 안았다. 너무도 호젓하고 절박한 가운데서 그들은 거의 무아무중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살과 살이 닿은 세 몸이 하나로 꼬옥 뭉쳐서 차차 체온의 따뜻한 교류를 느낄만큼 되자 정화가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진수의 가슴에서 몸을 매려고 했다. 진수가 팔을 놓지 않는다. 연숙이는 저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진수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은 채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정화는 살며시 눈을 들어, 진수를 올려다보았다. 진수가 더없이 부드러운 눈으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정화는 왜인지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글썽 고였다. 그런대로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진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진수는 눈을 감았다. 소리 없이 글썽대는 그 그리움으로 가득한 정화의 고운 눈 속에서 진수는 자기 자신의 하이야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했다.

크게 크게 뿌듯이 압박해오는 가슴을 안고 진수는 비로소 오랫동안 저버렸던 본래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 참회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진수는 이제 와서 이 가녀린 두 생명 중의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그러기에 그들 앞에서 떠나야 함을 알고 있다. 진수는 쓸쓸한 눈으로 먼 빗줄기 너머로 차츰 밝아오는 하늘 한 끝을 지키고 섰다

6

안양에서 돌아온 지 며칠 뒤, 그러니까 개학을 내일로 앞둔 날 저녁이었다. 질식할 것같이 조용한 P다방 한구석에서 정화와 진수가 침통한 얼굴로 마주 앉아 있었다. 커피가 다 식어버리도록 차 들 생각은 않고 둘이의 침묵은 계속되었다. 처음으로 둘만의 좌석이었으나 그들의 침묵이 깨어지지 않는 것은 그때문 만도 아니었다. 둘은 마치 싸움이라도 하고난 사람들같이 서로 상대방의 찻잔만 노려보다가 일어설 참이었다.

정화가 두어 번 눈을 깜박이더니 불쑥 입을 열었다.

"한번만 더 보여주세요."

진수는 말없이 무거운 손으로 편지를 내어주었다. 정화는 조용히 편지를 펼쳐 들었다.

"아무래도 저는 더 공부나 할까봅니다. 그래서 그 동안 팽개쳐두었던 도미(渡美) 수속을 다시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즐거웁던 생활, 모두 아름다운 추억으로 마음속에 곱게 접어두렵니다. 끝으로 저의 사랑하는 정화를 언제까지나 아껴주시기 저의 신실한 우정으로 축원하옵니다. 연숙"

정화는 호오 한숨을 내쉬면서 차곡차곡 접은 편지를 진수 앞으로 밀어놓았다. 반쯤 타다 남은 담배를 비벼 끄면서 진수는 정화를 바라보았다. 입술은 잘끈잘끈 씹으며 한동안 그림같이 앉아 있던 정화는 꼭꼭 맺히도록 차고 아픈 말끝을 맺으면서 일어섰다.

"절대로 안 될 말이예요. 연숙이를 그냥 보내선 안 되요. 제 얘기, 아시겠죠?"

진수는 정화의 그 쏘는 듯한, 그러면서도 금방 울어버릴 것 같은 눈을 바라보면서 당연한 선고를 받고 있는 죄수처럼 덤덤히 앉아있었다.

정화는 마지막으로 내일 아침에 잠깐 뵙고 싶다고 하고는 집까지 바라다 주겠다는 것을 마다하교 혼자 어둠속으로 걸어가는 것이었다.

이튿날 아침.

그는 거기 서 있었다. 순간 정화는 후닥닥 가슴이 뛰었다. 오오래 잊었던 소녀적인 감적을 안고 정화는 곧장 그의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옛날과 조금도 다름없이 그 단정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대로 자리가 잡히는 감이 두 가슴에 똑같이 울려왔다. 정화는 그의 앞에 오뚝 마주섰다. 그리고 소녀처럼 얼굴을 붉히면서 그 새빨간 표지로 곱게 장정된 하이네 시집을 내어밀었다.

"이 책, - 이 책을 드리고 싶었어요."

무척 낮으면서도 맑은 목소리로 정화는 한 마디 한 마디 똑똑 떼어서 힘주어 말하였다.

정화의 양쪽 볼이 발그레 상기가 되었다. 처음으로 지극한 만족하고 순연한 미소가 정화의 고운 얼굴을 적셔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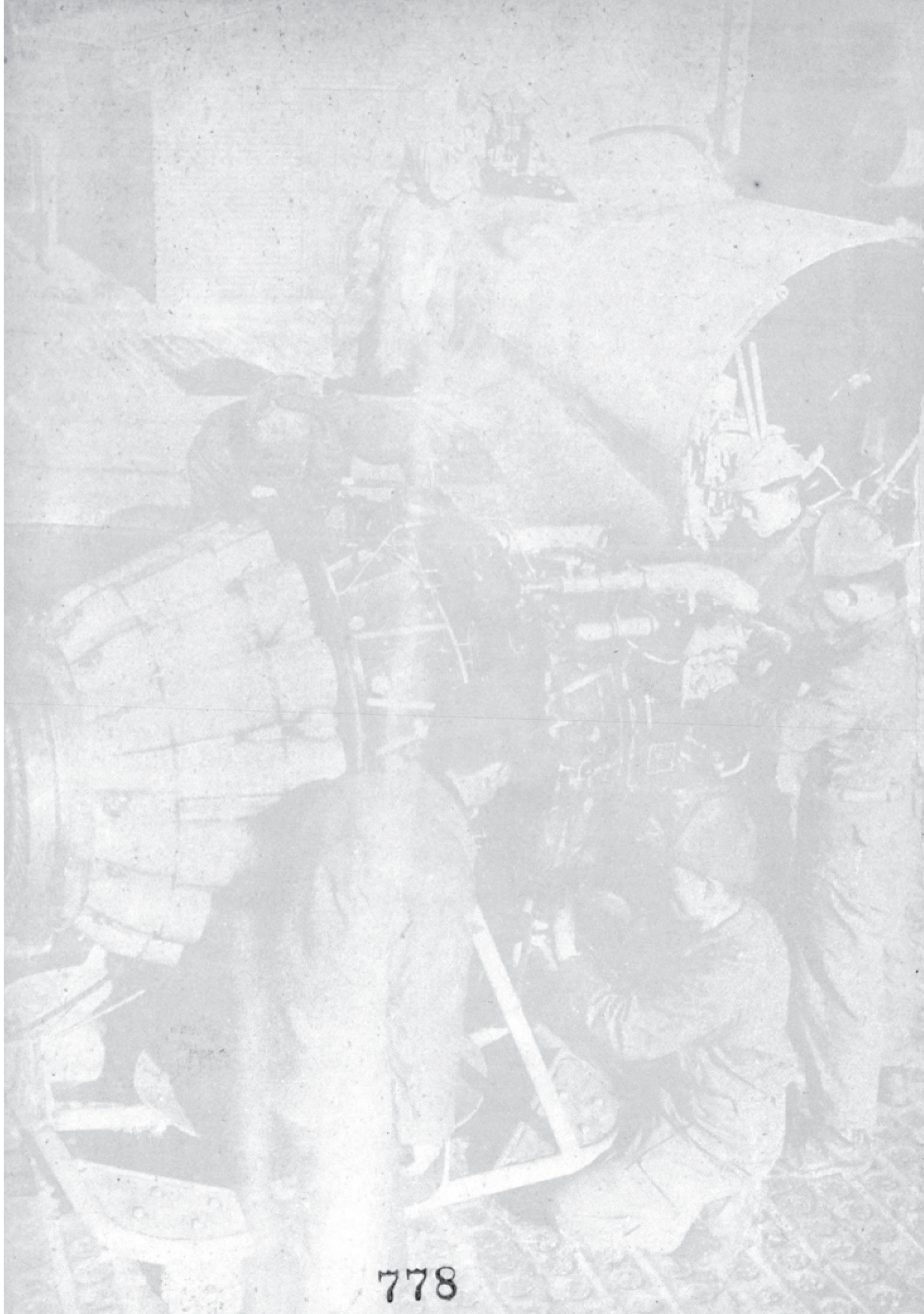
진수는 말없이 책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정화의 그 루주를 바르지 않은 윤곽이 또렷한 입술사이로 새어나오는 숨결에서 하이얀 마음, 눈(雪)같이 하이야 마음이 뜨겁게 뜨겁게 느껴졌다.

그들은 한동안 꼼짝 않고 그렇게 서 있었다. 그렇게 마주 서있는 그들 옆으로 파랗고 커다란 체구가 스르르 멎었다. 공군버스였다. 진수는 손을 내밀었다. 정화도 손을 내밀었다. 힘주어 꼭 맞잡은 손으로부터 온 몸이 후줄근히 젖어왔다. 그리고 똑같이 하이얀 마음으로 밝게 행복하게 웃었다.

진수는 버스에 올라탔다. 하늘빛으로 고운 공군버스는 소리도 없이 미련도 없이 슬슬 구르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저만치 달려가고 있었다.

정화는 그렇게 훌훌 가버리는 진수에게 마음속으로 손을 흔들었다. 다시는 돌아 올 수 없는 그를 위해서.

(1956. 2. 6)



코 메 트

발행처(發行處) 공군본부정훈감실(空軍本部政訓監室)
발행(發行) 겸(兼) 편집인(編集人) 공군중령(空軍中領) 이종승(李鍾勝)
인쇄처(印刷處) 공군본부고급부관실인쇄소(空軍本部高級副官室印刷所)
인쇄인(印刷人) 공군소령(空軍少領) 최지수(崔枝洙)

☆ 空軍本部政訓監室刊行物 ☆

코 메 트	發刊中
航 空	發刊中
공군위―클리	發刊中
가 라 사 대	發刊中
時 事 地 圖	發刊中
文 庫	近 刊
鷲報(보라매)	近 刊
政 訓 敎 程	近 刊

THE COMET

코메트
THE COMET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